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언어학박사 학위논문

솔론어 싱왕 방언의 특징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언어학전공
이 형 미

솔론어 싱왕 방언의 특징

지도교수 김 주 원

이 논문을 언어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이 형 미

이형미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7월

위 원 장 박 상 철

부위원장 고 동 호

위 원 송 재 목

위 원 고 성 연

위 원 김 주 원

국문초록

이 논문은 중국 흑룡강성의 싱왕 어웡키족향(興旺鄂溫克族鄉)에서 사용되는 솔론어 싱왕 방언의 특징을 다른 방언들과의 비교 대조를 통하여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솔론어는 중국에서 어웡키어라고 부르는 북부 퉁구스 언어로, 중국에서는 기존에 솔론어, 퉁구스어, 야쿠트어로 부르던 언어들을 통합하여 어웡키어의 삼대 방언이라고 부르고 있다. 중국에서 사용되는 방언 개념 및 러시아 지역에서 사용되는 Evenki어와 혼동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언어 명칭을 솔론어로 하고 싱왕, 호이, 둘라르, 사마지에 등 각 지역 방언을 그 하위 방언으로 칭하기로 한다.

2장에서는 솔론어의 각 방언과 그 방언 화자들의 역사적 배경, 사용 지역 및 언어 사용 상황 등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3장에서는 싱왕 방언의 음운론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싱왕 방언의 음운체계는 기본적으로 다른 방언과 비슷하지만, 다른 방언에서 o와 ʊ로 나타나는 음소가 싱왕 방언에서 각각 u와 ɔ/wa로 변한 예들을 볼 수 있었다. 제2음절 이하의 모음 약화와 모음조화의 약화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리고 *ʊ의 꺾임(breaking of *ʊ) 현상이 싱왕 방언과 둘라르 방언에서만 나타났는데, 이 현상과 일부 모음 음소의 변화는 다고르어에서 일어난 것과도 유사한 것이었다. 자음 관련 현상은 모음과 달리 k>x, č>s, 어중 자음군의 자음 동화가 다른 방언에 비해 일어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일어나서 대체로 싱왕 방언이 가장 고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싱왕 방언의 형태론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속격표지 -ŋ나 방향 관련 격표지, 인칭어미 -rti 등 싱왕 방언의 일부 문법

요소의 형태나 기능은 다른 방언에 비해 어웡키어와 더 가까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격표지나 인칭표지 등의 출현 조건이나 제약이 흐려져 문법이 다소 단순화한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5장에서는 통사적으로 상과 양태를 표현하는 보조동사 구문과 문장 형성에 관련된 부분을 일부 살펴보고, 특이 현상인 인칭 불일치 현상과 독특한 부정문 구성에 대해 논하였다. 솔론어의 보조동사 구문의 발달이나 싱왕 방언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부정문 구성은 언어 접촉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6장에서는 이상의 관찰과 분석을 정리하였다. 싱왕 방언은 다른 방언과 다른 독특한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다른 방언과의 차이점 중 일부는 어웡키어나 오로챈어 등과 유사한 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임을 밝혔다. 일부는 소수 언어들이 겪는 문법 쇠퇴의 과정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그 외에도 싱왕 방언의 특징 중에는 동계어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다른 계통의 언어에서 차용한 요소들도 많이 나타났는데, 특히 다고르어의 특징적인 현상과 유사한 여러 현상이 음운, 형태, 통사 전반에 걸쳐 눈에 띄었다.

주요어 : 솔론어, 어웡키어, 헤이룽장성, 싱왕, 너허, 방언, 문법, 음운
학 번 : 2007-30725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및 의의 ····· 1
1.2. 선행연구 ····· 4
1.3. 연구 방법 및 자료 ····· 6
1.4. 논의의 구성 ····· 12

2. 솔론어 개황 ····· 13

3. 음운론적 특징 ····· 19
3.1. 음운 체계 ····· 19
3.1.1. 모음 ····· 19
3.1.2. 자음 ····· 26
3.2. 음운 현상 ····· 31
3.2.1. 모음 관련 현상 ····· 31
3.2.1.1. 모음의 꺾임 현상 ····· 31
3.2.1.2. 모음조화 ····· 36
3.2.2. 자음 관련 현상 ····· 46
3.2.2.1. k의 유지 ····· 46
3.2.2.2. č의 유지 ····· 48

3.2.2.3. 자음동화 ····· 49

4. 형태론적 특징 ····· 59

4.1. 명사 ····· 61

4.1.1. 수 ····· 61

4.1.2. 격 ····· 66

4.1.2.1. 주격 ····· 66

4.1.2.2. 속격 ····· 69

4.1.2.3. 대격 ····· 78

4.1.2.4. 부사격 ····· 88

4.1.3. 인칭 ····· 106

4.1.4. 기타 어간 확장 접사 ····· 114

4.2. 형용사 ····· 115

4.3. 부사 ····· 121

4.4. 수사 ····· 123

4.5. 대명사 ····· 127

4.5.1. 인칭대명사 ····· 127

4.5.2. 지시대명사 ····· 138

4.5.3. 의문대명사 ····· 140

4.6. 동사 ····· 143

4.6.1. 태 ····· 143

4.6.1.1. 사동 ····· 143

4.6.1.2. 피동 ····· 145
4.6.1.3. 타동 ····· 146
4.6.1.4. 공동 ····· 148
4.6.1.5. 상호 ····· 150
4.6.2. 상 (진행상) ····· 150
4.6.3. 이동목적 ····· 152
4.6.4. 기타 동사 파생 ····· 153
4.6.5. 시제 및 서법 ····· 156
4.6.5.1. 명령원망법 ····· 156
4.6.5.2. 직설법 ····· 164
4.6.6. 형동사 ····· 171
4.6.6.1. 형동사 술어 ····· 171
4.6.6.2. 명사절 ····· 185
4.6.6.3. 형용사절 ····· 187
4.6.7. 부동사 ····· 190
4.6.7.1. 동일 주어 제약이 있는 부동사 ····· 190
4.6.7.2. 동일 주어 제약이 없는 부동사 ····· 198
4.7. 후치사 ····· 205
4.8. 첨사 ····· 210

5. 통사론적 특징 ····· 215
5.1. 보조동사 구문으로 표현되는 상과 양태 ····· 215

5.1.1. 상 ····· 216
5.1.1.1. -m bi- (진행 및 상태지속) ····· 216
5.1.1.2. -m man- (완결) ····· 223
5.1.2. 양태 ····· 227
5.1.2.1. -m ətə- (가능) ····· 228
5.1.2.2. -m ɔɔ- (허락) ····· 231
5.1.2.3. -m buu- (시혜) ····· 232
5.1.2.4. -m ičі- (시도) ····· 235
5.1.2.5. -m bak- ····· 237
5.2. 의문문 형성 ····· 242
5.3. 부정문 형성 ····· 246
5.4. 인칭 불일치 현상 ····· 255

6. 결론 ····· 265

참고문헌 ····· 268
Abstract ····· 275

표 목 차

[표 1] 솔론어 연구의 모음 표기 대조표 ····· 11
[표 2] 싱왕 방언 자료에 나타난 상향이중모음 ····· 30
[표 3] 방언 간 음운현상 비교 1 ····· 55
[표 4] 방언 간 음운현상 비교 2 ····· 56
[표 5] 퉁구스 언어들의 양도가능 접사 ····· 86
[표 6] 싱왕 방언 명사류의 인칭표지 ····· 107
[표 7] 싱왕 방언의 인칭대명사 ····· 127
[표 8] 세 방언의 인칭대명사 어간 ····· 131
[표 9] 싱왕 방언의 직설법 비과거 어미 ····· 164
[표 10] -čəə와 결합하는 인칭표지 ····· 172
[표 11] -ǰəə와 결합하는 인칭표지 ····· 175

그 림 목 차

[그림 1] 호이, 둘라르, 사마지에, 싱왕 방언의 사용지역 ····· 14
[그림 2] 넌강 유역의 싱왕, 둘라르, 사마지에 어웡키민족향 ····· 15

약어 목록 Abbreviation

1	first person
2	second person
3	third person
ABL	ablative
ACC	accusative
ADJ	adjective
ALL	allative
CAUS	causative
COND	conditional
CVB	converb
DAT	dative
DATL	dative-locative
DEL	delative
DIR	directional
ELAT	elative
EXCL	exclusive
FUT	future
GEN	genitive
IMP	imperative
INACC	indefinite accusative
INCL	inclusive
INDIR	indefinite directional
INF	infinitive
INS	instrumental
INT	interrogative

IPFV	imperfective
NEG	negation, negative
NMLZ	nominalizer/nominalization
NPST	nonpast
NFUT	nonfuture
PART	particle
PASS	passive
PL	plural
POSS	possessive
PRES	present
PROG	progressive
PROL	prolative
PROP	proprietive
PST	past
PTCP	participle
PURP	purposive
Q	question particle/marker
QUOT	quotative
RECP	reciprocal
REFL	reflexive
REL	relative
SG	singular
TR	transitive
VBLZ	verbalizer
VOL	volitive

보존용 학위논문 정오표

페이지	정정 전	정정 후
p. 60 각주 4), 5)	Tsumagari (2009:19)	Tsumagari (2009:10)
p. 62 : 13	(banan	(baran
p. 62 : 17	kumaza	kumaxa
p. 64 : 18	朝克(2017b:50)의	朝克(2017b:49-50)의
p. 67 : 24	[호이] - 칼리나(2019b:42)	[호이] - 칼리나(2019b:42, 43)
p. 72 : 20	nʉ-xʉn-bi	nʉxʉn-bi
p. 73 : 3	ʉldi-səə-∅	ʉldi-səə-∅.
p. 73 : 13	nenxi(<ni)-ni	nenxi(<n)-ni
p. 74 : 19	Tsumagari (2009:5)	Tsumagari (2009:11)
p. 74 : 23	bag	baggage
p. 74 : 23	book'과	book' (Tsumagari 2009:5)과
p. 86 표5	Udege	Udehe
p. 96 : 7	성백인 외(2010:131)	성백인 외(2010:131-132)
p. 119 : 6	朝克(2017:152)	朝克(2017b:152)
p. 144 : 9	風間伸次郎 (2018b:109)	風間伸次郎 (2018b:105)
p. 188 : 21	car-ACC-POSS	car-ACC-3POSS
p. 188 : 21	see-PST:1SG	see-PST.1SG
p. 189 : 2	letter--ACC-POSS	letter-ACC-3POSS
p. 189 : 2	go-CAUS-PST:1SG	go-CAUS-PST.1SG
p. 191 : 4	風間伸次郎(2015)	風間伸次郎(2015:215)
p. 207 : 12	such not not	such hot not
p. 212 : 13	Tsumagari (2009:15)에서는	Tsumagari (2009:14)에서는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지역에서 사용되는 솔론어[1] 중 흑룡강성의 싱왕 어웡키족향(興旺鄂溫克族鄉)에서[2] 사용되는 싱왕 방언의 특징을 다른 방언들과의 비교 대조를 통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먼저 이 연구의 목표와 한계에 대해 조금 더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솔론어 싱왕 방언은 절멸 위기의 언어이면서 지금까지 연구된 다른 방언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방언이지만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기술된 바 없는 언어이다. 따라서 이를 연구하고 기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그 궁극적인 연구 목표는 이 언어의 전모를 가능한 상세히 밝혀 기술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방언 자료와 연구 경험의 부족,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이번의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호이 방언 및 다른 방언들과의 비교 대조를 통하여 싱왕 방언만의 독특한 특징을 중점적으로 기술하는 것에 국한한다. 이 논문의 구성과 체계는 가능한 일반 언어학의 기술 문법의 형식을 갖추려고 노력하였으나, 그 내용은 한 언어의 완전한 기술 문법에는 이르지 못

---

1) 솔론어는 외국인 학자들이 붙인 전통적인 언어 명칭이며 이 언어의 화자들의 자칭은 어웡키이다. 언어 명칭에 있어서 언어 사용자들의 자칭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나, 어웡키라는 명칭이 현재 러시아와 중국에서 사용되는 여러 언어에 사용되고 있으며, 중국에서 통용되는 어웡키어 방언 분류와 이 연구에서 말하는 솔론어의 세부 방언의 개념이 다르므로 여러 언어와 방언을 함께 언급할 때에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언어 명칭을 따라 솔론어라고 부르겠다.

2) 어웡키족의 민족향은 각각의 지명에는 '어웡키민족향'으로 표기되기도 하고, '어웡키족향'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바이두 백과에 표기된 지명을 참조했다. (https://baike.baidu.com/item/%E9%84%82%E6%B8%A9%E5%85%8B%E6%97%8F)

했으며 논의의 초점도 다르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즉 이 연구에서는 차례에서 보이는 각각의 문법 범주나 표지와 관련된 특정 현상 및 특징을 꼽아 충분한 예시와 함께 밝혀 보이는 것에 목적을 두며, 각각의 문법 범주나 표지 등에 대한 총체적인 기술은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솔론어는 퉁구스 계통에 속하는 언어로, 중국에서는 어웡키어라고 부르지만 이는 러시아 지역에서 사용되는 어웡키어(Evenki)와는 다르다. 중국에서는 이전에 각각 솔론, 퉁구스, 야쿠트로 달리 불리고 있던 세 집단을 1957년에 통합하여 그들의 자칭인 어웡키로 부르고 있다. 2010년 조사 기준으로 중국 어웡키족의 인구는 30,875명이었으며 그중 어웡키어 화자는 2만 여명으로 나타났다.[3] 어웡키어 화자의 약 90%는 내몽고자치구 후룬베이얼(呼伦贝尔)시의 하이라얼(海拉尔)구 및 어웡키족자치기(鄂温克族自治旗)의 호이 수무(輝苏木)[4] 일대와 난툰(南屯), 바인차간(巴彦查岗), 이민(伊敏) 등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호이(輝)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이 언어에는 공식적인 문자가 없다.

여러 다른 만주퉁구스어파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솔론어는 절멸 위기에 처한 언어(Endangered Language)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구사할 수 있는 사람도 2만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다가,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들이 대개 그렇듯이 젊은 층으로 갈수록 중국어나 몽골어와 같은 우세 언어에 밀려 일상생활에서의 모어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 대도시에 나와 거주하는 일부 어린이들은 아예 솔론어를 말할 줄 모르는 경우도 있어, 이 언어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고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없이 세월이 흐르면 언어의 세대간 전승이 끊길 위험성이 있다.

Hale (1992) 등을 위시하여 그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절멸 위기에 처한 언어들을 기록하고 기술함으로써 언어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켜야

---

3) 바이두 백과 어웡키족 항목 참조.

4) 수무(苏木)라는 명칭은 몽골어 сум에서 차용한 것이며, 내몽고자치구 특유의 향(乡)급 행정구역이다. 민족향과 행정적 지위는 동일하며 내몽고자치구의 목축 지구에 분포되어 있다.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알타이 언어들 역시 터키어와 몽골어 몇 정도를 제외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대다수가 절멸위기에 처한 소수언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학자들은 90년대부터 이와 같은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와 한국알타이학회를 중심으로 최근인 2019년까지 많은 알타이 언어들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39개의 언어 및 방언 아카이브를 확보했다. 사라져가는 언어의 마지막 모습을 체계적인 질문지와 조사 방법으로 조사하여 가능한 한 고품질의 형식으로 보관해 두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수준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중 일부를 대상으로는 연구 논저가 발표되었지만 아직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언어도 많이 있다. 솔론어 싱왕 방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제대로 기술한 것이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솔론어, 특히 그중에서도 소수 방언에 속하는 싱왕 방언의 연구는 절멸 위기 언어의 기록과 기술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그동안은 급선 과제였던 사라져가는 언어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소수민족 언어의 기록 보존하는 것이 시급했다면, 이제는 그동안 모아 온 귀중한 알타이 언어 자료를 전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절멸 위기 언어 기록과 알타이 언어 연구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싱왕 방언은 음운, 문법, 어휘 등 여러 면에서 다른 솔론어 방언과도 차별되는 여러 특징을 보이므로, 다른 방언들과 함께 살펴 그 특징을 짚어 보고 방언 간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그간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던 싱왕 방언의 특징을 알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조의 과정에서 기존에 연구된 솔론어 방언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들은 곧 솔론어 전체, 나아가 퉁구스 언어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며, 문자 자료가 없고 기록물이 많지 않은 해당 연구 분야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방언에 대한 자료와 연구는 솔론어 및 퉁구스 언어의 지역언어학적, 유형론적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 선행연구

퉁구스 언어들을 대상으로 한 초기 연구는 서양의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어웡키어 역시 핀란드 언어학자 Castrén (1856)에 의해 거의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기술되었다. 솔론어를 기록한 초기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Ivanovskij (1894)는 부트하(布特哈)와 머르건(墨尔根), 마네기르 지역의 화자로부터[5] 조사한 솔론어를 다고르어와 함께 기록했다. 이 중 솔론어 부분은 어휘 목록과 25개의 간단한 문장이 수록되어 있다.

Poppe (1931)는 하이라얼 및 호이 지역의 솔론어를 다루고 있다. 더 많은 단어와 텍스트 자료를 수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음운, 문법, 어휘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서 사용되는 옹코르 솔론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Ramstedt (1976–1977)와 Muromski의 솔론어 연구(Kałużyński (1971)에 수록)가 있다.

1900년대 후반부터는 중국학자들에 의해서도 솔론어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초기 솔론어 연구로 胡增益·朝克(1986)가 있으며, 이후 90년대부터 최근까지 어웡키족 출신 학자에 의해 여러 논저가 발표되었다(朝克 1995, 2003, 2009, 2017a, 2017b 등). 또한 일본 학계와의 교류도 이루어져 朝克·津曲敏郎·風間伸次郎(1991), 朝克·津曲敏郎(1995, 1997), 朝克·中嶋幹起(2005)와 같은 공저가 출판되기도 하였다. 칼리나(卡麗娜)는 어웡키족 출신이며 한국에서 박사학위논문(2019b)을 비롯

---

5) 자료제공인(consultant)에는 머르건 지역의 다고르인과 만주인 화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부트하와 머르건은 모두 넌강(嫩江) 유역에 위치하고 있어 사마지에, 둘라르, 싱왕 방언과 비교적 가까운 지역이다. 제2장 참조.

하여 한국어로 여러 논문들을(칼리나 2015, 2019a, 2021) 발표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본격적인 연구는 호이 방언을 대상으로 하는데, 涂吉昌·涂芊玫(1999)의 『鄂温克语汉语对照词汇』는 흑룡강성에서 사용되는 솔론어 어휘를 수록하고 있어서 싱왕 방언 연구에 참고가 된다.

한편 일본의 학자들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90년대부터 중국의 솔론어 화자와 교류하며 자료 수집과 분석을 해 왔으며, 津曲敏郎(2009), 風間伸次郎(2005) 등의 문법 개요를 비롯하여 다양한 논저가 발표되었다. 특히 風間伸次郎(2018c) 등과 같은 언어문화 텍스트 대역 자료, 어휘집(風間伸次郎·トヤー(2011)) 외에도 개별 문법 현상에 대한 솔론어 연구(風間伸次郎 2013, 2014, 2015, 2016 등)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風間伸次郎(2018a, 2020) 등 솔론어를 포함한 퉁구스 언어의 유형론적 연구 및 白尚燁(2018)과 같은 지역언어학적 연구도 이루어졌다.

중국 학자들과 일본 학자들에 의해 솔론어가 연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솔론어 자료와 연구 결과물은 이전에 비해 자료의 양이나 내용 면에서 모두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다만 이 연구들은 주로 호이 방언을 중심으로 다룬 것들이었다. 朝克 등 중국 학자들은 기존에 따로따로 부르던 언어들을 현재 중국 어웡키어(鄂温克语)의 삼대 방언으로 기술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화자가 사용하는 중심적인 방언은 호이 방언(솔론어)이며, 이것은 호이 지역 및 그 부근에서 사용되는 언어로써 대표되기 때문에 솔론어 연구는 주로 호이 지역 방언 위주로 이루어졌다. 일본 학자들의 솔론어 연구 역시 마찬가지로 주로 호이 및 부근의 이민 지역 화자들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한편 한국에서 솔론어를 다룬 초기 연구로는 김주원(1985, 1989, 1993), 김방한 외(1986) 등이 있다. 당시에는 개인이 중국을 직접 드나들며 현지 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시대였으므로 기존에 출판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연구였다. 1990년대 말부터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와 한국 알타이

학회를 중심으로 직접 조사해 온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알타이 언어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3~2013년 사이에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더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현지 조사가 이루어졌다.[6] 이 시기에는 그간의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제적인 지원에 힘입어 기록물의 내용이나 양, 음질 면에서 전보다 비약적으로 발전된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더 다양한 언어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사 자료들 중 솔론어 자료는 사마지에(薩馬街), 둘라르(杜拉尔), 싱왕 방언 등, 기존에 호이 방언에 비해 별로 연구되지 않았던 다양한 방언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한 것들이다. 이 중 사마지에 방언 자료를 대상으로는 권재일·김주원(2000), 권재일(2001), 성백인 외(2010) 등의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둘라르 방언과 사마지에 방언을 호이 방언과 함께 다룬 것으로 김주원·고동호(2004)가 있다.

솔론어 현지조사 자료 중에서 싱왕 방언 자료에 대해서만은 아직 기술된 바가 없다. 솔론어 연구사를 통틀어 내몽골에서 사용되는 솔론어에 비해 흑룡강성에서 사용되는 솔론어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며, 위에서 언급한 어휘집인 涂吉昌·涂芊玫(1999)도 희귀 자료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언어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1.3. 연구 방법 및 자료

이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알타이 언어 아카이브 중에서 2009년에 조사된 솔론어 싱왕 방언 음성자료를 주 대상으로 전사와 분석, 기술을 실시한다. 싱왕 방언의 음성 자료는 직접 전사하여 이용하며, 다른 방언 자료와의 비교 대조를 통하여 싱왕 방언의 음

6) 한국에서의 알타이 언어 연구 역사와 현황, 연구 업적 등에 대해서는 김주원(2021) 참조.

운 및 문법 특징을 기술한다. 비교 대조할 방언들은 호이 방언, 사마지에 방언, 둘라르 방언 등 기존에 연구 결과가 출판되어 있는 방언들이다. 주로 이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싱왕 방언 자료

서울대학교 현지조사팀이 조사한 음성 녹음 자료를 직접 전사하여 이용하였다. 음성 자료 정보는 다음과 같다.

조사 장소 및 시간: 2009년 8. 16~23[7]
흑룡강성 너허시(納河市) 싱왕 어웡키족향(兴旺鄂温克族乡)
자료제공인: 아오싱화(敖星花), 조사 당시 73세 여성, 어웡키인
원래 내몽골의 大楊樹 출신이며 18세 전후로 결혼하여 솔론촌으로 이주하였으며, 언어감각이 탁월함[8]
조사자: 김주원(전사, 진행, 총괄), 박상철(AUDIO, VIDEO), 김혜(질문), 칼리나(질문, 호이 방언 화자)
조사 내용: 어휘 1010개[9], 기초회화 344개, 문법 379개 문장
질문지:『言語調査質問紙(中國 地域用)』2008 중국어 제4판 수정8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제작/Altai Real Project 팀 수정
한국알타이학회/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발행
자료 형식: 약1시간 분량의 음성파일 20개, 16bit, 48kHz, Stereo (1채널: 자료제공인 음성, 2채널: 질문자 음성)
녹음기기: Sound Device 722 디지털 녹음기, 자료제공인 마이크는 헤드셋 마이크 형태의 AKG C420, 질문자는 따로 핀마이크 형태의 오디오테크니카

---

7) 실제 녹음은 8월 18일에서 22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언어 사용지역까지 직접 오가는 데 편도 하루에서 이틀씩 걸렸다.

8) 당시 73세의 남성 어웡키족 涂纬新옹을 자료제공인으로 하여 어휘와 문법 질문지 중 일부만 조사한 추가 자료가 있으나, 귀가 어두워 원활한 소통이 어려우며 지병으로 말이 어둔하고 숨소리가 거칠어서 자료제공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하루만 조사했다. 이 자료는 참고 자료로만 이용하였다.

9) 질문지는 전체 2787개 어휘로 이루어져 있으나, 시간 관계상 일부만 조사한 것이다. 이는 조사한 항목의 개수이며, 질문에 대하여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나 둘 이상의 답이 나오는 경우,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한 경우가 있으므로 조사된 답변의 수와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회화나 문법 항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AT831b를 사용

[2] 호이 방언(하이라얼 방언) 자료

호이 방언은 津曲敏郎(1993), 朝克·津曲敏郎(1995), 朝克·津曲敏郎(1997), 風間伸次郎(1998), 風間伸次郎・トヤー(2011), Kazama (2003) 등 다양한 어휘집이 있어 두루 참고하였으며, 본문의 표 등에 주로 인용한 어휘 예는 주로 다음 두 자료에서 인용하였다 (이후 각각 <간지>와 <어한사전>으로 약칭한다.)

胡增益·朝克(1986),『鄂温克语简志』, 北京: 民族出版社.

杜 · 道尔基(編著)(1998),『鄂汉词典』, 海拉尔:内蒙古文化出版社.

문장 예는 주로 칼리나(2019b)에서 인용하였으며, 문법 현상과 관련된 예는 Tsumagari (2009), 風間伸次郎(2018b) 등 기타 자료에서도 일부 인용하였다. 그밖에 2019년 중국 내몽고자치구의 어웡키족자치기에서 개인적으로 조사한 호이 방언 자료를 일부 참고하였다.[10]

[3] 사마지에 방언 자료[11]

사마지에 방언의 기술 및 단어와 문장 예는 거의 대부분 아래의 논저를 인용하였으며, 부분적으로 권재일(2001)의 예문도 인용하였다.

권재일·김주원(2000),「퉁구스어의 음운구조와 문법구조 연구」,『알타이학보』 10, 1-56, 알타이학회. (부록으로 어휘 목록 음성전사 포함)

---

10) 2019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중국 내몽고자치구 어웡키자치기의 난툰에 머물면서 수집한 자료이나, 자료제공인의 모어가 몽골어이고 통역을 대동하여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자료의 선별과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번 연구에서는 주 자료로 이용하지 않고 참고로만 이용하였다.

11) 1999년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출판된 연구결과들이다. 자료제공인은 조사 당시 72세의 하허르(잘란툰시 사마지에 어웡키 민족향 출생)옹이다.

성백인·김주원·고동호·권재일(2010), 『중국의 다구르어와 어웡키어의 문법·어휘 연구』, 아카넷. (부록으로 회화 전사 포함)

[4] 둘라르 방언 자료[12)]

둘라르 방언의 어휘 예는 다음의 논문의 것을 인용하였다.

김주원·고동호. 2004. 어웡키어의 자음동화 현상 연구. 언어학 38, 67-88.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본문의 표 등에 인용한 단어들의 출처는 기본적으로 모두 위에 제시한 출판 논저들이다. 음성 전사, 음운 전사의 표기 및 분석은 원칙적으로 원문의 것을 그대로 옮겨 왔다.

사마지에와 둘라르 방언의 경우 219문항의 회화 음성 자료를 직접 들어볼 수 있었는데,[13)] 이들 음성자료에서 직접 확인하고 전사하여 예를 보충한 경우에는 출판 자료에서 인용한 단어 표 등에 함께 넣지 않고 따로 제시하거나 해당 부분의 출처를 따로 표시하였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호이 방언과 다른 방언은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양에 차이가 있다. 호이 방언을 제외하고 직접 현지조사를 통하여 조사한 사마지에, 둘라르, 싱왕 방언은 자료나 관련 연구의 양은 호이 방언에 비해 많이 부족하지만, 자체 제작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하는 문법 표현을 포함한 문장으로 표적 조사가 이루어졌고, 통일된 질문지를 통하여 방언별로 같은 대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극복할 만한 이점이 있다. 다만 비교적 초기에 조사된 언어들이기 때문에 질문지가 확립되어가는 과도기에 조사가 이루어져 질문지의 내용과 양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며, 자

12) 둘라르 어웡키어는 2000년 8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조사되었으며, 주 자료제공인 아오푸진(敖福金, 당시 45세) 씨의 어웡키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13) 이 연구가 가능하도록 중요한 조사 업적을 남겨 주신 싱왕 방언 현지조사팀, 그리고 싱왕 방언 자료 및 사마지에와 둘라르 회화 녹음 자료와 참고 전사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김주원 선생님과 고동호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료제공인의 언어 구사능력과 적극성, 시간의 한계 등에 따라 질문지의 내용 전부를 조사할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사 내용의 공백도 존재한다. 질문지는 어휘, 문법, 회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둘라르 방언의 경우 문법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위의 언어들의 원 자료인 녹음자료는 해당 지역 출신의 솔론어 화자 자료제공인들에게 질문지를 바탕으로 중국어로 질문하여 녹음한 것으로, 그 자료제공인이 그 지역의 전체를 대표하는 가장 표준적인 방언형을 구사하는지, 개인 방언의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또한 중국어 질문지를 통한 조사이기 때문에 자유발화 자료와는 다른 한계점을 지니며 중국어의 특징이나 개인 방언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에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 출신지역의 자료제공인들이 사용하는 솔론어에서 각 방언들간의 체계적이고 유의미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자료제공인들의 언어가 그 방언의 중요한 특징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충분히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며, 이 작업이 선행된 후에야 각 방언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방언간의 관계를 밝히는 작업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 연구와 여기에서 이용한 출판 자료들의 표기 체계에 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모음 체계는 자료마다 음소 설정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음운체계를 설정했더라도 같은 기호가 각각의 자료에서 다른 음소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 혼란의 여지가 있다. 싱왕 방언의 표기는 사마지에 방언[14] 및 여러 호이 방언 연구 자료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표기체계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표기체계이며, 그밖에 본 연구에서 주로 호이 방언의 예문을 인용하는 <어

14) 사마지에 방언의 경우 권재일·김주원(2000) 부록의 음성 전사는 논외로 하고, 김주원·고동호(2004)와 성백인 외(2010)의 음소 전사는 자음 음소 설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모음은 권재일·김주원(2000)에서 설정한 8모음 체계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둘라르 방언은 유일한 출판 자료인 김주원·고동호(2004)에 음소 체계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

한사전>, <간지>, 칼리나(2019b) 등의 표기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된다.

발음기호[15]	싱왕	<어한사전>	<간지>	칼리나(2019b)	Tsumagari (2009)
i	i	i	i, ɪ	i	i
e	e	ē	ɛ, ee, EE,	e	ɛ
ə	ə	e	ə	ə	e
a	a	a	a	a	a
ɔ	ɔ	ɵ	ɔ	o	o
ɵ	o	v	o	ɵ	ö
o, ʊ	ʊ	o	ʊ	u	u
u	u	u	u	ʉ	ü

표 1 솔론어 연구의 모음 표기 대조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자료에서 예를 발췌하여 인용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원전의 표기를 그대로 옮겼다. 그런데 특히 혼란을 야기하기 쉬운 후설 모음 부분에 있어서 <어한사전>의 표기는 일반적으로 다른 음소를 나타내는 표기로 사용되는 ɵ와 o가 전혀 다른 음소를 나타낸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다행히 <어한사전>에서 설정한 8개의 모음 음소가 이 연구에서 설정한 싱왕 방언 등의 음소 체계와 일치하고, 발음기호가 있어 전사 태도 차이에 의한 오해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1:1로 변환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 <어한사전>에 등재된 단어를 인용할 때에 한하여 이 연구에서 싱왕 방언의 전사에 사용하는 문자로 변환하여 옮겼다. 자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1:1로 치환할 수 있는 전사체계이므로 h를 x로, j를 ǰ로, q를 č로, y를 j로, ng를 ŋ로 바꾸어 적었다. (사전에서 x가 다른 음소에 쓰이지만 소수의 중국어 차용어의 [ʃ]의 전사에만 쓰이므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사전에는 표제어의 n말

15) 정확한 IPA 기호의 발음과는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해당 음소와 함께 제시되는 발음기호들을 적었다.

음과 ng말음을 구분하고, 문자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g와 ḡ[ɣ]를 구분하여 등재한 경우가 있어, 필요에 따라 역시 구분하여 적었다.

자음에 있어서 칼리나(2019b)와 Tsumagari (2009)는 /č/를 c로, /ǰ/를 j로, 반자음 /j/을 y로 적는 점 외에는 기본적으로 이 연구의 표기와 똑같다. <간지>는 /ǰ/를 dʒ로 적고, [s, ʃ]를 ʃ로 적는다. 그리고 /č/와 /k/를 음소로 인정하지 않고 각각 ʃʃ(또는 Cʃ)와 xx(또는 Cx)로 적는다.

1.4. 논의의 구성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이하의 논의 전개에 앞서 솔론어와 그 방언에 대한 개념과 용어 및 방언사용 상황, 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 배경 등에 대해 다룬다. 제3장에서는 싱왕 방언의 음운체계와 음운론적 특징을 기술하며, 다른 방언과 비교 대조하여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형태론적 특징을 기술하며, 다른 방언과 비교 대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점들에 대해 논의한다. 5장에서는 통사적으로 표현되는 문법 범주 및 문장 구성과 관련된 특징을 다룬다. 결론인 제6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남은 과제를 제시한다.

2. 솔론어 개황

솔론어가 속한 만주-퉁구스 어파에는 11개 내외의 언어가 있으며,[1] 이 언어들은 러시아의 동시베리아와 중국의 동북 지방, 신장·위구르 자치구 등에 분포한다. 이 중 만주어와 시버어를 제외한 퉁구스 언어는 크게 북부어군(어원어, 어웡키어, 솔론어, 네기달어)과 남부어군(나나이어, 윌타어, 울치어, 우디허어, 오로치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부 언어는 러시아 지역에서 사용되는 방언과 중국지역에서 사용되는 방언이 있는데, 중국 지역의 방언을 별개의 언어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Whaley et al. (1999)에서는 어웡키어의 방언으로 취급하던 오로챈어를, 風間伸次郎(1996)에서는 나나이어의 방언으로 취급하던 허전어를 독립된 언어로 보고 있다.[2]

한편 중국에서는 앞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솔론, 퉁구스, 야쿠트로 불리던 이들을 한 데 묶고 이들의 언어를 어웡키어의 삼대 방언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것은 화자들의 자칭을 기준으로 묶은 것이고, 원래 서로 다른 언어 집단이기 때문에 언어 명칭의 통일과 '방언'이라는 용어가 친연관계의 멀고 가까움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3] 결국 러시아에서는 Evenki로, 중국에서는 鄂温克(ewenke)로 표기하고 발음하는 이 '어웡키'라는 명칭은 러시아 지역에서 사용되는 어웡키어, 중국 지역에서 사용되는 오로챈어, 솔론어, 퉁구스어, 야쿠트에서 온 어웡키인들의 언어, 이렇게 다섯 가지 언어 집단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

1) 이는 언어와 방언을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언어 명칭이나 표기 또한 다양하다. Whaley et el. (1999)에서 퉁구스 언어 분류에 관련된 문제와 연구사를 다루고 있어 참고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김주원 외(2008)의 분류와 명칭을 따르되 필요에 따라 일부 다른 연구도 참고하였다.

2) 이 연구에서도 각각 오로챈어, 허전어로 부르기로 한다.

3) 야쿠트 어웡키인들은 원래 튀르크계인 야쿠트인들과 같은 지역에서 살며 순록을 기르던 이들이다. 風間伸次郎(2018b:102)는 퉁구스 어웡키와 야쿠트 어웡키는 언어학적으로는 러시아 지역에 분포하는 어웡키어의 방언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솔론어는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주요 사용지역의 지명을 따라 호이 방언 혹은 하이라얼 방언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좁은 의미에서의 솔론어는 호이 방언과 같은 뜻으로도 사용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말하는 솔론어는 원래 솔론어로 부르던 언어를 의미하는 넓은 의미의 솔론어로, 호이 일대에서 사용되는 방언은 물론이고 싱왕, 사마지에 등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는 솔론어 방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물론 중국에서 사용되는 삼대 방언이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야쿠트 어웡키어', '퉁구스 어웡키어'는 솔론어 방언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림 1 호이, 둘라르, 사마지에, 싱왕 방언의 사용지역

이 연구에서 살펴볼 솔론어의 방언 중에서 호이 방언을 제외한 사마지에, 둘라르, 싱왕 방언의 사용지역은 모두 넌강(嫩江)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그림 1, 2). 싱왕 어웡키족향(兴旺鄂温克族乡)은 넌강의 동쪽 강안에 자리잡고 있으며, 둘라르 어웡키민족향(杜拉尔鄂温克民族乡)은 넌강의 서쪽 지류인 누오민강 유역에, 사마지에 어웡키민족향은 그보다 남쪽

에 위치한 지류인 얄루강(雅魯河)에서 다시 갈라져 나온 지친강(济沁江) 유역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솔론어의 가장 중심적인 방언으로 취급되는 호이 방언의 사용지역은 이들에 비해 서쪽으로 동떨어져 있다. 호이 방언의 주 사용지역인 후룬베이얼시 하이라얼 구 일대와 그 남쪽의 어웡키족자치기는 러시아와의 국경선 서쪽 끝과 몽골 국경선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2 넌강 유역의 싱왕, 둘라르, 사마지에 어웡키민족향

이 방언의 화자들이 이렇게 현재의 지역에 흩어져 정착하게 된 배경에는 소수민족들의 이주의 역사가 있다. 권재일·김주원(2000) 및 김주원·고동호(2004)에 자세한 경위가 기술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옮기자면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웡키인들은 원래 주로 현재의 러시아 땅인 흑룡강 중·상류 이북 지역에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

되는데, 17세기 중반 러시아 군대가 이 지역의 소수민족 마을을 침략하자 오로챈, 다고르, 어웡키 등 그곳에 살던 소수민족들은 남쪽으로 피난하여 넌강 유역으로 이주해 오게 되었다. 특히 1644년부터 1667년 사이에 많은 소수민족들이 넘어왔는데, 청나라는 러시아를 의식한 정책의 일환으로 헤이룽강(黑龙江) 이북의 어웡키인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을 넌강의 지류인 얄루강 유역의 부트하(布特哈) 지방(지금의 잘란툰)으로 이주시켜 수렵민 부락을 만들었으며 이들이 바로 솔론부(索倫部)이다. 즉 싱왕 어웡키족향과 둘라르 어웡키민족향 등에 사는 어웡키인들은 이때 이곳에 와서 자리잡게 된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후 사마지에 어웡키인들과 하이라얼 어웡키인들은 한 번 더 이동을 하게 된다. 청나라는 1731년 부트하 지방으로 이주시켰던 소수민족들을 팔기(八旗)에 편입시켰고, 그 다음 해에는 러시아의 동진에 대항하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오늘날의 하이라얼 일대로 이주시켰다. 그 중 1,636명이 어웡키인이었으며 어웡키인 가족 796명도 같이 갔다.[4] 그 후손들이 하이라얼 일대에 정착하여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사마지에 어웡키민족향(萨马街鄂温克民族乡)의 어웡키인들의 선조들은 원래 위에서 언급한 대로 얄루강 일대에 이주해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1901년에 얄루강을 따라 철로가 개통되고 이 일대로 한인들이 많이 이주해 오면서 야생동물과 물고기가 점차 줄어들게 되자 이 지역에서 수렵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어웡키인들이 지친강 중류로 이주하여 살게 된 것이다. 이때 300여 명의 어웡키인들이 이주하였는데 그 중심이 된 사마기르 씨의 이름을 따서 마을 이름이 사마지에가 되었다.[5]

어웡키인들은 공통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다고르인, 오로챈인, 몽골인 등과 어울려 살았다. 현재에도 둘라르 어웡키민족향은 모린다와 다고르자치기(莫力达瓦达斡尔族自治旗/Морин-даваа)의 안에 있고, 싱왕 어웡

---

4) 그외 다고르인 730명, 오로챈인 359명, 바르후 몽골인 275명도 함께 이동했다.

5) 사마지에 어웡키민족향은 1984년에 건립되었으며 원래는 부트하 기(布特哈旗)로 불렀었다.

키족향은 넌강을 사이에 두고 둘라르 민족향을 마주보고 있으며 주변에는 오로챈 등 소수민족 마을이 가까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20세기에 들어서는 한인(漢人)들과 많이 접촉하게 되어 이들의 언어에 많은 차용어가 유입되게 되었다. 또한 대부분이 내몽고자치구에 속해 있으므로 몽골어의 영향 또한 많이 받았다. 자신의 언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세대의 소수민족도 대부분 우세 언어인 한어와 몽골어를 함께 사용하며, 여러 소수 민족끼리 어울려 살면서 서로의 언어를 많이 접하며 살아가고 있다.

싱왕 방언의 상황 및 화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2009년 싱왕 방언을 조사한 현지조사팀의 조사 정보 기록에 따르면, 싱왕 지역은 흑룡강성에서 유일한 어웡키족의 집거지이며 6개의 자연 부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싱왕향(鄉)과 솔론촌(索倫村)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조사 당시 기준으로 대체로 500명 정도의 어웡키인이 있는데, 60대 이상의 화자는 솔론어가 매우 유창하지만 40세 이하의 어웡키인은 언어구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한다. 그 이유 중의 하나로 당시 40대부터가 한어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된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싱왕 향을 직접 방문하여 언어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경위와 정황을 묘사한 김주원(2010)에 의하면 39세의 화자는 매우 쉬운 단어 외에는 자신 있게 답하지 못했으며 문장 수준의 솔론어는 정확하게 구사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연구의 자료제공인인 73세 어웡키인 할머니는 발음도 정확하고 언어 감각이 탁월한 아주 좋은 자료제공인이었으나, 가족 모두 한어를 사용하여 생활하며, 그만큼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이 10명을 넘지 못한다고 하였다. 모두 2009년의 기록이므로,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은 솔론어 사용 상황이 더욱 좋지 않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3. 음운론적 특징

3.1. 음운 체계

3.1.1. 모음

솔론어는 가장 연구가 많이 된 호이 방언에 대해서도 학자마다 모음 음소 설정에 대해 약간씩의 이견이 있다. 대략적으로 단모음 기준으로 i, e, a, ə, ɔ, o, ʊ, u의 8개의 모음이 공통적으로 음소로서 논의되며 이에 상응하는 장모음이 있다고 본다.

<간지>, 風間伸次郎(2018b) 등 논저에 따라 [-RTR] 모음인 i와 이에 대응하는 [+RTR]의 ɪ를 따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단모음 e와 o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간지> 등은 단모음 e가 없고 장모음 ee만 존재한다고 보고 있으며,[1] 출현 예가 많지 않은 o는 괄호에 넣어 표시한 風間伸次郎(2018b)와 같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Tsumagari (2009)와 같이 모음을 8개로 설정했을 때 a, ɔ, ʊ는 [+RTR], ə, o, u은 [-RTR] 모음이며 [+RTR]과 [-RTR] 모음들과 모두 어울릴 수 있는 i, e[2]가 있다. 잠정적으로 판단을 보류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싱왕 방언의 모음도 기본적으로 다음의 8개와 그에 상응하는 장모음을 가지는

---

[1] <간지>의 체계에도 전설평순중모음에 해당하는 단모음이 있기는 하다. 전설평순중모음으로 ee, EE, εε를 설정했는데, 이중에 ε만이 단모음으로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2] Tsumagari (2009)에서는 [ə]에 e 표기를 할당하므로 ε[e~ε]로 표기한다.

것으로 본다.

[+RTR]	a, ɔ, ʊ	
		i, e
[-RTR]	ə, (o), u	

호이 방언과 마찬가지로 싱왕 방언에서도 장모음과 단모음이 대립된다 (buu-čəə 주었다 ; bu-čəə 죽었다, akin 형 ; aakin 간). 그러나 실제 발화상에서는 여러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데, 문장에서의 위치, 결합하는 형태소, 목록을 읽거나 강조해서 말하는 등의 어조, 감정 표현, 문장 반복 등등 여러 가지가 작용하여, 바로 이어 발음하는데도 발음할 때마다 모음의 높이나 길이가 달라지기도 한다. 같은 단어를 여러 환경에서 발음했을 경우에는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장모음으로 발음해도 실제로 해당 단어의 기저형이 가지고 있는 장음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장음표기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겠다. 싱왕 방언에서는 제2음절 이하에서 모음이 [ɨ, ə]에 가깝게 약화되거나 탈락되는 일이 잦으므로 다음에서 제 1음절에 각 음소가 단모음과 장모음으로 나타난 어휘의 예를 들고 음소와 변이음에 대해 기술하겠다.

/i/ [i, ɪ, e]

ači- 보다, bitəg 책
tiinu 어제 giičən 노루

/i/는 전설평순고모음이다. [ɪ]는 주로 [+RTR] 모음들과 어울려 나타나기는 하지만, 단순히 i가 약화된 결과로도 나타나며, 편하게 발음할 때 [ɪ]로 발음했던 것을 또박또박 의식적으로 발음할 때에는 [i]로 발음하는

등의 예로 보아 수의적으로 발음되는 변이음으로 판단하였다. 또 문장 말미에서 i로 끝나는 문법 형태들은 [ɪ~e]로 발음되기도 한다.[3)]

/e/ [e/ɛ]

jesike (등, 견갑: esixi <어한사전>), ǰebi (배: ʤewe (津曲1993))
seeŋ (귀: ʃEEn <간지>), ǰee-čaa (숨겼다: ʤagiraŋ (津曲1993))

/e/는 전설평순중고모음이다. 대개 선행하는 자음을 구개음화시키는데, 장모음 ee는 이중모음 [je]와 같이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e는 통시적으로 보면 2차적으로 발달한 모음이기 때문에[4)] 음성적으로 실현이 되더라도 다른 방언 자료를 참고하여 다른 음소로 전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아래에 예를 든 dekəm을 dakim으로 적는 등), 공시적으로 다른 모음이 주변의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변한 변이음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ʤeʁa] ← /ǰiga/). 또한 단모음 e가 어두에서 발음되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e를 독립된 음소가 아니라 변이음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jesike (<어한사전> esixi 견갑) 등의 je가 제1음절에서 ji/ii 또는 ja와 분명히 구분된다는 점, 그리고 kurekən ‘사위’ (<어한사전> xurəxəŋ, <간지> xurəxən)등 다른 자료에서도 원래의 모음이 i나 a였다는 증거를 얻을 수 없는 어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e/를 음소로 인정하기로 한다.

/e/라는 음소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예를 들어 ‘다음에, 또’에 해당하는 dekəm과 같은 어휘는 호이 방언에서 daxin인 점을 참고하여 dakim 정도로 적을 수도 있으나, 이 어휘가 싱왕 방언에서는 dakim이라고 발음된 적이 없고, dakim이라고 적었을 때 akin ‘형’, dali ‘바다’ 등 제1음절이

3) 즉 이 연구에서는 문말에서 i~e로 발음되는 문법형태들을 칼리나(2019b:22)에서와 같이 하나의 형태소의 변이음인 것으로 본다.
4) 김주원(1996) 참조.

뚜렷한 [a]로 발음되는 어휘들과 차이가 나는 이유나 변화 여부를 dakim만 보고서는 예측할 수 없다. 또 e 대신에 ai를 써서 daikəm~daikim으로 적는다면 [aj]로 발음되는 daibə '뚜껑', aixʊn '잘' aidar '수사슴'의 실현형과의 차이를 어간 내부에서 공시적으로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예문들의 자료적인 측면도 두루 고려하여 [e~ɛ]로 실현되는 소리 중 일부를 e 음소로 간주하여 적겠다.[5)]

/ə/ [ə, ʌ, ɨ]

əmə-rən 오다, əsi 지금, gərbi 이름,
əəm 약, kəəkə고양이, nəə-rən 두다

/ə/는 전설평순중모음이지만 IPA나 영어의 [ə]보다는 조금 더 후설성을 띄며, 단모음은 어두에서 ʌ에 가깝게 발음될 때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제2음절 이하에서 여러 모음이 약화현상에 의해 [ɨ]로 변한 것을 표기할 때에도 ə를 사용한다.

/a/

aka 형, aba 아버지, gadan사다
aačin 없다, aasinan 자다, ǰaan 열

/a/는 중설비원순저모음이다.

/u/

5) 다만 [ǰɪʁa~ǰeʁa~ǰɛʁa] 등과 같이 수의적으로 여러 가지로 발음이 되거나 단어 내부에서 공시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변이음의 범주에 속한다는 근거가 충분할 경우에는 원래의 음소로 생각되는 것으로 ǰiga와 같이 표기하겠다.

ukur 소, udugu 크다, gudugu 배(신체),
ǰuur 둘, muu 물

/u/는 후설원순고모음이다. udugu~udugə와 같이 어말에서 ə와 교체되기도 한다.

/ʊ/ [ʊ]

ʊnaǰi 딸, ʊla- 물을 건너다, xʊda 가격

/ʊ/는 후설원순중고모음이다. 몽골어에서 y로 적는 모음에 대응되며 IPA [o]와 [u]의 중간 정도 높이이다. 아래에서 보이듯이 호이 방언에서 ʊ로 나타나는 것이 싱왕 방언에서는 ɔ로 나타는 것이 많고(a, b)[6] wa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c, d), 위에 든 예와 같이 ʊ 고유의 음가를 간직한 어휘들도 일부 남아 있다.

(1) 싱왕 방언	<어한사전>	뜻
a. ɔdɔn~ɔdən	ʊdʊŋ	비
b. mɔrin	mʊriŋ	말
c. wankan	ʊnaxaŋ	손가락
d. wantə	ʊnta	신발

다만 이용한 자료에서는 어두에서 확실하게 ʊ 장음으로 나타나는 예를 발견하지 못했다. 자료제공인은 일반적으로 퉁구스 언어의 최소대립쌍을 조사할 때 쓰이는 손톱과 별(호이 방언형으로 각각 ʊsitta, ɔsitta~ɔɔsitta)의

6) 위에 예로 든 ʊla-은 반대로 어한사전에 ɔlɔɔrɔn으로 나타나는 드문 경우이다. 이 단어는 배를 타거나 하지 않고 물을 걸어서 건너는 경우에만 쓴다.

어두 모음을 모두 ɔ로 발음하고 스스로도 동음이의어이며 발음상의 차이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일부 wa로 변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ɔ에 합류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ʊ와 wa, ɔ는 모두 [+RTR] 모음이기 때문에 이 변화는 모음조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ɔ/

ɔrə 짐, dəlbɔ 밤

ɔɔrəŋ 하다, čɔɔriŋ 녹색

/ɔ/는 후설원순중모음이다. IPA의 [ɔ]나 호이 방언의 ɔ에 비해서 높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으며 같은 어휘라도 발음할 때마다 변화의 폭이 큰 것으로 보아 모음이 차지하는 영역 또한 더 넓은 것으로 보인다.[7] 장모음은 dɔɔ~dəw, mɔɔ~mwɔ와 같이 이중모음처럼 들리는 곳도 있다. 제2음절 이하에서 원순성을 잃고 ə로 발음되기도 한다. (ɔdɔn~ɔdən 비, ɔɔ-čɔɔ~ɔɔ-čəə 했다)

/o/ [ɵ]

boossə '천'(布, cf. bɔɔdɔ 부엌칼), ootələn~ətələn 갈비뼈

/o/는 중설원순중모음이다. 솔론어에서 /o/는 음운론적으로는 후설모음에 해당하며 [+RTR]인 ɔ에 대비되는 [-RTR] 모음이다. /o/에 해당하는 예를 별로 확보하지 못하여 음소로 설정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7) 호이 방언은 ʊ와 ɔ가 잘 구분되지만 자료에 따라 ʊ~ɔ의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어휘들이 간혹 있다. 예를 들어 '다섯', '스물'은 <간지>와 <어한사전>에서는 각각 tʊŋa 다섯, ʊriŋ으로 전사했지만 朝克(2017a:25)에는 toŋ, oriŋ (o=/ɔ/)으로 나와 있다. 김주원(1993:185)에는 이 어휘들을 포함해 자료에 따라 ʊ와 ɔ가 다르게 나타나는 예들을 제시하였는데, Poppe(1931)에 ɔ로 나타나는 것들이 <간지> 등 1980년대 자료에 ʊ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ɔ가 ʊ로 상승한 것으로 보았다.

않다. 특히 단모음의 존재를 확신할 만한 예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것은 모어화자가 아닌 경우 이 음소를 식별하기 어려운 것도 한 원인이지만, 싱왕 방언뿐 아니라 호이 방언 등 최근의 다른 연구들에서도 /o/의 출현 빈도가 매우 낮게 보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점차 기능부담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이 방언에서 단모음 o는 ə로 많이 바뀌었는데 싱왕 방언에서는 주로 u로 많이 대응된다.[8]

(2) 싱왕: uləərən (삶다), ulək (거짓), ugən (떡)
호이: oloorən/ələərən[9], olox, owon,

장음으로는 boossə '천'(布, cf. bɔɔdɔ 부엌칼), ootələn~ətələn '갈비뼈'가 나타났는데, '갈비뼈'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교체는 사마지에 방언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권재일·김주원(2001)에서는 사마지에 방언의 /o, oo/가 [ə, əə], [uə]와 교체되어 noxun~nəxun '동생', moorərən~muorərin '소가 울다'와 같이 나타난다고 했다.[10]

이와 반대로 원래 o를 가지는 어휘들 중에 어두 자음이 있는 경우 kwəəllən '마구를 메다' (<어한사전> xooldeŋ), twəər-čəə '길을 잃다' <어한사전 toorirəŋ>과 같이 [wə]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

8) 위에서 언급한 ʊ>ɔ, ʊ>wa 및 o>u는 모두 다고르어가 겪은 것과 같은 방향의 변화이다. 다고르어에서는 /u/와 /o/, /ʊ/와 /ɔ/의 합류가 일어났으며(Svantesson et al. 2005:180, Ko 2012:92), ʊ>wa는 몽골어 중에서도 다고르어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ʊ의 꺾임' 현상이다(3.2.2 참조).

9) 전자는 <간지>, 후자는 <어한사전>의 형태이다.

10) ətə '폐'와 같이 [əu]로 발음된 예는 더 있었으나, /o/가 쓰이는 어휘 자체가 많지 않은 가운데 대다수의 어휘가 한두 번씩밖에 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수의적으로 [oː]로도 발음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장모음이 이중모음처럼 발음되는 현상은 ɔɔ나 ee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난다.

3.1.2. 자음

솔론어의 자음은 일반적으로 무성 유·무기 대립을 보이나, 어두에 비해 어중에서는 기식이 약화되기도 하며 특히 복자음이나 장자음에서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ətə- [ət^{h}ə~ətə] '할 수 있다', taiti [t^{h}ait^{h}i~t^{h}aiti] '할머니', ɔsigtə [ɔsigtə] '별') 또한 싱왕 방언의 파열음과 l, m, n은 어말과 어중 음절말에서 파열할 때도 있다.

p, b, m, t, d, s, n, l, r, č, ǰ, k, g, x, ŋ
j, w

양순파열음에는 유기음 p와 무기음 b가 있다.
/p/ [p^{h}/p], /b/ [b̥/b/β]

pančiran 슬프다, sarpə 숟가락
bəi 사람, aba 아버지, səbə 선생님

/b/는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 [b]나 [β]로 실현되기도 한다. (səbə [θəbə~θəβə] 선생님)

치조 파열음에는 유기음 t와 무기음 d가 있다.
/t/ [t^{h}/t], /d/ [d̥/d]

tar 그, bitəg 책, swaŋtə 깊다
dəgi 새, naŋdə 가죽

연구개 파열음에는 유기음 k와 무기음 g가 있다.

/k/ [kʰ/k/q/χ/x], /g/ [g̊/ɢ/ʁ/ɣ]

kəəkə 고양이, əsiktə 별

gadan 사다, sagdi 늙은

호이 방언과 사마지에 방언에서는 어두에서 k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싱왕 방언에서는 어두에도 k가 나타난다. [+RTR] 모음 앞에서는 각각 [q], [ɢ]로 나타나며, 기본적으로 유성음 사이의 환경은 물론 가끔 음절말 위치에서도 마찰음화한 [χ/x], [ʁ, ɣ]와 자유변이하는데, 특히 k의 경우 어중 음절말에서 막음구간 앞에 상당한 마찰 구간을 동반하기도 한다. g는 단어 내부뿐만 아니라 때때로 이어서 발음하는 두 단어 사이에서 마찰음화가 일어나기도 한다(damag[ɣ] im-m …, *mianbao* g[g/ɣ]a-m …). 모음 사이의 g는 탈락하기도 한다(udugu~uduu 등).

경구개 파찰음에는 č와 ǰ가 있다.

/č/

čimči 옷, jeesə-či muu 차(茶),

/ǰ/

ǰibtən 먹다, ǰaka 물건, waǰi 발자국

치조 마찰음에는 s가 있다.

/s/ [s, θ, ʃ]

silkaran 씻다, səbə 선생님, tərəgsə 옷

s는 대부분의 퉁구스 언어들에서 그렇듯이 전설모음 앞에서 [ʃ]로 발음된다. 전설모음 앞이 아닌 경우 기본적으로 치간음 [θ]로 발음되는 경우

가 많은데, 이는 둘라르 방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səbə [ϴəbə~ϴəβə] 선생님) 호이 방언에서 isinaa- [iʃinaa] 등으로 발음되는 어휘가 싱왕 방언에서 i가 [ə, ɨ]로 약화될 경우 앞의 s도 구개음화하지 않고 aasin-는 [aaϴɨn], isinaa-는 [iϴɨnaa]와 같이 발음된다.

연구개 마찰음에는 x가 있다.

/x/

xad-čii (풀을) 베었다, xʊŋnəriŋ 검은색

비음과 유음에는 m, n, ŋ, l, r이 있다. 싱왕 방언의 l, m, n은 기본적으로 어말에서 파열하고 어중의 음절말에서도 파열되어 발음되는 일이 많다.

/m/

məəmə 어머니, damga 담배

/n/

namaǰi 백(百), ǰaan 십(十), ǰaani [ǰaani~ǰaan] -를 위하여

솔론어에서 n과 ŋ는 어말에서는 일반적으로 원래의 자음으로 발음되지 않고 선행 모음의 비모음화로 실현되거나(ǰaan [ǰãã]),[11] 아래의 (3)과 같이 다음에 다른 자음이 뒤따를 경우 조음점 역행동화를 일으켜 원래의 자음으로 발음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n과 ŋ가 변별되지 않는다.[12]

---

11) 싱왕 방언에서는 약화현상이 한층 더 두드러져서 문말 뿐 아니라 문장 중간에서도 어말의 n/ŋ이 아예 탈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12) (3)에 제시된 어휘들의 말음이 n으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n인지 ŋ인지 음소를 변별할 수 없다. 가끔 말음을 밝혀 적을 수 있는 어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어말에서 선행 모음의 비음으로 실현되는 n/ŋ를 임의로 n이

(3) əmun[m] bitəg (one book)

nəkun[m]-mi (younger.brother-1SG)

mərin[n] tutul-ǰi-rə(n). (hourse run-PROG-NPST.3)

jalan[n] digin (three four)

əsən[n] saa-ra. (NEG know-INF)

nasən[n]-či (age-PROP)

sin-ən[n] ǰuu-ma-si (you.SG-GEN house-ACC-2SG)

əmun[ŋ]=kud (one=yet)

aasin[ŋ]-gari. (sleep-HORT)

chuan[l]-lə-m (wander(串)-VBLZ-CVB)

단, -ni 등의 모음이 약화되거나 탈락한 경우에는 [n]이 어말에서 내파 혹은 파열 n으로 발음된다.

/ŋ/

aŋgala 식구, tjaaŋa 작년

ŋ은 어두에 나타나지 않으며, 위에서 언급했듯이 어말 위치에서는 /n/과 구분되지 않는다. (3)과 같이 어중에서 다음에 오는 자음에 따라, 또는 어말에서 다음에 오는 단어의 첫 자음에 따라 조음점 역행동화를 일으켜 [m] ((p), b, m 앞), [n] (t, d, s, č, ǰ 앞), [ŋ] (k, g 앞), [l] (l 앞) 등으로 발음된다.[13] 단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 ŋ말음을 어말에서 발음하거나, ǰəŋ(<正)과 같이 한어 차용어를 발음하면서 어말에서 ŋ를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14]

나 ŋ로 통일해서 적는다. 이 논문에서는 속격표지 -ŋ와 같이 어말 ŋ을 가진 어휘나 문법형태로 확인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n으로 적는다.

13) (3)에서 n으로 적은 것들은 대부분 n인지 ŋ인지 구별되지 않는데, 확실히 -ŋ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속격표지(4.1.2.2 참조)도 다음 단어와의 사이에 휴지 없이 붙여서 발음할 경우 min-əŋ[m] bitəgə[i]-ji. [I-GEN book-1SG.POSS]와 같이 동화를 일으킨다.

/l/

lumban 진한, lɔŋkɔ 병(甁), dali 바다, naal 손

l은 어중이나 어말에서 강하게 파열하거나 마찰소음이 발생하는 일이 있다.

/r/ [ɾ]

ərin 시간, gɔr 먼,

/r/은 탄설음이며 어두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j/, /w/

uji- 매다, jesike 견갑, gjaa 시장, jəjə 할아버지, jɔɔgiji 함께, juu-나가다

əwənkə 어웡키[15], waǰi 발자국, dawʊ 매우, -wu 대격표지

활음은 j와 w가 있다.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음과 결합하여 나타났다. ji는 빠른 발화에서는 i와 별로 차이가 없을 때도 있지만, 강조하여 발음할 경우 마찰에 가까운 소리가 나며 i와 구분된다.

	i	e	a	ə	ɔ	o	ʊ	u
j	○	○	○	○	○	×	×	○
w	×	×	○	○	×	×	○	○

표 2 싱왕 방언 자료에 나타난 상향이중모음

14) 수의적이며, *xuetang*(学堂), *yiding*(一定), *xian*(先)같은 차용어 어휘도 ŋ/n 말음을 솔론어 고유어와 마찬가지로 앞 모음을 비음화하고 탈락하는 방식으로 발음하기도 한다.

15) 자료제공인은 '어웡키'를 주로 əŋku~əuŋku로 발음하였는데, əwəŋkə라고 발화 후에도 əŋku라고 고쳐 말했다. wə가 나타난 또 다른 예는 səbə~səwə '선생님'인데 음소로서의 wə라기보다는 변이음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하향 이중모음을 설정하지 않지만, 싱왕 방언의 상향이중모음이 어말에 올 때 핵모음이 탈락하면서 앞 음절의 모음과 활음이 음성적으로 마치 하향이중모음처럼 실현되는 일이 있다 (ʊgča-čaa=j(ə)? [share-PST=Q], gən-čəə-su=j(ə)? [go-PST-2SG=Q] 등).

3.2. 음운 현상

방언마다 특정 음운현상의 유무 혹은 적용 정도의 차이에 따라 각 방언의 동원어에서 같은 음소였던 것의 반사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3.2.1. 모음 관련 현상

3.2.1.1. 모음의 꺾임 현상

[1] i > ja

솔론어의 i로 시작하는 단어 중 후행 음절에 a가 오는 어휘 일부에서 다음과 같이 i가 ja로 변한다. 이는 전통적으로 breaking of *i라고 부르는 현상으로, 김주원(1989:122)에서는 이를 '*i의 꺾임'으로 번역하고[16] 제1 음절의 i 모음이 뒷 음절의 모음에 동화되는 역행동화의 일종이라고 설명하였다. 싱왕 방언에서 찾은 예들을 사마지에 방언과 호이 방언 사전 등의 출판 자료에서 찾은 예들과 함께 제시하였다.

---

16) 이 번역을 따라 이 현상을 '*i의 꺾임'이라고 부르겠다. 뒤에 나오는 breaking of *ʊ 역시 이 번역을 참고하여 '*ʊ의 꺾임'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4) 싱왕	사마지에[17]	사전형(호이)	의미
jalan	ilan/jala:n～jela:n	ilaŋ	삼(三)
jamanda	jamanda	imanda	눈(雪)
jamgən~jamagan		imaɣaŋ	염소
jaŋtə		iŋatt	털, 모피
jaasəl	j'esɨl	iisal/ɪʃal	눈(眼)
tjaaŋ(a)	tiangə/tʰj'aŋ～tʰɛ:ŋ an'e	tiŋaŋ/tɪŋan	작년
djagar	djagar	digar	곧, 빠르다
djalgan~djalagan		delgaŋ/dɪlgan	소리
kjamdə[18]		xinda, kimda	쉽다/싸다
mjaŋa	miŋgan/meŋgən[19]		천(千)
mjaagʊn		meeɣaŋ	심장
njaaŋsə		niinča/nEEnʃɪ	코
sjaʊr		siwar	진흙
ŋjakʊn		nixaŋ	한족

위의 *i 꺾임이 일어난 어휘들 중 ilan/jala:n～jela:n ‘삼’과 tiangə/tʰj'aŋ～tʰɛ:ŋ an'e ‘작년’ 등의 예를 통해 꺾임의 결과가 [ja]뿐만 아니라 [jɛ~je]로 발음되기도 한다는 점 역시 알 수 있는데, 싱왕 방언에서는 거의 항상 [ja]에 가깝게 발음되었다.

호이 방언을 사전형이라고 적은 이유는, 이 현상이 드문 현상은 아니지만 전사 방침에 따라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자료를 전사한 사마지에의 ilan/jala:n～jela:n‘삼’[20] 등의 예에서 볼 수

17) A(음소전사)/B(음성전사) A는 주로 성백인 외(2010), B는 권재일·김주원(2001)의 부록에서 인용하였다.

18) kjamdə는 몽골어로 хямд, 다고르어로 kiand(恩和巴图 1983:122)이므로 이미 꺾임 현상이 일어난 예를 차용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19) 회화 음성 자료에 출현한 예에는 mjaŋgan으로 발음된 곳들이 있었다.

20) 앞의 것은 주로 성백인 외(2010)의 기초회화(및 일부 앞에서 밝힌 출판 자료들)에 나타난 음소전사이고, 뒤의 것은 권재일·김주원(2000)의 부록에 수록된 어휘 음성전사에서 찾은 예들이다.

있듯이, *i의 꺾임 현상이 있더라도 자료에 따라서 앞의 것처럼 전사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21] 하지만 호이 방언에서도 ‘소리’ delgaŋ, ‘코’ niinča/nEEnʃɪ나 ‘심장’ meeɣaŋ[22] 등은 *i의 꺾임이 일어난 예로 볼 수 있다.

둘라르 방언은 출판 자료에서는 예를 찾기 힘들었지만, 회화 음성 자료에서 확인한 jalan ‘삼’, jaman-ǰi-rən ‘눈이 온다’, djagar ‘곧, 빠르다’, mjaŋga ‘천’, sjaʊr ‘진흙’ 등의 예에서 둘라르 방언에서 역시 꺾임 현상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싱왕 방언의 jaŋtə ‘털’ ; iiŋtə ‘귀룽나무 열매’, 사마지에 방언의 jamanda ‘눈’ ; iməndə ‘단추’를 비교해 보면 [-RTR] 어휘들에는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고 [+RTR] 어휘에서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몽골어의 *i 꺾임 현상에서와 같다(Svantesson et al. 2005: 195).

[2] ʊ > wa

호이 방언을 비롯한 다른 방언에서 제1음절에 ʊ가 나타나는 어휘의 일부는 싱왕 어웡키 자료에서 wa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둘라르 방언에서 먼저 보고된 바 있는데, 싱왕 방언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래에 김주원·고동호(2004)에 제시된 둘라르 방언의 예를 방언 배열 순서만 바꿔서 옮겨 와 보인다.[23]

(5) **Dular 방언**	**Hui 방언**	**의미**
wallə	ʊlda	bedclothes
wantə	ʊnta	shoes

21) 어떤 어휘를 *i 꺾임이 일어난 형태로 발음하는지는 실제로 개인차도 있을 것이다. niinča/nEEnʃɪ가 보여주듯이 <어한사전>에서는 전체적으로 i를 보존한 형태를 우선하여 적은 경향이 강하다.

22) 필자가 직접 내몽골에서 만난 솔론어 화자가 dʲɛlgan, mʲeegan, nʲenči 등으로 발음한 것을 들은 적도 있다.

23) 이밖에도 둘라르 방언의 음성 자료(회화 질문지)에서 손톱 wasitt (호이 ʊʃɪtta)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walerin	ʊlarɪn	red
wanəxəŋ	ʊnaxan	finger
xwalgərən	xʊlaxaran	steal
warklarən	xʊggɪlaran	hitch up

위의 예들은 x 뒤에 오는 예를 제외하면 거의 ʊ가 어두에 오는 예들이다. 해당 논문에 제시된 어휘 예 중 gwaraktər (‘수염’, 사마지에 방언형 gʊrgʊt, 호이 방언형 gʊggatta)도 포함한다면 둘라르 방언에서는 적어도 어두, x, g 뒤에 오는 ʊ들이 wa로 대응되어 나타나는 예들이 발견된다고 볼 수 있다. 싱왕 방언에서도 이들 중 일부를 포함하여 조금 더 다양한 자음과 함께 나타나는 예들을 볼 수 있었다.[24] 한편 사마지에 방언은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어휘 자료의 범위 안에서는 이와 같은 대응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대략 ʊ~ɔ로 대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싱왕	호이	사마지에	의미
wankan	ʊnaxan	ʊnəx'ɨn	손가락
wankaatan	ʊnaxattʊŋ	-	반지
wantə	ʊnta	-	털가죽 장화
waǰii	ʊǰi	'ʊdʑi	발자국
walliŋ~walərin	ʊlarɪn	ʊlaɾ'ẽ:	붉다
waldi~walde	ʊlda	-	이불
warka	okkə/ʊkk	okk	덫
twaalə	tʊxal	tʰɔx'ɔl～tʰɔx'al	흙, 먼지
twarən~twaran	tʊŋŋa/tʊŋ	tʰɔŋ	오(五)
swaŋtə	sʊnt	sund (muu)	깊다
ǰwagandi	ǰʊga/ǰʊgann	ʤ'ʊgʊ	여름
gwagdə	gʊdda	g'ɔgdɔ～g'ɔɣdɔ	높다

24) 이밖에 특이한 것으로, 호이와 사마지에 방언에서 uu 장모음으로 나타나는 ‘냄새’ uuŋ가 싱왕 방언에서 waa로 나타났다. (냄새waani, 냄새나다 waači)

xwalkaran xʊlaxaran 훔치다

여기에 더해서, 호이 방언에서 bʊga로 나타나는 ‘땅, 하늘’은 싱왕 방언에서 baga로 나타나는데, 이 역시 ʊ:wa에 해당되는 예인 것으로 보인다.[25] 그리고 다른 방언에서 동원어를 찾지 못했지만 군인을 뜻하는 čwaga-ŋ bəi (soldier-GEN person)의 čwaga는 오로챈어에 ʧʊ̈ga 兵으로(胡增益 2001:257) 나타나며, ‘중국’을 직역한 dwandila gurun의 dwandila는 몽골어어에서 дунд ‘가운데’로 나타나므로 역시 같은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제시된 예들은 특히 호이 방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ʊǰi ‘발자국’, okkə/ʊkk ‘덫’, sʊnt ‘깊다’[26]를 제외하면 모두 뒤에 a 모음이 뒤따른다. 즉 기본적으로 앞에서 본 *i의 꺾임과 마찬가지로 제1음절에 ʊ가 오고 다음 음절에 a가 나타나면 ʊ가 wa로 변하는 현상이 둘라르 방언과 싱왕 방언에 있는 것이다.[27] 둘라르 방언에서 나타난 이 현상에 대해 김주원·고동호(2004:82)에서는 breaking of *ʊ라고 칭한 바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Svantesson et al. (2005:197)에서 breaking of *u라고 기술한 것과 같은 현상인데, 몽골어 중에서도 다고르어에서만 일어나는 독특한 현상이다.

Svantesson et al. (2005:150, 197)에서는 labialized consonants가 몽골어 중에 유일하게 *u의 꺾임을 겪은 다고르어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싱왕 방언에서도 이 변화의 결과로 호이 방언에서 나타나지 않는 swa, twa, ǰwa, xwa 등의 연쇄가 나타나게 되었다. 한어 刷子(shuàzi)의 차용어인 ‘솔/칫솔’과 蒜(suàn)의 차용어인 ‘마늘’이 싱왕 방언에서는 더 원어에 가까운 발음인 swas(?)[28], swanda로 나타나고 호이 방

25) 싱왕 방언 자료에는 원순 자음 p, b, m에 w가 따르는 예가 나타나지 않는다.

26) ‘깊다’는 어원어에 hõnta로 나타난다(Kim 2011:149). 솔론어에서도 원래 a가 있었다가 탈락하여 조건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7) 제 1음절과 2음절 모음이 ʊ-a인 경우라도 모든 어휘가 변화를 겪은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고, ʊnaǰi ‘딸’, ʊla-m ‘(물을) 건너다’ 등과 같은 예도 존재한다.

언에서는 각각 sɔɔs, sɔɔndɔ <어한사전:632>로 나타나는데, 호이 방언에서는 고유어에 swa 연쇄가 없기 때문에 방언 내에서 가능한 연쇄인 sɔɔ로 변했고, 싱왕 방언에서는 흔하지는 않아도 가능한 음 연쇄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주원·고동호(2004:82)에서 역시 이러한 대응이 다고르어의 여러 지역 방언과 몽골어 사이에서도 관찰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둘라르 방언이 사용되는 지역의 다고르어인 니얼지 다고르어의 예를 제시하였다. 아래에 김주원·고동호(2004:82)의 표를 나열 순서만 바꾸어 그대로 옮긴다.

(7)

Nierji 방언	**Mongol어 (孫竹 1990)**	**의미**
xwar	xur	rain
gwarbə	gurəb	three
waileng	uilax	weep
want-	untax	to sleep

몽골어 중에서도 다고르어에만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한 현상이 둘라르 방언과 싱왕 방언에서 관찰되는 것은 이 두 방언이 인근에서 사용되는 다고르어의 영향을 받은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3.2.1.2. 모음조화

<간지> 등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솔론어의 형태소 내부와 형태소 경계에서 RTR 모음조화 현상이 나타나며, 엄격하지는 않지만 원순조화 현상이 있다고 언급해 왔다. 그런데 방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실제 발음에 있어서는 모음조화가 약화된다는 보고가 있다. 호이 방언의 모음조화가 약화되는 경향에 대해서 Tsumagari (2009:3)[29]와 風間

---

[28] 접사 -daa와 결합하여 역행동화를 일으킨 swad-daa로만 나타났다. 4.6.4의 (255) 참조.

[29] Tsumagari (2009:3)는 솔론어의 모음조화를 개모음과 폐모음의 대립으로 보았는데,

伸次郎(2005:15)[30] 등에서 지적되었으며, 사마지에 방언 역시 권재일·김주원(2000:14)에서 모음조화의 약화현상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싱왕 방언은 특히 제2음절 이하 모음이 [-RTR] 모음에 가까운 소리로 약화되거나 탈락하는 현상이 많이 매우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음조화 현상이 제대로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약화된 모음은 매우 빠르고 불분명하게 발음되거나, 기존의 [-RTR] 모음 ə와 같은 발음도 아닌 모호한 발음으로 나타날 때가 많기 때문에 모음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발음할 때마다 수의적으로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음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모음조화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대상 언어의 자료에서 충분한 예를 확보하여 면밀한 분석을 통해 모음조화의 조건 및 특징을 밝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자료가 한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도 모음 음가의 약화와 음운 변화, 장단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장애 요소가 너무 많아 현 단계에서는 그러한 연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싱왕 방언에서 모음조화 약화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원래의 모습은 호이 방언의 모음조화와 큰 틀에 있어서 비슷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세세한 부분에서 방언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퉁구스 언어들의 모음조화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그 특징이 싱왕 방언에도 역시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퉁구스 언어들의 보편적인 모음조화 특징을 고려하며 호이 방언의 모음조화를 기준으로 싱왕 방언 자료들의 일부 예를 살펴 부분적으로나마 그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1] RTR 조화

모음조화 규칙이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으며 [-RTR] 모음에 해당하는 폐모음이 가끔 [+RTR] 모음인 개모음 뒤에서 나타난다고 언급하였다.

30) 이민(伊敏) 솜의 솔론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몽골어의 영향으로 제2음절 이하의 모음이 약화되어 모음조화가 무너지는 추세임을 지적하였다.

김주원(1989)에서 솔론어를 비롯한 만주퉁구스 언어들의 모음조화가 설축(舌縮), 즉 retracted tongue root (RTR) 자질에 의한 모음조화임을 밝힌 바 있다.[31] 이에 따라 솔론어에서는 3.1.1에서 제시했듯이 [+RTR] 모음과 [-RTR] 모음이 한 단어 내에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싱왕 방언에서 모음조화가 잘 지켜지는 예부터 살펴보겠다. 다음은 싱왕 방언 자료와 호이 방언 <어한사전>에 나타난 어휘들이다.

(8)	아버지	딸	타다	뒤
싱왕	aba	ʊnaǰi	ɔg(ɔ)-gari	amila
호이	aba	ʊnaǰi	ʊɣʊraŋ	amela

(9)	어머니	하나	갈비뼈	아래
싱왕	məəmə	əmun	ootələn~əutələn	ərgilə
호이	əmmo	əmuŋ	ootlo	əggilə

위의 예들에서는 싱왕 방언도 호이 방언과 같이 a는 a, ʊ, ɔ와 어울려 나타났으며, ə는 ə, u, o와 어울려 나타났다. 그리고 i는 두 부류의 모음과 모두 어울려 나타났다.

(8)의 싱왕 방언 ɔg(ɔ)-gari는 <어한사전>의 ʊɣʊraŋ를 보면 알 수 있듯이 ʊ가 ɔ로 변한 예이다. 3.1.1에서 ʊ가 ɔ 또는 wa로 변화한 예가 많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후자의 예로는 wankan 손가락(<간지>에는 ʊnaxan)을 들 수 있다. 이 두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ʊ가 변화한 ɔ나 wa도 [+RTR] 모음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변화는 모음조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i/와 /ɪ/, /e/와 /E, ɛ/를 따로 설정하는 모음체계에서는 각각 앞의

31) RTR 자질에 의한 모음조화는 모음조화의 한 유형이며, 모음조화에 관여하는 자질은 이밖에도 모음의 전설성이나 높이, 원순성 등이 있다. 또 혀뿌리의 조화와 관련된 자질에는 ATR (advanced toungue root)도 있다(김주원 1999 참조).

것이 [-RTR], 뒤의 것이 [+RTR] 모음이지만, Tsumagari (2009:3) 등에서는 /i/와 /e/를[32] 중립모음(neutral)으로 취급하며, 이 논문에서도 i와 e가 [+RTR] 모음과도 [-RTR] 모음과도 어울릴 수 있는 것으로 본다. e의 예로는 ǰee-čaa '숨겼다', kurekən '사위'가 있다. 싱왕 방언의 i는 다음의 예들에서 보이듯이 제1음절의 [+RTR] 자질이 다음 음절로 전파되는 것을 막지 않으므로 RTR 조화에 대해서 투명한 모음이다.

(10) nagi-ran 열다, amila 뒤/북쪽, ačikčan 쥐
bəri-rən 풀다, ərgilə 아래, urgidə 무겁다

표면적으로 i만으로 이루어진 어간의 경우 iči-rən '보다'와 같은 예도 나타나지만 tit-ran '가르치다', čipči-ran '(나무를) 찍다'와 같은 예도 나타나는데, 뒤의 두 어휘는 <어한사전>에 각각 tatiraŋ, saččiraŋ으로 나타난다. 원래 [+RTR] 모음을 가졌던 어휘가 결합하던 어미와의 결합이 대체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는 싱왕 방언에서 음운 변화가 일어난 것들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솔론어 모음조화 규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RTR] 조화에 어긋난 예들을 살펴보겠다. 싱왕 방언의 모음조화는 대체로 어말에서부터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11)은 차례대로 제1음절에 [+RTR] 모음이 오는 명사들인데 어말 모음이 약화된 모음 또는 ə로 발음되었다.

(11) gwagdə 높이, wantə 털가죽 장화, sarpə 젓가락, əmək̚tə 알, əsigtə 별

다음은 명사류에 결합하는 여처격표지이다. 호이 방언에서는 이것들이 앞에 오는 명사의 모음에 따라 dʊ~du로 나타나지만, 싱왕 방언에서는

32) Tsumagari (2009)의 표기체계에서 e는 /ə/를 나타내기 때문에 [e~ɛ]는 ɛ로 표기한다.

[+RTR] 모음 단어 뒤에서도 다음과 같이 -də(~d)로만 나타난다.

(12) nawʊn-də [river-DATL] 강으로, baga-də [ground-DATL] 장소에,

다음은 동사 어간에 결합하는 명령법 어미이다. 호이 방언에서는 xa~xə/ka~kə로 모음조화에 따라 나타나지만 싱왕 방언에서는 아래의 예들과 같이 +[RTR] 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어에도 -kə 혹은 k가 결합한다.

(13) čaŋnə-m man-kə [sing-CVB finish-IMP] 끝까지 노래해라,
baǰa-kə [get.ready-IMP] 준비해라

특히 -kə는 단모음으로 끝나는데 뒤에 인칭표지가 붙지 않고 항상 어말에 위치하기 때문에 모음이 -ə로 고정되기 더욱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역시 항상 문말에 오는 의문첨사도 jə로만 나타났다.[33]

(14) manda-m bak-čaa=jə? [hit-CVB get-PST=Q] 명중했습니까?
si ai=jə? [you goot=Q] 안녕하세요.

부정문에서 부정을 받는 동사 어간 뒤에 나타나는 -ra~rə는 뒤에 인칭표지가 결합할 경우에는 대부분 모음이 탈락한다. 인칭표지 없이 어말에 올 경우에 대체로는 [+RTR]로 이루어진 단어 뒤에서 -ra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manda-ra~manda-rə '때리다/쏘다', amra-rə/r '쉬다' 등 -rə가 나타나는 일도 있었다. 직설법 비과거어미 -rən~ran은 보통 어말의 n이 앞 모음 ə~a의 비음화로 실현되는데 이 비모음도 무성화하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앞에 진행상의 -ǰi-가 오게 되면 jaman-ǰi-ran[rɨ] [snow-PROG-NPST.3]와 같이 -ran이 제대로 발음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 [rɨ]로

33) 첨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모음조화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간지:108>에서는 gi와 gu에 gɪɪ/gii, gʊʊ/guu와 같이 모음조화에 따른 이형태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발음된다. 어미가 문말에서 약화되는 일이 원래 잦지만, -ǰi-와 결합할 때 더욱 약화현상이 두드러진다. 위의 (10)에서 보았듯이 싱왕 방언에서 i는 RTR 자질에 대하여 투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ǰi-가 가진 모음 i때문이 아니고,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ǰi-를 조금 더 강조하여 발음하면서 그 뒤의 -ran[rã]이 더욱 약화된 것이다. 한편 장모음으로 끝나는 -čaa~čəə는 약하게 발음되는 일이 없고 [+RTR] 모음 단어 뒤에서 항상 manda-čaa와 같이 나타났다.

위에서는 격표지 없이 단독으로도 많이 쓰이는 명사류의 어말 모음과 어말에 단모음으로 나타나는 어미류를 위주로 살펴보았다. 동사 어간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하다. 왜냐하면 어말에서 약화된 모음은 [-RTR]로 봐도 뒤에 다른 모음이 오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어중에서 약화된 모음을 모두 [-RTR] 모음으로 볼 경우 그 뒤에 [+RTR] 모음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보통 어간 내부에서는 한 번 [-RTR] 모음이 나타난 다음에 [+RTR] 모음이 나타나는 예를 찾기 힘들다.[34] 그런데 싱왕 방언의 경우 jam[ɨ]n-čaa, agd[ɨ]-ran과 같이 어간의 제2음절 이하 모음이 약화된 모음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 음절에 -čaa와 -ran이 결합했기 때문에 약화된 모음을 [-RTR] 모음으로 본다면 그 뒤에 다시 [+RTR] 모음이 온 것이 된다. Zhang (1996)에서는 오로첸어의 접사가 어간으로부터 [+RTR] 자질을 받는다고 논하였고, Ko (2012)에서 보인 여러 퉁구스 언어의 모음조화 현상과 예를 보면 [+RTR] 또는 원순 자질은 앞 음절에서 다음 음절로 전파되며, 특정 자질 전파를 차단하는 모음

34) 싱왕 방언의 어간 내부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김주원(1993)에서는 나나이어 방언의 모음조화 약화현상을 다루고 있는데, 약화현상을 보이는 모음이 ɪ>i, o>u로 솔론어의 경우와 다르기는 하지만 나나이어 역시 어말 위치에서부터 모음조화가 약화되었다. Avrorin (1959:69 [김주원(1993)에서 재인용])의 나이힌 방언의 예시를 보면 원래 기저형이 namo인 '바다'는 namu, namo-du, namo-do-ani와 같이 나타난다. 어간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단어 전체에서 마지막 음절만 [-RTR]모음으로 나타나며, 중간에 [-RTR] 모음이 나타난 다음에 [+RTR] 모음이 나타난다든지 하지는 않는다. Ko (2012:313)에서는 [+RTR] 모음이 [-RTR] 모음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으며, 이것이 [+RTR] 자질이 유표적인 자질임을 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있으면 해당 자질은 그 다음 음절에서부터는 쭉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항상 어미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어중일 수밖에 없는 동사 어간의 약화된 발음을 모두 [-RTR] 모음으로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또 어떤 어휘는 발음할 때마다 수의적으로 달라져서 모호하게 발음되거나 거의 탈락하다시피 할 때도 있고, 원래의 모음에 가깝게 발음되는 경우도 있다. 위의 jamanda 역시 발음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 판단하기가 어렵다. 약화된 모음 자체에 대해 생각했을 때도, 발음은 ə 또는 ɨ에[35] 가깝게 발음되기 때문에 음성적으로는 [-RTR] 모음에 가깝지만 원래부터 [-RTR] 모음인 ə와는 다른 것일 수도 있다. 음성적으로만 [-RTR] 모음에 가깝게 발음되는 것과 음소 차원에서 [-RTR]로 변화한 것(해당 어형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것)의 경계를 정확하게 알기 힘들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을 세우기 어렵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 논문에서는 적어도 동사 어간의 약화된 모음은 음소적으로는 원래의 음소인 것으로 보고자 한다.

차용어나 매개모음과 관련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다음은 중국어 차용어를 솔론어 동사로 만드는 동사파생접사 -l(ə)가 결합한 동사인데,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사이에 모음이 ə[ɨ]로 실현되었고 어미는 그 뒤에 각각 -čaa, -rə로 나타났다.

(15) Mandi čaŋ(<chang)-l[n]ə-**čaa,** *Tuoya* ədəŋ[n] čaŋ-l[n]ə-**rə**.
Mandi sing(唱)-VBLZ-PST *Tuoya* NEG sing-INF
만디는 노래를 불렀으나 투야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2] 원순조화

35) 꼭 빨리 발음할 때에만 ɨ 모음으로 발음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agdaran '기뻐하다'를 의도적으로 분명히 발음하면서도 제2음절을 [dɨ]로 천천히(길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었다.

싱왕 방언의 원순조화를 관찰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고성연(2011:149)에서는 Kaun (2004)의 원순조화의 높이와 관련한 유형론적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퉁구스어(와 몽골어)의 원순조화에 있어서는 저모음만이 원순조화를 유발하고 원순조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래의 조건 중에서 퉁구스어의 원순조화는 (i)과 (iii)의 조합으로 이루진다는 것이다.

(16) 원순조화의 조건(Kaun 2004:88 [고성연(20011)에서 재인용])

i. The trigger must be nonhigh.

ii. The target must be high.

iii. The trigger and target must agree in height.

Ko (2012)에서 다룬 여러 퉁구스 언어들의 예에서도 실제로 원순조화를 일으키는 모음이 공통적으로 저모음(또는 비고모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원순조화에 있어서 모음의 높이가 중요한 자질인데, 싱왕 방언에서는 저모음 중 /o/의 예를 찾기가 힘들고, 고모음 /ʊ/의 예도 그리 다양하지 않다. 또 경우에 따라 모음의 길이가 원순조화의 여부에 관여할 때도 있는데 싱왕 방언은 3.1.에서 언급했듯이 모음의 장단이 불확실한 곳이 있으며, <간지>에 의하면 원순조화는 부수적인 것으로서 호이 방언에서도 RTR 조화에 비해서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듯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여러 환경에서 나타나는 예들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여 관찰하면 좋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은 예로 일반화하여 결론을 내리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우선은 각각 어떤 예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만 하겠다.

Ko (2012:332)에서는 솔론어의 장모음 /oo/와 /ɔɔ/가 원순조화를 유발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Li (1996)의 예를 인용하여 호이 방언의 예를 제시하였다.

(17) Labial harmony triggered by /oo/ and /ɔɔ/ in Solon (B. Li, 1996, p. 145)

a. Non-RTR words

ooto ‘lungs’	xooson ‘foam’
xoomo-wo ‘meal-def.acc’	xooɡɡo-do-ro ‘to build a bridge’

b. RTR words

tɔɔlɔ ‘rabbit’	bɔɔɡɔ ‘yoke’
ɡɔɔlɔ ‘copper’	tɔɔlən ‘five-year-old bull’
dɔɔ-lɔɔ ‘inside-locat’	ɔɔ-ɡɔtɔ ‘to do-im. imper. 1st. sg.’
mɔɔ-wɔ ‘tree-def.acc’	bɔɔnɔ-wɔ ‘hail-def.acc’

/oo/는 위에서 말했듯이 싱왕 방언에서 해당 예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ɔɔ/를 중점적으로 살피겠다. 참고로 싱왕 방언에 /oo/가 제1음절에 나타난 어휘가 있기는 하지만 boossə ‘천’ (布子 buzi)는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차용어이고, ootələn~ətələn ‘갈비뼈’는 제2음절부터 원순성이 유지되지 못했다.

/ɔɔ/의 예들 중에서 싱왕 방언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들 중 ɡɔɔlɔ ‘동’과 tɔɔlɔ ‘토끼’는 싱왕 방언에서 각각 gaʊlə~gaʊl geegen과 taʊlə로 나타나고, 싱왕 방언에서 대격표지는 모음조화에 따른 모음 교체를 하지 않는다(4.1.2.3 참조). 남는 것은 dɔɔlɔ ‘안’과 ɔɔ-ɡɔtɔ인데, ‘안’은 싱왕 방언에서도 dɔɔlɔ로 나타난다. 그밖에도 bɔɔdɔ ‘부엌칼’ 역시 원순조화가 지켜지는 예이다. 하지만 여처격표지와 결합한 dɔɔ-də [forest-DATL][36]는 항상 -də로만 나타났다.[37]

위의 (17)의 예 중에서 동사인 ɔɔ- ‘하다’에는 ɔ 모음으로 이루어진 어

---

36) dɔɔ는 다른 방언들에서는 하천을 뜻하는데, 이 연구의 자료제공인은 항상 숲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37) 싱왕방언에서는 명사류와 결합하는 격표지가 어미류와 달리 모음조화에 따라 이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별로 없다. -la/-lə ‘-쪽에’는 호이 방언에서는 생산적이지만 싱왕 방언 자료에서는 ələ ‘이쪽/여기’, tala‘저쪽/저기’처럼 지시대명사로 굳어진 것만이 자주 쓰였다.

미가 결합했다. 그런데 <간지:13>에서는 원순조화가 엄격하지는 않으며 제1음절이 긴 원순모음일 때 제2음절에 비원순모음이 출현할 수 있다고 하면서 /ɔɔ/의 예로 ɔɔran을 든 바 있다.[38] <간지>의 어휘 리스트에도 ɔɔran을 기본형으로 적었지만, <간지:41>에 ɔɔʃɔɔ(ʃ=/s/)도 나타나며, <간지:57>에는 ɔɔʃɔɔ, ɔɔʃaa가 모두 나타나므로, 두 가지 형태가 모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39]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1음절의 ɔɔ가 [+RTR] 모음이기 때문에 후행 모음이 원순모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a(aa)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싱왕 방언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나타났다.

(18) ɔɔ-gɔr [do-HORT] 하자 cf. ɔgɔ-gari <어한사전> ʊɣʊraŋ ‘타다’
ɔɔ-čɔɔ~čəə[40] [do-PST] 했다[41]
ɔɔdɔn~ɔɔdən 좋다/괜찮다
sɔktɔɔ-čɔɔ[42] [get.drunk-PST] 취했다

위의 예들에서 기본적으로 원순조화가 지켜지기는 하지만, ɔɔ-čəə나 ɔɔdən과 같이 나타나는 예도 있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RTR 모음조화의 약화의 결과로는 -čaa가 결합하던 자리에 -čəə가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원순조화의 약화로 인해 문말 위치에서 [+RTR] 모음인 -čɔɔ와

38) <간지>에서는 원순조화를 유발하는 조건에 모음의 길이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제1음절이 o나 ɔ면 이후 음절이 대개 각각 o/u나 ɔ/ʊ라고 기술했다. 그리고 RTR 조화만큼 엄격하지는 않으며, 원순조화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환경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었다. ① 제1음절 모음이 o나 ɔ일 때, 제3음절부터 비원순모음이 나타날 수 있다. ② 제1음절의 원순모음이 장음일 때, 제2음절에 비원순모음이 나타날 수 있다. ③ 제1음절이 원순모음 u, ʊ일 때, 뒤에는 u, ʊ 또는 비원순모음이 나타날 수 있지만, o와 ɔ는 나타나지 않는다.

39) <어한사전>과 칼리나(2019b:175) 등에는 ɔɔrɔn으로 되어 있다.

40) 실제 발음에 있어서는 ɔɔ-čɔɔ~čəə의 장모음들을 짧게 발음할 때도 있다.

41) ɔɔ-는 ‘하다/만들다/되다’ 등 여러 뜻이 있지만 편의상 ‘do/하다’만 적겠다.

42) 두 번째 모음이 길게 발음되었는데, 이 위치는 기저형이 장음이 아니더라도 길게 발음할 수 있는 자리이다. 이 어휘는 <어한사전>에는 sɔttɔ-rɔŋ, 칼리나(2019b:165)에는 sottoo-soo-ø [get.drunk-PST-3]로 각각 단음과 장음으로 나타나 있다. 일단은 장모음으로 적어 두기로 한다.

[-RTR] 모음인 -čəə가 자유변이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장모음 ɔɔ를 가진 몇 가지 어휘의 예를 더 살펴보겠다. <어한사전>에 ǰɔɔnɔŋ ‘생각하다/그리워하다’로 나타나는 동사는 싱왕 방언에서 ǰɔɔn-ǰi-rɨ(n) [think/miss-PROG-NPST.3]과 같이 나타나는데, -r이나 -mi와 결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ǰɔɔnə-r-də [think/miss-PTCP.NPST-DATL], ǰɔɔnə-mi [think/ miss-NPST.1SG].

dɔɔl-gari [sing-HORT] ‘노래하자’에서 dɔɔl- 뒤에 gari가 나타났는데, dɔɔl-은 몽골어 차용어인 dɔɔ(<дуу) ‘노래’에 동사화접사 -l가 결합한 것이다. 이것은 원래 dʊʊ였을 가능성도 있고, 차용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화 규칙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ɔi로 시작하는 3음절 단어인 ɔimbɔrən ‘해결하다, 결정하다, 처리하다’의 경우 ɔimbɔrən/ɔimbɔ-čɔɔ~ɔimbɔ(~ə)-čəə~ɔimbʊ-čaa로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43]

3.2.2. 자음 관련 현상

3.2.2.1. k의 유지

호이 방언 등에서 x, s가 나타나는 자리에 싱왕 방언에서는 k, č가 나타나는 경우가 자주 보이는데, 이는 호이 방언을 비롯한 다른 방언에서는 일어난 k>x, č>s로의 변화가 싱왕 방언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먼저 k>x로의 변화가 싱왕 방언에서만 일어나지 않은 예는 다음과 같다.

---

43) <어한사전>에 ɔimɔmbʊ̈raŋ, ɔimɔrɔŋ 두 형태 모두 타동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제공인은 각각 문법 항목과 어휘 항목에서 자동사인 ‘되다(成为)’와 ‘해결하다’의 의미로 모두 사용했다.

(19) 싱왕	사마지에	둘라르	호이	의미
kaalaran			kaalaran/xaalaraŋ	바꾸다
kaicilaran			xajʃɪlaran/kaicilaraŋ	자르다
kəəkə	xə:x'ə		xəəxə	고양이
kɔtɔn			xɔtɔŋ	성(城)
kuruburən	xuɾbuɾ'ə̃		xoboron	飜身
kewur	xə'wuɾ			초원
akin	ax'in～akʰ'in		axɪn	형
aakin	a:x'ĩ		aaxɪn	간
əkudə			exuddi	덥다
ukun~ukkun	əx'un		əxuŋ	젖
xʊlekan	xʊʎix'ã		xʊlixaŋ	벌레
ulək	əl'əx		ələxu	가짜의
suku			ʃuxə	도끼
ikə	ix'ə: iɾdə(鍋黑)		iixə	솥锅
jeŋkin	nannəx'in		nɪnɪxɪn	개
nəkun	nəx'un		nəxuŋ	동생
takalə	tʰɔx'ɔl～tʰɔx'al	tʊxal		흙
ukur			əxur	소
xwalkaran		xwalgərən	xʊlaxaran	훔치다
bakaldi-	baxɨldiɾ'ən	baxallirən	baxaldi-	만나다
wankan	ʊnəx'ɨn	wanəxəŋ	ʊnaxaŋ	손가락
nandakan		nannaxan~nandaxan	nandaxan	예쁘다
ənku	'ənuxu		ənxu	병(病)
arki	'aɾkʰi		arɪxɪ/arki	술
ulukčənən			uluxčeneŋ	말하다

음성 자료 등에서 확인해 본 결과 명령의 -ke 역시 싱왕 방언과 둘라르 방언에서 buu-kə (give-IMP), 사마지에 방언과 호이 방언에서 buu-x(ə)

로 다르게 나타났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어휘마다 적용 여부가 다르게 나타나거나 개인에 따라 수의적으로 발음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싱왕 방언에서도 utkai~utxai, aka~axa와 같이 드물지만 k~x가 자유변이하는 현상이 있으며, 음절말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편이다. (bak-čaa~bax-čaa (get-PST))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위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방언들 간의 뚜렷한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3.2.2.2. č의 유지

(20) **싱왕**	**사마지에**	**호이**	**의미**
čaalban		ʃaalban	자작나무
čɔŋkɔ	sˈɔŋkʰə	čɔŋkɔ~ʃɔŋxɔ	창문
čiildə		siildə	쓸개
cikin		ʃixən	오줌
ačikčan		asiččaŋ	쥐
ičirən	isi-	isirəŋ	보다
aačin	aasin	aasiŋ	없다
kičəərən		xisəərəŋ	조심하다
bəičirən	bəjuusi-	bəjuʃirən	사냥하다
alačiran	alaːɛˈix	alaaʃıran	기다리다
čimaačin	tʰemaːɛˈin	timashiŋ~timasiŋ	내일
jəənu-či	bajta-si-ji	jəənuu-si	재미있다

둘라르 방언의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예가 적지만, '사냥하다'의 경우 음성 자료에 bəjčirən으로 나타났다. 또 싱왕 방언에서 -čəə로 나타나는 과거표지는 호이 방언에서는 bu-səə로 나타나는데, 권재일·김주원 (2000:12)에서는 이것을 사마지에 방언에서 나타나는 č~s 교체의 예

(buse~bučə)로 들고 있다. 권재일·김주원(2000)에 따르면 사마지에 방언에서는 /č/가 어두에 나타나지 않으며, 제2음절 이하의 자음 g, d, l 뒤에서, 그리고 간혹 제2음절 이하의 모음 사이에서 [tɕʰ]와 [s]가 자유 변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즉 bu-와 같은 단어 뒤에서 솔론어의 과거표지 -čəə는 싱왕 방언에서는 č로 나타나고, 호이 방언에서는 음운환경에 따라 č/s 중 s가 결정되고, 사마지에 방언은 -č~s가 자유변이한다. 사마지에 방언은 모음으로 끝난 어간 뒤에서 -čəə가 -səə로 변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듯하다.

3.2.2.3. 자음동화

사마지에 방언과 둘라르 방언의 선행연구(김주원·고동호 2004)에서는 호이 방언에서 어중에 나타나는 장자음이 사마지에 방언과 둘라르 방언에서 복자음으로 실현되며, 이를 근거로 호이 방언의 형태소 내부의 장자음은 원래 복자음이었던 것이 역행동화를 일으켜 2차적으로 형성된 것임을 밝혔다. 싱왕 방언에서도 형태소 내부의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복자음의 예를 많이 찾을 수 있었는데, 사마지에 및 둘라르 방언의 예와 함께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몇 개만 제시해 보겠다. 먼저 -r+자음, 장애음+장애음이 인접해 있을 때의 동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예들이다.

(21)	싱왕	사마지에	둘라르	호이	의미
-rb-	gerbə-[44]	gərbə	gərbə	gəbbə	노동
	gərbi	gərbi	gərbi*[45]	gəbbi	이름

44) 명사형이 나타나지 않아 해당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 혹은 그 동음이의어로 보이는 동사를 대신 적었다. 호이 방언은 어한사전에는 gəbborəŋ(노동하다)로 동사가 등재되어 있지만 <간지>에 劳动은 gəbbəjə ɔɔʤɪran (노동을 하고있다)로 실려 있다.

45) 둘라르 방언의 gərbi(이름), xɔrgɔl(꿩), tərəgsi(옷), ǰip-(먹다)는 김주원·고동호(2004:78)의 표에는 없지만 회화 자료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한 예이다. 원칙적으로는

-rp-	sarpə~sarp	sarp	sarp	sappʊ	젓가락
-rd-	ərdə	ərd	ərd	əddə	아침
-rč-	baačči	baːrči	barči	baʧʧi	나이
	bərčɔ			bɔʃʃɔ	콩
-rg-	ərgilə	ərgilə	ərgilə	əggidə	아래
	xərəgəl~xərgəl	xərgəl	xərgəl*	xəggol	꿩
	tərəgsə	tərgəči	tərəgsi*	təggəʧi	옷
-rk-	urki	urkə	urki	ukkə/uxxə	문
	ɔrkɔn		ʊkkʊŋ		밧줄
	warka	okkə		okk/ʊkk	덫
-gd-	gwagdə	gɔgda	gogdu	gʊdda	높다
	sagdi	sagdi	sagdi	saddə/ʃaddɪ	늙다
	agdaran	agda-		addaraŋ	기쁘다
-gt-	gəgtirən	gəkti-		gətti-	얼다
	ɔsigtə	ɔːsiktə/ɔːsikta		ɔːʃɪtta	별
	ɔsigtə	ʊsiktə	osiot	ʊʃɪtta	손톱
	sirəgtə	sirəktə	sirəktə	ʃirəttə	실
-kt-	ǰəətə[46]	ǰəːktə	ǰəːktə	ǰəːttə	밥
	ɔmɔktə	ɔmɔktə/ɔmɔkta	omokto	ʊmatta	알
	aktədə	aktiddə		attiddi	어둡다
	sjələktan	ɕəliğtʰan		ʃɪrʊttan	모래
-kč-	əmutsə	əmukčə	əmuksə	omoʃʃo	얼음
(-ks-)	siluksə	silukčə~siluksə		ʃiləʃʃə	이슬
	imuksə	imukču~imuksu	imuksə	imuʃʃə	기름
	ačikčan			asiččaŋ	쥐
-pt-	ǰibtən	ǰipt-	ǰiptən*	ʤəttəŋ	먹다

앞서 언급한 출판자료에서 인용하는 예만 표에 제시하지만, 이 예들은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표에 함께 제시하고 *를 붙여 표시했다.

46) 흑룡강성 솔론어 어휘집인 『鄂温克语汉语对照词汇』(1999:163)에는 zəgt/zhegete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제1음절 어말에서 (마찰음으로 실현되는) g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 논문의 자료제공인의 언어에서는 g가 탈락한 형태로 나타났다.

호이 방언에서는 -r+자음, 장애음+장애음 연쇄일 때 앞의 음절말 자음이 후행 음절초 자음에 완전동화되었다. 싱왕방언에서는 baačči '나이'와 əmutsə '얼음'을 제외하고는 사마지에 방언이나 둘라르 방언에서와 마찬가지로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중 baačči는 '-가 있는'을 의미하는 -či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되므로 엄밀히 말해 형태소 내부의 현상이라 할 수 없다.[47] '덫'은 김주원·고동호(2004)에서는 사마지에 방언에서도 okkə로 나타나므로 호이 방언과 사마지에 방언만 놓고 볼 때 원래부터 장자음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단어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싱왕 방언에서 '덫'은 warka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한사전>에는 사마지에 방언의 '덫'과 같은 형태인 ərhə의 의미가 口, 坑, 孔로 등록되어 있으며 '덫'은 또 다른 표제어인 ʊkk (圈套, 套索 陷入圈套)로 등재되어 있었다.) 여기까지 대체적으로 r+자음, 장애음+장애음의 경우에는 역행동화를 일으킨 호이방언에 대해서 둘라르와 사마지에, 싱왕 방언은 모두 공통적으로 역행동화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 김주원·고동호(2004)에서는 사마지에 방언에서 자음동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와 관련해서 사마지에 방언에서 수의적으로 자음동화가 일어날 수 있는 -ds-, -ts-, -tč-, -sč-, -pč-, -rd-, -rg-, -rk-를 가진 예들을 제시했는데, 다만 사마지에 방언의 자료제공인이 호이 방언 지역권인 난툰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것인지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였다. 여기에서 제시된 예들 중-ts-, -tč-, -sč-, -pč-는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난 예들인데, 예를 들면 isi-čə에서 제 2음절의 모음이 탈락하며 형태소 경계에서 역행동화가 일어나는 [iɕitɕʰə~ittɕə]와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 형태소 경계에서

47) 싱왕 방언은 형태소 경계에서는 역행동화가 일어난다. 형태소 경계에서의 역행동화 예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보이겠다. əmutsə '얼음'은 둘라르 방언의 əmuksə가 원형이라고 본다면 역행동화가 일어났지만 호이 방언처럼 위치와 방법이 완전히 동화되지는 않고 위치 동화만 일어난 예외이다.

나타나는 이러한 동화현상은 싱왕 방언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것으로, 싱왕 방언을 참고한다면 적어도 일부 현상에 대해서는 호이 방언의 영향일 가능성의 무게를 약간은 덜 수도 있을 듯하다.

한편, 김주원·고동호(2004)에서는 위와 같이 역행동화가 일어난 -r+자음, 장애음+장애음의 예들과 달리 l, n, ŋ+자음은 호이 방언에서도 대부분 동화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또 둘라르 방언에서는 이들 예를 포함하여 유음 또는 비음에 [+coronal]자질을 갖는 장애음이 따르는 경우 대부분 장애음이 유음이나 비음에 완전히 동화된다는 점도 밝혔는데, 그 예들을 발췌하여 싱왕 및 다른 방언의 예와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48]

(22)	싱왕	사마지에	둘라르	호이	의미
-ld-	uldə~ullə[49]	uldə	ullə	uldə	고기
	walde		wallə	ʊlda	이불
-mg-	damgə~damagə	damg-i	damgə*	daŋga	담배
	əmgə	əŋŋ'il		əŋŋə/əŋŋəl	넓다
-mt-	amta-			antaraŋ	맛보다
	amtači			antaʃɪ (甜)	맛있다
-md-	nimdə(~nində?)			nəmi/nindər	얇다
	gerəmdə	giranda	gerannə	gɪranda	뼈
-nd-	manda-	mʊndarən	munnaren	mʊndaren	때리다
	nandakan		nannaxan~nandaxan	nandaxan	예쁘다
	swanda[50]		sunna~suanda	ʃɔnda	마늘

48) -mg-는 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비교를 위하여 함께 제시했다. 참고로 Bulatova (2014)에 제시된 어웡키어 어휘 예에는 '넓다'가 emŋe로 적혀 있었다. 또 '돌아오다'의 əmgi-의 경우 əm-(오다)에 파생접사가 결합한 형태소 경계이기는 하지만 역시 싱왕 방언과 호이 방언에서는 əmgi-로 나타나는데 둘라르 방언 음성 자료에서는 eŋgi로 역행동화를 일으킨 발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라르는 어휘 자료가 많지 않아 일부 빈칸이 있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한 빈칸들이다.

49) 기본적으로 uldi로 발음하지만, 여러 번 발음한 예 중에 한정대격표지 -wu와 결합한 형태 ull-u와 ull-i로 발음하는 예도 나타났다.

-ŋd-	naŋdə		naaŋnə~naaŋdə	nanda	피부
-ŋt-	swaŋtə	sund (muu)		ʃʊnta/sont	깊다
-ŋǰ-	dəŋǰən	dənǰən	dənnjən	dəndʒən	등(燈)
-ŋs-	njaaŋsə			nEEnʃɪ/niinca	코

먼저 가장 윗줄에 둘라르 방언에서 ld>ll의 변화가 일어난 예로 위에 제시된 어휘들 중 '이불'은 싱왕 방언에서는 -ld-의 예만 나타났지만, '고기'는 한정대격이나 부정대격과 합쳐진 uld-u, uld-i가 각각 [ullu], [ulli]로 나타난 예가 있었으며, 그밖에도 gɔlle~gɔlde '밀가루', ɔllɔnni~ɔldɔndi '옆', balləčaa/balččaa/baldirəŋ '낳다', aldəča~alləča, '세다', dooldə-~doollə, '듣다', -kuldə~kullə~kullu (IMP.2PL) 등의 여러 예에서 수의적으로 ld>ll의 순행동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유음 뒤에 [+coronal] 자질을 갖는 장애음이 올 경우 둘라르 방언과 싱왕 방언에서는 모두 ld>ll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51]

그리고 호이 방언과 사마지에 방언에서 역행동화를 일으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던 -nd- (gɪranda), -nǰ- (dəndʒən)의 예는 싱왕 방언에서는 -ŋd-, -ŋǰ-로 나타났다. 또 '뼈, 피부'는 원래 김주원·고동호(2004)에서는 -nd-의 예로 제시되었던 것들이지만 싱왕 방언에서 각각 -md-와 -ŋd-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표에서는 싱왕 방언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md-와 -ŋd-로 새로 분류하여 적었다.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적은 예들만 가지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이 예들만 두고 보자면 비음+[+coronal] 자질을 갖는 장애음이 올 경우에는 우선 사마지에 방언은 호이 방언과 대략 똑같이 나타난다(여기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환경에 해당하지 않는 '담배'는 제외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싱왕 방언을 기준으로 놓고 호이와 사마지에 방언을 함께 보자면 조음점이 이미 같은 -nd- 연쇄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호이, 사마지에 방언에서 부분 역행동화가 일어

50) 자료제공인이 한어라고 하면서 답한 것이다.
51) 싱왕 방언의 경우 산발적으로 일어나며, '고기'도 uldi로 발음되는 예가 더 많다.

났다는 점을 알 수 있다(mt>nt, md>nd, ŋd>nd, ŋt>nt, ŋǰ>nǰ, ŋs>ns). 선행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호이 및 사마지에 방언과 둘라르 방언을 나란히 놓고 살펴보면 둘라르 방언에서 하나의 예를 빼고는 nd>nn, nǰ>nn로 조음 방법의 완전 순행동화가 일어났는데(비음화), 둘라르 방언에서 순행동화를 일으킨 선행 자음 n은 호이, 사마지에 방언형의 부분 역행동화(위치 동화)의 결과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만약 호이와 사마지에 방언의 현재 모습이 싱왕 방언과 같은 상태에서 한차례 부분 역행동화를 겪은 결과라고 한다면, 싱왕 방언을 제외한 세 방언이 똑같이 위치 역행동화를 겪은 후에 둘라르 방언에서는 다시 방법 순행동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라르 방언의 naaŋnə~naaŋdə는 싱왕 방언의 naŋdə에서 보이는 ŋ를 유지하고 있는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둘라르 방언의 변화가 두 단계에 걸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dənnjən과 같이 -nn-으로 동화되기 위해서는 위의 dəŋǰəŋ : dənǰən : dənnjən 의 예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먼저 역행동화를 일으켜 -nd- 연쇄가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어휘에서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싱왕 방언의 다른 어휘들과 마찬가지로 둘라르 방언의 naaŋnə~naaŋdə도 그 다음의 순행동화가 적용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표에 나타난 어휘들은 ld>ll를 제외하고는 싱왕 방언에서 동화를 일으키지 않은 형태로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싱왕 방언에서 동화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싱왕 방언에서는 호이 방언에서 -ndi로 나타나는 2인칭 현재 어미가 -ni[52]로 나타나는데 이는 nd>nn의 동화의 결과이다. 또 호이와 사마지에 방언에서 ɔɔndi로, 둘라르 방언에서는 ɔɔni로 나타나는 의문사는 원래는 '어느'라는 뜻이며 ɔɔn으로

52) 이 경우는 수의적인 것이 아니라 문법형태소 자체가 -ni로 변화한 것이다. 한편, 어휘 조사에서 jamanda '눈'과 함께 'jaman'형태를 말하기는 했지만 실제 문장 발화에서는 jamanda라고만 말했다.

나타나는데, 이것이 둘라르처럼 ɔɔnni을 거쳤는지 모음이 먼저 탈락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문말에서 '어떠하냐'의 뜻으로 쓰이는 ɔɔni [ɔɔne](涂吉昌·涂芊玫(1999)에 ɔni 如何로 되어 있다.)라는 형태도 나타나는데 이를 역시 ɔɔndi에서 변화한 것으로 본다면 nd>nn의 동화가 일어난 결과일 것이다.[53] 또 언급했듯이 싱왕 방언에서도 형태소 경계에서는 nd>nn을 포함한 각종 동화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므로(nawʊn-də~ nawʊ-nə), 역시 싱왕 방언에서도 해당 동화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둘라르 방언보다는 활발하지 않고 특히 문법 요소나 형태소 경계에 비해 어휘 형태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범위가 훨씬 작다. 결국 싱왕 방언은 둘라르 방언과 ld>ll, nd>nn 동화 현상을 일부 공유하지만 싱왕 방언에서는 특히 어휘에 있어서 둘라르 방언만큼 활발히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어휘들의 어형에서 차이가 나게 되었다. 거기에 더해 싱왕 방언에서는 조음점이 다른 나머지 자음연쇄들이 부분 역행동화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둘라르 방언 순행동화의 예외 naaŋnə~naaŋdə(ŋ을 유지)와 마찬가지로 순행동화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앞에서 살펴본 몇 가지 현상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호이	사마지에	싱왕	둘라르
r/장애음+장애음 동화	O	X	X	X
비음+[+coronal] 동화	2	2	1	3
ld>ll 순행동화	X	X	O	O
k > x	O	O	X	O/X[54]
č > s	O	O	X	-[55]
ʊ : wa	X	X	O	O

표 3 방언 간 음운현상 비교1

53) 이것 역시 '어느'의 의미로 쓰이는 ɔɔn과 같은 형태이며 문말에서 어기사와 결합한 형태(ɔɔn=e)로 볼 수도 있다. (cf. eŋkən~əŋkəne(문말에서))

54) 다른 방언들에 비해 예가 적고, 확인했던 어휘들에서는 대부분 x로 나타났지만 문법형태가 buu-kə(give-IMP)로 나타났으므로 임시로 O/X로 해 둔다.

55) 따로 확인한 bəjčirən '사냥하다'는 č로 나타났지만 이 한 예만을 가지고 말하기는 어렵고, 문법형태의 경우 사마지에처럼 자유변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보류해 둔다.

먼저 이 표는 단순히 앞에서 보인 어휘 예들을 관찰한 결과만을 반영한다는 점을 말해 둔다. 이미 언급했듯이 한 방언에서 일어난 변화가 다른 방언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료를 전체적으로 둘러보았을 때 그 양상과 영향력은 방언마다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앞에서 살펴본 일부 예들은 나름대로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표로 정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의 표에서는 [+nasal]+[+coronal] 환경의 예들에서 호이 방언과 사마지에 방언이 동일하게 나타났고 싱왕 방언과 둘라르 방언은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 1, 2, 3 유형으로 표시하였다. 그런데 만약 위에서 생각해 본 것처럼 [+nasal]+[+coronal]의 환경에서 두 번에 걸쳐 동화 현상이 일어났다고 가정한다면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 k>x, č>s의 변화까지 더해서 보면, 김주원·고동호(2004)에서 살펴보았던 호이, 사마지에, 둘라르 세 방언 중에서는 동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원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언은 사마지에 방언이었는데 이제 적어도 이 표로만 보자면 싱왕 방언이 가장 변화가 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호이	사마지에	싱왕	둘라르
r/장애음+장애음 역행동화	O	X	X	X
비음+[+coronal] 1차 동화(역행)	O	O	X	O
비음+[+coronal] 2차 동화(순행)	X	X	-	O
ld>ll (순행)	X	X	O	O
k > x	O	O	X	O/X
č > s	O	O	X	-
ʊ > wa	X	X	O	O

표 4 방언 간 음운현상 비교2

다만 이 표는 극히 일부의 현상들에 대해서 많지 않은 예를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방언들의 전모를 반영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솔론어의 방언들은 서로 공통된 부분과 차별되는 특징이 체계적인 대응관계를 보이며, 싱왕 방언이 가장 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형태론적 특징

이 장에서는 문법 형태들과 그와 관련된 현상들을 살펴본다. 이 연구는 활자화된 것이 아니라 문자가 없는 음성 언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사의 기준을 세우고 일관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적어도 이 장에서는 문법 현상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문법 형태들에 있어서는 이 장에서 보고자 하는 현상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약화 현상 등은 어느 정도 무시하고 대표형으로 적기로 한다. 또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나 여러 이형태들이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도 번잡스러움을 피하고 되도록 같은 기능을 하는 요소들이 잘 파악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현상에 대해서는 따로 기술을 하고 전사는 대표형을 세워 전사한다. 동사 어간을 포함한 어휘 요소에 대해서는 이 연구의 자료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조금 더 실제 발음의 특징을 표기에 반영하거나 필요에 따라 실제 발음을 따로 표시한다.[1] 그리고 역시 완벽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고정적인 발음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수의적인 발음이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는 발음 차이 등은 감안하여 원래의 음소로 생각되는 것으로 음소전사한다.

예문의 몇 가지 전사 원칙은 다음과 같다. 문말에 오는 i로 끝나는 어미류 등은 ɪ~e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은데,[2] 이 연구에서는 i로 통일하여 전사하였다. 어말의 모음은 중화되거나 무성음화 되어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으며 어말 n/ŋ이 완전히 탈락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완전히 탈락했다면 탈락한 형태로 전사했으나 문법적으로 이

---

1) 예를 들어 jalan '셋/삼'의 경우 <어한사전>에 ilaŋ으로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여 ja를 음소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ilan으로 적을 수도 있지만, 싱왕 방언에서는 이 어휘의 제1음절 모음이 i-breaking이 일어나 ja로 변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발음을 표기에 반영하여 jalan으로 적는다.

2) 대체로 일일이 구분하여 전사하기보다 논저마다 -i나 -e 중 한쪽으로 통일하여 전사한다. 또는 이를 단순히 문말의 발음 약화가 아니라 어기사와 결합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하나의 형태소로 보았다.

해하는 데에 영향이 있거나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가 단순히 음성적으로 발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넣어 표시했다. 그리고 일부 문법 형태들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필요에 따라 따로 기술한 후 대표형으로 전사하였다.[3] 질문지 문항의 '그(他)'에 해당하는 tari~tar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지칭할 수 있는 말이지만, 편의상 모두 'he'로 주석하였다.

이 장에서 제시하는 예는 주로 싱왕 방언, 호이 방언, 사마지에 방언을 중심으로 한다. 둘라르 방언은 문장 예가 실린 정식 출판 자료가 없고, 문법 질문지를 사용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회화 음성자료를 통해 참고할 만한 예를 확인한 경우에는 전사하여 이용하였다. 따라서 이 장의 둘라르 방언의 예의 출처는 모두 1.3에서 언급한 음성 자료이며, 따로 출전 표시를 하지 않는다.

솔론어의 품사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간지>에서는 명사, 방위사, 형용사, 수사, 대명사, 동사, 부사, 상사(状词), 후치사. 접속사(连词), 첨사(小词), 어기사, 감탄사의 13개 품사로 나누어 기술했는데, 朝克(1995)에서는 방위사가 명사의 하위부류로, 상사(状词)가 의성의태사로 바뀌었다. 나머지 품사 중에서도 몇 가지는 연구에 따라 빠지거나 통합될 수 있다. 접속사로 다뤄지는 것들은 예를 들면 bičči '-고',[4] ɔɔčči '-와'[5]와 같은 것들인데 이것들은 bi-čči [be-CVB], ɔɔ-čči [do-CVB]

---

3) 싱왕 방언 자료에서는 비음화로 남아있다고도 보기 힘든 n/ŋ 완전 탈락 현상도 자주 나타났으며, 문장 끝이 아닌 중간에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ex. əmu(n) adön dəgi '한 떼의 새(들)' 여기에서 괄호는 n이 탈락했음을 뜻한다. 한편 문말에 오는 어미의 경우는 더더욱 탈락 현상이 흔하며 n/ŋ의 선행모음까지 거의 듣기 힘든 경우도 있다. 특히 -ǰi와 결합한 ǰi-rən은 실제로는 -ǰirə~-ǰir까지만 발음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구분하는 것이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고 여겨지므로 이곳에서 언급한 이후로는 괄호 없이 ǰi-rən을 모두 살려 적는다. 다른 형태소의 경우도 이와 같다.

4) exin **oocci** axin 'elder sister **and** elder brother' <간지:100>/ Tsumagari (2009:19)

5) imin doo-nii müü-nin aruxxun **bicci** antasi.
Imin river-GEN water-3 clear **PART** sweet
'The water of Imin river is clear **and** sweet.' <간지:100>/ Tsumagari (2009:19)

로 분석할 수 있다. Tsumagari (2009:10)에서는 이것들을 분석하지 않고 하나의 요소로 보되 bi-와 ɔɔ-의 부동사형에서 온 첨사(particle)라고 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솔론어의 선행 연구들과 다른 퉁구스 언어 연구의 품사 분류(Malchukov 1995:8) 등을 참고하여 싱왕 방언의 품사를 명사, 형용사, 수사, 대명사, 동사, 부사, 후치사, 첨사로 나누어 기술한다. 감탄사나 의성의태어는 자료의 특성상 별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4.1. 명사

솔론어의 명사에는 복수표지, 격표지 인칭표지가 결합할 수 있다. 명사뿐 아니라 대명사, 형용사, 수사 등에도 기본적으로 같은 문법표지가 결합할 수 있으며(4.2. 참조), 이들을 묶어서 명사류라고 한다.[6] 따라서 명사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등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만 다루고 형용사, 부사, 수사 등에 대해서는 각 품사의 고유한 현상이나 별도의 언급이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언급하겠다.

4.1.1. 수

솔론어에서는 복수와 단수를 나타내는 표지가 필수적이지 않다. 싱왕 방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복수표지는 -sul(~sulə~sulu)과 사람과 관련된 명사와 함께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ɔlɔ(r) 정도가 있지만 명사와 합쳐져 굳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복수표지는 별로 출현하지 않았다. ‘사람들’이라는 뜻의 bəi sul 역시 유도 질문을 통하여 이끌어낸 후에야 아래

6) 수사는 격표지와 인칭표지가 결합한다. <간지:47> 참조.

와 같은 답을 얻을 수 있었다.

(1) əmun njaruu bəi, əmun asi bəi.
one male person one female person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

(2) njaruu bəi-sul, asi bəi-sul~sələ.
male person-PL female person-PL
남자들과 여자들

-sul이라는 형태가 나온 후에도 직접적으로 묻지 않으면 복수표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에도 복수표지 없이 단순히 앞에 '많은'을 붙이거나 (banan bəi), '소떼와 말떼'로 질문했을 때에는 가축 떼를 뜻하는 'adʊn'으로 답하는 등 복수표지를 사용한 답이 매끄럽게 잘 나오지 않았다.[7]

이와 같이 복수를 나타내는 문법표지 대신 '많다' 등의 단어와 함께 사용하여 복수임을 나타내는 방법을 선호하는 예가 오로첸어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Li (2005:70)에서는 baran kumaza 'many deer'의 예를 들면서 이와 같이 문법표지를 사용하기보다(synthetic construction) 다른 단어와 함께 사용하여 복수 개념을 나타내는 것은(analytic/periphrastic construction) 절멸 위기의 언어들이 언어 접촉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문법 변화의 특징이라고 하였으며, 오로첸어에서 복수표지가 생산성을 잃어 가는 것은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복수의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ɔlər~ɔlə~ɔl[8]가 있다. 싱왕 방언에서 3인칭 복수 인칭대명사 '그들'은 '그'를 뜻하는 tar에 복수표지 -ɔlər~ɔlə를 더한 두 단어(그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호이 방언

7) 심지어 '소와 말' ukur-sulu mɔrin이라고 응답한 문장에서 '-와(한어 和)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니 sulu라 답하기도 하였다.
8) 제2음절은 평순화되어 ɔlər~ɔlə등으로 발음되기도 한다.

등에서도 나타나는 형태이다. <간지>에는 ʊlʊr로 전사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독으로 쓰였을 때에는 '사람들'을 뜻하며, 명사 뒤에 사용되면 복수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간지>의 예문에서 tar와 합쳐져 축약된 형태인 tallʊr도 확인할 수 있다.[9] 싱왕 방언에서 '그들' tar ɔlɔ 대신에 '이 사람들'이라는 뜻에 해당하는 ər -ɔlɔ라는 표현을 사용한 예도 있었다.

(3) tar ɔl im-ran.
they smoke-NPST.3
그들은 (담배를) 피운다.

(4) bii ər ɔlɔ-d nɔɔrəm-ti urgil nəə-muu-čii.
I these.people-DATL old.days-REL story speak-give-PST.1SG
나는 이 사람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했다.[10]

다음의 예를 보면 이 ɔlɔr~ɔlɔ가 '학생, 아이'의 뜻을 가진 명사에도 사용되었는데, tar ɔlɔ는 거의 r이 탈락된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 때에는 ɔlə와 ɔlər을 모두 발음하였다. 아래의 (5)는 질문은 '학생과 선생님(学生和老师)'이었지만 단수와 복수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하여 학생들과 선생님으로 대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5) nisikʊʊkʊ(n) ɔlə, səbə
student PL teacher
학생들과 선생님

---

9) 싱왕 방언의 '그들에게'도 이와 같이 축약되었다.
tallʊ-d ǰisigan buu-rən.
they-DATL letter give-NPST.3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10) 원래의 질문은 '나는 그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한다'이나, 과거형으로 대답하였다. 두 번째 답변에서는 tar ɔl를 사용하여 답변하였다.

(6) nisikʊʊkʊ(n) ɔlə, {nisikʊʊkʊ ɔlə-ma-ni,}[11] nisikʊʊkʊ ɔlər, səb sulə
student PL {student PL-ACC-3POSS} student PL teacher PL
학생들과 선생님들

한편 '아이'라는 단어는 nisikʊl, nisikʊʊkʊl, nisikʊʊkʊn 등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l로 끝나는 것들은 원래 nisikʊn과 nisikʊʊkʊn에[12] 복수를 나타내는 -l 형태가 붙은 채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7) nisikʊ(n)-l → nisikʊl
nisikʊʊkʊ(n)-l → nisikʊʊkʊl [싱왕]

이때 어말의 n/ŋ은 -l과 결합하며 탈락한다. 이는 호이 방언의 다음의 예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8) ʉkkəhəŋ (남자아이) + -l = ʉkkəhə(ŋ)-l → ʉkkəhəl (남자아이들)
[호이] - 朝克(2017b:49)

朝克(2017b:50)의 기술에 따르면 -l은 더 이른 시기의 솔론어에서 생산적으로 사용되었던 복수표지였으며 현대 솔론어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 또 원래 솔론어에서는 한 쪽 눈을 가리킬 때에는 iisa/iiha를 사용했고, -l이 결합한 iisal은 한 쌍의 눈을 가리키는 복수 표현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단수 '눈'에 대해서 iisal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13] 싱왕

---

11) 문장 중간에 말을 더듬다가 의미 없는 발음을 하거나 잘못 발화한 부분, 문맥과 상관없는 것이 첨가된 부분 등은 { }에 넣어 표시하였다.

12) nisikʊ̈n은 '작다, 어리다'를 뜻하는 형용사이나 싱왕 방언에서는 '아이'를 의미하는 명사로 쓰인다. nisikʊ̈ʊ̈kʊ̈n은 nisikʊ̈n에 지소사 -kʊ̈n이 결합한 형태로 분석할 수 있다.

13) 한편 朝克(2017b)에 -l이 문맥에 따라 복수나 단수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는 기술이 있는데 이것은 iisal이나 nisikʊ̈l 등과는 다른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어머니 한 사람만 왔다." əri inig əmmə-l əməsə.에서 사용된 -l은 iisal이나 nisikʊ̈l 등의 경우처럼 자주 복수의 대상을 가리키던 어휘에 결합한 채 굳은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단수로 사용되는 əmmə '어머니'라는 단어에 결합함으로써 오히려 온 것이

방언의 nisikʊl/nisikʊʊkʊl도 이렇게 -l이 복수의 의미가 약해진 채 화석화된 형태여서 다음의 예에서 보듯이 한 명의 아이를 나타낼 때에 nisikʊʊkʊn(11)뿐 아니라 nisikʊl/nisikʊʊkʊl(9,10)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9) əmun nisikʊl
one student
아이 한 명

(10) tar nisikʊʊkʊl/nisikʊl nandaakan.
that child pretty
그 아이는 예쁘다.

(11) Mandi əmun nisikʊʊkʊn.
Mandi one student/child
만디는 단지 어린 학생에 불과하다.

다음 예의 ɔɔn에 결합한 tagana는 앞에 오는 의문대명사의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며, 호이 방언의 txan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12) sin-əŋ ǰuu-d[di]-si ɔɔn=tagana bəi bisi-n?
you.SG-GEN home-DATL-2SG.POSS what.kind.of=PL person be.NPST-3
당신은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당신 집에 어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다만 호이 방언의 txan은 모음조화를 따르는데, '어떤 어떤'을 호이 방언으로 나타낼 경우 ɔɔndi-txɔn과 같이 나타난다. 朝克(2017b:23)에서

어머니 단 한 사람뿐임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인다. 즉 여기에서 설명한 복수표지 -l과 전혀 다른 기능이므로, 복수표지가 동시에 이 두 가지 기능을 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이상 모양만 같은 다른 문법표지로 이해하는 것이 무난할 듯하다.

awu-thaŋ(누구누구 谁们), ohoŋ-thoŋ(무엇무엇 什么什么), ilə-thəŋ(어디어디 哪儿哪儿) 등을 비롯한 예들을 확인할 수 있다.

4.1.2. 격

주요 격표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주격	∅
속격	-ŋ
한정대격	-(w)u, -ma
비한정대격	-i
도구격	-ǰi
여처격	-də
탈격	-tki/dki

4.1.2.1. 주격

솔론어에서는 대부분의 알타이 언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격표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13) bii əŋku bəi/bəji.
I ewenki person
나는 어웡키인이다

(14) mərin tutul-ǰi-rən.
horse run-PROG-NPST.3
말이 달리고 있다.

(15) ǰuur bəi əm-čəə.
two person come-PST
두 사람이 왔다.

칼리나(2019b)에서는 한국어의 이중주어문은 솔론어에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으나, '철수가 돈이 많다'와 같은 일부 유형은 솔론어에서도 이중주어문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에 초점에 따라 서술어에 차이가 난다고 설명하였다.

(16) a. Colsʉ mʉgʉn bara(<n)-si.
Chulsoo money many-PROP
철수가 돈이 많다.(lit. 철수 돈 많이 있다.)
b. Colsʉ-ni mʉgʉ(<n)-nin baran.
Chulsoo-GEN money-3POSS many
철수가 돈이 많다. (lit. 철수의 돈-그 사람 많다.)

(17) a. Colsʉ del ai-si.
Chulsoo head good-PROP
철수가 머리가 좋다. (lit. 철수 머리 좋음 있다.)

b. Colsʉ-ni del-nin aya.
Chulsoo-GEN head-3POSS good
철수가 머리가 좋다. (lit. 철수의 머리-그 사람 좋다.)

[호이] - 칼리나(2019b:42)[14]

---

14) 다른 논문의 예를 인용한 것은 기본적으로 원본의 전사, 분석, 강조표시 등을 모두 그대로 옮겼으나, 같은 용어에 대한 약어나 같은 기능을 하는 부호 등 표시 형식만 다를 경우에는 이 논문의 약어와 부호로 통일하여 표기하였다. (converb: CONV→CVB, past: PAST→PST, instrumental: INST→INS, '_' → '.' 등) '의문법'의 interrogative/INT도 question/Q와 같은 것이므로 Q로 통일하였다. 한편 논문에 따라

칼리나(2019b)의 기술에 따르면, 만약에 ‘철수가 가방이 크다’의 경우라면 솔론어는 소유 구성으로만 표현이 된다고 한다. 위에 제시된 두 예도 초점이 ‘철수’가 아닌 ‘머리/돈’일 경우에는 b와 같이 소유 구성으로 표현되며, 서술어도 ‘많다/좋다’로 나타난다. 또 a와 같이 이중주어문으로 표현될 때에는 ‘철수’에 초점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서술어도 ‘좋음 있다/많이 있다’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다음은 싱왕 방언에서 찾을 수 있는 이중주어문의 예이다. 싱왕 방언의 경우 위의 호이 방언 예문에서와 같은 서술어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는 예는 보이지 않는 듯하다.

(18) bii ail-əŋ-ji dɔɔlə-ni bəi-ji uǰu/uǰi gwagdə-nin./gwagdə.
I town-GEN-1SG.POSS inside-3POSS body-REFL most high-3POSS
내가 우리 마을에서 키가 가장 크다.

(19) mɔŋɔl sjəlɔktan bag-nin gərbi-či.
Mongol sand ground-3POSS name-PROP
몽골은 사막으로 유명하다. (몽골은 모래 땅이 유명하다.)

(20) bii aami isi-ǰi-rən.[15)]
I sleep be.sleepy-PROG-NPST.3
졸립니다. (나는 잠이 온다(?))

성백인 외(2010)나 Tsumagari (2009) 등에서는 -ran 등의 직설법 어미를 ‘현재시제’(present/PRES)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원문 그대로 옮겼다.

15) 제2음절의 i가 약화되어 [iθɨ-]로 발음되었다. <어한사전>에서 ‘보다’와 동음이의어인 isirəŋ은(싱왕 방언에서 ‘보다’는 ičirəŋ이다.) ‘휴면, 동면하다’의 뜻을 가지는 자동사이며, 표제어 aami(잠) 하위 항목에 ‘잠이 오다’는 aami isiraŋ(urilni aaminiŋ isisa 孩子困了。)으로 나타나 있는데, <어한사전>에 ‘도달하다’는 iseraŋ으로 등재되어 있어 모음이 다 다르다. <간지>에는 ‘도달하다’가 ɪsɪran으로 적혀 있다.

4.1.2.2. 속격

솔론어의 속격표지는 -ŋ로 나타난다. 어말에서 비음화하거나 3.1.2의 (3)에서 보였듯이 다음 단어의 첫 자음에 동화되는 경우가 많지만,[16] 아래의 (22~24)와 같이 뒤에 1인칭표지 -(j)i가 붙었을 때 ŋ가 뚜렷이 발음되는 예들을 통해 속격표지가 -ŋ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자음과 결합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어간말 자음과 ŋ 사이에 ə가 삽입된다.

또한, 아래의 예들에서 밑줄친 부분을 보면 속격표지와 함께 그 소유의 대상에 해당하는 명사에 소유인칭표지가 함께 나타나는 double-marking을 확인할 수 있다.[17]

(21) səbəi-ŋ[n] ǰuu-ninᵢ ailᵢᵢ-əŋ[n] dwandila-niᵢᵢ bi-ǰi-rən.
teacher-GEN house-3POSS town-GEN center-3POSS be-PROG-NPST.3
선생님의 집은 마을 한가운데에 있다.

(22) bii ail-əŋ-**ji** dɔɔlə-ni bəi-ji uǰu/uǰi gwagdə-nin./gwagdə.
I town-GEN-1SG.POSS inside-3POSS body-REFL most high-3POSS
내가 우리 마을에서 키가 가장 크다.
→ 내가 **내** 마을의 안에서 키가 제일 크다. (마을의-**나의** 안-그것의)

(23) bii asi-ŋ-**ji** ǰisigan-ma-ni bak-čii.
I wife-GEN-1SG.POSS letter-ACC-3POSS get-PST.1SG
나는 아내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 나는 나의 아내의 편지를 받았다. (아내의-**나의** 편지-그녀의)

---

16) 예를 들어 (21)의 경우 ǰ와 d 앞에서 [n]으로 발음되었다. 이 동화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3.1.2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직접 예를 보일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음 표기를 생략한다.

17) 그와 별개로 진한 글씨의 인칭표지만으로도 '나의' 친구/아내라는 사실이 표현되었음 역시 확인할 수 있다.

(24) guči-ŋ-**ji** məmə-nin əm-čəə.
friend-GEN-1SG.POSS mother-3POSS come-PST
나의 친구의 어머니께서 오셨다. (친구의-**나의** 어머니-그의) [싱왕]

마지막 문장과 비슷한 사마지에 방언의 예를 하나 들어 본다. 이 경우에는 속격표지는 사용되었으나 '어머니'에 이더르의 어머니임을 표시하는 3인칭표지는 결합하지 않았다. 먼저 싱왕 방언의 속격 형태에 관해 논한 뒤, 이러한 속격표지나 그와 어울려 쓰이는 인칭표지들이 나타나거나 생략되는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25) idər-ni ənin əm-səə.
Ider-GEN mother come-PST
이더르의 어머니가 왔다. [사마지에] - 성백인 외(2010:127)

4.5.1에서 볼 인칭대명사의 속격형태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다른 세 방언에서는 속격표지가 모두 -ni로 나타나는데 싱왕 방언에서는 -ŋ로 나타나나며, 이것은 -ŋi에서 모음이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ŋi는 러시아 어웡키어에서 예전에 쓰였던 속격표지와 거의 같은 형태이다. 현대 러시아 어웡키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솔론어와 다른 방법으로 소유를 표현하지만 속격표지의 흔적이 있다. Bulatova & Grenoble (1999:14)에서는 direct possessive suffix -ŋiː-[18]를 'remnant of genitive case'라고 표현했으며, 인칭대명사의 격변화 형태인 minŋiː, sinŋiː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Nedjalkovs (1997)에 의하면 'old genitive' -ngi는 당시로부터 50여 년 전까지는 쓰였으나 지금은 별로 생산적이지 않다고 한다. 어웡키어에서 생산성을 잃은 속격표지 -ŋi(또는 -ŋiː)는 오로첸어에서는 아직도 사용되고

[18] Bulatova & Grenoble (1999)은 이전의 문법 기술에서 이 -ŋiː-가 양도 가능의 (alienable possessive suffix) -ŋi-와 혼동되었으나 둘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양도 가능 접사에 대해서는 4.1.2.3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다.

있다.[19] Whaley (1999:301)에서 러시아어와 오로첸어의 차이점으로 든 것 중 하나도 속격표지의 사용 여부인데, min-ŋi ‘my’ 등 인칭대명사와 결합한 예와 함께 일반 명사와 결합한 예도 Zhang et al. (1989)에서 인용하여 들고 있다. ɷtŋakkan-ŋi kɷninin ‘Wujiakang’s sheep’, ərgidə-ŋi kɷdixan ‘bottom of the bag’ (ərgidə ‘bag’), bəyun-ŋi ulə ‘moose meat’ (bəyun ‘moose’)

오로첸어의 min-ŋi와 싱왕 방언의 min-əŋ 등은 기본적으로 사격 어간 min-에 속격표지 -ŋ(i)가 결합한 똑같은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솔론어인 싱왕 방언에서는 n과 ŋ 사이에 매개모음인 ə가 들어가고 끝의 i 모음이 탈락했다.

min- + ŋi → min-ə-ŋi → minəŋ

ail-əŋ, bitəg-əŋ, ukur-əŋ, ərd-əŋ[20]

결국 어웡키어와 오로첸어의 -ŋi, 솔론어 호이 방언의 -ni까지 고려하면 이 언어들에서의 속격표지는 모두 비자음(n 또는 ŋ)+i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

19) 오로첸어는 전통적으로 어웡키어의 방언으로 생각되어 왔는데, 솔론어와 오로첸어는 어웡키어와 계통적으로 가까우면서 중국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다. Baek (2017)에서는 오로첸어의 문법적인 위치에 대해서 계통적으로 관계가 있는 그룹의 퉁구스 언어들과, 지역적으로 가까운 (중국의) 퉁구스 언어들과의 사이에 위치한다고 보았다. 속격표지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오로첸어는 원래 계통적으로 연관이 있는 어웡키어에서 사용되던 것과 같은 형태의 속격표지를 가지고 있으며, 속격표지를 상실한 어웡키어와 달리 지역적으로 같은 ‘남부 퉁구스 언어’ 그룹에 속하는 솔론어 등과 마찬가지로 속격표지를 유지하고 있다.

20) 속격표지 -ŋ가 후행 단어에 의해 역행동화하는 경우, 이를테면 ‘나의 머리’ min-(ə)ŋ [minɨn~minn] dil-ji는 min-과 -ŋ가 결합한 것이 [minɨn]으로도 발음이 되지만 간혹 [minn]과 같이 발음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nn이 길게 발음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mɔrin과 같은 n/ŋ말음 일반명사와 결합한 경우 발음만으로는 어간의 n/ŋ만인지 그 뒤에 -ŋ가 결합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mɔrin dil/mɔrin-ŋ[n] dil). 일반 명사의 경우 속격표지가 수의적으로 생략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싱왕 방언의 sin-ə-ŋi, min-ə-ŋi 등에서 모음 ə가 삽입된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말의 i 탈락 역시 싱왕 방언의 -mi, -ni, -ndi 등의 문법 형태들 뒤에서 어말의 i가 탈락된 형태가 흔하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위의 문법표지들은 mi~m과 같이 i가 떨어진 형태와 떨어지지 않은 형태가 같이 나타나는데, 현재 싱왕 방언 자료의 일반적인 속격표지 예에서는 어말 모음이 나타난 직접적인 예를 찾기는 힘들다. 다만 흑룡강성의 솔론어 어휘를 수록한 <어웡키어한어대조사휘>(1999)에 minəgi 我的, tarəngi 他的 등이 있어 참고로 할 만하다.[21]

한편, 위에서 살펴 본 예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솔론어에서 속격이 사용된 명사구는 [소유자-속격표지 소유물-인칭표지]의 구성을 기본으로 한다. 칼리나(2019b)에 따르면 호이 방언에서는 -ni로 나타나는 속격조사가 관형적 용법으로 사용될 때 이와 같이 'double-marking'으로 나타나는 것이 솔론어의 전형적인 소유 구성이다.[22]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자-속격표지 소유물]과 같이 인칭표지가 결합하지 않고 속격표지로만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그 두 가지에 해당하는 명사구의 예의 일부이다.

(26) NP-GEN NP-POSS [호이] - 칼리나(2019b:48)

a.	mi-**ni**	nʉ-xʉn-**bi**	jaan	baacci-si.
	I-GEN	younger.brother/sister-1SG.POSS	ten	years-PROP

나의 동생이 열 살이다. (lit. 나의 동생-나 열 살 있다.)

---

21) 이 자료는 흑룡강성 솔론어를 조사한 귀한 자료이나, 음운체계나 표기원칙이 불분명한 점이 있어 이용에 주의를 요한다. 어중에서 음절 초에 ŋ가 나올 때에는 minəgi , tarəngi처럼 g~ng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표기가 전체적으로 일관적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뒤의 명사를 수식하는 속격표지의 경우 어말 i가 떨어진 -ŋ으로 나타난 gauliəŋ zəgt 高粱米와 같은 예들이 눈에 띄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ŋi(gi~ngi로 표기)로 나타난 我的, 他的는 명사를 수식하는 '나의, 그의'보다는 그 자체로 명사적으로 사용되는 '나의 것(이다), 그의 것(이다)'을 발음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22) 이와 달리 속격표지만 사용하는 한국어는 dependent-marking 구성이다.

b. si-**ni** əmmə-**si** sanci-(i)

you.SG-GEN mother-2SG.POSS traditional.summer.clothes-INACC

ʉldi-səə-∅

sew-PST-3.

너의 어머니가 전통 여름옷을 꿰매었다.

(lit. 너의 어머니-너 전통 여름옷을 꿰매었다.)

(27) NP-GEN NP [호이] - 칼리나(2019b:52)

a. xun(<in)-**ni** ʉldə

sheep-GEN meat

양고기 (lit. 양의 고기)

b. nenxi(<ni)-**ni** xəəmə

dog-GEN meal

개밥 (lit. 개의 밥)

c. osxo(<n)-**ni** geranda

fish-GEN prickle/bone

생선 가시 (lit. 물고기의 가시)

특정적인 양, 개, 생선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만 위와 같이 인칭표지 없이 속격표지만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아래의 예들 또한 속격표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28) NP-GEN NP(2) [호이] - 칼리나(2019b:53)

a. Xui-**ni** əwəŋkə

Hoi-GEN Evenki

호이 출신 어웡키 사람 (lit. 호이의 어웡키 사람)

b. too(<n)-ni baxsi
number/mathematics-GEN teacher
수학 선생님 (lit. 수학의 선생님)

c. ʉrəl-ni inig
child-GEN day
어린이날 (lite. 어린이의 날)

칼리나(2019b)는 또 속격표지의 생략 현상에 대해서 솔론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생략하는 경우가 드물며, 아래의 예에서처럼 한국어에서 '-의'가 없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에도 솔론어에서는 ni가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9) ㄱ. 학교의 식당/학교 식당
ㄴ. surgul-**ni** siitan
school-GEN cafeteria
학교의 식당/학교 식당 (lit. 학교의 식당) [호이] - 칼리나(2019b:57)

한편 Tsumagari (2009:5)는 솔론어의 인칭표지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종종 생략된다고 하면서, 인칭표지 생략 현상과 관련하여 소유자가 특정한 대상인지의 여부에 주목했던 칼리나(2019b)와는 달리 소유자와 소유물간의 관계가 덜 긴밀할 경우에 특히 생략되는 현상이 있다고 보았다. 즉 min-ii jaxa 'my bag', min-ii bitig 'my book'과 같이 양도 가능한 소유물일 경우에 인칭표지가 없이 속격표지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유자에 속격표지를 생략한 채 소유물에만 인칭표지가 결합한 형태는 속격표지가 없는 다른 퉁구스 언어에서는 흔한 구성이지만(윌타어: ulaa ulise-ni [reindeer meat-3SG] '순록 고기') 솔론어에서는 *xonin

üldü-nin [sheep meat-3] ‘양고기’와 같은 구성이 나타나는 일이 드물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다(Tsumagari 2009:11). 다른 퉁구스 언어들에서처럼 인칭표지가 속격표지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에도 인칭표지만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은 솔론어의 소유 표현이 double marking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싱왕 방언에서는 다음에서 보이듯이 여러 명사구가 double marking으로 나타나기도 하고(30, 31, 33a, 34a), 속격표지만 나타나고 인칭표지는 생략되거나(32, 33b), 아예 아무 표지도 나타나지 않은 채 한국어의 ‘학교 식당’과 같이 명사 두 개를 나열한 경우도 보인다(34b, 35a). 속격표지가 있는 경우 인칭표지의 생략 여부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발화하며 모두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싱왕 방언에서는 수의적인 부분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싱왕 방언에서도 (35b)와 같이 소유자에 속격표지가 생략된 채 소유물에만 인칭표지가 결합한 것은 직접 물어보면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자연스럽게 답변할 때는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Tsumagari (2009)가 기술한 것과 비슷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 bitəg-əŋ xʊda-nin
book-GEN price-3POSS
책의 값(-그것의)

(31) min-əŋ dilə-ji
I-GEN head-1SG.POSS
나의 머리(-나의)

(32) ǰagsə-ŋ dil
fish-GEN head
생선의 머리

(33) a. dəgi-ŋ dil-nin
bird-GEN head-3POSS
새의 머리(-그것의)
b. dəgi-ŋ dil(ə)
bird-GEN head
새의 머리

(34) a. ukur-əŋ dil-nin
cow-GEN head-3POSS
소의 머리(-그것의)
b. ukur dilə/dil
cow head
소 머리

(35) a. ukur uldi
cow meat
소 고기
b. ukur uldi-nin[23]
cow head-3POSS
소 고기(-그것의)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역시 소유되지 않은 구성의 속격 표현, 파생접사 -di[24], 그리고 아무 것도 결합하지 않고 명사만 나열한 세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36) ərd-əŋ ǰəətə
morning-GEN meal

23) 이것은 괜찮은지 직접 물어서 유도한 답변이므로 자연적으로 발화된 것은 아니다.
24) 시간 명사와 결합하여 '-의, -의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이다.

아침밥

(37) a. inig ǰəətə
day meal
b. inig-di ǰəətə
day-REL meal
점심밥

(38) ɔri ǰəətə
evening meal
저녁밥

위와 같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특정한 인물의 소유 관계를 표시할 때에 속격과 결합하는 인칭대명사가 뜻하는 것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다음과 같이 소유 인칭 어미만으로 표현할 수 있다.

(39) ʊnaǰi, ənixən-či bisi-n=gi?
girl aunt-2SG.POSS be-3=Q
얘야, 너의 고모가 (집에) 있느냐? [호이][25]

다음은 싱왕 방언에서 같은 문장을 두 가지로 답한 예이다. a는 '너의'에 해당하는 인칭대명사의 속격형태가 생략되고 인칭표지만 나타났고, b는 인칭표지가 생략되지 않았다.

(40) a. bii aka-tki-**si** bitəg-ji aji.
I older.brother-ABL-2SG.POSS book-1SG.POSS good

25) 여성 호이 방언 화자(당시 70세)의 자유발화를 직접 전사하고 번역하였다.

b. bii **sin-ə(ŋ)/əŋ** aka-tki-**si** bitəg-ji/bitəgi-ji aji.
I you-GEN older.brother-ABL-2SG.POSS book-1SG.POSS good
나는 너의 형보다 공부를 잘 한다.

맨 앞에서 제시한 예들에서 역시 '친구의-**나의** 어머니-그의,''아내의-**나의** 편지-그녀의') 밑줄 친 부분들이 double-marking을 잘 보여준다면 동시에 진한 글씨는 인칭표지만으로도 '나의' 친구/아내라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었던 예들에 해당된다.

4.1.2.3. 대격

솔론어에서 대격은 대상의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기본적으로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41a)와 같이 부정(不定)대격표지 -i가 나타나며, (42)와 같이 특정적인 대상을 나타낼 경우에는 한정대격이 결합하는데, 이 방언에서는 -ma와 -wu로 나타난다. (41b)는 대격표지가 생략된 경우이다.

(41) a. bii uliktə[i]-i ǰib-čii.
I crabapple-INACC eat-PST.1SG
b. bii uliktə ǰib-čii.
I crabapple eat-PST.1SG
나는 꽃사과 열매(山丁子)를 먹었다.

(42) bi tari ulikt-u ǰib-čii.
I that crabapple-ACC eat-PST.1SG
나는 그 꽃사과 열매를 먹었다.

[1] 비한정대격

비한정대격의 예를 몇 개 더 살펴보겠다.

(43) bii gjaa-d gən-nə/nən bjalaga-i gadə-m/mi.
I market-DATL go-CVB rice-INACC buy-NPST.1SG
나는 시장에 가서 쌀을 샀다.

(44) bii bitəg-i ičі-mi/m.
I book-INACC look-NPST.1SG
나는 책을 읽는다.

(45) bii bitəg əmu-čii.
I book bring-PST.1SG
나는 책(을) 가지고 왔다.

위의 세 예들에서의 쌀과 책은 특정하지 않은 대상이므로 비한정대격이 사용되었으며, (45)는 대격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호이 방언의 비한정대격은 <간지:22>에 mʊrɪn-**a**, bəjə-**jə**로 제시되어 있다. 즉 -n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서는 -ə, 그 외의 환경에서는 -jə가 모음조화에 따른 이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朝克(2017b)와 Tsumagari (2009)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칼리나(2019b:68)는 -n으로 끝나는 명사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jə 혹은 -i가 쓰이며, 현대에 이르러 -i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다음은 -i가 사용된 예들이다.

(46) bi bitəgə-i isi-ji-mi.
I book-INACC look-PROG-1SG
나(는) 책(을) 읽고 있다. (lit. 나 책을 보고 있다.) [호이] - 칼리나(2019b:31)

(47) bi xəəmə-i jittə-mi.
I meal-INACC eat-1SG
나/내가 밥(을) 먹는다. (lit. 나 밥을 먹는다.) [호이] - 칼리나(2019b:68)

또한 칼리나(2019b:68)는 n으로 끝나는 명사와 i로 끝나는 명사 뒤에 부정대격이 잘 들리지 않거나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역시 언급하고 있다.[26]

(48) min-dʉ satan-(a) bʉʉ-xə.
I-DATL candy/sugar-INACC give-2SG.IMP
나에게 사탕(을) 줘라. (lit. 나에게 사탕을 줘라)
[호이] - 칼리나(2019b:68)

(49) bi Mandi-txi jʉʉr əkki-(i) bax(a)-suu.
I Mandi-ABL two pants-INACC get-PST.1SG
나/내가 만디한테서 바지 두 벌(을) 받았다.
(lit. 나 만디한테서 두 바지를 얻었다.) [호이] - 칼리나(2019b:107)

사마지에 방언의 부정대격은 싱왕 방언에서와 같이 -i 형태로 실현된다.

(50) idər bitig-i isi-ǰi-rən.
Ider book-INACC see-PROG-PRES.3SG
이더르가 책을 읽고 있다. [사마지에] 성백인(2010:129)

---

26) 그러나 칼리나(2019b:90)에서는 기본적으로 비한정대격의 생략현상이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n 말음 명사 뒤에서 -ə 등 단모음으로 나타나는 부정대격이 빠른 발화에서 탈락하거나, i로 끝나는 명사 뒤에서 -i로 나타나는 부정 대격이 잘 들리지 않아서 생략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모두 부정대격이 결합해 있다고 보는 것이다.

[2] 한정대격

아래의 예들에서의 '책'은 지시대명사나 인칭대명사의 속격형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특정한 대상이며, (53)의 인칭대명사인 '우리'는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므로 이것들에는 한정대격 -(w)u와 -ma가 결합하였다. 마지막 (54)는 -ma의 모음이 탈락한 -m 형태로 나타났다. 문장 안에서는 특별히 수식하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내용상 어떤 한 편지를 읽었다는 의미로 생각해서 한정대격을 쓴 것으로 보인다.[27]

(51) bii tar bitəg-u əmu-čii.
I that book-ACC bring-PST.1SG
나는 그 책을 가지고 왔다

(52) tar min-əŋ bitəg-ma-ji ǰee-čaa.
he I-GEN book-ACC-1SG.POSS hide-PST
그는 나의 책을 숨겼다.

(53) məmə mun-u alači-ǰi-rən.
mother we.EXCL-ACC wait-PROG-NPST.3
어머니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54) bii asi-ǰi əmrət ǰisigan-m/ǰisigan tuurə-čii.
I wife-INS together letter-ACC/letter read-PST.1SG
나는 아내와 함께 편지를 읽었다.

---

27) 바로 앞 문항이 "내가 아내의 편지를 받았다."(我接到妻子的信了。)인데, '아내의 편지'가 중의적이므로 내가 아내 앞으로 온 편지를 받아서 함께 읽었다는 내용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 혹은 그 앞에도 여러 번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편지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위의 예들을 보면 언제 -ma가 사용되고 언제 -(w)u가 사용되는지가 불분명하다. n 말음 명사인 ǰisigan ‘편지’ 외에 (52)의 bitəg ‘책’에도 같은 형태의 한정 대격 -ma가 결합하였으며, 그 바로 위의 (51)에는 bitəg에 -wu가 결합하였다.

그리고 호이 방언에서 한정대격표지는 <간지:22>에 제시된 예시 mʊrɪn-ba, bəjə-wə에서 알 수 있듯이 -wə나 -bə로 나타나며, (칼리나 2019b:12)에서 보이듯이 모음조화에 따라 -wa~-wə~-wɔ~-wɵ/-ba~-bə~-bɔ~-bɵ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싱왕 방언에서는 이형태가 대폭 줄어들어 -(w)u와 -m(a)로만 나타난다.

성백인 외(2010:128-9)에 따르면 사마지에 방언 자료에서도 한정대격이 호이 방언에서 나타나는 것만큼 다양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bu, -ba-, -wu 세 가지의 이형태가 아래에서 보이듯이 앞에 오는 명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tərgəči에 -wu가 결합한 (55)와 달리 (56)과 (57)은 n말음 명사 masin과 nəxun 뒤에 b계열의 -ba와 -bu가 나타났으며, [+RTR] 모음을 가지는 masin에는 -ba가, [-RTR] 모음을 가지는 nəxun에는 -bu가 결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5) tar tərgəči-wu əǰi titi-rə.
it clothes-ACC NEG put.on-PRES.
그 옷을 입지 마세요.

(56) idər-ni ga-sa masin-ba-n[28] isi-čuu.
Ider-GEN buy-PART car-REFL see-PST.1SG
(나는) 이더르가 산 자동차를 보았다.

28) 원문에 masin-ban[car-REFL]로 되어 있지만, 대격의 예문이므로 사마지에 방언의 대격표지 -ba와 3인칭 소유인칭표지 -nin(/ni)가 결합한 것이다. 따라서 단순오류로 보아 ban을 ba-n로 분석하고 REFL을 ACC-3POSS로 수정하였다.

(57) mini ənin-bu nəxun-bu tasxʊ-d uli-xəən-čəə.
my mother-1SG younger.brother-ACC school-DATL go-CAUS-PST
나의 어머니가 동생을 학교에 가게 하였다.

싱왕 방언의 한정대격표지 -ma는 호이 방언 사마지에 방언의 -b 계열 이형태와 같은 계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보통 한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문법 형태일 경우 [-RTR]이나 i 모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여기에서 -ma 계열의 한정대격표지가 -mə가 아니라 -ma로 나타나는 점이 조금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이 두 형태는 자음 면에서 -w와 -b 계열이 하나씩 있고, 모음을 봤을 때에는 -wu는 [-RTR] 모음이고 -ma는 [+RTR] 모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호이 방언에 비해 이형태 목록은 단출하지만 나름대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던 사마지에 방언의 경우처럼 적어도 -ma나 -wu가 앞에 오는 명사의 말음에 따라서나, 모음의 RTR 자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51~54)의 예를 들어 언급했듯이 싱왕 방언에서 -ma와 -u가 나타나는 것은 음운환경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다음은 같은 단어에 두 가지 한정대격표지가 사용된 예들이다.

(58) bitəg-wu ; bitəg-ma-ji, bitəg-ma-n
bait-wu ; bait-ma-n, bait-ma-si

다만 현재까지 관찰한 바로는 뒤에 소유인칭표지가 나타날 때에는 -ma-가 나타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 -ma가 사용된 예들을 좀 더 살펴 보겠다.

(59) biti min-əŋ mərin-ma-ji ɔg-gari.
we.INC I-GEN horse-ACC-1SG.POSS ride-HORT
우리 내 말을 탑시다!

(60) Mandi xaltʊn-d-i Mɔŋgɔl-əŋ bait-ma-ni ulukčəə-nən.
Mandi often-DATL-REFL mongol-GEN matter-ACC-3POSS speak-NPST.3
만디는 자주 몽골에 대해 이야기한다. (몽골의 일을 이야기한다.)

(61) ɔɔn=kəd bait-u bɔlgɔ ɔimbɔ-rən.[29)]
what.kind.of=PART matter-ACC all settle-NPST.3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되소서. / 事事如愿 → 무슨 일이든 모두 해낸다.

(62) ilə-ma-ni manda-čaa?
where-ACC-3POSS hit-PST
어느 부위에 명중했습니까? (어디를 맞췄습니까)

(63) dil-ma-ni manda-m bak-čaa.
head-ACC-3POSS hit-CVB get-PST
머리에 명중했습니다. (머리를 맞췄습니다)

첫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예들은 모두 n말음 명사가 아니고, bitəg나 ilə는 [-RTR] 모음으로 형성된 단어이지만 모두 -ma가 결합했다. 왜 이것이 -ba 형태가 아닌 -ma 형태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ba 계열의 한정대격표지가 올 자리가 아닌 곳에까지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 호이 방언 등에서 -ba가 쓰이는 mɔrin과 같은 n말음 어휘 뒤에서는 -ba가 -n말음의 영향으로 -ma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ma가 dil~dilə와 같이 애초에 ba가 결합하지 않던 명사에 -wu형을 대신하여 사용될 정도로 영향력을 넓혔다고 생각하기는

29) 어휘 항목의 '되다(成为)'에 대해서도 ɔimbɔrɔn이라고 대답했는데, <어한사전>에는 타동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ɔimɔmbʊraŋ '해결하다, 결정하다, 결의하다, 처리하다'와 ɔimɔrɔŋ '결정하다, 결정내리다(下决心)'가 있다. 여기에서는 대격표지가 쓰였기 때문에 타동사로 간주한다.

석연치 않은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30]

다음의 예는 胡增益(2001:81)에 수록된 오로챈어 예문인데,[31] 위의 싱왕 방언 예문과 비교하면서 봤을 때 '머리'라는 명사 바로 뒤에 접사 -ŋ-이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4) sinŋi dılı-**ŋ**-maj nii ʤajɪʧaa?
你 头 谁 藏
你的(兽)头谁藏起来了? [오로챈어] -胡增益(2001)
너의 (짐승) 머리를 누가 숨겼느냐?

이는 양도가능 접사(alienable possession suffix)의 전형적인 예이다.[32] 예를 들어 나의 신체 일부인 '나의 머리'와 같이 소유물이 소유자에게 직접적으로 속해 있거나 둘을 떼어서 다룰 수 없는 경우(direct possessive)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지만, '나의 (사냥감의) 머리'는 나의 물건이면서도 동시에 사냥감에 속하는 것이며 남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인칭표지만 결합하지만 후자는 추가적으로 양도 가능 접사가 격표지나 인칭표지 앞에 나타난다. 사냥감의 '머리를'에 해당하는 위의 싱왕 방언의 dil-ma-ni와 오로챈어의 dılı-ŋ-maj를 비교해 보면, 어쩌면 싱왕 방언에도 dil 뒤에 오로챈어의 '양도 가능의 -ŋ(i)'에 해당하

30) 이는 김주원 선생님께서 胡增益(2001)의 양도가능성 접사의 해당 예문과 함께 제시해 주신 가설이다. 가르침에 감사드린다.

31) 중국 자료들의 한국어 번역은 직접 번역하여 추가하였다.

32) 주의해야 할 점은, Tsumagari (1997, Baek(2017)에서 재인용), Whaley et al (1999) 등에서는 오로챈어에 어웡키어와 달리 양도가능 접사가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방언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언어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Li (2005)에서 최근 몇십년 동안 오로챈어가 급격한 변화를 겪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胡增益(2001)의 연구가 더 이전의 오로챈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胡增益(2001)은 胡增益(1986)을 바탕으로 수정 증보한 것인데, 胡增益(1986)의 후기에서 1960년대 초반에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초고가 작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는 어떤 비자음으로 된 형태소가 붙고 그 뒤에 대격표지 -ba/ma가 결합했기 때문에 -ma 형태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그 후 솔론 방언에서 점차 이 형태소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게 되면서 mɔrin 뒤 등 원칙적으로 -ma가 오는 자리와 뒤섞여 -ma가 올 수 있는 환경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오로첸] dılı-ŋ-maj = dılı-**ŋ-ma**-j (head-ŋ-ACC-2SG)
[솔론어 싱왕 방언] dil-**ŋ-ma**-ni (head-ŋ-ACC-3) > dil-**ma**-ni
cf. mɔri**n-ma**-ji (horse-ACC-1SG)

지금까지 솔론어에서는 양도가능 접사가 보고된 적이 없지만, 오히려 그 점이 이상하다고 할 만큼 대다수의 퉁구스 언어에 양도 가능의 -ŋ(i)가 있다. 다음은 Kazama (2008:126)에 제시된 표이다.

	Alienable	Sources
Ewen (I)	-ŋ	Novikova(1960)
Ewenki (I)	-ŋ/-ŋii	Konstantinova(1964)
Negidal (I)	-ŋ/-ŋi	Tsintsius(1982)
Solon (I)	None	---
Orochi (II)	-ŋi	Tsintsius(1949)
Udege (II)	-ŋi	Kazama
Nanay (III)	-ŋgo/-ŋgu	Kazama
Ulcha (III)	-ŋgʊ/-ŋgu	Kazama
Uilta (III)	-ŋu	Tsumagari(1992)
Manchu (IV)	None	---
Sibe (IV)	None	---

표 5 퉁구스 언어들의 양도가능 접사 (Kazama 2008:126)

위의 표에서 만주어와 시버어를 뺀 I~III 그룹[33] 언어들은 솔론어만을 제외하고 모두 Alienable 접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솔

[33] Ikegami (1974)에서 음운대응을 바탕으로 분류한 퉁구스 언어 분류에 따른 것이다.

론어가 속하는 I 그룹 언어들과 주변 언어의 양도가능 접사가 -ŋ~ŋi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솔론어에도 -ba를 -ma로 변화시킬 수 있는 -ŋ와 같거나 유사한 형태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싱왕 방언은 호이 방언과 비교했을 때 러시아 지역의 어웡키어와 공유하는 특징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그 흔적이 아직 남아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한편 다음과 같이 명사에 격표지가 나타나지 않고 재귀 인칭표지가 붙을 경우 대부분 대격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朝克(2017b:102)는 재귀표지와 같은 형태의 -wi/bi를 재귀대격(反身宾格)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은 명사와 재귀표지 -bi가 결합한 것이 대격으로 해석되는 예이다.

(65) mini ahiŋ moriŋ-bi ʤawasa.
我的 哥哥 马 把 抓了
我哥把自己的马给抓住了。[호이] - 朝克(2017b:102)
(나의 형은 자신의 말을 붙잡았다)

칼리나(2019b:59)에서는 이를 재귀소유인칭표지가 명사와 결합하여 쓰일 때 목적어로 쓰이는 용법에서 생긴 혼돈으로 보았다. Tsumagari (2009:5) 역시 격표지가 없는 주격(unmarked (nominative)) 형태에 재귀인칭표지가 결합한 것이 주어가 아닌 '직접 목적어'로 기능한다고 언급하였다. 싱왕 방언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예가 나타난다.

(66) mɔrin-mi iči-kə.
horse-REFL look-IMP
말 보세요!

4.1.2.4. 부사격

[1] 도구격

-ǰi는 솔론어에서 기본적으로 '~를 사용하여'의 의미를 가지는 도구격표지이다.

(67) buu sarpə-ǰi ǰəət-i ǰibtə-mun.
we.EXCL chopstick-INS meal-INACC eat.NPST-1PL.EXCL
우리는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다.

(68) aba-ji {mɔɔ-ǰi,} kapsʊn-ǰi sirə ɔɔ-čɔɔ.
father-1SG.POSS {tree-INS} wood-INS table make-PST
아버지가 {나무로} 목재로 책상을 만들었다.

솔론어에서 도구격표지는 '함께'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 싱왕 방언에서도 다음과 같은 예들이 나타났다.

(69) bii məmə-ǰi dɔɔ-də gən-čii.
I mother-INS forest-DATL go-PST.1SG
나는 어머니와 함께 숲으로 갔다.

(70) tiinu guči-ǰi bitəg-i tuurə-čii.
yesterday friend-INS book-INACC read-PST.1SG
어제 친구와 책을 읽었다.

(71) min-ǰi əmrət ul-kə.
I-INS together go-IMP

나와 함께 가라.[34]

도구격표지는 명사나 형용사 등에 결합하여 부사를 만드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72) bii agda-čaa-ǰi sɔŋ-čii.
I happy-PST-INS cry-PST.1SG
나는 기뻐서 울었다. (我高兴得哭了)

아래의 (73)에는 '3살 차이로(by three years)'정도에 해당하는 의미로 -ǰi가 쓰였다. 싱왕 방언의 예와 비슷한 호이 방언 문장을 아래에 함께 제시한다.

(73) aka-nin nukun-diki jalən-ǰi udugə. / akin.
older.brother-3POSS younger.brother-ABL three-INS big / older.brother
형은 동생보다 세 살 많다(크다). /형이다. [싱왕]

(74) Mandi min-txi juur-ji axin.
Mandi I-ABL two-INS elder (man)
만디는 나보다 두 살 위/연상이다. (lit. 만디 나보다 둘로 위/연상.)
[호이] - 칼리나(2019b:137)

다음의 예는 전형적으로 도구격표지가 쓰일 곳은 아닌 곳에 -ǰi가 나타났는데,[35] 자료제공인의 부가 설명으로는 이것이 탈격을 사용한 표현 ərdən-dki(morning-ABL)와 같다고 하였다.

---

34) '나와 함께 가자'를 의도한 질문이었으나, 중국어에서 명령형과 청유형 문장이 구분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이해하고 대답한 듯하다.

35) 방면탈격 -giǰi와 관련이 있는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칼리나(2019b:111)에 의하면 호이방언에서는 방면탈격 '-giiji'는 시간명사 뒤에는 쓰이지 못한다고 한다.

(75) ərdə-ǰi jaman-čaa, ɔree ǰaka.
morning-from snow-PST evening till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이 내렸다. (아침부터 눈이 내렸다, 저녁까지)

[2] 여처격

여처격표지는 호이 방언의 경우 dʊ~du로 나타나며 모음조화를 보이는데, 싱왕 방언에서는 일반적인 명사류 뒤에서 də 혹은 모음이 탈락한 d 형태로 나타난다. 다만 mindu와 같이 인칭대명사의 경우에는 원래의 원순모음을 가진 형태가 결합된 형태로 남아 있다. 차용어를 포함하여 다양한 양성 모음 단어에도 -də가 결합한다.

gjaa-də/d 시장에, bəəǰiŋ kɔtɔn-də/d 베이징에, gapkə-də 솔론촌에,
ail-də/d 마을에, baga-də/d 장소에, *xuetang*(学堂)-də/d 학교에 ...

1인칭표지 혹은 재귀소유표지 -ji가 결합할 때가 아닌 2인칭표지인 -si나 3인칭표지인 -n(i) 앞에 나타날 때에도 간혹 -di로 발음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둘라르 방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76) ǰuu-d[di]-si adi bəi bisi-n?
house-DATL-2SG how.many person be.NPST-3
집에 몇 식구가 있습니까?

여처격표지는 사람, 시간, 공간과 관련하여 쓰이며, 부가적으로 원인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다음은 사람과 관련되어 여격으로 사용된 예이다.

(77) aba-ji min-du naŋd sabi ga-m muu-čəə./ga-muu-čəə.
father-1SG.POSS I-DATL leather shoes buy-CVB give-PST

아버지는 나에게 구두를 사 주셨다.

(78) bii ər[u] ɔlə-d nɔɔrəm-ti urgil nəə-muu-čii.
I these.people-DATL old.days-REL story speak-give-PST.1SG
나는 그 사람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했다.[36]

(79) min-du ǰisigan buu-kə.
I-DATL letter give-IMP
나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공간과 관련된 '-에, -에서, -(으)로'의 처격표지로 쓰일 때에는 다음과 같다.

(80) tar/tari gapkə ail-lə/ail-də bi-ǰi-rən.
he Solon town-DATL be-PROG-NPST.3
그는 솔론촌에 살고 있다.

(81) min-əŋ mərim-mi[mərimi/mərimmi][37]ǰuu-d/də bisi-n.
I-GEN horse-1SG.POSS house-DATL be.NPST-3
나의 말은 집에 있다.

(82) pəŋsə(<*penzi*)-d muu bisi-n=jə?
basin(盆子)-DATL water be.NPST-3=Q
대야에 물이 있습니까?

---

36) 한국어 질문의 의도는 "… 옛날 이야기를 한다."인데, 과거형으로 답하였다. 질문지의 중국어 번역은 我给他们讲了以前的故事이다.
37) 한 질문 당 답변을 두 번 이상 발음하는데, 두 가지 모두로 발음했다.

(83) aka-ji[~axa-ji] ɔktɔ-d ǰiga bak-čaa.
older.brother-1SG.POSS road-DATL money get-PST
나의 형이 길에서 돈을 주웠다.

(84) ər tərgən mun-əŋ[~uŋ] ail-də-mʊn gən-čəə.
this car we.EXCL-GEN town-DATL-1PL.EXCL.POSS go-PST
이 자동차는 우리 마을로 갔다.[38)]

(85) bit əmundki kəur-də gən-gər~geri
we.INCL together forest-DATL go-HORT
우리 함께 숲(초원)으로 가자.

여처격표지는 시간을 나타내는 데에도 쓰인다.

(86) min-ə(ŋ)/əŋ əmə-r ərin-d-i tari aasin-ǰi-rən.
I-GEN come-PTCP.NPST time-DATL-1SG.POSS he sleep-PROG-NPST.3
내가 왔을 때 그는 자고 있었다.[39)] / 我来的时候他在睡觉

(87) bii dwandila gurun-d bisi-r ərn-də[i]-ji/ərn-d-i
I center nation-DATL be-PTCP.NPST time-DATL-1SG.POSS
tar/tari (min-du) aisilaa-čaa. (aisi-laa-)
he (I-DATL) help-PST (benefit-VBLZ-)
내가 중국에 있을 때 그가 (나를) 도와주었다.

(88) ər əəm-u inig-d-ji jalan ərin ǰib-tən.
this medicine-ACC day-DATL-REFL three time eat-3NPST

---

38) '이 자동차는 우리 마을로 간다(가는 차다)'는 문장을 의도한 질문이었으나 자료제공인이 과거형으로 답하였다.
39) 과거형을 의도한 질문이지만 현재형으로 답하였다.

이 약을 하루에 세 번 먹으세요.

(89) nukum-mi ulu-r ərin-də-ni
younger.brother-1SG.POSS go-PTCP.NPST time-DATL-3POSS
bɔlgɔ dawʊ ǰiki.
all very sad
남동생이 떠날 때는 모두들 슬퍼했었지요.

형동사와 결합하여 '-하기에 (쉽다/어렵다/좋다)' 또는 원인을 뜻하기도 한다. 마지막의 두 예(92-93)은 '보다'의 ičі-와 결합하여 ičі-r-də '보기에/봤을 때'로 추측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였다.

(90) a. ulu-r-də əru.
go-PTCP.NPST-DATL bad
가기 어렵습니다.
b. ər ɔktɔ ulu-r-də ai=jə?
this road go-PTCP.NPST-DATL good=Q
이 길은 가기 좋습니까?

(91) bag ɔdɔn[~ɔdən]-ər-d-ni ǰuu-d-i bidəŋ[m]-mun.
weather rain-PTCP.NPST-DATL-3POSS house-DATL-REFL be.PST-1PL.EXCL
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 있었다.

(92) ičі-r-də aba-nin nisikʊʊkʊm-mi ǰəŋ manda-ǰi-rən.
look-PTCP.NPST-DATL father-3POSS child-REFL just beat-PROG-NPST.3
아버지가 아이를 때리고 있는 것 같다.

(93) ičі-r-d *maashang*[maaʃaŋ] ɔdɔn-nan.
look-PTCP.NPST-DATL soon rain-NPST.3

곧 비가 올 것이다

다음의 mɔrin aačin-d-i.는 원인의 여처격+인칭표지로(말이 없어서/말이 없기에) 문장이 끝났다.

(94) a. idaa gənə-m əsə(n) ətə-rə?
why go-CVB NEG able-INF
왜 못 갑니까?

b. mɔrin aačin-d-i. / aačin.
horse none-DATL-REFL / none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싱왕 방언 문장 (95)는 이해하기 어렵다.[40] 호이 방언에서 정상적으로 여처격표지를 사용하여 '원인'을 나타내는 예는 (96)과 같이 나타난다.

(95) gubu min-du ər ǰaka ǰəət-i əd(ə)n ǰib-tə?
all I-DATL this till meal-INACC NEG eat-NPST
저 때문에 식사를 아직 못했지요? [싱왕]

(96) si-ni lox(o)-soo ʉʉŋkʉ-səl-ci ədin-d(ʉ)
you.SG-GEN hang-PTCP.PST towel-PL-2SG.POSS wind-DATL
ədi-mʉʉ-səə-ø.
blow-PASS-PST-3
네가 널어놓은 수건들이 바람에 날아갔다.
(lit. 너의 널어놓은 수건-들-너 바람에 날아갔다.)

40) 호이 방언 화자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나 때문에'를 'mindu'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한다.

[호이] 칼리나(2019b:129)

한편, 솔론어에는 방위나 방향과 관련된 다양한 격표지들이 있는데 하나의 표지가 여러 가지로 쓰이거나 여러 표지가 비슷하게 쓰이기도 하며, 여처격표지도 이들과 일부 같이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싱왕 방언 자료에서는 -də와 -tki/diki를 중점적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이 논문에서 이용한 자료에는 질문지에서 방위격(또는 위격)에 해당하는 문법표지를 (호이 방언의 경우 -lə/dulə) 확인하기 위해 고안된 질문 항목에 모두 여처격 -də를 사용하여 응답하였으며, 그 밖의 '-쪽으로' 에 해당하는 질문에는 주로 -tki가 사용되었다.

공간 은 방향과 관련된 여러 격표지들은 (경로격 등을 제외하고) 출발점으로부터 떠나는 것인지 도착점을 향하는 것인지, 각각의 경우에 구체적인 지점(도착점 등)을 내포하는지 구체적이지 않은 방향을 뜻하는지에 따라 나눌 수 있다.[41] '출발점으로/도착점에서부터'와 '정확한 지점/구체적이지 않은 방향' 중 후자가 다른 격표지끼리는 실제 발화시에 대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쪽에 사람이 많다'와 '저기에 사람이 많다'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만 서로 바꾸어 쓰는 것이 가능하다(Ablative→Locative).[42] 성백인 외(2010:131)에서는 사마지에 방언에서 다음과 같이 여처격으로 표시된 격표지가 호이 방언 자료<간지>에서는 방위격에 해당하는 -ləə로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41) 아래는 Grenoble (2014)에 제시된 것의 일부이다. 어웡키어의 각 표지와 솔론어의 표지 형태는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lə(ə)는 어웡키어에서는 locative이지만 솔론어에서는 Allative이다.)

	목적지/도착점으로/에서	시작점
구체적 지점	Locative (to)	Ablative (from)
구체적이지 않음	Allative (toward)	Elative (away from)

42) 호이 방언의 탈격은 이와 달리 '출발점에서부터'와 '도착점으로'의 의미로 모두 사용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특이한 경우이다.

(97) a. tar ur-d baraan ǰəgərən ugtəl-ǰi-rən.
it mountain-DATL many jegeren run-PROG-PRES.3PL
그 산으로 많은 노루들이 뛰고 있다.

b. bi ur-d ul-čuu.
I mountain-DATL go-PAST.1SG
나는 산으로 갔다. [사마지에] - 성백인 외(2010:131)[43]

또 성백인 외(2010:132, 134)에서는 호이 방언에서 방면종격표지 -giǰi로 나타난 것이나 부정방향격표지 -txaaxi를 써야 할 자리에 사마지에 방언에서 탈격 -txi로 나타난 예들 역시 있었다고 언급하였는데, 탈격과 같이 특수한 경우만 빼면 역시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지점과 구체적이지 않은 지점의 차이를 가진 격표지 사이에서 대용이 가능하며 여처격, 탈격표지 등이 다른 표지보다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탈격, 방위격

솔론어의 탈격은 주로 '-로부터, -에서부터'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장소뿐 아니라 사람이나 시간에 대해서도 쓰이며, 비교격의 용법으로도 쓰인다. 그래고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선행연구에서 탈격이 원래의 뜻과 상반되는 '-로, -를 향하여'의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도 보고되는데, 한 가지 문법표지가 '-로부터'와 '-(으)로'라는 반대되는 뜻으로 쓰이는 점은 상당히 독특하다고 볼 수 있다.

솔론어에는 방향이나 방위와 관련된 격표지가 다양하여 선행연구에 따라 그 기능과 명칭, 분류가 조금씩 다른데, 특히 탈격은 위에서 말했듯이 상반되는 의미를 포함해 여러 기능을 하면서 -tixi, -txi, -dixi, dʊxi 등의 이형태가 크게 (어두 자음 기준으로) t계열과 d계열로 나타나기 때문에

43) 원문에 -d의 주석이 DIR로 달려 있으나, -d은 여처격 형태이고 본문의 기술도 여처격으로 되어 있으므로 DATL로 수정하였다.

이들을 분류하는 데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가 있다. <간지>에서는 종격(탈격에 해당한다)의 -dʊ-xɪ와 방향격 -tɪ-xɪ를 따로 설정했으며, 風間伸次郎(2005)에서도 탈격의 -dɪxɪ와 방향격의 -txɪ/tɪxɪ, 그리고 Tsumagari (2009:4) 역시 -duxi (Ablative)와 txii/tixii (Directive)로 보았다. 한편 朝克(2017b:113, 119)에서는 둘을 분리했지만 -dihi는 종격, thi-는 비교격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연구와는 달리 風間伸次郎(2018b) 에서는 -(t)txI~-tIxI~-(t)txAAxI를 탈격으로 보면서 '-로부터'와 '(~방향)으로'의 의미를 모두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고, 칼리나(2019b:106) 역시 개인에 따라서 -dixi, -tixi, -txi로 각기 다르게 발음하지만 모두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보아 대표형을 -txi로 잡았다.

위의 연구들 중에서 tixi와 dixi 등의 형태의 기능을 종격과 방향격으로 나누지 않는 경우는 朝克(2017b), 風間伸次郎(2018b), 칼리나(2019b)이며, 朝克(2017b)를 제외한 뒤의 두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tixi~dixi가 '-로부터'와 '-(한테)로' 두 가지로 모두 쓰일 수 있다고 본다.

(98) aba timaasin Xui-**txi** əmə-ggi-rən.
father tomorrow Hoi-ABL come-back-3
아버지가 내일 호이로부터 돌아오신다
(lit. 아버지 내일 호이에서 돌아온다.) [호이] - 칼리나(2019:106)

(99) si aba-**txi** nin(ə)-kə.
you.SG father-ABL go(to.destination)-2SG.IMP
너(는) 아버지한테 가거라. (lit. 너 아버지한테 가거라.)
[호이] - 칼리나(2019:108)

이에 해당하는 이형태들은 싱왕 방언에서는 -tki와 diki(일부 대명사와 결합할 때에는 duki)로 나타났다. 그리고 적어도 이 연구에서 이용한 자

료의 예들로 보자면 싱왕 방언에서 이 두 형태는 대개 구분되어 사용되는 듯하다. 우선 탈격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부터 차례로 살펴보겠다.

탈격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출발점 또는 어떤 장소로부터 움직여 온 것을 나타내며, 비교에 사용되는 것은 이 의미 기능이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은 원래의 뜻과는 반대적인 의미를 지니는 '-로 (향해)'를 제외한 나머지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00) Mandi bəəǰiŋ-dik/diki emgi-čəə.
Mandi Beijing-ABL come.back-PST
만디는 베이징에서 돌아왔다.

(101) tar mərin-diki tik-čəə.
he horse-ABL fall-PST
그는 말에서 떨어졌다.

(102) tar muu-diki ər dɔɔ-de gənə-r jalə(n) ərin kə ul-lən.
that water-ABL this forest-DATL go-PTCP three hour go-NPST.3
저 호수에서부터 이 숲에 가는 것은 세 시간이 걸린다. (세 시간 간다)

'어디에서부터'는 iləki/ilək[44]로 나타났다. 이밖에 질문지에서 방위종격과 탈격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들에 대해 모두 탈격을 사용하여 답했기 때문에[45] 탈격이 나타나는 예문이 비교적 많았는데 모두 어두 자음이 d인 -diki로 나타났다. 다음은 시간이나 사람에 대해 쓰인 예들이다.

---

44) ilə '어디'에 -ki[ABL]이 결합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따로 방위종격의 -ləki를 설정할 경우 i '무엇'에 -ləki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성백인 외(2010:132)에서는 사마지에 방언의 -ləx를 따로 방위종격으로 보았다.

45) 이러한 표지들은 사용 영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여처격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탈격으로도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사마지에 방언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103) jəəki-diki əurkə-čəə?
when-ABL start-PST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104) ǰuur ərin *kə*-digi jalə(n) ərin *kə* ǰaka bitəg-i tuure-čəə.
two hour (刻)-ABL three hour (刻) till book-INACC read-PST
두 시부터 세 시까지 책을 읽었다.

(105) bii sin-duki/duk aisi-ma-si dawʊ bak-čii.
I you.SG-ABL help-ACC-2SG.POSS very get-PST.1SG
나는 네게서 큰 도움을(도움을 매우) 받았다.

(106) tar mun-duki əmun bitəg bak-čaa.
he we.EXCL-ABL one book get-PST
그는 우리에게서 책을 하나 받았다.

위의 예들에서 역시 모두 diki/duki 형으로 나타났다. ((104)는 -digi로 제2음절이 조금 다르게 발음되었다.) 다음 예는 -duki와 untu가 함께 사용되어 '-를 제외하고'의 의미를 나타낸 예이다.

(107) min-duk unt/untu saa-r bəi aačin.
I-ABL NEG know-PTCP.NPST person none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비교의 의미로 쓰인 예는 다음과 같다. '또, 그 위에, 게다가'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na(n)[46]과 함께 쓰이기도 한다.

---

46) 호이 방언 자료에서는 naan 또는 nan으로 나타나는데, 싱왕 방언에서는 비음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108) a. ər muu ta-dʊki, {ta-dʊk} na əmgə.
this water that-ABL {that-ABL} again wide
b. ər muu tar muu-diki əli əmgə.
this water that water-ABL more/most wide
이 호수는 저 호수보다 더 넓다.

(109) ər uru, tar ur-diki/dik əli gwagdə.
this mountain that mountain-ABL more/most high
이 산이 저 산보다 높다

(110) aka-nin nukun-diki jalən-ǰi udugə. / akin.
older.brother-3POSS younger.brother-ABL three-INS big / elder
형은 동생보다 세 살 더 많다.

(111) bii aka-tki-si bitəg-ji aji.
I older.brother-ABL-2SG.POSS book-1SG.POSS good
나는 너의 형보다 공부를 잘 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기능으로 사용된 예들은 여기에 제시한 것 외에도 더 있지만 모두 -diki로 나타났는데, 바로 위의 (111)의 경우에만 예외로 -tki로 나타났다.[47]

이어서 지금까지 본 것들과는 반대되는 방향인 '-(으)로'에 해당하는 예들을 살펴보겠다.

(112) ər ɔktɔ iitki(ii-tki) gən-ǰi-rən?
this road where(what-ABL?) go-PROG-NPST.3
이 길은 어디로 갑니까?

---

47) 이 문장과 연달아서 '그의 형보다'로 바꾼 문장을 각각 두 번 이상씩 말했는데 계속 -tki로 발음하였다.

(113) ər Mehe-tki gənə-r ɔktɔ.
this Mehe-ABL go-PTCP.NPST road.
이것은 Mehe로 가는 길입니다.[48]

(114) mɔrin ur-tki/uru-tki tutul-čəə.
horse mountain-ABL run-PST
말이 산 쪽으로 달렸다.

'이리로'의 경우 ə-tki로 나타났다.(cf. '그에게서' ta-dʊki)[49] 지금까지 본 것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에 나타난 예들은 모두 탈격의 중심적인 의미(-로부터)는 -diki로 나타났고, 그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이는 비교의 의미로 쓰이는 것도 -tki로 나타난 것도 있었지만 (111) 대부분 -diki로 나타났으며, -로부터와 반대적인 '-로 (향하여)의 의미로 쓰이는 것은 모두 -tki로 나타났다.

한편 러시아 지역에서 사용되는 어웡키어에서 -tki (Allative)와 -duk (Ablative)는 명확히 구분된다.[50] 아래의 '어웡키'는 Bulatova & Grenoble (1999)의 기술을 참고하여 격조사 중 일부만 적은 것이다. 솔론어의 경우 -dihi와 -thi를 종격과 비교격으로 기술한 朝克(2009, 2017b)도 종전의 기술과 다른 점이 있고, 風間伸次郎(2018b)나 칼리나(2019b)의 기술에 따르면 적어도 오늘날의 호이 방언에서는 -txi나 -dixi가 용법이나 환경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솔론(호이)는 -txi와 -dixi

48) '너허(納河)'로 질문했는데 잘못 알아들은 것이다.

49) 칼리나(2019b:106)에서는 호이 방언에서 탈격이 결합된 것에 대해 ə-dʉ와 ta-du에 -xi가 결합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ama-, jʉləə-와 같은 방위사의 경우 -siki가 결합된다고 보았다. 싱왕 방언에서는 시간적인 의미로 사용된 amila-k/ki(이후에, 앞으로)가 나타났다.

50) 다만 어웡키어는 솔론어와 달리 유무성 대립을 하는 언어이며, -duk는 -k, -s, -t, -p 등의 무성자음 뒤에서 무성화하여 -tuk로 나타나고, tiki는 모음이나 유성음 뒤에서도 언제나 -tiki로만 나타난다. 참고로 싱왕 방언 자료에서 이들이 결합한 명사 어간이 파열음으로 끝나는 예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음절 구조상 드물 것으로 생각된다.

를 구분하지 않는 호이 방언의 경우를 나타낸다.

(115) 어웡키 [dative] -du -에게
[locative] -laa/dula -까지(to)
[allative] -tki ~방향으로(toward)
[ablative] (-duk) -로부터, 비교, 원인
- Bulatova & Grenoble (1999)

싱왕 -də
(-lə/dulə는 잘 나타나지 않음)
-tki '-를 향하여, ~쪽으로'
-diki/duki -로부터, 비교, (원인)

호이 [dative-locative] -du
[allative] -la/dula
[ablative] -txi, dixi -로부터, -를 향하여 - 칼리나(2019b)[51]

-laa/dula는 어웡키어에서는 처격이지만 솔론어 호이 방언에서는 du가 여처격으로 모두 쓰이고 -laa/dula는 방위격(allative)로 사용된다. 그런데 싱왕 방언의 자료에서는 이 방위격이 나타날 것이 기대되는 질문지 항목에 대한 답에는 여처격이 나타났으며, -lə는 ələ, tala, ilə 등 대명사와 결합한 형태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장소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여처격 -də가, '-쪽으로, -를 향해서' 정도의 표현에는 주로 -tki가 사용되었다. 살펴 본 자료만 가지고 말하기에 성급한 면이 있지만, 호이 방언에서와 달리 싱왕 방언에서는 일반 명사와 결합할 경우 거의 -diki가 ablative, -tiki가 러시아 지역 어웡키어의 -tki(allative)에 가까운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호이 방언의 allative -lə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

51) 칼리나(2019b)에는 txi, tixi, dixi로 발음되는 것을 모두 같은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txi로 통일하여 표기하였다.

다.[52]

이에 더해서, 어웡키어의 -duk는 원인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아래의 문장을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싱왕 방언에서 -duk로 나타난 탈격의 쓰임이라고 할 수 있다.

(116) buu sun-duki dawʊ agda-mʊn.
we.EXCL you.PL-ABL(?) very happy-1PL.EXCL
우리는 당신들을 환영합니다. (당신들로 인해 기쁘다?)

또 위에 제시한 어웡키어의 네 가지 격표지 중에서 -tki(ALL)을 포함한 위의 세 가지는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에 쓰일 수 있거나 쓰였던 적이 있지만 -duki는 그러한 쓰임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싱왕 방언에서 아래의 예는 -tki로 나타났다.

(117) bii məmə-tki anʊgʊ-m/mi, abaa-ji əm-čəə=jə?
I mother-ABL ask-NPST.1SG father-REFL come-PST=Q
나는 어머니에게 아버지께서 오셨느냐고 물었다.

어웡키어에서는 공통적으로 방향과 관련된 의미를 표시하는 문법표지 두 가지가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고, 솔론어 싱왕 방언의 예에서도 두 형태가 대략적으로 어웡키어에서처럼 다르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적어도 오늘날의 호이 방언 일부 화자들의 언어에서는 이 두 가지가 의미적으로 합류되어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52) 대명사와 결합한 경우에는 '여기에/여기서'에 ələ와 ədu가 차이 없이 함께 사용되었다.

[4] 경로격

다음은 경로격표지의 일부 예이다.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서 -dəli로,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서 -li로 나타났다.

(118) bii ər ɔktɔ-li əmgi-čii.
I this road-PROL come.back-PST.1SG
나는 이 길을 따라 돌아왔다.

(119) bii xuetang ɔlən-dəli-ni dulə-m.
I school beside-PROL-3POSS pass-NPST.1SG
나는 학교 옆을 지나 걸어갔다.

(120) suu uru ɔktɔ-li ul-kuldə/kullə.
you.PL mountain road-PROL go-IMP.2PL
너희는 산길로 가라.

[5] 기타 방향 관련 격

그밖에 소수의 예에서만 발견되는 방향 및 방위와 관련된 격표지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방면탈격 -giǰi는 '구체적이지 않은 출발점 방향에서부터'를 의미한다.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21) gərə-giǰi aldər dəəllə-gʊ-ǰi-rən.
far-ELAT sound hear-PASS-PROG-NPST.3
멀리서 종소리가 들리고 있다.

(122) {*shi*}[53] ami-giǰi ədən. /ədən=jə.
{is(是)} north-ELAT wind/ wind=PART.
북풍(북쪽에부터의 바람)입니다. / 是北风。
(“오늘은 어디에서 바람이 붑니까?”에 대한 대답)

다음은 모음 a가 길게 발음되었지만 방위종격/방위탈격에 해당하는 예로 보인다.

(123) bii aba-ŋ-ji ta-laaki-ni ǰak-ma-ni bak-čii.
I father-GEN-1SG.POSS that-DEL-3POSS thing-ACC-3POSS get-PST.1SG
나는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칼리나(2019b:110)에서는 이 형태를 -laxi로 제시하면서 보통 호이방언에서 친족용어와 바로 결합 가능하다고 기술했는데, 여기에서는 중국어 질문 “我从爸爸那里收到礼物了。”에서 ‘아버지로부터’에 해당되는 ‘从爸爸那里’부분을 직역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방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txaaxi 등으로 나타나는 방향격/부정 방향격의 예를 찾을 수 있으나, 이것도 싱왕 방언 자료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54]

(124) nisxɯn unaji <u>xəəxə-**txəəxi**</u> algasii(~aggasii)-ji-ran.
small girl/daughter cat-DIR walk-PROG-3
어린 여자 아이가 <u>고양이를 향해</u> 걷고 있다.

---

53) 솔론어에 화제 표지 si(<*shi* 是)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권설음으로 발음하였으므로 중국어 질문 “是北风。”의 是를 그대로 넣어 발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번 발화에서 모두 *shi*를 발화하기는 했지만 잉여적인 요소로 보아 { } 안에 넣어 표시하였다.

54) 성백인 외(2010:134)에 의하면 사마지에 방언에는 부정방향격 -txaaki를 사용하는 예가 있기는 하지만 -txaaki를 써야 할 자리에 -txi를 쓰는 경우들이 자주 보인다고 한다. 또 부정방향격 -txaaki와 탈격 표지 -txi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마지에 방언과 싱왕 방언에서 사용 빈도가 낮은 격표지 대신 여처격, 탈격표지 등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lit. 어린 여자 아이 고양이를 향해 걷고 있다.) [호이] - 칼리나(2019b:106)

(125) mərin amǰi-txaaki ugtəl-cəə.
horse lake-INDIR run-PST
말이 호숫가로 달려갔다. [사마지에] - 성백인 외(2010:134)

(126) ər ɔktɔ ar-txaki gən-ǰi-r ɔktɔ.
this road *Alihe*-INDIR go-PROG-PTCP.NPST road
이 길은 알리허(阿里河)로 가는 길이다. -[둘라르B]

4.1.3. 인칭

솔론어는 명사류의 뒤에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인칭표지가, 동사에는 그 주어에 맞는 인칭표지가 결합하는데, 이것들은 각각의 수와 인칭에 맞는 인칭대명사와 형태가 같거나 유사하다. 솔론어의 소유 표현은 소유주에 속격표지가 결합되고 소유물에 인칭표지가 결합되는 구성을 기본으로 하는데, 칼리나(2019b:48)는 이 double-marking 구성이 솔론어의 전형적인 소유 구성의 형식이라고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칭표지가 결합하지 않고 속격표지만 나타나는 일도 있다.[55] 이는 기본적으로는 싱왕 방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double-marking이 잘 나타나 있는 다음의 예들에서 다양한 인칭 소유표지들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127) min-əŋ bitəg[i]-ji.
I-GEN book-1SG.POSS
나의 책

55) 반면 동사류에는 주어에 상응하는 인칭표지가 생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칼리나(2019b:21)는 동사 인칭법에 대해서 서술어는 반드시 인칭표지가 결합되어야 완전한 문장이 되며, 동사 인칭표지는 수와 인칭에 따라 분류된다고 기술하였다.

(128) min-əŋ　　mərin-mi　　ǰuu-d/də　　bisi-n.
I-GEN　　horse-1SG.POSS　　house-DATL　　be-3
나의 말은 집에 있다.

(129) sin-əŋ　　mərin-si/či[56]　　bisi-n=jə?
you.SG-GEN　　horse-2SG.POSS　　be-3=Q
너의 말이 있느냐?

(130) biiᵢ　　asiᵢᵢ-ŋ-jiᵢ　　ǰisigan-ma-niᵢᵢ　　bak-čii.
I　　wife-GEN-1SG.POSS　　letter-ACC-3POSS　　get-PST.1SG
나는 아내의 편지를 받았다.

싱왕 방언의 명사류의 인칭표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수	복수	
1인칭	-ji/mi	배제형	-mun
		포함형	-ti
2인칭	-si	-su	
3인칭	-nin~ni/-ni~n		
재귀	-ji/mi	-	

표 6 싱왕 방언 명사류의 인칭표지

명사류에 결합하는 인칭표지의 경우 싱왕 방언의 1인칭 단수 인칭표지는 -ji/mi로 나타난다. 다른 방언들의 1인칭표지와 어미는 1인칭 대명사 bii의 흔적인 원순성 요소를 유지하고 있는데, 싱왕 방언의 -ji에서는 bii로부터 유래한 원순성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 이는 과거표지와 결합한 1인칭 과거 어미 -čii도 마찬가지이다.

56) 2인칭표지가 n 말음 뒤에서 드물게 -si와 -či 두 가지로 나타났으나, 일반적으로 -si로 나타나며, 이때 호이 방언과 달리 n 말음이 탈락하지 않는 듯하다.

(131)	1인칭 소유표지	1인칭 비과거 어미	1인칭 과거 어미
호이:	-wi/bi	-mi	-čuu/suu[57]
사마지에:	-bi	-mi	-čuu/suu
싱왕:	-ji/mi	-mi/m	-čii

싱왕 방언에서 1인칭표지나 재귀소유표지가 어말에서는 -ji~je로 발음되다 보니 비한정대격 -i 혹은 어기사와 혼동되기도 한다. 또렷이 발음할 경우 비한정대격의 -i나 어간말 i와 차이가 나게 발음되기도 하나, 빠른 발화에서는 판단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 특히 싱왕 방언에서는 조금 특이한 경우나 싱왕 방언의 독특한 부정문 구성 등에서 1인칭 소유표지 -ji가 문말에 오게 될 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유표지를 기대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어기사일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1인칭표지로 볼 수 있다.

1인칭 과거 어미는 인칭표지와 융합된 -čii로 나타나는데, 과거표지 -čəə 뒤에 따로 -ji를 붙여 발화하는 예가 있었다.

(132) ǰip-čəə-ji [je] (cf. ǰip-čii)
eat-PST-1SG
식사했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에 대한 대답)

(133) a. bii əŋku ugu tit-čii.
I ewenki language learn-PST.1SG
b. bii əŋku ugu tit-čaa-ji.
I Ewenki language learn-PST-1SG
나는 어웡키어를 배웠다.

57) 김주원(1985)에 의하면 과거표지 -čəə에 인칭표지 -bi가 결합한 형태가 -čumi 형태를 거쳐 -čuu/suu로 변한 것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싱왕 방언의 1인칭 과거는 호이 방언에서와 같이 (-suu/čuu) 시제와 인칭표지가 합쳐진 형태인 -čii로 나타나는데, 위의 예들은 과거를 나타내는 형동사(participle) -čəə와 1인칭표지인 -ji가 융합하지 않고 연이어 나타났다. 과거표지 뒤는 인칭표지가 붙을 수 있는 위치이기는 하지만, 간혹 주어가 3인칭이 아니어도 인칭표지가 생략되거나 3인칭 어미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인칭표지가 생략된 문장에 어기사가 붙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문말에서 -ji, -je로 발음되는 것을 어기사나 첨사류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둘라르 방언에서도 같은 위치에 1인칭 소유표지가 오는 다음과 같은 예가 발견된다. 따라서 싱왕 방언의 예들 역시 1인칭표지일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134) (노민 강에) 3번 갔었다.

jalan tan	gən-čuu-wi. / gən-čəə-wi. [-we]	
three time	go-PST-1SG	[둘라르B][58]

jalan tan	gən-čuu.	
three time	go-PST.1SG	[둘라르A]

(135) 식사했습니까? [둘라르A]

ǰəəti	ǰip-čəə-si-jə?
meal	eat-PST-2SG-Q

먹었습니다.

a. ǰip-čəə.

b. ǰip-čəə-w.

c. ǰip-čəə-wi. [we]

58) 둘라르 방언A는 1.3장에 김주원·고동호(2004)의 주요 자료제공인이기도 한 아오푸진(敖福金, 당시 45세 남성) 씨의 회화 질문지 녹음자료이다. B는 당시에 함께 조사한 투쌍칭(涂桑请, 당시 38세 남성) 씨의 음성자료이다.

둘라르 방언 자료에서는 방금 싱왕 방언에서 본 경우와 같이 인칭표지가 생략된 경우뿐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과거표지와 융합된 형태(gən-čuu)와 융합되지 않은 형태(gən-čəə-wi, ǰip-čəə-wi)를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ǰip-čəə-w(i)와 함께 -čuu 뒤에 다시 -wi가 붙은 일종의 중출구성인 gən-čuu-wi까지도 나타난다. 이 둘라르 방언의 예들은 싱왕 방언에서 같은 자리에 -ji로 나타나는 것이 1인칭표지임을 뒷받침해줌과 동시에 김주원(1986)에서 호이 방언의 과거표지 -čuu/suu가 -čəə에 인칭표지 -bi가 결합한 형태에서 변한 것이라고 기술했던 변화와 같은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반대로, -ji가 문말에서 다른 문법표지와 합쳐져 발음이 될 때도 있는데, 호이 방언 등과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싱왕 방언의 부정문 구성에서는 -ra 뒤에 1인칭표지가 오게 되면서 -ra-ji 또는 -rə-ji가 re로 발음이 된다.[59] 이것은 -rə/-ra와는 발음이 다를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듯이 주어가 2인칭인 경우에는 이 자리에 -si가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ji가 결합한 형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36) bii sin-u əsən[m] mandaa-ra-**ji**. > [-re]
I you.SG-ACC NEG hit-INF-1SG
나는 너를 때리지 않을 것이다.

(137) sii tiinu *xuetang*-n(d) ədəŋ gən(-n)-**si**=ba?
you.SG yesterday school-DATL NEG.PST go-INF-2SG=PART
너는 어제 학교에 안 갔지?

59) 이것을 rə-ji가 합쳐진 형태로 보아 re로 전사할 수도 있으나, -ji 단독으로도 문말에서 je로 발음이 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주로 r-i로 적었다.

(138) ɔɔ, bii ədəŋ gən-n-**i**. > [ne]
yes, I NEG.PST go-INF-1SG
예, 안 갔습니다.

싱왕 방언에서는 bisin의 과거형이 bideŋ~bideŋi 정도로 나타나는데, 1인칭과 2인칭의 경우 여기에 인칭표지가 결합할 수 있다.[60)]

(139) tar tiinu ǰiga aačin bidəŋ./bidəŋi.
he yesterday money none be.PST
그는 어제 돈이 없었다.

(140) bii tiinu ǰiga aačin bidəŋi-ji.
I yesterday money none be.PST-1SG'
나는 어제 돈이 없었다.

(141) sii tiinu ǰiga aačin bidəŋ-si=ku/bidəŋi-si=ku
you.SG yesterday money none be.PST-2SG=Q?
너는 어제 돈이 없었느냐?

(142) bii ǰaa(n) annagan nɔɔrəm-ni bəəǰiŋ kɔtən-də/kɔtən-d bidəŋi-ji.
I ten year before-3POSS Beijing city-DATL be.PST-1SG
나는 10년 전에 베이징에 살았었다.

(143) bii tiinu nan ǰuu-d-i bidəŋi-ji=ba.
I yesterday also house-DATL-REFL be.PST-1SG=PART
나는 어제도 집에 있었다.

---

60) 매우 드물지만 1인칭에서 bidə-m으로 발음한 것으로 생각되는 곳도 있다. 부정의 əsən 역시 비슷한 과거 형태를 가지는데, ədəŋ~ədəŋi(bidəŋi에 비해 ədəŋi의 드물며 ədən에 -ŋi 요소가 붙은 것일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로 나타나며 이 역시 1인칭 문장에서 ədə-m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 역시 일반적으로 3인칭 문장의 bidəŋi와 -ji가 결합한 bidəŋi-ji는 발음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상의 예들에서 역시 2인칭의 대응되는 문장에서 -ji와 같은 자리에 -si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확실히 이를 1인칭표지로 판단할 수 있다.

1인칭 복수 포함형의 예는 하나 나타났는데, -ti는 기식이 없이 발음되었으며 발음상으로 -tti인지 -ti인지 구분하기 힘들었다.

(144) bit-əŋ bitəgə-ti
we.INCL-GEN book-1PL.INCL.POSS
우리의 책

1인칭 복수 배제형 -mun는 어말에서 n이 발음되지 않고 앞에 오는 u를 비음화시키는데[mũ], ũ의 비음이 약화되어 -mu로 발음될 때가 많았다. 그러나 문장의 끝을 분명히 발음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는 [mũ]로 발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인칭 복수 -sun의 경우에는 n이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3인칭 소유표지는 주어와 서술어에는 nin이 나타나고 그 외의 위치에 붙을 경우 ni가 나타난다. 칼리나(2019b:23)와 Tsumagari (2009:5) 등에 의하면 호이 방언에서도 1인칭과 3인칭 소유표지에 이러한 형태 구분이 있으나 싱왕 방언의 경우 3인칭에서만 구분되었다. 1인칭은 사격이라 하더라도 호이 방언에서처럼 -waja와 같은 사격형이 따로 나타나지 않고 모두 -ji로 나타났다.[61] nin은 거의 비음이 약화되어 [ni]로 발음될 때가 더 많고, ni 역시 대부분 모음이 매우 약화되거나 탈락하여 [n]으로 발음될

61) 칼리나(2019b:23)에 제시한 표에 주어와 서술어에 나타나는 3인칭표지 형태는 -nin, 그 밖의 사격일 경우에는 -ni 혹은 -n으로 나타났는데, 문장 전사 시에는 -n을 대표형으로 사용하였다. 싱왕 방언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후자의 대표형을 -ni로 표기하기로 한다.

때가 많은데, nin이 약화된 [ni]는 모음이 분명하게 발음되어 사격의 ni와는 발음상으로도 차이가 있다. 또 사격의 ni는 모음이 탈락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어말에서 비음화하지 않고 [n]으로 분명히 발음되며 n이 파열할 때 i가 약하게 발음되거나 완전한 [n]으로 발음된다. 이 연구에서는 문법형태가 약화된 형태로 나타날 때 기본적으로 kə~k, də~d와 같이 탈락된 형태 양쪽을 모두 인정하여 그대로 적거나 어말에서(문장 중간을 포함) 일어나는 탈락의 경우 əsə(n) ətərə, ǰaa(n) adi, jalə(n) ərin 등과 같이 괄호에 넣어 표시하였다.[62] 그러나 nin과 ni는 본래의 음보다 훨씬 높은 빈도로 약화된 발음으로 나타나면서 두 가지가 발음상으로 뚜렷이 구분이 되며, 문법 정보가 반영된 것이므로 표기에 구분을 두어 전자는 nin, 후자는 ni로 통일하여 전사하겠다.

솔론어에는 재귀 인칭표지가 있다. 재귀소유인칭표지라고도 하며, 인칭 구별 없이 단수와 복수로 나누어진다. 솔론어의 단수 재귀인칭표지는 1인칭 단수 인칭표지의 형태와 같다. 호이 방언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다.

1인칭 단수	-wi/bi ; -waya/-baya
재귀 단수	-wi/-bi
재귀 복수	-wal/bal

싱왕 방언에서는 1인칭 단수 인칭표지와 동일한 형태의 재귀표지가 나타나지만 주어가 복수인 문장에서도 따로 복수 재귀표지가 나타나지 않고 단수일 때와 같은 재귀표지가 나타났다.

62) 싱왕 방언에 있어 어말 n이 비음화마저 남기지 않고 탈락하는 현상은 문말뿐 아니라 문장 중간에서도(특히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올 때) 흔히 일어나는 편이지만 딱히 여기에 제시한 각각의 단어들이 탈락된 형태로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nin과 ni는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대부분 어떤 약화된 발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미 밝혔으며, 이 경우 약화되었는지의 여부보다 원래의 형태가 둘 중에 무엇인지가 문법 관찰에 있어서는 더 유의미하기 때문에 적어도 문법을 다루는 이 장의 예문에서는 nin과 ni로 각각 구분하여 적기로 한다.

(145) a. sin-əŋ njaru(u)-si ǰuu-d-i bisi-n=jə?
you.SG-GEN man-2SG.POSS house-DATL-SG.REFL be-3=Q
남편은 집에 있습니까?

b. nisikʊʊkʊl ǰuu-d-i bitəg-i tuurə-ǰi-rən.
children house-DATL-REFL book-INACC read-PROG-NPST.3
아이들이 집에서 책을 읽고 있다.

4.1.4. 기타 어간 확장 접사

여기에서 다룰 접사들은 수, 인칭, 격과 관련된 표지보다 앞에 결합하는 것들이다. 명사류와 관련된 파생 접사들은 동사류 파생 접사들에 비해 덜 생산적이거나 해당 예가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싱왕 방언 자료에 나타난 접사 몇 가지를 예와 분석 위주로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간단히 설명하겠다.

[1] [시간 명사] + -ri/di/ti '-의 (것)'

(146) inig-di ǰəətə
day-REL meal
점심밥 (점심의 식사)

(147) biiər ɔlɔ-d nɔɔrəm-ti urgil nəə-muu-čii.
I these.people-DATL old.days/before-REL story speak-give-PST.1SG
나는 이 사람들에게 옛날의 이야기를 해 주었다.

(148) əri inig tiinuu-ti-diki nan baran bəi əm-čəə.
this day yesterday-REL-ABL again many person come-PST

오늘은 어제(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왔다.

[2] -čin '-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149) a. xuetang-də ulə-msi-ni=jə? (= ulə-m bisi-ni=jə?)
school-DATL go-CVB be-NPST.2SG=Q
너는 학생이니? (학교에 가고(다니고) 있니?)

b. sii xuetang-čin-si=jə?
you.SG school-NMLZ-2SG=Q?
너는 학생이니? ('학교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니?)

c. bii xuetang bəi.
I school person
나는 학생이다. ('학교 사람'이다)

4.2. 형용사

솔론어의 형용사는 명사적인 성격을 가진다. 바꿔 말하면 명사와 형용사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Tsumagari (2009:7)는 <간지:41>의 niʃuxun-ʃəl-wə-ni [small-PL-ACC-3] 'the small ones (ACC)'의[63] 예를 들어 형용사가 명사로 전환하여(converted into nouns) 수, 격, 인칭표지를 취한다고 설명하였다.[64] 수, 격, 인칭표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보통 명사에 결합하여 '-가 있는'의 뜻을 나타내는 접사 -či 역시 del ai-si [head good-PROP] '머리 좋음 있다'(칼리나 2019b:42)와 같이 명사, 형용사, 수사 등의 명사류에 결합할 수 있다. 다음은 형용사를 만드는 접사류 일부이다.

[1] -xʊn, -kʊn, -kan, -xʊʊxʊn '좀/약간'

63) 분석 및 의미는 Tsumagari (2009:7)의 것이다. <간지> 원문에는 '小'로 주를 달았다.
64) -xan은

(150) a. tiinu aasin-čaa-si ai=jə?
yesterday sleep-PST-2SG well/good=Q
어젯밤 잘 잤습니까?

b. aixʊn aasin-čii.
well sleep-PST.1SG
(나는) (좀) 잘 잤습니다.

c. mun-əŋ ail dawʊ aixʊn.
we.EXCL-GEN town very good
우리 마을은 매우 (좀?) 아름답다(좋다).

(151) a. ər daga ɔktɔ.
this close road
이 길은 지름길입니다. (이것은 가까운 길이다)

b. ər dagʊxʊn ur bisi-n=jə?
this (somewhat.)nearby mountain be.NPST-3=Q
이 부근에(좀 가까이에) 산이 있어요?

(152) a. lumban čaa
thick tea
진한 차

b. lumbakan jeesə-či muu
(somewhat.)thick leaf-PROP water
좀 진한 차

(153) a. kjamdə = 싸다/쉽다[65]

b. kjamdəxʊʊxʊn ənun-nən.

(somewhat.)easy be.ill-NPST.3

감기 걸리기가 쉽거든요. (좀 쉽게 앓는다.)

(154) nisikʊn/nisikʊʊkʊn '작다 → 아이'

위의 (150)~(154)에서 a와 b의 ai/ai-xʊn, daga/dagʊ-xʊn, lumban/lumba-kan, kjamdə/kjamdə-xʊʊxʊn, nisikʊn/nisikʊʊ-kʊn 등을 비교해 보면 b는 a에 사용된 어휘에 -xʊn, -kʊn, -xʊʊxʊn, -kan 등이 결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접사는 일반적으로 '좀, 약간, 다소' 정도로 결합한 명사류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154)의 nisikʊn/nisikʊʊkʊn의 경우 의미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때로는 따로 번역하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다. 특히 (150c)에서 aixʊn이 dawʊ '매우'와도 함께 사용되는 것을 보면 실제로 의미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보다 어감을 조금 부드럽게 만드는 정도의 기능으로 습관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예문의 -xʊn 등을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2] [명사류] + -či '-가 있는'

명사류에 결합하여 '-가 있는 '의 의미를 나타내는 -či는 싱왕 방언에서도 매우 생산적이다.

(155) namaǰi nasən-či. [hundread age-PROP] 100세 있다 → 100세이다

jeesə-či muu [leaf-PROP water] 잎이 있는 물 → 차

gərbi-či [name-PROP] 이름이 있다 → 이름이 -이다/유명하다

---

65) '쉽다'의 의미는 어휘 조사에서 확인되나, '쉽다'의 의미로 사용된 문장 예는 나타나지 않았다.

(156) sii ɔɔn gərbi-či?
you.SG what.kind.of name-PROP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157) tar utu-či.
he son-PROP
그에게는 아들이 있다.

명사와 결합한 예가 많지만, 다음과 같이 '좋다', '많다'와 같은 형용사도 명사류이기 때문에 -či와 결합할 수 있다. 호이 방언에서는 -si/či로 나타나는데, -si와 결합할 때에는 (159)의 bara(n)-si 같이 앞에 오는 어휘의 n 말음이 탈락하고, -či와 결합할 때에는 n이 탈락하지 않는다. (ʊrin-či [twenty-PROP] 20 있는→ 20살)

(158) Colsʉ del ai-si.
Chulsoo head good-PROP
철수가 머리가 좋다. (lit. 철수 머리 좋음 있다.) [호이] - 칼리나(2019b:42)

(159) Colsʉ mʉgʉn bara(<n)-si.
Chulsoo money many-PROP
(lit. 철수 돈 많이 있다) [호이] - 칼리나(2019b:43)

[3] [형용사] + -čiləə '조금/약하게'

(160) a. lumbakan jeesə-či muu ga-dan.
(somewhat.)thick leaf-PROP water take/need-NPST.3
진한 차를 취한다/요한다. [원질문: (차를) 진하게 해드릴까요? (要浓茶吗?)]

b. əbir. /əbir-čilə.
weak(/thin). /weak-a.little.
약하게(해주세요). / 淡点儿的。

-čilə는 '조금, 약하게' 정도의 뜻을 가지며, <어웡키어 간지:39>에 '약간, 좀, 그런대로'의 의미를 가지는 ʃila/ʃilə, 朝克(2017:152)에 -sala, sələ, solo, sɵlɵ 형태로 제시한 것과 같은 것이다.

[4] [동사 어간] + -mlakan '곧 ~할 것 같은'

(161) a. ɔdən ɔdə-mlakʊ(n) ɔɔ-čɔɔ.
rain rain-ADJ become-PST

b. ɔdə-mlakan ɔɔ-čɔɔ.
rain-ADJ become-PST
곧 비가 오려 한다. (곧 비가 올 것 같아졌다.)

위의 예에서 '곧 -하려 한다, -할 것 같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로 -mlakan~mlakʊn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아마도 -mla-에 -kan~kʊn이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칼리나(2015:96)에서는 호이 방언에서 자동사와 결합하여 '곧 -할 것 같은'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mla/mlə/mlɔ를 즉발상/임박상 접사로 보았으며, 이 형용사들은 bi- 혹은 ɔɔ-와 같이 쓰인다고 했다.

(162) odan-an 비가 오다 oda-mla 곧 비가 올 것 같은 (o = /ʊ/)
[호이] - 칼리나(2015:97)

싱왕 방언의 ɔdə-mlakʊ(n)과 ɔdə-mlakan의 -mla가 호이 방언의 -mla와 같은 것이라고 볼 때, -mla이 결합된 결과물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 뒤

에 -kʊn~kan이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명사류에 결합하는 이 -kʊn~kan은 큰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고 '약간 곧 비가 올 것 같아졌다' 정도로 약간의 어감을 더해주는 정도일 것으로 생각된다.

[5] 중첩(Reduplication)

Tsumagari (2009:7)에서는 솔론어에서 형용사의 강조를 나타내기 위해 특징적인 부분 중첩 방식을 사용하며, 이것은 몽골어와 터키어의 패턴과 거의 같고 중국의 퉁구스 언어에서도 발견되나 러시아의 퉁구스 언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66]

다음은 예가 하나 밖에 없기는 하지만 싱왕 방언에서 형용사의 부분중첩으로 reduplication strategy 를 보이는 예인데, 이 역시 호이 방언 문법의 설명으로는 gɔmə의 m을 설명하기 힘들고 다고르어에서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었다.

(163) gɔmə=gər[67] ul-čəə.
far=far go-PST
멀리멀리 갔습니다.

부분중첩을 이용하여 형용사를 강조하는 전략은 다고르어와 솔론어 모두에서 나타나는데,[68] 어두 음절을 복사하여 중첩하되 제1음절이 개음절

---

66) 색체 형용사에 사용되는 siŋarin 'yellow' > siŋa siŋa-ljaxun 'deep yellow'와 같은 방식의 중첩 현상이 있다고 하나, 싱왕 방언에서는 이에 해당되는 예가 발견되지 않았다.

67) gɔmɔ는 제1음절이 장음으로 발음되었는데[gwɔmɔ], 감정적 장음(ɔɔ는 수의적으로 이중모음와 같이 발음됨)으로 보았다.

68) Li(2005:67)에서는 오로첸어에도 다고르어의 영향을 받아 한때 이러한 현상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Tumagari (2009:7)도 이 현상이 몽골어와 터키어의 패턴과 거의 같으며, 러시아의 퉁구스 언어들에서는 찾을 수 없고 중국의 퉁구스 언어들에서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면 [b] 등의 자음을 접두사의 음절말 위치에 삽입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164) aja 좋다 → ab aja,
nəəriŋ 밝다 → nəəb nəəriŋ [호이] - 朝克(2017b:191)

이 때 삽입하는 자음은 두 언어 모두 [b]가 기본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에서 제시한 싱왕 방언의 예와 같이 [m]이 사용되는 환경은 호이 방언에서는 朝克(2017b:194)에서 nam namaddi, nəm nəmi 등 제2음절이 m으로 시작되는 어휘일 경우로 기술하고 있다. 반면 다고르어의 경우에는 Li(2005:67)에서 삽입 모음을 [b]나 [m]로 기술하면서 Zhong(1982)를 인용하여 예를 들었는데, 그 중 [m]이 나타난 ʧiɣa:m '하얗다'를 보면 아래와 같이 싱왕 방언의 환경(g 앞)과 비슷한 환경(ɣ 앞)에서 [m]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고르어] ʧiɣa:m → ʧi + m ʧiɣa:m
[솔론 싱왕방언] gɔrɔ → gɔ + m gɔr → gɔmɔ gɔr

4.3. 부사

형용사가 그대로 부사로 쓰일 수 있으나,[69] 형용사에 도구격표지 -ǰi를 더함으로써 부사를 만들 수도 있다.

69) mandi는 <어한사전:425>에 '곤란하다, 어렵다' 등 (ex. mandi baita 어려운 일) 형용사로 쓰일 때의 의미와 함께 '매우'라는 부사로서의 뜻풀이도 실려 있지만(ex. mandi aja inigi 매우 좋은 날씨) 뜻풀이 첫머리에는 형용사로만 표시되어 있다. Tsumagari (2009)에는 형용사를 그대로 쓰거나 -ǰi를 붙여 부사를 만든다는 설명 외에 부사를 따로 소제목으로 설정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다.

(165) sii ayaxan/ayaxan-ji aasin-caa-si-gii?
you good/good-INS sleep-PST-2SG-Q
did you sleep well? [호이] - Tsuamagari(2009:7)

다음은 싱왕 방언에서 나타나는 형용사와 부사의 예들이다.

(166) a. mun-əŋ ail dawʊ aixʊn.
we.EXCL-GEN town very good
우리 마을은 매우 아름답다(좋다).

b. aixʊn aasin-čii.
good sleep-PST.1SG
(나는) 잘 잤습니다.

c. ai-ǰi aasin-čaa.
good-INS sleep-PST
잘 잤습니다.[70)]

(167) a. sin-əŋ mərin-si/či tutulə-r[r/n]-nin dawʊ djagar.
you.SG-GEN horse-2SG.POSS run-PTCP.NPST-3POSS very quick
너의 말은 빨리 달린다.(너의 말이 달리는 것이 매우 빠르다)

b. djagar ul-gəri.
quick go-HORT
빨리 갑시다.

70) 호이 방언의 aj-ǰi aasin-čuu(1인칭 과거)를 직접 들려주고 유도한 답변인데, 3인칭 어미를 사용하여 말하였다.

(168) a. baran ukur
a.lot cow
많은 소

b. udu *xuetang*[n]-d[n] gənə-rki jəŋju(<*yingyu*) baran titə-ran.
big school-DATL go-COND English(英语) a.lot study-NPST.3
대학에 가려면 영어 공부를 많이 한다(원 질문: … 많이 해야 한다).[71]

위와 같이 형용사가 그대로 부사로 쓰이는 경우도 많지만, əli '더욱', dawʊ '매우' 등과 같이 부사로만 사용되는 것들도 있으며, *maashang*(<马上 곧), *zhəng*(正 마침, 바로), *yiding*(<一定 반드시) utkai(곧 cf. 만주어 uthai) 등의 차용어는 부사로만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4.4. 수사

싱왕 방언의 수사는 호이 방언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69)	**싱왕**	**호이** - Tsumagari (2009:7)
1	əmun	emün

71) 자료제공인은 이와 같이 의무나 당위를 나타내는 '-야 한다'가 들어가는 질문에 대해서 일반적인 직설법 3인칭 어미로 답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a와 같이 *yiding*(一定) 등의 부사를 넣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로 바꾸어 질문했을 때에는 b와 같이 대답하였다.

a. ərinig bii ***yiding*** ulu-mi.
today I **surely**(一定) go-NPST.1SG
나는 오늘 떠나야 한다(떠난다). / 我今天必须得走了。
b. əsə(n)/əsən ulu-r-də əsə(n)/əsən ɔɔdɔ(n).
NEG go-PTCP.NPST-DATL NEG ok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 我不走不行了。

2	ǰuur~ǰuuri	jüür
3	jalan	ilan
4	digin	digin
5	twaran	toŋa
6	nuŋun	niŋün
7	nadan	nadan
8	ǰabkʊn	jaxun
9	jəgin	yegin
10	ǰaan	jaan
20	ɔrin	orin
30	gɔtin	gotin
40	dəki	dexi
50	twaraŋi~twarŋi	toŋŋɛɛ
60	nuŋurŋi	niŋüŋŋɛɛ
70	nadarŋi	nadaŋŋɛɛ
80	ǰabkʊrŋi	jaxuŋŋɛɛ
90	yərəən	yereen
100	namači~namaǰi	namaaji
1,000	(əmun) mjaŋan	(emün) miŋgan
10,000	(əmun) tum~tumun	(emün) tümün

13은 ǰaan jalan, 15는 ǰaan twaran과 같이 표현되는 것도 호이 방언과 동일하다.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쓰인다.

(170) ǰuur lɔŋkɔ bisi-n.
two bottle be.NPST-3
(술이) 두 병이 있습니다.

(171) əmun asi bəi.
one female person

한 여자. (어른이 몇 명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

100 단위가 넘어가는 숫자나 복잡한 숫자의 경우 단위가 맞지 않는 예도 있다.

(172) jɔɔgiǰi digin tumun jaln mjaŋan /namaaǰi.[72)]
together four ten.thousand three thousand /hundred
모두 43,000/40,300(위안)입니다. [질문: 합해서 4,300위안입니다.]

(173) digin mjaŋan twarəŋi /*twaraŋi namaǰi /twaran namaǰi[73)]
four thousand fifty /fifty hundred /five hundred
4,050/(4,000+)*50 100/(4,000+)500(위안)입니다. [질문: 4,500위안입니다.]

(174) aagʊn-nin nuŋurŋi, tar giltərin čimči-nin {nadərŋi,}
hat-3POSS sixty that white clothes-3POSS {seventy}
{jaln mjaŋan nadərŋi,} jalan namaǰi nadərŋi.
{three thousand seventy,} three hundred seventy
모자는 60, 저 하얀 옷은 {70,} {3,070,} 370(위안)입니다.
[질문: 모자가 600위안이고 외투가 3,700위안입니다.]

‘(십/백)여, (십/백)몇’ 등의 어림수는 다음과 같이 수사 뒤에 adi(몇, 약), ǰərgin(약, ~등)을 붙여 표현하였다.

---

72) 직접 digin mjaŋa로 유도했으나 계속 digin tumun으로 답하였고, 300도 jalan mjaŋa(3000)로 답하였으나 digin tumun과 이어서 발화하지 않고 휴지 후에 300위안을 따로 질문하자 jalan namaǰi라 답하였다.

73) 여러 번 질문했으나, 계속해서 twaraŋi[twariŋi](50)로 답하다가 따로 500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twaran namaǰi로 유도하자 맞다고 하고서도 twaraŋi, twaraŋi namaǰi, (앞부분인 4,000을) digin namaǰi(400)라고 하는 등 혼란을 겪다가 500을 twaran namaǰi라고 제대로 발화했으나, 그 후에 다시 4,000에 이어 발화할 때는 digin mjaŋan twaraŋi namaǰi라고 답하였다.

(175) dawʊdə... {ǰaan,} ǰaa(n) adi bɔjgɔn.
about {ten} ten how.much household
대략 십여 호(戶)입니다.

(176) namaǰi ǰərgin baga bisi-n.
hundred about land be.NPST-3
일백평방미터입니다. (일백여 평방미터/땅이 있다.)

싱왕 방언 자료에서 '-번'은 (177)의 əm(ə)-rə와 같이 수사에 결합하여 횟수를 나타내는 접사 -rə로 표현되기도 하고, tan이나 ərin으로 표현되기도 했다(178).

(177) əmrə dɔɔ dɔɔl-čaa, čaŋne-m man-k.
once song sing-PST sing-CVB finish-IMP
한 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불러라.

(178) jalan tan[ŋ] gən-čii.
three time go-PST.1SG
세 번 가 봤습니다. (去过三次)

(179) ər əəm-u inig-d-ji jalan ərin ǰib-tən.
this medicine-ACC day-DATL-REFL three time eat-3NPST
이 약을 하루에 세 번 먹으세요.

시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ərin이 횟수를 나타내는 것은 호이 방언에서도 마찬가지이며(180), 횟수를 나타내는 다른 단어로 modaŋ (o=ʊ)이 있다(181).

(180) tarigiltariŋ sisə muni ʉkkʉl toŋ əriŋ nʉʧʧidʒirəŋ.
那 白的 汽车 我们 门 五 次 过
那辆白色汽车从我们家门口路过五次了。
(그 흰색 자동차는 우리 집 앞을 다섯 번 지나갔다.)

(181) bi ilaŋ modaŋ bəədʒiŋdʉ ninisʉ hʉŋ.
我 三 次 北京 去 呀
我去过三次北京。(나는 베이징에 세 번 가 봤다.)

[호이] - 朝克(2017b:32)[74]

4.5. 대명사

4.5.1. 인칭대명사

대명사에 있어서는 특히 인칭대명사에서 싱왕 방언의 독특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싱왕 방언의 인칭대명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수			복수			
	1인칭	2인칭	3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INCL	EXCL		
NOM	bi	si	tar(i)	bit(i)	bu	su	tar ɔlə
GEN	min-əŋ	sin-əŋ	tar-əŋ	bit-əŋ	mun-əŋ[75]	sun-əŋ	tar ɔlə-ŋ
ACC	min-u	sin-u	tar-ʊ	-[76]	mun-u	sun-u	tar ɔl-ʊ
DATL	min-du	sin-du	ta-dʊ[77]	-	mun-du	sun-du	tar ɔlə-d~ tallʊ-d
INS[78]	min-ǰi	sin-ǰi	tar-ǰi	-	mun-ǰi	sun-ǰi	tar ɔlə-ǰi

74) 괄호 안의 한국어 문장은 朝克(2017b) 원문의 중국어 문장을 번역한 것이다.
75) munuŋ으로 발음된 예도 있다.

ABL[79]	min-duki	sin-duki	ta-dʊki	(biti-diki)	mun-duki	sun-duki	tar ɔlə-dik

표 7 싱왕 방언의 인칭대명사

싱왕 방언에서 일반명사 뒤에 결합하는 여처격표지는 어말에서 약화되어 원순성을 잃은 -də 또는 d로 나타나지만, 인칭 대명사와 결합한 형태는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1인칭 단수 탈격은 탈격의 주변적인 기능에 해당하는 '나보다, 나 말고' 등으로 쓰인 예문에 나타난 것이다. 1인칭 복수 포함형의 탈격형 biti-diki는 단 한 번 출현하였으며 탈격표지가 맞는지 조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포함형 '우리에게서'는 따로 질문 항목이 없었으며, 해당 예는 원래 '우리와 함께 떠났다'로 질문한 문장에서 '우리와 함께'에 해당할 부분에 'biti-diki'가 나타난 것이다.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인칭만 바꾼 일련의 조사 항목들에 대해 모두 탈격과 같은 형태를 사용하여 답하였는데, 동사를 '离开'가 아닌 '走'로 바꾸어 다시 질문했던 한 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와 함께'의 뜻으로 쓰이는 -ǰi를 사용했다.

(182) tar/tari mun-duki ulči-čəə.
he we.EXCL-ABL(?) leave-PST
그는 우리와 함께 떠났다

(183) tari mun-ǰi əmundə ul-čəə.
he we.EXCL-INS together go-PST
그와 우리 두 사람은 같이 갔다.

---

76) 비어 있는 곳들은 조사 자료의 빈약으로 인한 우연한 빈칸으로 보인다.

77) 실제로는 tadu로 발음될 때도 있으며, 어말 u~ʊ가 중화되어 모음을 식별하기 어려운 곳도 많지만, 인칭 대명사와 결합한 문법형태는 min-du와 같이 일반명사와 결합한 형태(-də)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형태(약화되거나 중화되지 않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tadʊ를 대표형으로 적기로 한다. tar-ʊ, ta-dʊki 역시 마찬가지이다.

78) '-와 함께'의 의미로 쓰인 예로 나타남

79) -duki는 i모음이 탈락한 -duk로도 나타난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위에서는 그와 내가 함께 간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생각하여 서로 헤어졌으므로 “그는 나에게서 떠났다”로 바꾸어 대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문장들에서 mun-duki나 biti-diki의 -duki~diki가 ‘함께’라는 의미로 쓰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자료제공인이 직접적으로 이것이 ‘나와 함께 跟我们’이라는 뜻이라고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탈격이 쓰일만한 곳에 도구격표지가 쓰인 예도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4.1.2.4의 도구격 부분의 말미에 예를 제시해 두었다.

표7에서 빈칸으로 나타나는 1인칭 복수 포함형의 대격, 여처격, 도구격의 예가 조사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원인에는 질문지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질문지에서 “우리는 함께 담배를 피운다./我们一起抽烟。”와 “우리는 담배를 피우지만, 너희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我们抽烟, 可是你们不抽烟。”와 같이 두 가지로 물었어도 모두 배제형인 buu를 사용하여 대답한 경우가 많았는데, 배제형 용례를 얻기 위한 질문인 후자는 확실히 배제형을 쓰도록 ‘너희’와 대비되게 질문을 만들었지만 포함형 용례를 얻기 위한 전자의 질문은 그런 장치가 없고, 중국어에서 특별히 포함형에만 쓰는 1인칭 복수 대명사 ‘咱们’이 아닌 ‘我们’을 사용하여 질문했기 때문에 자료제공인은 ‘우리’에 청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또 질문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포함형(중국어로 咱们을 써서 질문)을 사용해서 일부러 따로 묻는 항목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제형으로 답한 것이 많았다.

단순히 배제형을 사용하여 ‘우리는 함께 담배를 피운다’라고 말할 경우 솔론어 문장으로서는 문제가 없지만 1인칭 복수의 포함형과 배제형의 사용에 있어서 혼란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

(184) a.bit əmundəki ul-gəri.
we.INCL together go-HORT
우리 모두 함께 가자. (我们都一起走把)

b. buu əmrət ul-gəri.
we.EXCL together go-HORT
우리 함께 가자. (我们一起走吧)

(185) suu muu-li ul-kuldə, bit uru ɔktə-li ul-gəri.
you.PL water-PROL go-IMP.2PL we.INCL mountain road-PROL go-HORT
너희는 강을 따라 가라, 우리는 산길로 가자.

(184)의 '우리 함께 가자'는 상대방에게 함께 하자는 청유형 문장이므로 모두 a와 같이 포함형이 쓰여야 하는데, b는 주어에 배제형이 쓰였다. (185)는 반대로 배제형이 쓰여야 할 곳에 포함형이 쓰였다. 이 문장은 길고 복잡해서 주의력이 떨어져 말을 많이 더듬으며 발화했다. (185)는 질문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말을 하면서 실수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80] (184b)는 청유형 문장의 주어로 buu가 나왔다는 점에서 문장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솔론어의 인칭대명사는 방언차가 크지 않고 인칭대명사의 어간과 격표지의 형태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싱왕, 호이, 사마지에 세 방언[81]의 인칭대명사와 1인칭 및 2인칭의 사격 어간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3인칭은 어간이 변화하지 않는다.

---

80) 또는, A 그룹을 보고 강을 따라 가라고 이야기한 후에 다시 B 그룹에게 우리는 산길로 가자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하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보통은 질문과 답을 하면서 그런 복잡한 상황을 상상하면서 말하는 일은 드물고, 질문을 하더라도 답이 잘 나오지 않아 간단하게 다시 묻는 일이 많다.

81) '사마'로 표기하였다. 사마지에 방언의 문법을 다룬연구로는 권재일·김주원(2000)과 성백인 외(2010)가 있는데, 문법 형태소의 표기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성백인 외(2010:135)의 인칭대명사의 격 변화 표를 참조하였다.

	단수						
	1인칭				2인칭		3인칭
	주격		사격		주격	사격	주격/사격
싱왕	bii		min-		sii	sin-	tar(i)
사마	bi		min-		si	sin-	tar
호이	bii		min-		sii	sin-	tar
	복수						
	1인칭(배제)		1인칭(포함)		2인칭		3인칭
	주격	사격	주격	사격	주격	사격	주격/사격
싱왕	buu	mun-	biti	bit(i)-	suu	sun-	tar ɔl
사마	bu	mun-	miti	miti-	su	sun-	tar ʊlar
호이	buu	mun-	miti	mit(i)-	suu	sun-	taččil[82]

표 8 세 방언의 인칭대명사 어간

인칭대명사의 어간에 있어서는 표기와 대표형의 차이 등을 제외하면 1인칭 복수 포함형 대명사만 조금 다르게 나타날 뿐 대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싱왕과 호이 방언에서 bii, sii, buu, suu와 같이 장모음을 가진 형태들이 사마지에 방언에서는 단모음을 가진 형태들로 대응하는 것은 표기 규약상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83]

1인칭 복수 포함형 대명사가 호이 방언과 사마지에 방언에서는 miti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 싱왕 방언에서 bit(i)로 나타나는 것은 퉁구스어의 1인칭 대명사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m~b의 교체이다.

인칭대명사의 어간형은 방언차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방언마다 문법 형태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인칭대명사의 격 변화 형태 역시 달라지기도 한다. 세 방언에서 2인칭 단수의 격 변화 형을 속격, 대격,

82) 4.1.1.에서 언급했듯이 호이 방언에도 tar ʊlʊr/tallʊr형도 있다. 사실 Tsumagari (2009:6) 등에서 언급했듯이 3인칭대명사로 정해진 것이 있다기보다 지시대명사(tari)와 그 복수형(tarsal, taččil, tar ʊlʊr>tallʊr) 등을 각각 3인칭 단수와 복수에 사용하는 것이다. 싱왕 방언에는 tarsal이나 taččil 형태는 나타나지 않았다.

83) 같은 호이 방언 자료 사이에서도 bi~bii, tar~tari와 같이 어휘나 문법 형태들의 모음의 장단이나 어말 모음의 유무가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앞으로의 논의에 있어 이와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으로 다루겠다.

여처격의 예를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186)	싱왕	호이	사마지에
주격	sii	sii	si
속격	sin-əŋ	sin-i	sin-i
대격	sin-u	sin-əwə	sin-wu
여처격	sin-du	sin-du	sin-d

호이 방언에서는 -wə/-bə 두 계열의 한정대격[84]표지 중에서 n/ŋ로 끝나는 명사 뒤에는 -bə가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Tsumagari (2009:6)가 인칭대명사의 대격형이 다소 불규칙하다고 지적했듯이, '당신을'은 sin-əwə로 나타난다. 칼리나(2019b:63)는 ər(이), tar(그/저) 혹은 min-(나), sin-(너), sʉn-(너희들), mʉn-(배제형의 우리)과 같은 일부 n 혹은 r로 끝나는 명사 뒤에[85] '-wa ~ -wə'가 결합하면 '-awa ~ -əwə'처럼 자음과 자음 사이에 모음조화에 따라 'a, ə'가 첨가된다고 기술하였다. 다른 두 방언을 봤을 때에도 역시 같은 계열의 -(w)u와 결합하므로, 솔론어의 인칭대명사의 대격형은 모든 방언에서 w 계열의 한정대격표지가 결합하며, 호이 방언에서는 인칭대명사의 사격 어간과 대격표지의 사이에 매개모음 -ə가 삽입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싱왕 방언과 다른 방언들 사이의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속격형에서 보인다. 속격형의 경우 2인칭 단수를 예로 들면 싱왕 방언을 제외한 다

84) 4.1.2.3에서 기술했듯이, 솔론어의 대격표지는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부정대격표지(biteg-i/book-INACC 책을) 혹은 한정대격표지가(ex. tar bitəg-u/that book-ACC 그 책을, min-əŋ bitəg-ma-ji/I-GEN book-ACC-1SG.POSS 내 책을) 구분되어 사용된다. 인칭대명사는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한정대격이 결합한다.

85) 즉 인칭대명사의 사격 어간과 지시대명사의 경우이다. 한편 n으로 끝나는 의문대명사의 경우 칼리나(2019b:64)에 -ba와 결합한 uxun-**ba**-n[what-ACC-3POSS] '(그 중에서) 무엇을'로 나타났으며,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가 한정대격표지와만 결합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일부 의문대명사는 비한정대격과도 결합할 수 있다. 그 용법 및 의미 차이에 대해서는 칼리나(2019b:68) 참조.

른 솔론어 방언들에서는 모두 sini의 형태로 나타나지만[86] 싱왕 방언만 sinəŋ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1, 2인칭 단수 등의 경우 가끔 miniŋ, siniŋ에 가깝게 들리는 것이 있어서 타 방언의 sini와 얼핏 비슷한 형태인 sin-iŋ으로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ʃiniŋ] 정도로 발음되며, sun-과 같이 i모음을 포함하지 않는 사격 어간과 결합할 경우 등은 더더욱 i와는 동떨어진 발음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miniŋ, siniŋ에 가깝게 들리는 것은 제1음절의 영향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속격을 sin-iŋ이 아니라 sin-əŋ으로 분석하는 것은 음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싱왕 방언의 속격표지를 고려한 결과이기도 하다. 다른 방언에서는 2인칭 단수의 사격 어간 sin-에 그 방언의 속격표지인 -ni가 결합하여 sini가 되었기 때문에 제2음절의 i는 속격 -ni에서 유래된 모음인 것이 확실한데 반해, 싱왕 방언의 경우 4.1.2.2.에서 논하였듯이 속격표지가 기본적으로 -ŋ(<-ŋi)로 나타나기 때문에 n과 ŋ 사이의 모음 ə는 속격표지 자체에서 유래된 것이라기보다는 사격 어간의 n과 ŋ 사이에 첨가된 매개모음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이 n과 ŋ 사이의 모음을 i로 본다면 싱왕 방언의 속격표지가 -iŋ이여야 하는데 4.1.2.2.에 제시된 싱왕 방언 자료의 속격표지 예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보기 힘들다(səbə-ŋ ‘선생님의’, ail-əŋ ‘마을의’ 등).

한편 이와 같이 현실 발음과 싱왕 방언의 속격표지 형태를 고려하여 현재의 단수 2인칭의 속격 형태를 sinəŋ으로 보더라도 역시 다른 방언과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sini에서와 같이 싱왕 방언의 2인칭 단수 속격형(그리고 속격표지)에도 비자음 뒤에 i가 있거나 적어도 과거에 있었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즉 다른 방언에서 -ni로 나타나는 속격표지와 같이 싱왕 방언의 속격표지도 역시 원래는 i모음을 가지는 -ŋi였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87] 이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확인한 솔론어의 방언들 모두에

---

86) 둘라르와 사마지에 방언은 꽤 높은 빈도로 [sĩ]로 실현되지만 이는 수의적인 것으로 기본형은 호이 방언과 같은 sini로 볼 수 있다.

87) 이는 4.1.2.2에서 언급했듯이 어웡키어의 속격표지의 흔적(Bulatova & Grenoble

서 속격표지는 공통적으로 비자음+i로 구성되었으며, 인칭 대명사의 사격 어간 min-, sin-, sun- 등의 뒤에 비자음+i로 이루어진 속격표지가 결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싱왕 방언의 경우에는 속격표지가 n이 아닌 ŋ으로 시작되므로 sin- 등 사격 어간의 n과 속격표지의 ŋ 사이에 ə가 삽입된다. 또 싱왕 방언에는 말음 i가 탈락했거나(ɔɔndi > ɔɔn) 수의적으로 떨어지는 문법 형태들이 있는데(mi~m, ni~n), 이것들과 같이 속격표지의 i 역시 탈락된 것으로 보면 자연스럽다.

호이 방언 sin- + -ni > sini
사마지에, 둘라르 방언 sin- + -ni > sini [sini~sĩĩ~sii]
싱왕 방언 속격표지 sin- + -ŋi > sinəŋi > sinəŋ

한편 솔론어의 3인칭은 현재 tar(i)로 나나이어의 noanı, 러시아 어웡키어의 nuŋan 등 다른 퉁구스어에서 나타나는 3인칭 대명사가 아닌 지시대명사 계열을 사용하는데, Tsumagari (2009:6)에 의하면 'original third person pronoun *nugan* (PL *nugan-sal*)'이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주로 정중한 표현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둘라르 방언을 다룬 娜佳(2015)의 예문에서 '그/저'에 대해서 tar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사람을 뜻하는 '그(他)'에는 nooni를[88]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둘라르 음성자료에서도 nɔɔnı awʊ?(he who/저 분은 누구시냐?)의 예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싱왕 방언 자료에서는 那位是谁？(저 분은 누구니?)라는 질문 항목에 대해서도 n- 계열의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tar awʊ tari?"로[89] 답

(1999)의 표기로는 -ŋiː)과 유사한 형태이다.

88) 이 논문에는 예문 수집 방법이나 음운체계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예문의 양이 많지 않으며 따로 ʊ와 o가 나타나지 않아 ʊ 등과 음소적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3인칭 대명사 'nooni'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moo'(나무) 등의 표기 예로 보아 여기에서 'nooni'로 표기된 것은 nɔɔni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89) 호이 방언에서도 '(그가) 누구냐' 혹은 '(이것이) 무엇이냐'와 같은 의문문 말미에 tari~taari가 나타난다.

하였다.

솔론어에는 위와 같은 인칭대명사 외에 재귀인칭대명사가 있다. Tsumagari (2009:6)에서는 솔론어의 '스스로'는 단수와 복수 모두 meeni (e=/ə/)이며[90], 어간형 meen-에 격표지와 재귀인칭표지가 결합하여 meen-dü-wi(여처격), meen-ji-wi(도구격), meen-bi(대격은 격표지 없이 재귀인칭표지만 결합)와 같이 쓰인다고 하였다. 싱왕 방언의 재귀대명사는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87)의 məən-d-i를 제외하면 모두 (188)과 같이 ǰaani와 함께 쓰인 구성으로 나타났다.

(187) bii məən-d-i əmun irkin čimči ga-čii.
I oneself-DATL-REFL one new clothes buy-PST.1SG
나는 자신을 위해(자신에게) 새 옷을 하나 샀다. / 我为了自己买了新衣服。

(188) bii məən-ŋ-mi[məəmmi] ǰaani əŋku ugu tit-čii.
I oneself-GEN-REFL for Ewenki language learn-PST.1SG
나는 자신을 위해서 어웡키어를 배웠다. / 我为我自己学习过鄂温克语。

(188)에서 [məəmmi]로 발음되는 것을 məən-mi[oneself-REFL]가 아니라 속격표지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는 바로 뒤에서 다시 논하겠다. (187)는 호이 방언의 meen-dü-wi와 같은 구성으로, 여처격 표지와 재귀인칭표지가 결합한 것이다. 칼리나(2019b)에서 방위탈격표지 -duləxi와 재귀인칭표지가 결합한[91] 호이 방언의 예도 확인할 수 있다.

(189) bi məən-dułəxi-wi gee-d(u) nin(ə)-ji-mi.
I oneself-DEL-REFL.SG city-DATL go(to.destination)-PROG-1SG

90) 한편 朝克(2017b:19)에 의하면 재귀대명사(反身代词)의 복수형인 məənisəl과 məəsəl이 있다고 하며, 이에 대한 분석은 məə-에 (-ni)-səl이 결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91) 솔론어에서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에 -dulə, -duləxi 등이 결합하여 그 사람의 집을 의미한다.

나(는) 자신의 집에서 시내로 가고 있다.

(lit. 나 자신 집/쪽-에서-나 시내에 가고 있다.) [호이] - 칼리나(2019b:111)

(188)에서 [məəmmi]로 발음되는 것을 단순히 məən-mi로 [oneself-REFL]로 분석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Tsumagari (2009:6)의 호이 방언 기술에 의하면 격표지가 없이 재귀인칭표지만 결합한 것은(호이 방언의 경우 meen-bi) 대격을 나타낸다.[92] 그러나 ǰaani의 호이 방언형인 ǰaarin은 속격을 취한다. 칼리나(2019b:171)에 의하면 호이 방언의 경우 '-를 위해, ~때문에'는 [명사구]-GEN-REFL jaarin, 대명사일 경우 재귀표지 없이 [대명사]-GEN jaarin으로 표현된다. '스스로를 위해'의 경우 məə(n)-ni-wi ǰaarin으로 나타난다.[93] 싱왕 방언에서도 ǰaani가 사용된 예들을 살펴보면 (4.7참고) 적어도 명사구와 대명사가 앞에 올 경우에는 호이 방언과 똑같이 [명사구-속격 표지-재귀인칭표지], [대명사-속격 표지]' 순으로 결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싱왕 방언 역시 məən(-ŋ)-mi와 같이 məə-과 -mi 사이에 속격 표지가 결합했지만 결과적으로 məəmmi로 동화되어 발음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다만 싱왕 방언에서 한 가지 다른 점은, 4.1.3에서 언급했듯이 복수 인칭에서도 재귀인칭표지가 -mi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190)	bii	məən-ŋ-mi	ǰaani	tar	baga-d	gən-čii.
	I	oneself	for	that	place-DATL	go-PST.1SG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그곳으로 갔다.

---

92) 문장의 목적어가 대격표지 없이 명사와 재귀인칭표지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는 싱왕 방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4.1.2.3 참조.

93) məəni-wi ǰaarin은 칼리나(2019b)의 예문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문은 제시하지 않지만, 저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확인을 받았다. 이 예를 비롯하여 이 논문에서 호이 방언 화자에게 방언형이나 직관에 대해 직접 문의하여 답을 얻었다고 언급한 것은 대부분 칼리나 박사에게 문의한 것이다. 많은 도움을 준 칼리나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191) sii mään-ŋ-mi ǰaani, tar baga-d gən-čää-si.
you oneself for that place-DATL go-PST-2SG
너는 너 자신을 위해 그곳으로 갔다.

(192) tar mään-ŋ-mi ǰaani, tar baga-d gən-čää.
he onesel for that place-DATL go-PST
그는 그 자신을 위해 그곳으로 갔다.

(193) buu mään-ŋ-mi ǰaani, tar baga-d gən-čää-mun.
we.EXCL oneself-GEN-REFL for that place-DATL go-PST-1PL.EXCL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그곳으로 갔다.

(194) suu mään-ŋ-mi ǰaani, tar baga-d gən-čää-su.
you.PL oneself for that place-DATL go-PST-2PL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그곳으로 갔다.

(195) tar ɔlə/ɔl mään-ŋ-mi ǰaani[n] tar baga-d gən-čää.
they oneself for that place-DATL go-PST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그곳으로 갔다.

한편, '자신을 위해'를 의미하는 ǰaarin 구성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명사구를 꾸미는 '자신의'의 mään-일 경우, 칼리나(2019b:26)에 의하면 주로 'mään-GEN NP-REFL'와 같은 구성으로 쓰이며 'NP-REFL' 사이에 복수표지, 격표지가 쓰일 수 있다. 이때 재귀대명사 'mään-'에 속격이 결합된 'mää(n)-ni'는 뒤의 명사에 결합한 재귀소유인칭표지와 의미가 중복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생략된다고 한다.

(196) bi <u>mää-ni bitəgə-**wi**</u> ə-ji-m(i) baxa-ra.
I oneself-GEN book-SG.REFL NEG-PROG-1SG get-PTCP.NPST

나는 내 책을 못 찾고 있다. (lit. 나 자신의 책-나 못 찾고 있다.)

(197) si (məə-ni) juu-ddi(<-ddu-**wi**) nənuu-xə.
you.SG oneself-GEN home/house-DATL-SG.REFL go.back-2SG.IMP
네가 (네) 집에 (돌아)가라. (lit. 너 자신의 집-에-너 돌아가라.)
[호이] - 칼리나(2019b:26-27)

그러나 싱왕 방언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자신에게/자신을 위해'와 같은 의미로 쓰인 məən-만 나타났으며, (196)과 같이 재귀인칭표지가 결합한 명사구 앞에 속격표지와 결합한 məən-이 사용된 예는 나타나지 않았다.

4.5.2. 지시대명사

솔론어에는 각각 이/이것, 그/그것을 뜻하는 əri~ər와 tari~tar가 있다. 격표지 등과 결합할 때에는 ə-du(여기에), ta-la(저쪽에) 등과 같이 어간형 ə-, ta-가 사용되며, ər/tar가 nəgən(-와 같은, 싱왕 방언에서는 nɔgan으로 나타남) 등의 단어와 합쳐져 ənnəgən(이렇게)/tannagan(저렇게)와 같은 단어를 형성하기도 한다. 호이 방언에는 əri/tari 외에도 朝克(2017b:20) 등에 əjjə, tajja로 표기된 지시대명사가 있으나, 싱왕 방언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은 əri~ər와 tari~tar가 문장에서 단독으로 지시대명사로 사용된 예이다.

(198) ər daga ɔktɔ.
this close road
이것은 지름길입니다.

(199) tar {utxai} giičən.
that {just} roe.deer
저것은 {바로} 노루입니다.

다음은 ər, tar가 대격표지 -u와 결합한 예들이다.

(200) jɔɔgiǰi əru učil-gəri.
toghther this.ACC sing-HORT
함께 이것을(이 노래를) 부릅시다.

(201) bii na tarʊ ajaʊ-mi.
I also that.ACC like-NPST.1SG
저도 그것을(그 노래를) 좋아합니다.

한편 호이 방언에서 '이것' ər/əjjə에 대격표지가 결합한 것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202) bi əb-bə(<ər-əwə) gada-mi.
I this-ACC buy-1SG
나(는) 이것을 산다. (lit. 나 이것을 산다.) [호이] - 칼리나(2019b:63)

(203) əyyə-wə bʉʉ-xə.
this-ACC give-IMP.2SG
이것을 주세요. (lit. 이것을 줘.) [호이] - 칼리나(2019b:133)

다음은 싱왕 방언에서 ər와 tar가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이/그'의 의미로 사용된 예이다.

(204) ər tərəgs-u awʊ ɔɔ-čɔɔ?
this clothes-ACC who make-PST
이 옷은 누가 지었습니까?

(205) bii tar baga-d gənə-m.
I that place-DATL go-NPST.1SG
그곳에는 내가 가겠다.

4.5.3. 의문대명사

싱왕 방언의 의문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ilə의 경우 의문부사로도 쓰이고 의문대명사로도 쓰이며(각각 209, 210), e에 속한 것들은 대명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는 의문문을 만드는데 쓰이는 의문사를 다 같이 다루겠다.

(206) a. ii 무엇, iir 어느, ilə 어디, ida 왜,
b. adi 몇, aal 언제, awʊ 누구
c. jəəki 얼마(jəəki-də 언제)
d. ɔɔn 어떤/무슨
e. ɔɔni 어떠하다, inɔɔtin 어떠하다

a와 b는 Tsumagari (2009b:7), 朝克(2017b:22) 등에서 제시한 호이 방언의 의문사와 거의 똑같다.[94] jəəki는 둘라르 방언에서는 jɔɔki로 나타나며, 호이 방언과 사마지에 방언의 ɔɔxi에 해당하는 것이다. 수량(얼마)과 시간(언제)에 둘 다 쓰일 수 있는데, '언제'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여처격 표지가 결합하기도 한다. 아래에서 하나씩 예를 보이겠다. ɔɔn은 호이 방

94) aal은 이 두 자료에서 제시한 것에는 없지만 <어한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언에서 ɔɔndi, 둘라르 방언에서는 ɔɔni로 나타난다.

[1] ii '무엇'

(207) sii ii ɔɔ-ni?
you.SG what do-NPST.2SG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2] awʊ '누구'

(208) tɔɔrki awʊ əm-čəə?
then who come-PST
그러면, 누군가 왔습니까?

[3] ilə '어디'

(209) iləə gən-ni?
where go-NPST.2SG
어디로 갑니까?

(210) ilə-ma-ni manda-čaa?
where-ACC-3POSS hit-PST
(그것의) 어디를 (쏘아서) 맞췄습니까?

[4] aal '언제'

(211) aal əm-ni?
when come-NPST.2SG
언제 또 오시겠습니까?

[5] jəəki-də '언제'

(212) Xingwang jəəki-də il-čaa?
xingwang when-DATL set.up-PST

싱왕은 언제 생겼습니까?

(213) jəəki ərin-də əmgi-rən? [~əmǰi]
what time-DATL come.back-NPST.3
언제 돌아옵니까?

[6] jəəki '얼마'

(214) jəəki ǰiga?
how.much money
얼마입니까?

(215) jəəki baran?
how.much many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7] adi '몇'

(216) ǰuu-d[i]-si adi bəi bisi-n?
house-DATL-2SG how.many person be.NPST-3

[8] ɔɔn 무슨, 어떤

(217) ɔɔn ənku? [əŋku~ənku]
what.kind.of disease
무슨 병입니까?

[9] iir 어느

(218) iir əə-ma-n ga-də-ni?
which part-ACC-3 need-NPST-2SG
어느 부위를 드릴까요?

[10] idaa '왜'

(219) idaa gənə-m əsə(n) ətə-rə/r?
why go-CONV NEG able
왜 못 갑니까?

[11] ɔɔni 어떠하다

(220) guǰə-si ɔɔni?
appetite-2SG.POSS how
식욕은 어떻습니까?

[12] inɔɔtin 어떠하다

(221) əri inɔɔtin?
this how
이것은 어떻습니까?

4.6. 동사

4.6.1. 태

4.6.1.1. 사동

다음의 a와 b에서 보듯이 동사 어근에 -kən이 결합하여 사동을 나타낸다. 이때 사동사의 동작의 주체에는 한정대격표지가 나타나기도 한다.

(222) a. bii bitəg əmu-čii.
I book bring-PST.1SG
내가 책을 가지고 왔다

b. məəmə-ji min-u bitəg əmu-kən-nən.
mother-1SG.POSS I-ACC book bring-CAUS-NPST.3
어머니가 나에게 책을 가져오게 한다. [싱왕]

호이 방언에서도 같은 접사가 나타나며, k>x의 변화를 겪은 이형태가 존재한다. 모음의 길이는 자료에 따라서 Tsumagari (2009:8)의 -xaan (əmə-xəən- 'to make someone come')과 같이 장모음으로 표기하거나, 朝克 (2017a:9)의 oloo-hoŋ-noŋ (o는 /ɔ/) '(물을) 건너게 하다'와 같이 단모음으로 표기하거나, 風間伸次郎 (2018b:109)에 -xA(A)(n)~-kA(A)(n)로 제시한 것과 같이 장모음과 단모음을 모두 인정하기도 한다.

사마지에 방언은 성백인 외(2010:165-6)에 제시된 예가 모두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이어서 -xaa/xəə로만 나타났는데, 동작의 주체에게 싱왕 방언 (222b)와 같이 한정대격표지가 결합한 예도 있고(223), 도구격표지가 결합한 예도 나타났다(224).

(223) ənin idər-wu muu gaǰʊʊ-xaan-čaa.
mother Ider-ACC water take-CAUS-PST
어머니가 이더르에게 물을 가져오게 했다.

(224) idər nanaxin-ǰi əmun tʊkčixi ǰaʊ-xaan-čaa.
Ider hunting.dog-INS one hare hunt-CAUS-PST
이더르가 사냥개로 하여금 토끼를 한 마리 잡게 했다.
[사마지에] - 성백인 외(2010:165, 166)

싱왕 방언 자료에 나타난 사동 접사는 대부분 (222)와 같이 [-RTR] 동사 어간과 결합한 예들이었는데, [+RTR] 어휘 뒤에서는 아래와 같이 ǰaʊ- 뒤에 [-RTR]인 -kən~kəən이(225), 그리고 ɔɔ- 뒤에서 원순모음인 -kɔn

이 나타났다(226).

(225) bii nəkun-mi əmun kakara ǰaʊ-kəənə-m./ǰaʊ-kənnə-m.
I younger.brother-1SG.POSS one chilcken catch-CAUS-NPST.1SG
내가 내 동생을 시켜 닭을 한 마리 잡게 한다.[95)]

(226) bii asi-ji ǰisiga(n)/ǰisigan ɔɔ-kən-čii.
I wife-1SG.POSS letter write-CAUS-PST.1SG
나는 아내에게 편지를 쓰도록 시켰다.

4.6.1.2. 피동

피동 접사는 다음과 같이 -ʊ~u로 나타났다. b에서 토끼가 당하게 되는 동작(잡음)의 주체인 사냥꾼에 여처격표지 -də가 결합하였다(mərgən bəi-də 사냥꾼에게).

(227) a. mərgən taʊl-u ǰaʊ-čaa.
hunter rabbit-ACC catch-PST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

b. taʊl(ə) mərgən bəi-də ǰaʊ-gʊ-čaa.
rabbit hunter person-DATL catch-PASS-PST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228) tar xʊŋnərin jaŋtə-či aagʊn min-du ič(i)-u-kəən-kə.
that black hair-PROP hat I-DATL look-PASS-CAUS-IMP

95) 질문은 과거형이었으나(我让我弟弟抓了一只鸡) 자료제공인이 사동태를 집중적으로 묻는 질문들에는 모두 현재형으로만 답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226)와 같이 과거 표지와 함께 사용한 예들도 있다.

저 검은 털모자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나에게 보이게 하세요.)

(228)은 '(저 검은 털모자가) 나에게 보이다'의 피동 구성 min-du ič(i)-u-에 다시 '-게 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사동 접사 -kəən이 결합한 것이다. 동사 어간-피동-사동 순서로 결합한 예를 다음과 같이 호이 방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위의 싱왕 방언 문장의 '모자(를) 나에게 보임 당하게 해라' 부분과 아래의 호이 방언 문장의 '나를 (누군가에게) 때림 당하게 했다' 부분은 각각 문장에 나타나지 않고 생략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피동-사동 구성은 같다고 볼 수 있다.

(229) tari min-ewe munda-wu-xaan-caa.
he me-ACC hit-PASS-CAUS-PST
He let me be hit (=He made someone hit me.)
[호이] - 朝克(1995:81)/Tsumagari (2009:16)[96]

4.6.1.3. 타동

風間伸次郎(2018b:105)에서는 동사 어간에 결합하는 파생접사 중에 태(voice)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동사화 접사(-UU)와 타동사화 접사(-UU~-gU)를 설정하였다. 싱왕 방언에서도 다음과 같은 예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다음의 juu-gu- '뻗다, 내밀다'는 자동사 juu- '나(오/가)다'에 -gu가 결합한 것이며, əm-u(u)- '가져오다'는 자동사 '오다'에 -uu가 결합한 것이다.[97]

---

96) 朝克(1995:81)의 예문을 Tsumagari (2009)의 체계대로 전자, 분석 및 번역한 것을 인용하였다.

97) 이 논문의 일반적인 예문에서는 경우에 따라 접사류를 모두 분석하지 않았다. 특히 əmgirən '돌아오다'나 əmurən '가져오다'와 같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은 각각 되돌아옴(regressive)을 표시하는 -gi와 -u-가 əm(ə)-'오다'에 결합한 것이지만, 분석하지 않고 하나의 어간으로 처리하였다.

(230) naal-i juu-gu-kə.
hand-ACC come.out-TR-IMP
손을 뻗으세요!

(231) bii muu əm-u(u)-čii.
I water bring-PST.1SG
내가 물을 가지고 왔다.

한 가지 특이한 것으로, 솔론어에서 '물을 먹이다'는 im- '마시다'에 -ʊʊ가 결합하는데, 風間伸次郎(2013)에서는 이것을 타동사화 접사로 보면서 사동의 -xan이 아닌 -ʊʊ가 나타난 이유는 불명이라고 언급하였다.

(232) mindu naan amasxʊn im-ʊʊ-xa.
I-DAT also a.little drink-TR-IMP
나에게도 그것을 조금 마시게 해 주어라.
[호이] - 風間伸次郎(2013:417)[98]

한편 칼리나(2019b)에서는 이것을 따로 타동사화 접사로 보지 않고 사동으로 분석하였다.

(233) miti xəəxə-d(ʉ) mʉʉ-i im-uu(<ima-wu)-gari.
we.INCL cat-DATL water-INACC drink-CAUS-HORT
우리(는) 고양이에게 물(을) 먹이자. (lit. 우리 고양이에게 물을 먹이자.)
[호이] - 칼리나(2019b:101)

싱왕 방언에도 다음과 같이 im-ʊʊ-gari가 나타났다.

98) 원문 분석의 어휘 부분과 해석은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것을 직접 번역하였다.

(234) mɔrin-mi im-ʊʊ-gari.
horse-REFL drink-CAUS/TR-HORT
말에게 물을 먹입시다.

위의 호이 방언의 예들인 (232, 233)의 경우 물을 먹이는 대상이 여(처)격으로 나타났지만, 싱왕 방언에서는 격표지가 나타나지 않고 재귀인칭표지 -mi만 나타났다. 보통 여처격 표지는 이런 식으로 생략되지 않으며, 격표지 없이 재귀 인칭표지가 붙을 경우 대부분 대격으로 해석된다 (4.1.2.3 참조). 따라서 싱왕 방언의 (234)는 "자신의 말(을) (물) 먹입시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아래의 ɔdigi-ran은 자동사 ɔdiran '정지하다, 그치다'에 -gi가 결합하여 '그만두게 하다, 금지하다'의 의미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gu의 예도 매우 적고 -gi는 이 한 예뿐이어서 생산적으로 사용되는 접사로 인정하기는 힘들다. <어한사전>의 등재형은 각각 ʊdiraŋ과 ʊdiiraŋ이다.

(235) damgə im-r-u (utkai) ɔdigi-ran.
tobacco smoke-PTCP.NPST-ACC (just) prohibit-NPST.3
금연 (담배피우는 것을 금지한다.)

4.6.1.4. 공동

사마지에 방언에서는 tati-ldi- (함께 공부하다), manda-ldi- (같이 때리다) 등과 같은 예가 나타나 공통태 접사 -ldi-가 생산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성백인 외 2010:168), 싱왕 방언에서는 같은 질문 항목에 답한 문장들에 -ldi-형태가 드러나지 않았고 '만나다'만 bakaldi- 형태로 나타났다. 싱왕 방언에서 -ldi[99]는 다른 방언에서보다 생산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서는 특정 어휘와 결합한 형태로 거의 굳어져서 나타

나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아래의 두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호이 방언에서 ‘만나다’는 sin-ǰi baxalda-n/baxal-dii-ran (당신과 만나다/(서로) 만나다)와 같이 ‘함께’를 뜻하는 -ǰi를 취한다.

(236) bi Yoŋxi-ji baxal-cuu.
I.SG Yonghee-INS meet-PST.1SG
나는 영희를 만났다. (lit. 나 영희와 마주쳤다.) [호이] - 칼리나(2019:87)

(237) bu̇ sun-ji baxaldii-saa-du-wal
we.EXCL you.PL-INS meet-PTCP.PST-DATL-PL.REFL
adda-ji-mun.
glad-PROG-1PL.EXCL
우리는 너희들과 만나서 기쁘다/반갑다.
(lit. 우리 너희와 만나-ㄴ-에-우리 기뻐하고 있다.)
[호이] - 칼리나(2019b:144)

하지만 싱왕 방언에서는 아래의 sin-u bakaldi- (당신을 (*서로) 만나다)와 같이 대격표지를 취하는데, 이 점에서도 -ldi가 결합하여 ‘서로’라는 의미가 새로이 생긴다는 의식이 흐려졌다고 볼 수 있다.

(238) bii na sin-u bakaldi-čaa-d-i aji.
I also you.SG-ACC meet-PST-DATL-REFL good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당신을 만나서 좋습니다.) [싱왕]

99) -ldi의 어말 i 모음은 [ɨ]로 약화되거나 bakaldi-gari. 등과 같이 앞뒤 음절에 a가 오는 경우 동화되기도 한다.

4.6.1.5. 상호

상호태 -maači-가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239) ǰuur bəi dil-maači-ǰi-rən.
two perspn quarrel-RECP-PROG-NPST.3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다.

상호태를 알아보기 위한 두 가지 질문 중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야기 하신다'는 문장에는 이 접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휘 조사에서 '싸우다'에 -maači와 결합한 dilmačiran으로 답한 것으로 보아서 공동태와 마찬가지로 상호태 역시 싱왕 방언에서 자유롭게 여러 어휘에 결합하기 보다 특정 어휘에 결합한 채 굳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4.6.2. 상 (진행상)

진행상을 나타내는 -ǰi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240) tar əsi bitəg-i iči-ǰi-ran[rɨ].
he now book-INACC look-PROG-NPST.3
그는 지금 책을 읽고 있다.

(241) əsi ǰəŋ baga jaman-ǰi-rən.
now just weather snow-PROG-NPST.3
지금 눈이 내리고 있다.

솔론어에서는 진행상을 -m bi-를 이용하여 통사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

고, 접사 -ǰi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에만 국한된 현상일 수도 있지만, -ǰi가 사용된 예는 대다수가 위와 같이 3인칭 어미와 어울려 사용되었다. 아래와 같이 주어가 3인칭이 아니더라도 인칭 불일치 현상으로 인해 3인칭 정동사로 문장을 마치는 경우 역시 -ǰi가 사용되는 예들이 있었다.

(242) bii əsi ǰəŋ ǰuud-i bi-ǰi-rən.
I now just house-REFL be-PROG-NPST.3
나는 지금 집에 있다.

다음 두 문장에서는 예외적으로 1인칭 단수 -mi와 함께 나타났다.

(243) dekəm bii manda-ǰi-mi/m.
next.time I shoot-PROG-NPST.1SG
다음 번에는 내가 쏘겠습니다.

(244) bii čimaačin ǰuu-d-i bisi-mi. /bi-ǰi-r-mi
I tomorrow house-DATL-REFL be-NPST.1SG /be-PROG-?-NPST.1SG
나는 내일 집에 있을 것이다.

이 예들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로 (243)의 경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말인데, 솔론어에서 -ǰi를 사용하여 마치 영어의 “I am leaving this weekend.”와 같이 미래의 일을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100] (244)은 자연스럽게 나온 문장이 아니며, 비슷한 문장을 반복하다가 bisi-mi라고 대답한 후에 직접 bi-ǰi도 가능한지 물어서 유도해 낸 답이다. 기대되는 답은 bi-ǰi-mi인데 -ǰi 뒤에 -r-이 나타났다. 이것이 무엇인지 현재는 분석할 수 있는 문법표지가 없다. 항상 3인칭과 함께 쓰면

100) 호이 방언 화자에게 문의한 결과이지만, 싱왕 방언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서 -ǰi-rən[ǰi-rɨ]를 빈번히 붙여 발음하던 습관에 의한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

4.6.3. 이동목적

다음은 이동목적의 양태를 나타내는 -naa/nəə의 예이다.

(245) bii ələ aka-ji nukun[m]-mi
I here older.brother-1SG.POSS younger.sibling-1SG.POSS
iči-nəə-čii.
look-PURP-PST.1SG
이곳에 형님과 여동생을 만나러 왔습니다.

(246) buu bəiči-nəə-mun.
we.EXCL hunt-PURP-1PL.EXCL
우리는 사냥하러 간다.

(247) gən-nə(n) iči-nəə-gəri. [e~ɪ]
go-CVB look-PURP-HORT
가서 봅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이동을 함의하는 동사 어간에 -naa/nəə가 결합된 것들도 있는데, 이 경우 꼭 목적성을 띄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듯하다.

(248) isinaa-čaa. (isi- + -naa)
arrive-PST
도착했다.

(249) iinəə-kə. (ii- + -nəə)
enter-IMP
들어오세요. / 请进。

이밖에도 juu-nəə-čii '(물에서) 나왔다', əgu-nəə-čəə '떨어지다' 등의 예가 있다.

4.6.4. 기타 동사 파생

위에서 살펴본 것들이 동사의 어간을 확장하는 것들이었다면, 명사류나 차용어 단어에 결합해서 동사를 형성하는 접사로 -l(/r/n), -daa, -d가 나타났다. 이 중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되는 -l부터 순차적으로 각각의 예를 간단히 살펴보겠다.

[1] [동사/명사] + -l/r/n, -laa

한어나 몽골어 차용어의 동사 혹은 명사와 결합하는 예가 많이 나타난다.

(250) bii guči-ji əmundə xuetang-də *xuexi*-lə-m (bi)si-m.
I friend-INS together school-DATL study-VBLZ-CVB be-NPST.1SG
나는 학교에서 친구와 함께 책을 읽는다.(공부한다)

(251) tərgən *kai*-lə-r ərin {xai} unugə.
train start(开)-PTCP.NPST time {yet} not.yet
차가 출발하려면 아직 멀었지요?

위에서 (251)의 *kai*-는 [+RTR] 모음으로 형성된 단어이지만, -la-가 아닌

-lə-로 나타났다. *mafan*-lə- (麻烦 폐를 끼치다), *shangbar*-lə-[101] (上班儿 출근하다)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의 (252)와 같이 -l이 아닌 -r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며,[102] (253)는 ŋ 말음인 čaŋ(<唱 *chàng*) 뒤에서 -l이 아닌 -n으로 나타난다.

(252) min-du ulli-u/uldi-u aixʊn sjar(<*shao*-r)-(m) muu-kə.
I-DATL meat-ACC well grill(烧-VBLZ)-(CVB) give-IMP
고기를 나에게 좀 잘 구워 주세요!

(253) Mandi čaŋ(<*chang*)-nə-čaa. *Tuoya* *tiaowu*-l-čaa.
Mandi sing-VBLZ-PST *Tuoya* dance-VBLZ-PST
만디는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투야는 춤을 추었다.

'노래하다'는 위의 (253)에 나타난 것처럼 한어차용어 唱 chàng과 -l이 결합해 형성된 동사도 있고 아래의 예에 나타난 것과 같이 몽골어 дуу에서 온 차용어 dɔɔ와 -l이 결합하여 형성된 동사도 있다.[103]

(254) bii dɔɔ dɔɔ-l-r[l]-u/dɔɔ-lə-r-u ajaʊ-m.
I song song-VBLZ-PTCP.NPST-ACC like-NPST.1SG
저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2] [도구류 명사] + -daa

이 접사는 Tsumagari(2009:18)에서 verb formative suffix 'gaŋbii-da-' (펜으로 쓰다)로 기술한 바 있다. 칼리나(2015:98)에 의하면 -daa/-dəə-dɔɔ는

101) 일반적으로 한어 차용어의 권설음은 *sh* > [ʃ], *ch* > [č]와 같이 발음한다.
102) 사마지에 방언에서는 같은 차용어에 -l이 사용되어 sjala-m [grill-CVB]로, 둘라르 방언에서는 싱왕 방언과 같이 sjar-m으로 나타났다.
103) 이 외에도 고유어인 učin(노래)와 učilərən(노래하다)이 있다. <어한사전>에는 제2음절 모음이 다른 učuŋ(诗词, 诗歌)과 učulərəŋ(诵叙事体诗, 说唱)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의미도 호이 방언에서는 시가(詩歌) 등 더 좁은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도구 명사와 결합하여 행위나 동작이 두 번 이상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ex. əsur 빗자루 → əsur-dəə-rən 빗자루질하다) 싱왕 방언에서는 '양치질하다'의 한 어휘만 두 번 나타났다.

(255) ikt-ji swas(?)[swad]-daa-ran.
teeth-REFL brush-VBLZ-NPST.3
양치질하세요!

<어한사전>에 솔은 sɔɔs, 솔질하다는 sɔɔsdərəŋ로 나타나 있다. 싱왕 방언에 명사 '솔'이 단독으로 나타난 것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호이 방언의 sɔɔs는 한어 刷子(shuàzi)에서 차용한 것이므로, 싱왕 방언에도 swas~swasə 정도의 형태의 명사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싱왕 방언이 호이 방언보다 원래의 모음에 가깝게 차용하였다.

[3] [형용사] + d

다음 예에서는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라는 뜻의 문장을 세 가지로 말하였는데, '늦었다'를 a는 형용사 '늦다 + ɔɔ-'로 표현하였고, b와 c는(c는 인칭 불일치) '늦다'에서 파생된 동사를 사용하였다.

(256) a. bii djaldə[104] ɔɔ-čɔɔ.
I late become-PST
b. bii djaldə-d(ə)-čii.
I be.late-VBLZ-1SG.PST
c. bii djaldə-d(ə)-čaa.
I be.late-VBLZ-PST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

104) djaldə는 다고르어 dʲald의 차용어로 보인다. (Chuluu 1996:5)

-da는 호이 방언에서 -da/dda로 나타나며 형용사 뒤에 결합하여 ‘생각하는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하다’는 의미의 동사를 파생시키는 접사이다.

4.6.5. 시제 및 서법

솔론어의 동사에 결합하는 어미류는 기능에 따라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명령원망법을 실현하는 어미, 직설법을 실현하는 정동사 어미, 형동사 어미, 그리고 부동사 어미가 있다. 명령원망법 어미부터 차례로 살펴보겠다.

4.6.5.1. 명령원망법

[1] 명령법

솔론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명령법은 -kə/k로 나타난다. 이는 호이 방언의 -xə/kə에 해당하는 것인데 호이 방언과 달리 어간에 따른 자음의 교체나 모음조화 없이 -kə 혹은 모음이 탈락한 -k로만 나타난다.

(257) əsi gənu-kə.
now go.back-IMP
이제 집에 가라. (돌아가라)

(258) sii ələ aasin-kə.
you here sleep-IMP
여기에서 주무세요!

[2] 명령법(복수)

성백인 외(2010:144)에서는 명령표지에 인칭표지가 수의적으로 결합할 수 있으며 주어가 2인칭 복수일 경우에는 -ldun이 결합한다고 했다. 싱왕 방언 자료에서는 -k(ə)와 -ldu가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수의적으로 ld>ll 동화를 일으켜 kəldu~kəllu 혹은 모음이 동화되어 kullu(/kuldə) 등으로 발음되기도 했다.

(259) suu uru ɔktɔ-li ul-kuldə/kullə.
you.PL mountain road-PROL go-IMP.2PL
너희는 산길로 가라.

(260) buu čimaačin *xuetang*-de gən-mun,
we.EXCL tomorrow school-DATL go-1PL.EXCL,
suu ǰuu-d-i[105] bi-kəldu/kəllu.
you.PL house-DATL-REFL be-IMP.2PL
우리는 내일 학교에 가겠다. 너희는 집에 있어라.

[3] 미래명령

미래 명령표지에는 -daa/dəə가 나타난다. 성백인 외(2010:144)에 따르면 이는 관련된 동작이 어떤 동작이 이루어진 뒤에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뜻을 나타내어, -xa/xə보다 좀 더 공손한 의미를 나타낸다. 1인칭 단수에는 사용될 수 없고, 모든 인칭에 대해 사용될 수 있다고 하나 싱왕 방언에서 3인칭의 예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마지에 방언에서는 -dəə 뒤에 주어가 2인칭 단수일 때 -wi, 2인칭 복수일 때 -sun이 결합한다. 이는 호이 방언과 마찬가지인데, Tsumagari (2009)에 의하면 호이 방언의 일반적인 명령의 -xa에 결합하는 2인칭 복수표지는 -ldun이지만, 미래 명령의 인칭표지에는 별도의 체계가 있어 2

105) 주어가 복수인데 재귀소유표지 –ji가 사용되었다.

인칭 복수에 결합하는 인칭표지는 -sun이다. Tsumagari (2009)에 제시된 미래 명령형은 다음과 같다.

(261) Future imperative forms - Tsumagari (2009:9)

	SG	PL
1st	-dunni	-daa-mun (EXCL)
		-daa-weli (INCL)
2nd	-daa-wi	-daa-sun
3rd	-daa-ni	(the same as SG)

여기에서 보이는 2인칭 단수의 -wi와 1인칭 복수 포함형의 -weli[106]는 각각 Tsumagari (2009:5)에서 제시한 명사류의 인칭표지의 단수(-bi~-wi)와 복수에(-beli-weli) 해당하는 형태와 동일하다.

싱왕 방언에서는 미래명령의 주어가 2인칭 단수일 때 -ji로, 다른 방언들의 -wi에 대응되는 재귀소유 단수에 형태와 똑같이 나타난다. 2인칭 복수일 때 역시 마찬가지로 -su로 나타난다.

(262) dekəm əm-dəə-ji.
next.time come-IMP.FUT-REFL
다음에 또 오세요.

(263) sii min-ǰi ajxʊn ulgəči-dəə-ji.
you.SG I-INS well contact-IMP.FUT-REFL
꼭 연락하세요.

106) 이 연구의 표기체계로는 -wəli이므로, 앞으로 직접 인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wəli로 적겠다. Tsumagari (2009)의 표기 체계에서의 각 음소에 해당하는 싱왕, 둘라르, 사마지에 방언의 표기를 서로 다른 것만 괄호 안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ɛ(e), e(ə), u(ʊ), ü(u), o(ɔ), ö(o)

(264) a. čimaačin čaaʊlǰin/čaagʊlǰin ul-dəə-su.
tomorrow day.after.tomorrow go-IMP.FUT-2PL
내일이나 모레 가시지요. (2인칭 복수)

b. sii čimaačin čaa(g)ʊlǰin ul-dəə-ji. [jɛ]
you.SG tomorrow day.after.tomorrow go-IMP.FUT-REFL
내일이나 모레 가시지요. (2인칭 단수)

(265) suu dekəm min-əŋ ǰuu-d-i əm-dəə-su.
you.PL next.time I-GEN house-DATL-1SG.POSS come-IMP.FUT-2PL
나중에 우리 집에 또 오세요.

2인칭 복수인 경우 소유표지 -su는 주어와 일치하는데 2인칭 단수에서는 왜 -si가 아닌 -wi, -ji가 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것이 재귀소유표지가 맞다고 한다면 명령법에서 주어가 2인칭일 때에는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면서 상대방이 그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므로 재귀소유표지(네 자신)가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주어가 1인칭 복수 포함형일 때에는 호이 방언에서는 재귀 복수표지 -wəli가 나타날 곳에 싱왕 방언에서는 -lu가 나타난다. 또한 a와 b로 나타나는 다음 예들을 보면 1인칭 복수 포함형이 주어인 경우에는 청유법의 -gare로 대체될 수 있다.

(266) a. dekəm(dakim) bakaldi-daa-lʊ
next.time meet-IMP.FUT-REFL.PL

b. dekəm(dakim) bakalda-gare.
next.time meet-HORT
안녕히 가세요!

(267) a. biti ɔdən dulə-čəələ-ni ul-dəə-lu.
we.INCL rain pass-CVB-3POSS go-IMP-REFL.PL

b. ɔdən ɔd-čaala-ni ul-geri.
rain stop-CVB-3POSS go-HORT
우리 비 그친 뒤에 가자

[4] 허락법

허락법은 사마지에 방언에서는 -ginnə로 나타난다.

(268) tar ul-ginnə.
(s)he go-IMP.3SG
그를 보내라 [사마지에]

(269) tar ʊlar ul-ginnə.
they go-IMP.3PL
그들을 보내라 [사마지에] - 성백인 외(2010:145)

성백인 외(2010)에서는 명령 대상이 3인칭일 경우에 허락하는 의미 기능을 가진 허락법으로 기술하였다.

싱왕 방언에서 이에 해당되는 형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는데, 어말 i는 매우 약하게 발음되거나 탈락한 형태로 나타났다.[107]

(270) a. tar ɔl ələ əm-m ənə-rki-ni, (tar ɔl) utkai ələ əm-gənni.
they here come-CVB say-COND-3POSS (they) just here come-IMP.3
그들이 이곳에 오고 싶어 하면(오려고 하면), 오라고 해라.

107) 여러 번 발화하면서 똑같이 말하지 않고 단어를 넣거나 뺀 것이 있으면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b. tar ɔl ələ əmə-rki-ni/rki, utkai (ələ) əm-gənni/gən.
they here come-COND-3POSS just (here) come-IMP.3
그들이 이곳에 오고 싶어 하면(오려면), 오라고 해라.

c. tar ɔl(ɔ) əm-gənni.
they-ACC come-IMP.3
그들을 오게 해라 (让他们来)

[5] 희망법

희망법을 실현하는 어미는 싱왕 방언에서 다음과 같이 -tii로 나타난다.

(271) tar čɔərin tərəgs-u əmu-kə=na.
that green clothes-ACC bring-IMP=PART
bii ači-ti-ji / ači-tii.
I look-VOL-1SG / VOL.1SG
저 초록색 외투를 가지고 오세요. 제가 보겠습니다.

(272) bii manda-tii.
I hit/shoot-VOL.1SG
내가 쏘겠습니다.

(273) tar aagʊn xʊŋnərin ǰus-či-ma-ni
that hat black color-PROP-ACC-3POSS
bii ači-tii.
I look-VOL.1SG
저 검정색 모자를 내가 보겠습니다.

희망법 어미는 호이 방언 저서들에서 -ktA~-xtee (風間伸次郎 2018b:104), -gadi~gədi (칼리나 2019b:114), /gte/(朝克 2009:149) 등으로 표

기하고 사마지에 방언에서 -giti (성백인 외 2010:145)로 나타난다. 자료마다 다르게 표기된 첫번째 자음 k~g~x와 두 번째 자음 t~d의 대표형을 각각 g, d라고 하고 문말 e를 i로 본다면 -g(V)ti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와 비교하면 싱왕 방언형은 g가 탈락한 -ti로 나타난다. 호이와 사마지에 방언에서 1인칭에서만 쓰이고 복수일 때에는 아래의 (274)와 같이 1인칭 복수표지가 붙는데, 싱왕 방언에서는 (271)에서 볼 수 있듯이 1인칭 단수일 경우에도 인칭표지인 -ji가 붙어서 나타나거나 융합한 장음 형태 -tii(272, 273)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108)]

(274) bu ul-giti-mun.
we.EXCL go-VOL-1PL
우리 가자. [사마지에] - 성백인 외(2010:146)

[6] 청유법

다음은 청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 -gəri의 예의 일부이다.

(275) biti jɔɔgilǰi bitəg-i ičі-gər.
we.INCL together book-INACC look-HORT
우리 같이 책을 읽자.

(276) ələə amraa-gari.
here rest-HORT
여기에서 쉽시다!

108) 인칭표지로 본 -ji [jɪ~je]의 j가 상당히 강조된 발음인데, 다른 방언의 같은 형태소에 나타나는 g 요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g의 흔적(tiɣi~tiǰi) 정도로 보고 자음의 위치가 뒤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을 듯하나, 인칭표지로 분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277) jəəgiǰi　　əmundə~ɔ　　ɔɔ-gər.
together　together　　do-HORT
함께 합시다

(278) a. bit　　əmundəki　　ul-gəri.
we.INCL　together　　go-HORT
우리 모두 함께 가자.
b. mun-ǰi　　əmrət　　ul-gəri.
we.EXCL-INS together　　go-HORT
우리와 함께 갑시다.
c. buu　　əmrət　　ul-gəri.
we.EXCL　together　　go-HORT
우리 함께 갑시다.

마지막 예는 모두 함께 가자는 뜻을 나타낸 것인데, 청유형은 주어가 기본적으로 a와 같이 1인칭 복수 포함형인 biti로 나타난다. b의 경우처럼 “(당신) 우리와 함께 갑시다.”와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2인칭 단수 혹은 복수로 볼 수 있으나, 의미적으로는 결국 모두 같이 가는 ‘우리’에 포함되게 되므로 성립되는 문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직후 질문한 c.의 배제형 주어는 잘 이해되지 않으므로 4.5.1에서 언급한 것처럼 1인칭복수 포함형을 써야 할 곳에 배제형 대명사를 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어로 번역하여 질문하는 과정에서 중국어의 청유와 명령에 모두 吧가 사용되기 때문에 명령법을 의도한 질문에 청유의 -gəri를 사용하거나 반대로 청유형 질문에 명령의 -kə로 답하는 일도 있었다.

(279) amaskan　　im-gari.
a.little　　drink-HORT
더 마시세요. / 再喝一点儿吧。→ 더 마십시다.

(280) djagar ul-kə.
quick go-IMP
빨리 갑시다! / 快走吧! → 빨리 가라.

4.6.5.2. 직설법

정동사 비과거 어미에는 다음과 같이 인칭(또는 인칭과 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109]

단수		복수			3인칭
1인칭	2인칭	1인칭		2인칭	
		배제형	포함형		
-mi	-ni	-mun	-rti/ti	-su(n)	-rən

표 9 싱왕 방언의 직설법 비과거 어미

비과거의 정동사 어미가 인칭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비과거라는 시제 정보와 인칭 정보를 정동사 어미 하나로 나타낸다는 것인데, 이는 통시적으로 이것들이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n, *-ra)와 인칭을 나타내는 요소가 합쳐져 형성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김주원(1985:291)에 의하면 1인칭의 첫 자음 m은 시제표지 *-n과 결합한 *-nm 형태가 *-nm>mm>m의 변화를 거친 것이며, 2인칭 단수의 경우 *-n-si(시제표지 *-n + 인칭표지 *-si)가 -ndi로 변화하여 호이 방언형이 되었다. 그리고 싱왕 방언에서는 이것이 다시 -ni로 변하였다. 뒤에서 다시 논하겠지만 1인칭 복수 포함형 -rti의 -r도 시제표지의 흔적으로 보이는데, 이는 곧 3인칭 -rən의 -rə와 같은 것이다. 하지만 현대 솔론어에서는 비과거 어미가 공시적으로 하나의 어미로 취급된다고 보아서[110] 분

109) 솔론어에서는 비과거만 정동사로 표현되고 과거는 정동사가 아닌 형동사 -čəə로 표현된다. -čəə에 대해서는 4.6.6.1.에서 다루겠다.

석하지 않는다.[111] 다음은 싱왕 방언의 직설법 비과거의 예들이다.

(281) bii damga im-mi.
I tabacco smoke-NPST.1SG
나는 담배를 피운다.

(282) sii damga im-ni=jə?
you.SG tobacco smoke-NPST.2SG=Q
너는 담배를 피우냐?

(283) tar damga im-ran.
he tobacco smoke-NPST.3
그는 담배를 피운다.

(284) a. buu əmundki damgə im-mʊn.
we.EXCL together tabacco smoke-1PL.EXCL
우리는 함께 담배를 피운다.[112]

b. buu damgə im-mʊn, suu əsə(n)/əsən im-su.
we.EXCL tobacco smoke-1PL, you.PL NEG smoke-2PL
우리는 담배를 피우지만, 너희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

110) 칼리나(2019:22)에서는 비과거 시제는 표지가 없고 동사 어근에 바로 인칭표지가 결합한다고 기술하며 -ø-mi, -ø-ndi, -ø-tti, -ø-ran 등으로 분석하였다.

111) 형태의 융합이나 동화가 일어나지 않은 3인칭의 -rən만 -rə-n으로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논문에서는 3인칭을 포함한 정동사 어미를 모두 분석하지 않겠다.

112) 4.5에서도 언급했지만 이것은 원래는 1인칭 포함형과 배제형을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로 질문한 것이다. 하지만 '너희'와 '우리'를 대비시켜 배제형으로 대답하도록 유도하는 b의 질문에 비해 a의 질문은 딱히 포함형에만 국한되는 인칭대명사(咱们)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我们一起抽烟。) 둘 다 배제형으로 답변하였다.

(285) suu damga im-su=jə?
you.PL tobacco smoke-2PL=Q
너희는 담배를 피우냐?

(286) tar ɔl im-ran.
they smoke-NPST.3
그들은 담배를 피운다.

위의 표에서 1인칭과 2인칭 비과거 -mi와 -ni는 각각 모음이 탈락된 -m, -n으로도 나타나는데, 이때의 -n은 앞의 모음을 비음화시키고 탈락하는 보통의 어말 n의 경우와 달리 분명한 [n]으로 발음된다. 비과거 2인칭 어미는 호이 방언 등에서 -ndi로 나타나는데, 싱왕 방언에서는 특히 형태소 경계에서 nd>nn의 동화현상이 쉽게 관찰되므로 비과거 2인칭 어미 -ni 역시 -ndi>nni>ni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ni는 시제 요소 -n과 인칭표지 -si가 결합한 *-n-si에서 변화한 것임을 김주원(1985:291)에서 밝힌 바 있다.

호이 방언의 비과거에 붙는 2인칭 복수 어미는 -sun/-čun으로 나타나지만 싱왕 방언 예문에서는 -su(n)만 나타났으며, 거의 전부 n이 탈락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əǰ(i)-(또는 əš(i)-)와 결합된 əssun 형태에서는 비음이 분명히 실현되었다. 1인칭 복수 배제형 mun의 경우에는 어두 자음인 비음 m의 영향인지 n이 완전히 탈락하지 않고 앞 모음의 비음화로 mun[mũ]으로 실현되는 예들이 있었다.

인칭어미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1인칭 복수 포함형에 해당하는 인칭어미가 -rti/ti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호이 방언과 사마지에 방언에서 1인칭 복수 포함형의 대명사와 인칭어미는 각각 miti와 -tti인데 싱왕 방언의 경우 biti와 -rti/(t)ti로 나타난다. 다음은 1인칭 복수 포함형이 나타난 예이다.

(287) biti muu-li ulə-rti.
we.INCL water-PROL go-NPST.1PL.INCL
우리는 강으로 가겠다.

(288) tar ɔlɔ mun-ǰi ulgəči-n/r-nin əli dag ɔɔ-čəə.
they we.EXCL-INS contact-PTCP.NPST-3POSS more close? be-PST
그들은 우리와 더 가깝게 지낸다.[113]

(289) bit ɔɔn baga-d amara-ti?[114]
we.INCL what.kind.of place-DATL rest-1PL.INCL
어디에서 쉴까요?

위의 문장은 둘라르 방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290) ɔɔni bʊg-də amara-rti?
what.kind.of place-DATL rest-1PL.INCL
어디에서 쉴까요? [둘라르A]

자료에 나타난 포함형 1인칭 복수표지의 예가 많지 않은데 한 예는 r이 나타나지 않았고, 또 한 예는 -rti의 r이 약하게 발음된 편이라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둘라르 방언의 같은 문장에서도 -rti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적어도 싱왕 방언과 둘라르 방언에 1인칭 복수표지로서 -rti 형태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인칭어미가 대명사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봤을 때, 싱왕 방

113) 원래 질문은 '너희와 그들은 …'이었으나, '그들은 우리와 …'로 답하였다.
114) r이 들리지 않고 ti~tti 정도로 발음되었는데, 바로 앞의 a가 길게 발음되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자료제공인은 이 위치의 모음을 자주 길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mandaa-čaa ; manda-m bakčaa) 또한 개인의 발음 습관일 수 있지만 앞의 모음이 장모음으로 실현될 때에 뒤에 나오는 복자음이나 장자음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kən-nən ; -kəən-ən).

언의 1인칭 복수 포함형 인칭대명사 biti는 물론 다른 어느 방언의 인칭대명사도 r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rti의 r은 순수하게 인칭대명사에서만 근원을 찾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김주원(1985)에서 다룬 인칭어미에서의 -ra의 잔존 양상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김주원(1985)에서 Menges(1943)의 관련 논의를 일부 인용하면서 어원어와 어웡키어 및 솔론어[115]의 예들을 비교하여 보인 바에 따르면 어웡키어는 단수 1, 2인칭 외에 다른 인칭의 경우 -ra-가 있는 데에(그리고 -ra-가 없는 곳에는 -n과 결합된 형태의 인칭어미가 사용된다.) 비해 솔론어는 복수 3인칭에만 -ra-가 존재한다. 김주원(1985)에서 인용한 Menges(1968)은 폴리구스지방에서 사용되는 문자언어화된 어웡키어이며 胡增益(1984)은 중국 내몽고자치구에서 사용되는 솔론어인데, 두 언어의 부정과거형(aorist) 또는 현재장래시라고도 하는 비과거형 인칭어미를 재인용해 보인다.

(291)

		Menges (1968:84)	胡增益(1984:70)
단수	1	baka-m	uli-mi
	2	baka-nni	uli-ndi
	3	baka-ra-n	uli-rə-ŋ
복수	1(排)	baka-ra-wun	uli-muŋ
	(抱)	baka-ra-p	uli-tti
	2	baka-ra-sun	uli-ʃuŋ
	3	baka-ra	uli-rə-ŋ

- 김주원(1985:290)에서 재인용

115) 1985년에 쓰여진 원문에서는 러시아어 어웡키어의 방언 중 하나로 다루고 있지만 Poppe(1965)에서 보고된 솔론어와 가까운 언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솔론 어웡키어로 칭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위의 표에서 Megnes의 단수 1, 2인칭은 현재시제 -n에 인칭표지가 합쳐진 형태이며(*nVm>*-nm>*mm>*m), 다른 인칭은 소위 Aorist -ra+인칭표지라는 것이다. 즉 모두 시제와 관련된 표지와 인칭표지가 합쳐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른쪽의 솔론어의 경우 1인칭 복수 배제형(uli-tti)과 2인칭 복수형(uli-ʃuŋ)에는 -ra 혹은 -n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서 싱왕 방언과 둘라르 방언의 1인칭 복수 포함형 어미는 -ra-의 흔적을 간직한 -rti 형태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으며, -rti는 곧 -ra와 대명사에서 유래한 -ti와의 결합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 호이 방언에서의 1인칭 복수(포함형) 해당 인칭 대명사는 miti인데 상응하는 인칭어미는 -tti이므로 이것도 원래 -rti의 형태에서 앞서 논한 자음동화 현상에 의해 변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胡增益(1984 [김주원(1985)에서 재인용])에서 제시한 솔론 방언의 어미 중 동사 어간에 바로 붙는 제Ⅰ형 인칭어미(비과거에 해당)는 -tti인 데에 반해 형동사 과거나 미래표지 뒤에 붙는 제Ⅱ형 인칭어미는 -ti로 다르게 나타난 점 역시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3인칭어미의 경우, 대표형으로 표에 기재한 것은 -rən이지만 호이 방언의 경우 비과거 3인칭(또는 기본형 및 사전형)은 -rən, -ən, -dən, -tən(및 모음조화에 의한 교체형)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싱왕 방언의 경우에는 일부 동사가 -nən, -lən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먼저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호이 방언에서 n말음 어간에 -ən이 붙은 동사들이 싱왕 방언에서 -nən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292) -ən : -nən

호이: aasin-an, nəəsin-ən, ǰəmu-nən, ʊdʊn-an, ənun-ən ...

싱왕: aasin-nan, nəəsin-nən, ǰəmun-nəŋ, ədən-nan, ənun-nən ...

(cf. ədən-ər, ənunə-r)

그밖에도 (개 등이) 물다 aman-nan, 말하다 ən-nən~ənə-rən(호이 방언에서는 gun-ən으로 나타남) 등 여러 예가 있다. 발화 상에서는 -ll-이나 -mm-, -nn-이 짧게 발음되기도 하기 때문에 간혹 정확하지 않은 발음에서는 n이 하나로 발음되기도 한다. 특히 사동접사 -kə(ə)n-나 동사 어간의 n 바로 앞에 오는 모음이 길게 발음되면 nn을 수의적으로 짧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293) -rən : -nən

호이: imana-ran, nənə-rən (cf. nenə-rə) ...

싱왕: jaman-nan, gən-nen (cf. gənə-rə/gən-nə) ...

(294) -rən : -lən

호이: nəəli-rən, uli-rən, ...

싱왕: nəəl-lən, ul-len, ...

예를 들어 ul-lən의 경우 uli-rən에서 어간말 모음 i가 탈락하며 ul-rən>ul-lən으로 동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ulu~ə-r, ulu~ə-mi, ul-kə, ul-gəri 와 같이 [ə(ɨ)]나 1음절 모음의 영향을 받은 [u]로 발음되며, 파생접사와 결합한 경우에만 uli-kən-으로 어간말의 i가 나타났다. xaʊl-ran~xaʊl-lan '(껍질을) 까다'와 같이 lr 연쇄를 발음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어한사전> xarʊraŋ)

동사 형성 접사 -l이 결합한 동사 어간들도 기본형 및 3인칭이 -lən으로 나타난다: hwa-l-lan (중국어 画 huà → 그림그리다), dɔɔl-lan (몽골어 дуу → 노래하다)

이와는 달리 ld>ll 순행동화에 의해 어미가 -lən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어한사전> '마구를 메우다' hool-dəŋ ; 싱왕 kwəəl-lən)

4.6.6. 형동사

Tsumagari (2009:9)는 솔론어의 형동사(participle)의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이는 곧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attribute)과 동명사를 만드는 기능(verbal-noun) 그리고 주로 과거나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문장을 종결시키는 술어(predicate)로서의 기능이다. 다음에서는 문장을 종결시킬 수 있는 형동사 술어부터 살펴보겠다.

4.6.6.1. 형동사 술어

[1] -čəə

솔론어에서 과거 시제는 정동사가 아닌 형동사로 표현이 되는데, 과거 표지 -čəə(/čaa)에 기본적으로 명사류에 결합하는 것과 같은(또는 비슷한) 인칭 어미가 결합한다.[116] 1인칭 단수는 정동사와 마찬가지로 형동사에서도 시제표지와 인칭표지가 융합된 형태로(-čii) 나타난다.[117]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16) 형동사가 형용사절이나 명사절을 구성하지 않고 문장을 종결하는 어미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그 뒤에 -nin/ni와 같은 인칭표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래의 과거 시제 형동사 -čəə의 예 (296, 297)에서 2인칭은 -čəə-si, 3인칭은 -čəə(-ø)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117) 예외적으로 싱왕 방언과 둘라르 방언에서 1인칭단수 표지가 시제표지와 융합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4.1.3 참조.

단수		복수			3인칭
1인칭	2인칭	1인칭		2인칭	
		배제형	포함형		
-čii	-čəə-si	-čəə-mun	-[118]	-čəə-su	-čəə-∅

표 10 -čəə와 결합하는 인칭표지

아래는 문장에서 나타나는 예이다. 앞서 명사류 인칭표지에서 1인칭의 -ji에 대해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1인칭 과거 어미 -čii에는 다른 방언들의 경우와 달리(호이 방언: -suu/čuu) 1인칭 대명사 bii에서 유래된 원순 요소가 드러나지 않는다.

(295) bii tiinu *xuetang*-də[119] gən-čii.
I yesterday school-DATL go-PST.1SG
나는 어제 학교에 갔다.

(296) sii tiinu *xuetang*-də gən-čəə-si=jə?
you.SG yesterday school-DATL go-PST-2SG=Q
너는 어제 학교에 갔느냐?

(297) tar tiinu *xuetang*-d gən-čəə.
he yesterday school-DATL go-PST
그는 어제 학교에 갔다.

(298) buu jɔɔgiǰi *xuetang*-də gən-čəə-mun.
we.EXCL together shool-DATL go-PST-1PL.EXCL

118) 1인칭 복수 포함형의 예문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에서 기인한 우연한 빈칸으로 보인다.

119) *xuetang*(学堂)과 같은 한어차용어는 어말의 ŋ을 그대로 발음할 때도 있고, 솔론어 단어처럼 선행모음을 비모음화시키고 탈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d 앞에서는 역행동화를 일으켜 xuetang-d(ə) > xuetan-d(ə)로 발음되고, 종종 여기에서 다시 순행동화를 일으킨 xuetan-n(ə)로도 나타난다.

우리는 어제 함께 학교에 갔다.

(299) suu tiinu *xuetang*-də gən-čəə-su=j(ə)? [suj]
you.PL yesterday school-DATL go-PST-2PL=Q
너희는 어제 학교에 갔다.

(300) tar ɔl tiinu *xuetang*-də gən-čəə.
they yesterday school-DATL go-PST
그들은 어제 학교에 갔다.

솔론어에서 과거 시제를 형동사 -čəə로 나타낸다는 점은 모든 방언에서 일치한다. 그런데 '-이다' 혹은 '있다'의 bi/bisi-와 부정의 əsə(<əsi)의 과거형은 다른 방언에서는 bi-səə 혹은 bi-čəə와 같이 과거를 나타내는 형동사가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싱왕 방언에서만은 각각 bidəŋ(i), ədəŋ(i)로 나타난다. 이것들은 적어도 bi-dəŋ(i) 또는 bi-də-ŋ(i)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후자와 같이 분석했을 경우 -ŋ(i)가 원래 인칭과 관련된 부분인지, 다른 어떤 기능을 하는 -ŋi라는 요소가 붙은 것인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이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də-는 비과거 bi-si-의 -si-에 대응하는 과거표지(다른 방언에서는 -səə 또는 -čəə)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있다	아니다	오다	사다
비과거(호이)	bi-si-n	ə-si-n	əmə-rə	ga-da-n
과거(호이)	bi-səə	ə-səə	əm-səə	ga-saa
과거(싱왕)	bi-də(-)ŋ	ə-də(-)ŋ	əm-čəə	ga-čaa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솔론어에서 보통 -də가 불규칙 동사들에서 나

타나는 비과거의 -rə에 해당되는 형태소이기 때문에 과거표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위에서 가장 오른쪽 위에 있는 비과거형 '사다' ga-da-n의 -da가 그것이다.

그러나 -də는 어웡키어에서는 현재와 과거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 白尚燁(2016:56)의 퉁구스 제어 정동사(직설법) 어미 표를 보면 퉁구스 언어들의 정동사 어미 -rə 또는 -∅는[120] 언어에 따라 현재만 나타내거나, 현재와 과거 또는 현재와 미래를 나타낸다. 솔론어의 -rə는 비과거(현재 또는 미래)이지만, 어웡키어의 -rə는 비미래(현재 또는 과거)를 나타낸다. Bulatova and Grenoble (1992:35-36)에 따르면 어웡키어에서는 ga-da-nəə-də- 등은 -rə 대신 -də를 사용하여 형성된 '과거시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121] bi-나 əsə-(əsi)는 현재형에 있어서도 -rə 대신 -si가 나타나는 불규칙 동사인데, 싱왕 방언에서는 과거형에 있어서도 형동사가 아닌 정동사로 과거를 표현하던 시절의 흔적이 불규칙한 형태로 남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어웡키어에서 -rə 대신 -də가 나타나는 예들은 oː- 'do', nəː- 'place', gaː- 'take', bu- 'die' 등 대부분 솔론어에서도 -də로 나타나는 것들이고, bi- 는 불규칙이기는 하지만 솔론어에서도 어웡키어에서도 비미래형이 bi-si로 나타난다.[122] 따라서 현재 문자언어화된 어웡키어(Literary Ewenki)의 정동사 어미에서 직접적으로 bi-와 əsə에 -də가 결합한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다른 방언이나 더 예전 단계, 또는 어떤 다른 요인에 의에서 -də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

120) 인칭과 수에 따라 -rə 또는 -∅로 나타나는데, 앞으로 여기에서는 어웡키어와 솔론어의 3인칭 기준으로 -rə만 적겠다.

121) 세 가지 과거 시제 중 하나인 PAST I(-rə)은 현재 완료로, 단순 과거인 PAST II(-čəː-)나 더 먼 과거인 PAST III(-ŋki-)와 달리 직전에 일어난 일이나 행동을 나타낸다고 기술하고 있다.

122) 하지만 Bulatova and Grenoble (1992:35)에 -də를 취하는 어휘로 제시된 예 중 buː- 'give'는 솔론어에서는 3인칭이 buu-rən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웡키어와 솔론어에서 -də가 나타나는 동사 목록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2] -ǰəə

-ǰəə에도 다음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čəə와 똑같은 인칭표지가 결합하지만 일부 복수 인칭이 사용된 예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들은 우연한 빈칸으로 생각된다.

단수		복수			3인칭
1인칭	2인칭	1인칭		2인칭	
		배제형	포함형		
-ǰii	-ǰəə-si	-ǰəə-mun	-	-	-ǰəə-∅

표 11 -ǰəə와 결합하는 인칭표지

선행 연구들에서 -ǰəə를 미래 시제 표시로 보기도 하지만 칼리나(2015)는 이것을 미래 시제 표시로 보지 않으며 솔론어의 시제 체계를 비과거와 과거 두 가지로 나눈다. 먼저 호이 방언과 사마지에 방언의 선행연구를 간단히 정리한 후에 싱왕 방언의 예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다.

Tsumagari (2009:9)에서는 -ǰəə의 호이 방언형 -jigaa가 미래시제에 사용된다고 기술하였다. 성백인 외(2010:142)에서도 -ǰəə/ǰuu를 사마지에 방언의 미래 시제표지로 다루면서, 원래 '추측, 가능'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였는데 미래 시제를 표시하는 쪽으로 문법화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성백인 외(2010)에 제시된 예 중 1인칭 단수의 예는 다음과 같으며, 다른 인칭들에 대해서는 (301)과 똑같은 문장에 인칭(과 수)만 바꾸어 제시되었다.

(301) bi timaasin tasxʊ-d nən-ǰuu.
I tomorrow school-DATL go-FUT
나는 내일 학교에 갈 것이다.

(302) bi timaasin əmun xɔnin waa-ǰuu.
I tomorrow one sheep butcher-FUT
나는 내일 양 한 마리 잡을 것이다. [사마지에] - 성백인 외 (2010:143)

칼리나(2015:81)는 이들과는 달리 -ǰugu/-ǰəgə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보다 '추측', '능력', '계획' 등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보았으며, 한국어 선어말어미 '-겠-'과 같이 '추측, 의지'의 의미가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칼리나(2015:82)에는 조금 더 다양한 예들이 제시되었는데, 아래에 옮겨 둔 예들에서 -ǰugu/-ǰəgə(-jigu/jigə로 표기됨)가 '미래의 일을 추측하는 서법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123]

(303) bi timaasin juu-ddi(-du-wi) nənuu-jigu.
I tomorrow house-DATL-SG.REFL go.back-1SG.PRESUM
내일 집에 돌아갈 것이다.

(304) timaasin-txi inəgəd(i)-ləə-jigə.
tomorrow-ABL cold-become-3SG.PRESUM
내일부터 날씨가 추워질 것이다.

(305) si ər sorgol-du ii-m ətə-jigə-si.
you this school-DATL enter-CVB can-PRESUM-2SG
당신은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겠다.

(306) əttu janji-kki-sun guuruu-jigə.
so say-CVB-2PL.POSS. understand-3PL.PRESUM
당신들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겠다/알아들을 수 있겠다.
[호이] - 칼리나(2015:82)

123) 이를 분석하는 용어로도 FUT(future)가 아닌 PRESUM (presumptive, 추측법)을 사용하였다.

위의 예들 중 1인칭에 사용된 (303)의 예는 위에서 말한 ‘추측, 능력, 계획, 의지’ 중에서 ‘계획’이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예들은 모두 발화 시점보다 나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기에 사용된 -jigə를 미래 시제로 보지 않는 것은 -jigə가 단순한 미래를 의미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추측’ 등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양태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문장을 종결하는 형동사 -jigə가 정동사와 달리 양태적 의미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시제요소보다는 양태적 요소로서 기능을 한다고 본 것이다. 만주어의 시상체계를 논한 박상철(2017:90)에서는 만주어에서 문장 종결의 기능을 하는 -ra가 평서문에서 ‘약속’이라는 양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1인칭에만 쓰이는 분포 제약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시상 대립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본 바 있다. 다만 솔론어의 경우 만주어의 -ra와 같은 분포의 제약은 없으며 예를 들어 위의 (305, 306)과 같이 2인칭과 3인칭인 경우에도 문장을 종결하는 -jəə가 나타난다. 그리고 문장을 종결하는 기능으로 쓰일 때에 -jəə는 과거 표지 -čəə가 나타나는 위치와 같은 위치(동사 어간과 인칭어미 사이)에 쓰이며, 한국어의 추측을 나타내는 ‘-겠-’이 ‘먹었겠다’ 등 과거 시제와 함께 쓰일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다른 시제와 함께 쓰이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시제 표지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위에서 추측의 의미를 가진 -jəə의 예들은 모두 문장을 종결하는 경우들이었는데, 박상철(2017)에서는 -ra가 문장을 종결하는 경우와 종결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 고찰하였다. 즉 문장을 종결하는 -ra와는 달리 관형형과 명사형에 사용되는 -ra는 -ha와 정연한 대립 체계를 보이며, 그 시상 의미를 각각 비과거와 과거 시제로 볼 수 있다고 논하였다. 또 이러한 이항대립이 범언어적으로 흔하다는 점 역시 지적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솔론어에서는 형용사절과 명사절을 이루는 형동사의 경우

비과거의 -rə와 과거의 -čəə가 이항대립하므로[124] -ǰəə는 시제 대립에 참여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솔론어의 -ǰəə는 기원적으로는 시제의 이항대립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성백인 외(2010:142)에서도 지적했듯이 원래 '추측, 가능'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에서 미래 시제를 표시하는 쪽으로 문법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것은 문장을 끝내는 -ǰəə의 경우에만 국한되며, 원래의 추측 등의 양태적 의미도 가지고 있으면서 점차 시제 표지로서의 기능이 발달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싱왕 방언의 예들을 살펴보겠다. 싱왕 방언 조사에 사용된 질문지는 사마지에 방언 조사에 사용된 질문지를 수정·증보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표지를 알아보기 위한 일련의 질문들은 위 사마지에 방언의 (301)과 똑같은 문장을 인칭별로 바꾼 것들이다. 그런데 싱왕 방언 자료에는 같은 문장에 전부 미래표지 -ǰəə가 아닌 직설법 비과거 정동사 어미가 나타났다. 정동사 어미의 수-인칭 변화는 4.6.5.2에서 이미 다루었으므로 아래에 1인칭의 예만 제시한다.

(307) bii čimaačin *xuetang*-də gənə-m.
I tomorrow school-DATL go-NPST.1SG
나는 내일 학교에 갈 것이다. / 我明天要去学校。

비록 직접적으로 미래표지를 알아보기 위해 고안한 질문에는 자료제공인이 위와 같이 정동사 어미로 답하였지만, 회화 및 문법 자료의 다른 곳에서는 -ǰəə를 사용하여 말한 예들이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비과거 시제를 가지는 정동사 어미는 현재와 미래를 모두 나타낼 수 있으므로 (307)에서 정동사 어미가 나타났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ǰəə가 나타난 예들에서 정동사가 사용된 예들과 다른 특징을 찾을 수 있는지 -ǰəə가

124) 칼리나(2019b:90) 참조. Tsumagari (2009:12, 17)에 제시된 명사절과 형용사절 예들 역시 모두 -rə와 -čəə의 예들이다.

사용된 예를 모아 살펴보았다. 먼저 일부의 예들이다.

(308) a. bii sin-du ǰisigan buu-**ǰii**.[125]
I you.SG-DATL letter give-FUT.1SG
나는 너에게 편지를 보낼 것이다. / 我会给你寄信

b. bii sin-ǰi əmrət gənə-mi.
I you.SG-INS together go-NPST.1SG
나는 너와 함께 갈 것이다. / 我会和你一起去。

(309) buu sun-du ǰisigan buu-**ǰəə**-mun. / buu-rən.
we.EXCL you.PL-DATL letter give-FUT-1PL.EXCL
우리는 너희에게 편지를 보낼 것이다. / 我们会给你们寄信。

(310) buu sun-ǰi əmrət gən-**ǰəə**-mun.
we.EXCL you.PL-INS together go-FUT-1PL.EXCL
우리는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 我们会和你们一起去。

(311) buu tar ɔlə-ǰi əmrət gen-**ǰəə**-mun.
we.EXCL they-INS together go-FUT-1PL.EXCL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갈 것이다. / 我们会和他们一起去。

(312) tar ɔlə mun-ǰi əmurət gən-nən.
they we.EXCL-INS together go-NPST.3
그들은 우리와 같이 갈 것이다.[126]

---

125) 바로 앞에서 다룬 형동사 -čəə/čii와 마찬가지로 -ǰəə도 1인칭일 때에는 인칭표지와 융합한 형태인 -ǰii로 나타난다.

126) -ǰəə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311)을 질문한 후 같은 문장의 주어를 바꾸어 다시 물었을 때의 대답이므로 참고로 같이 제시한다.

위의 예들에서는 -ǰəə가 나타나기도 하고 정동사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솔론어 직관이 없이는 그 두 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기 힘들 뿐더러 질문도 모두 중국어 질문에 슺가 사용되고 한국어로는 '-ㄹ 것이다'로 표현된 통일된 문장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예와 질문/번역만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런데 먼저 보았던 (307)와 비교해 보면, (307)와 인칭만 바꾼 일련의 중국어 질문들에서는 1인칭 복수일 때를 제외하면 미래를 표현하기 위하여 '要'가 사용되었고 그에 대한 솔론어 문장은 모두 정동사가 나타났는데, -ǰəə가 나타난 예들을 수집해 보니 위의 (308) 등의 경우만이 아니라 뒤에서 제시할 -ǰəə-가 나타난 예들에도 거의 모든 질문에 '슺'가 사용되었다. 위의 경우만이 아니라 뒤에서 살펴볼 ǰəə-가 사용된 예들에도 슺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슺'로 미래를 표현한 질문 항목에 반드시 -ǰəə를 사용하여 답한 것은 아니고, (308b), (309), (312)에서 보이듯이 비과거 정동사 어미를 사용하여 대답하기도 했다.

要와 슺는 다의어이며 문맥이나 함께 사용되는 어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 힘들다. 要가 슺와 서로 상보적인 의미 영역을 가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국어 질문에 要와 슺가 사용되었다는 차이로만 -ǰəə의 출현을 설명하기도 힘들다. 그리고 要에 비해 슺를 사용하여 질문한 경우에 -ǰəə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의 (308~312)의 중 일부는 정동사로 나타나고 일부는 -ǰəə로 나타난 점만 보아도 중국어의 슺와 솔론어의 -ǰəə가 1:1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전한 우연이 아니라면 적어도 슺가 가진 어떤 의미 요소가 솔론어의 -ǰəə와 좀 더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要가 사용된 질문에는 -ǰəə가 안 나타나고 슺를 사용한 질문에는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127]

---

127) 앞으로 要가 사용된 문장은 要-문장, 슺가 사용된 문장은 슺-문장이라고 줄여서 부르겠다.

이 논문에서는 要와 슺가 가진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추측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인 인식 양태 조동사로서 기능할 때(추측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에 주목하고자 한다. 장경희(2018:228)에서는 한국어 추측 표현 '-을 것 같다'에 대응되는 중국어 대응 표현을 문맥에 따라 분석하여 확실성 정도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개연성'을 나타내는 양태 조동사 '슺'이며, 빈도수가 가장 낮은 것은 '필연성'을 나타내는 양태 조동사 '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호(2011:310)에서는 양태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들로 흔히 논의되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는데, 중국어 '슺'의 '개연성'은 이 중에서 인식 양태에 해당된다. '要'의 '필연성'은 '개연성'보다 확실함의 정도가 높은 '확실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313) a.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 명제에 대한 확실성의 정도, 믿음의 정도를 나타냄
ex. 확실성(certainty), 개연성(probability), 가능성(possibility) 등
b. 당위 양태(deontic modality): 사태의 바람직함에 대한 판단을 나타냄. 또는 사태의 발생 책임이나 권리가 사태 내의 특정 참여자에게 있음을 나타냄.
ex. 의무(obligation), 허락/허용(permission) 등
c. 동적 양태(dynamic modality)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좌우하는 원인이 사태 내부의 참여자에게 있음을 나타냄.
ex. 능력(ability), 의도(intention, willingness), 바람(wish) 등
d. 감정 양태(emotive modality, evaluative modality): 명제에 대한 감정적 태도를 나타냄.
ex. 놀라움, 유감스러움, 아쉬움, 후회, 다행으로 여김, 두려움, 경계심 등
e. 증거 양태(evidential modality): 정보의 근원, 입수 경로를 나타냄.
ex. 직접 경험(direct evidence), 傳聞(hearsay), 추론(inferred)

솔론어의 경우 직관 없이 적은 예문만으로 -ǰəə가 가진 의미를 전부 자

세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칼리나(2015)가 제시한 가장 대표적인 의미인 '추측' 역시 인식 양태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의도', '계획'의 의미는 동적 양태에 해당하는 것이다. 1인칭일 경우 특히 '의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28]

아래의 두 문장은 칼리나(2019)에서 말한 바와 같이 '추측'의 의미로 해석되는 전형적인 예들로 볼 수 있는데, 역시 중국어에는 会가 사용되었고 솔론어에서는 -ǰəə가 사용되었다.

(314) uduu jamandə jaman-ǰaa=jə?
big snow snow-FUT=Q
눈도 많이 올까요? / 会下大雪吗？

(315) bii sin-u dawʊ gələ-ǰii.
I you.SG-ACC very think-FUT.1SG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 我会很想你的。

-ǰəə로써 표현이 되는 미래는 '추측'의 의미가 첨가되기 때문에 要-문장보다 확실성이 덜한 것으로 해석될 확률이 더 높은 会-문장들에 -ǰəə가 나타나는 경향이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315)와 비슷하게 앞으로 그리워할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316)에는 정동사 -mi가 사용되었다.

(316) bii ər baga-wu dawʊ ǰɔɔnə-mi.
I this place-ACC very miss-NPST.1SG

128) 어웡키인들 사이에서도 마치 한국어의 "놀러 갈게."라든가 "언제 밥 먹자."와 같은 표현으로 sun-dulə nən-ǰigu. [you.2PL-ALL go-FUT] "당신들네 (집에) 갈게요."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는 추측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보통 의도의 의미로 사용되는 문장을 화용론적으로 인사말처럼 사용한 것이다.

저도 이 곳이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 我也会很想念这个地方的。

위에서 언급했듯이 要나 会에 솔론어의 비과거 정동사나 -ǰəə가 1:1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조건에 의해 둘 중의 하나가 사용된다기보다는 상대적인 경향으로 보인다. 이것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코퍼스에서의 출현 빈도를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나, 현재 확보된 자료는 그러한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러한 경향은 다음의 예들에서 더 잘 드러난다. 일련의 조사 항목들은 모두 会를 사용한 질문들이지만 그 중에 (317, 319, 321)와 같이 '내일'로 물었을 때에는(ex. 我明天会在学校学习。) 정동사 어미를 사용하여 답하였고, '내일'을 '언젠가, 나중에'로 바꾸어 질문을 했을 때에는(ex. 我以后会在学校学习的。) 모두 -ǰəə를 사용하여 답했다(318, 320, 322).

(317) bii čimaačin xuetang[n]-d-i bitəg-i tuurə-mi/-m.
I tomorrow school-DATL-REFL book-INACC read-NPST.1SG
나는 내일 학교에서 책을 읽고 있을 것이다.

(318) bii amila-ki xuetang[n]-də/-də-ji bitəg-i tuurə-ǰii. [jɪ~ɟɪ]
I back-ABL school-DATL-REFL book-INACC read-FUT.1SG
나는 언젠가(나중에)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다.

(319) sii čimaačin xasi(<*haishi*) xuetang[n]-d-i
you.SG tomorrow yet(<还是) school-DATL-REFL
bitəg-i kičəə-ni=jə?
book-INACCstrive-NPST.2SG=Q
너는 내일 학교에서 책을 읽고 있을 것이냐?

(320) sii amila-ki xuetang[n]-də/n bitəg-i tuurə-ǰəə-si=jə?
you.SG back-ABL shcool-DATL book-INACC read-FUT-2SG=Q
너는 앞으로(以后)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냐?

(321) tar na(n) čimaačin xuetan-d-i bitəg-i kičəə-rən.
he also tomorrow school-DATL-REFL book-INACC strive-NPST.3
그는 내일 학교에서 책을 읽고 있을 것이다.

(322) tar amila-ki xuetang[n]-də bitəg-i titi-ǰaa. [titi-]
he back-ABL school-DATL book-INACC study-FUT.
그는 앞으로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다.

위에서 본 호이 방언(303, 304)나 사마지에 방언(301, 302)의 예에서는 -ǰəə를 '내일'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했는데, 싱왕 방언에서는 사마지에 방언 (301)과 같은 문장인 (307)이나 위의 (317, 319, 321) 등의 '내일'이 사용된 문장에 -ǰəə를 함께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을 단순히 싱왕 방언에만 공기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방언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예들을 봐서는 싱왕 방언의 -ǰəə가 가지는 '추측, 의도' 등의 의미가 호이 방언의 -ǰəgə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싱왕 방언만 특별히 그러한 제약을 가질 것 같지는 않다. '내일'이나 要, 슺라는 표현에 따라 -ǰəə의 출현 유무가 절대적으로 결정된다고 보기보다는 '내일'과 '나중에'라는 두 단어를 번갈아서 바꿔 가며 질문했을 때 문맥상 '내일'에 비해 조금 더 막연하고 먼 미래인 '앞으로'가 상대적으로 확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인식하고 다르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내일' 문장은 조금 더 확실한 계획된 미래(scheduled future) 정도로 해석하고 표현하였기 때문에 -ǰəə가 아닌 정동사를 사용했고, '앞으로' 문장에는 그와 대조적으로 확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ǰəə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6.6.2. 명사절

솔론어의 형동사어미는 미완료의 -r, 완료의 -čəə로 명사절이나 형용사절을 구성한다. 이때 형용사절이나 명사절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속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명사절의 형동사어미나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에 인칭표지가 결합하는 양상 역시 달라진다. 이에 대해서는 칼리나(2019b)에서 자세히 논의한 바 있다. 다음에서는 싱왕 방언에서 나타나는 예들을 중심으로 다른 방언의 경우와 간단히 비교하며 살펴보겠다.

명사절을 이루는 형동사어미 -r, -čəə에는 격표지와 인칭표지가 결합할 수 있는데, 이 인칭표지는 명사절의 주어와 일치하며 명사절의 주어는 속격으로 나타난다. (명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을 때에는 명사절 주어가 생략되고 형동사어미에는 재귀소유표지가 결합한다.) 그러나 사마지에 방언과 싱왕 방언에서는 내포문의 주어가 반드시 속격표지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호이 방언 명사절의 예문과 함께 살펴보겠다.

(323) bi tan(<tar)-ni əm(ə)-səə-dʉ-n adda-suu.
I (s)he-GEN come-PTCP.PST-DATL-3POSS glad-PST.1SG
나는 그 사람이 온 것을 기뻐했다.
(lit. 나 그 사람의 오-ㄴ-에-그 사람 기뻐했다.)
[호이] - 칼리나(2019b:144)

(324) bii sin-ə(ŋ) ələ əm-čəə-di-si dawʊ agdə-mi.
I you.SG-GEN here come-PST-DATL-2SG.POSS very happy-NPST.1SG
나는 당신이 여기에 온 것이(것에) 기쁩니다. [싱왕]

(325) su ədu əm-sə-du-si bi agdǰi-mi.
you(PL) here come-PART-2SG I be.glad-1SG
당신이 여기 온 것을 저는 기뻐합니다. [사마지에] - 성백인 외(2010:147)

호이 방언과 싱왕 방언의 예는 같은 문장인데, 사마지에 방언은 명사절의 주어가 가장 앞에 나타나면서 속격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다. 싱왕 방언에서는 속격형으로 나타났다. 싱왕 방언에서 -r가 사용된 예도 하나 제시한다.

(326) sin-əŋ dekəm əmə-r-ma-si alaači-m.
you.SG-GEN next.time come-PTCP.NPST-ACC-2SG wait-NPST.1SG
당신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싱왕 방언에서도 명사절의 주어가 속격형이 아닌 주격형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중국어 질문(我听说你昨天来这儿了。)을 직역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종속절이 아니라 두 개의 문장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327) bii dɔɔl(d)-čaa-ji sii tiinu ələ əm-čəə-si.
I hear-PST-1SG.POSS you.SG yesterday here come-PST-2SG
나는 어제 당신이 여기에 왔었다는 것을 들었다.
→내가 들은 것은 당신이 어제 여기에 왔다는 것이다(?)
((?) 나는 들었다, 당신이 어제 여기에 왔다.(-는 것을.))

위의 문장과 비슷한 사마지에 방언의 다음 문장의 경우 역시 명사절의 주어에 속격표지가 나타나지 않았다.

(328) si tiinug bitigi ga-sa-wu-si bi dɔɔldi-čuu.
you yesterday book buy-PART-ACC-2SG I hear-PST.1SG

당신이 어제 책을 샀다는 것을 나는 들었다. [사마지에]

4.6.6.3. 형용사절

다음으로 관형절이라고도 하는 형용사절의 예들을 살펴보겠다. 형동사 어미가 피수식어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에서는 수식을 받는 명사에 복수표지, 격표지, 인칭표지 등이 결합할 수 있는데, 형용사절 역시 기본적으로 형용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다를 경우에 형용사절의 주어는 속격으로 나타나고 수식을 받는 명사에는 형용사절의 주어와 일치하는 인칭표지가 결합한다. 먼저 이에 해당하는 호이 방언의 예이다.

(329) ər bi-kki mʉ-**ni** təgə-ji-**r**
this be-TOP we(EXCL)-GEN sit/live-PROG-PTCP.NPST
jʉʉ-**mʉn**.
home/house-1PL.EXCL.POSS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눌러앉아 있는 집이다.
(lit. 이것은 우리의 살고 있는/눌러앉아 있는 집-우리.) - 칼리나(2019b:141)

싱왕 방언의 경우 형용사절에서는 (333)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형용사절의 주어가 속격으로 나타났다.

(330) ər sin-əŋ ga-čaa bitəg-si=jə?/bitəg[i]-si=jə?
this you-GEN buy-PST book-2SG.POSS=Q
이것은 네가 산 책이냐

(331) əri/ər min-əŋ ga-čaa bitəgi-ji.
this I-GEN buy-PST book-1SG.POSS
이것은 내가 산 책이다.

(332) ər tar-əŋ ga-čaa biteg-nin.
this he-GEN buy-PST book-3POSS
이것은 그가 산 책이다.

(333) eri məmə-ji ɔɔ-čɔɔ čimči-nin.
this mother-1SG.POSS make-PST clothes-3POSS
이것은 나의 어머니께서 만든 옷이다.

(334) min-ə(ŋ)/əŋ əmə-r ərin-d-i tari aasin-ǰi-rən.
I-GEN come-PTCP.NPST time-DATL-1SG.POSS he sleep-PROG-NPST.3
내가 왔을 때 그는 자고 있었다.[129] / 我来的时候他在睡觉

(335) bii tar-əŋ əmgi-r aldər-ma-ni dɔɔl(d)-čii.
I he-GEN come.back-PTCP.NPST news-ACC-3POSS hear-PST.1SG
(나는) 그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다.[130]

사마지에 방언의 경우 역시 형용사절의 주어인 이더르에 속격표지가 결합하였다.

(336) idər-ni ga-sa masin-ba-n isi-čuu.
Ider-GEN buy-PART car-ACC-POSS[131] see-PST:1SG
(나는) 이더르가 산 자동차를 보았다. [사마지에] - 성백인 외(2010:147)

---

129) 현재 진행으로 답하였다.
130) 중국어 질문은 我听到他回来的消息了이며, 한국어 질문은 '그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이다.
131) 두 문장 모두 원문의 분석에 -REFL로 되어 있지만, '(나는) 이더르가 산 자동차를 보았다.'는 대격의 예문으로도 제시되어 있으며 -ba는 사마지에 방언의 대격 형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와 편지에 결합한 -ban은 사마지에 방언의 대격표지 -ba와 3인칭 소유인칭표지 -nin(/ni)가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an을 ba-n로 분석하고 REFL을 ACC-3POSS로 수정하였다.

(337) bi idər-ni ǰʊr-sa ǰasxan-ba-n uli-xəən-čuu.
I Ider-GEN write-PART letter--ACC-POSS go-CAUS-PST:1SG
나는 이더르가 쓴 편지를 보냈다. [사마지에] - 성백인 외(2010:127)

주절과 형용사절의 주어가 같을 때에는 형용사절 주어는 나타나지 않으며 피수식 명사에 재귀소유표지가 결합된다. 재귀소유표지는 주절 주어의 수와 일치하며 주절 주어는 주격으로 나타난다. 아래는 호이 방언의 예문이다.

(338) Mandi təg(ə)-ji-səə juu-wi uunii-səə-ø.
Mandi sit/live-PROG-PTCP.PST home/house-SG.REFL sell-PST-3
만디가 살고 있던/살던 집을 팔았다.
(lit. 만디 살고 있던/살던 집-그 사람 팔았다.) [호이] 칼리나(2019b:142)

다음의 싱왕 방언의 형용사절 예에서도 역시 기본적으로 똑같은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339) bii tiinu ga-čaa bitəgi-ji *zheng* tuurə-m bisi-mi./m
I yesterday buy-PTCP.PST book-REFL just(正) read-CVB be-NPST.1SG
나는 어제 산 책을 지금 읽고 있다.

(340) bii tuurə-r bitəgi-ji ga-čii.
I read-PTCP.NPST book-REFL buy-PST.1SG
내가 읽을 책을 샀다.

일반화하기에는 예가 많지 않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예들 중에서는 형용사절을 구성하는 경우에 비해 명사절을 구성하는 경우 내포문의 주어

가 기대되는 속격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한편, 아래의 사마지에 방언의 예는 위의 (339)와 거의 같은 문장인데, 위의 경우들과는 달리 수식을 받는 명사인 bitigi 뒤에 한정대격표지가 결합했으며 그 뒤에는 재귀소유표지가 결합하지 않았다.

(341) tiinug ga-sa bitigi-wu bi ər inig isi-ǰi-mi.
yesterday buy-PTCP[132] book-ACC I today see-PROG-1SG
어제 산 책을 나는 오늘 읽고 있다. [사마지에] - 성백인 외 (2010:147)

4.6.7. 부동사

4.6.7.1. 동일 주어 제약이 있는 부동사

[1] -m

-m 은 가장 많이 쓰이는 부동사어미 중 하나이다. 성백인 외(2010: 148)에서는 -m이 선행절의 주어와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한 경우에 사용되며, 선행절의 행위와 후행절의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m bi-čči나 -m bigid(>meed) 등의 후행 요소를 빼고 -m 단독으로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두 동사를 연결하는 것이 중심적인 기능이 되었다는 점이 風間伸次郎(2015)와 칼리나(2019)에서 지적되었다. 먼저 다음의 風間伸次郎(2015)의 예에서 bi-čči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132) 원문에 PART(particle)로 되어 있었는데, 성백인 외(2010)의 문법 분석 및 약어에 따르면 PTCP(participle)이 맞다. 단순히 약어를 잘못 적은 오류로 보아 수정하였다.

(342) tari dattan sonin isi-m bi-ččі xəəmə-i ǰit-tə-n.
3SG always newspaper see-SIM be-SEQ food-INDEF eat-IND.PRS-3SG[133]
그는 언제나 신문을 읽으면서 밥을 먹는다.[134]
他总是一边看报纸，一边吃饭。[動詞動作] [호이] 風間伸次郎(2015)

칼리나(2019b:158-9) 역시 부동사어미 -m과 bigid가 결합해 쓰여야 동시 동작의 '-면서'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meed로 축약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의 칼리나(2019b)에 제시된 예 중 일부이다.[135]

(343) Colsʉ jaandaa-**m bigid**(~jaandaa-**meed**) algasii(~aggasii)-ji-ran.
Chulsoo sing.a.song-CVB while walk-PROG-3
철수(는) 노래(를) 부르면서 걷는다./걷고 있다.
(lit. 철수 노래 부르면서 걷고 있다.)

(344) bi xəəmə-i ji-**m bigid**(~ji-**mmeed**) bitəgə-i isi-mi.
I meal-INACC eat-CVB while book-INACC look-1SG
나는 밥을 먹으면서 책을 읽는다. (lit. 나 밥을 먹으면서 책을 읽는다.
[호이] - 칼리나(2019:159)

이 경우에 해당하는 싱왕 방언의 예는 다음의 두 가지가 나타났다.

(345) bii iiŋtə-m(1회)~iiŋtə-me(/mee?) ulukčənə-m.
I laugh-CVB speak-NPST.1SG
나는 웃으면서 이야기한다.

---

133) SIM=simultaneous, SEQ=sequencial, INDEF=indefinite accusative, IND=indicative mood
134) 원문의 일본어 부분을 번역하였다.
135) 朝克(2009) 역시 -m를 결합(联合연합)부동사라고 칭하고, '(말을) 타고 가다'와 같이 두 동사를 결합해 주는 기능으로 설명하고 있다.

(346) kičəə-mee ul-kə/k.
to.be.careful-CVB go-IMP
조심해서 가세요! (조심하면서 가세요)

위의 호이 방언의 예들과 같이 -m bičči나 -m bigid(-meed)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연결의 기능으로 쓰였을 때와는 발음의 차이가 있었다. 싱왕 방언에서 이 부동사는 일반적으로 어말 모음이 없는 -m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발음의 차이에 의미가 있다고 보아서 '-면서'의 의미로 사용될 때 어기사나 meed와 같은 어떤 기능을 하는 형태소가 결합되었다고 볼 것인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는 기저형의 어말 모음i가 나타난다고 볼 것인지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둘라르 방언에서도 (346)에 해당하는 문장은 다른 곳의 -mə의 단모음보다 조금 강조하여 발음했다.

아래에는 위의 경우들과 달리 -m이 동사를 결합하는 기능을 하는 전형적인 예들로 생각되는 예들을 일부 제시한다. 아래에 쓰인 예들의 경우 의미적으로 선행절은 후행절이 이루어지는 방법이거나 원인이 될 수 있고 후행절은 그 목적이나 결과가 될 수 있으며, 이 사건들에서 선행절이 이루어진 결과는 후행절이 이루어진 결과와 일치한다. 이에 비해 위에서 본 예들에서 웃는 것과 이야기하는 것, 조심하는 것과 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별개의 행위이면서 동시에 실행된 것뿐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347) nisikʊʊkʊl tutul-m əmgi-čəə.
children run-CVB come.back-PST
아이들이 방으로 달려 들어왔다.

(348) min-u aaŋə-m[136] əm-kə.
I-ACC follow-CVB come-IMP
나를 따라 오세요!

(349) mərin[m]-mi uji-m man-na (jaaxʊn)[137] alkʊ-m[m/ŋ] gən-nən.
horse-REFL tie-CVB finish-CVB (on.foot) walk-CVB go-NPST.3
말을 매어 두고 걸어서 갑시다!

(350) Mandi dɔɔ dulə-m xuetan-d-i gən-nə(n).
Mandi wood pass-CVB school-DATL-REFL go-NPST.3
만디는 숲을 통해 학교에 다닌다.

(351) ənunə-m bu-čəə. aba-nin ənun-əm bu-čəə.
ill-CVB die-PST father-3POSS ill-CVB die-PST
그의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다. (앓다가 돌아가셨다)

솔론어의 부동사는 동일 주어 제약이 있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인칭표지와 결합하여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다르다는 것을 표시하는데, -m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한다. 다음과 같이 다른 두 주체에 의해 동시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보통 두 문장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352) Mandi čaŋ(<*chang*)-nə-ji-rən, *Tuoya* *tiaowu*-l-ji-rən.
Mandi sing-VBLZ-PROG-NPST.3 *Tuoya* dance-VBLZ-PROG-NPST.3
만디는 노래를 불렀고 투야는 춤을 추었다.

---

136) 호이 방언에서는 aaŋi-이다. (<어한사전> aaŋiraŋ, <간지> aaŋɪxamɪ ʃɪlbambʊʊran 영도(领导)하다) <어한사전>에는 '주숙하다, 숙영하다'의 aaŋaraŋ도 등재되어 있다.

137) 2회 이상 발화하면서 처음 발화했을 때와 달리 특정 단어나 어구를 추가하거나 빼고 발화했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괄호에 넣어 표시하였다.

-m은 두 동사를 연결하는 데에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부동사 어미이기 때문에 -m man-, -m baka-, -m ɔɔdən, -m ičі-, -m ətə- 등 여러 보조동사 구문을 만드는 데에 쓰이며, -(m)muu, -m bisi-(>-(m)m(i)si-) 등 일부 보조동사 구문에서는 -m 뒤에 오는 동사의 어두 자음이 동화를 일으키고 축약되는 등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보조동사 구문에 대해서는 5.1에서 다루겠다.

또한 솔론어에서는 인용표지에 해당하는 əŋkən(호이 방언에서는 guŋkən)을 부동사 -m과 사용하여 의도의 의미(-려고)를 나타내기도 한다. 싱왕 방언에서는 əŋkən이 오히려 일반적인 인용문에 사용된 예는 나타나지 않고 두 문장으로 끊어서 말했으며 -m과 사용하여 의도를 나타낸 예들만 나타났다. 다음은 그 중 일부이다.

(353) Mandi udu *xuetang*[n]-d[n] gənə-m əŋken
Mandi big school-DATL go-CVB QUOT
bitəg-i dawʊ kičəə-ǰi-rən.
book-INACC very strive-PROG-NPST.3
만디는 대학에 가기 위하여 책을 많이 읽는다.

(354) bii tar baga-d gənə-m əŋken ǰɔɔnə-msi-m. (-m (bi)si-m.)
I that place-DATL go-CVB QUOT think-CVB be-NPST.1SG
나는 그곳에 가려고 한다. (我打算去那个地方)

(355) bii ər bitəg-u ičі-m əŋkən gaǰʊ-čii.
I this book-ACC look-CVB QUOT bring-PST.1SG
이 책을 내가 읽으려고 사 왔다.

(356) bii asi-ji bakaldi-m əŋkəni. (əŋkən=e?)
I wife-1SG.POSS meet-NPST.1SG QUOT
나는 아내를 만나고 싶다.

[2] -nan/na

선행절과 후행절의 일이나 행동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부동사는 호이 방언과 사마지에 방언에서 -či(또는 -čči)로 나타나지만 싱왕 방언에서는 이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nan 또는 na로 나타난다. 주로 어말 비음이 탈락한 -na형태로 많이 나타나며, 둘라르 방언에서도 -na로 나타난다. 자료에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은 경우의 예만 나타났다. 아래는 싱왕 방언에서 -nan/na가 사용된 예의 일부이다.

(357) bii gjaa-d gən-nə/nən bjalaga-i gadə-m/mi.
I market-DATL go-CVB rice-INACC buy-NPST.1SG
나는 시장에 가서 쌀을 샀다.

(358) ǰuu-d-i əmgi-nə ǰəət-i ǰibtə-m.
hou-DATL-REFL come.back-CVB meal-INACC eat-NPST.1SG
(나는)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었다.

(359) bii Xailar-diki Dayangshu dulə-nə əm-čii.
I Xailar-ABL Dayangshu pass-CVB come-PST.1SG
나는 하이라얼에서 다양수를 거쳐서 왔습니다.

(360) gən-nə iči-nəə-gəri.
go-CVB look-PURP-HORT
가서 봅시다!

특히 어떤 행위나 동작이 다 끝난 후 다른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할 때에 보조동사 구문 '-m -man-'(-하기를 마치다) 뒤에 -na가 결합한 -m manna가 사용되기도 한다.

(361) bii ǰəəti-i ǰi-m man-na ikti-ji swad-daa-čii.
I meal-INACC eat-CVB finish-CVB teeth-1SG.POSS brush-VBLZ-PST.1SG
나는 밥을 다 먹고 나서 양치질을 했다. / 我吃完饭刷牙了。

-na가 사용된 예 중에서는 다음과 같이 반드시 선행절의 사건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362) buu mɔrin ɔgɔ-na əm-čəə-mun.
we.EXCL horse ride-CVB come-PST-1PL.EXCL
우리는 말을 타고 왔다.

(363) mɔrin-mi[138] kutulə-nə(n) əmu-k.
horse-REFL lead-CVB bring-IMP
말을 끌고 오세요!

(364) mɔrin-mi kutulə-nə(n) ul-kə.
horse-REFL lead-CVB go-IMP
말을 몰고 가라.

(365) a. bii gənu-m man-nan(n) gjaa-də gən-čii.
I go.back-CVB finish-CVB market-DATL go-PST.1SG

b. bii gənu-nə(n) gjaa-də gən-čii.
I go.back-CVB market-DATL go-PST.1SG
나는 집으로 가는 길에 시장에 들렀다. (나는 돌아가서 시장에 갔다?)

이 몇 가지의 예만 가지고 '-na'라는 부동사의 성질을 완벽하게 파악하

138) 처음에 mm을 짧게 발음했지만 질문을 하자 중자음으로 발음하였다. 싱왕 방언에서 ll, mm, nn은 수의적으로 짧게 발음되기도 한다.

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 예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말을 타고 가다'의 경우 만주어에서도 동시 관계를 나타내는 -me가 아닌 계기 관계를 나타내는 -fi가 사용되어 'morin yalufi genehe(만문노당 태조 51:6b:3-4) 말을 타고서 갔다.'와 같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를 '말을 타고 나서 갔다'와 같이 해석하면 부자연스럽다. 이에 대해서는 '(말을) 타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말에 타고서 가는 일련의 행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 올라타는 동작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에 올라타고 (나서) 가다'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즉 -na는 일련의 동작이 모두 완결되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앞 동작의 시작점 이후에 그 후의 일이 시작되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원칙적으로 앞뒤 절의 두 사태 간에 계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고, -고서'도 앞뒤 절의 두 사실 간에 계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ex. 그는 나에게 얼른 눈짓을 하고서 나가 버렸다.), 때로는 앞 절의 동작이 이루어진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뒤 절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내기도 한다.(ex. 어머니는 나를 업고 병원까지 달려가셨다.)[139]

'돌아가다'의 gənu-는 man-na와 결합한 예까지 있기 때문에 (자료제공인이 '집으로 돌아간 후'로 착각한 것이 아니라면) 조금 더 설명이 어렵다. 다만 이 경우에 gənu-(돌아가다)가 집에 도착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gənum man-na가 상황에 따라 '하교 후/퇴근 후'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3] -sil

-sil은 호이 방언의 -čil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싱왕 방언에서는 -m man-과 결합한 형태로만 나타났다. -nan/na와 마찬가지로 선행절과 후행절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관계를 나타내지만 후행절의

139) 예문은 네이버 사전에 포함된 <표준국어대사전>의 것이다.

행동이 곧바로 이어졌다는 점이 강조된다. 칼리나(2019b:180)에서는 이것이 '-자마자'의 뜻을 나타내며, 동일 주어 제약을 가진다고 하였다. -sil은 -na보다 선행절과 후행절의 시간적인 관계가 더 긴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 예문들은 한어로 번역된 문장에 '(-자마자) 곧/바로'를 의미하는 就가 있기 때문에 -m man-na(n)보다 좀 더 이를 살릴 수 있는 표현으로서 -m man-sil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140)]

(366) a. bii ədd/ərd-əŋ ǰəəti ǰi-m man-sil *xuetang*-də gən-čii.
I morning-GEN meal eat-CVB finish-CVB school-DATL go-PST.1SG
나는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갔다. / 我吃完早饭就去学校了。

b. bii ǰəəti-i ǰi-m man-nan/na xuetang-də gən-čii.
I meal-INACC eat-CVB finish-CVB shcool-DAT go-PST.1SG
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 我吃完饭去学校了。

(367) bii tiinu bitəg-i ga-(m) man-sil əmgi-čəə.
I yesterday book-INACC buy-CVB finish-CVB come.back-PST
나는 어제 책을 사서 집으로 왔다. / 我昨天买完书就回家来了。

4.6.7.2. 동일 주어 제약이 없는 부동사

[1] -čaala

-čaala 역시 계기적인 관계를 나타내는데, 선행절의 행위나 사태가 끝난 다음에 후행절의 행위나 사태가 이어진다. 칼리나(2019b:177)에 따르면 호이방언에서 -saalaa/čaalaa 나타나는 이 접속어미는 '-아야, -고서야, -

140) 아래의 예문에서 mm은 수의적으로 짧게 발음되기도 하였다. (ǰimmansil~ǰimansil, gamansil)

아서야, -후에야'의 의미를 나타내며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는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주어가 다를 경우에는 -čaala 뒤에 선행절의 주어에 대응되는 인칭표지가 결합한다. 싱왕 방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다른 몇 개의 예만 나타났다. 朝克(2009:168)에서는 조건부동사(-sələ)로 기술하였다.

(368) aba-ji ul-čəələ-ni məmə-ji əm-čəə.
father-1SG.POSS go-CVB-3POSS mother-1SG.POSS come-PST
아버지께서 가신 후에 어머니께서 오셨다.

(369) ɔdɔn dulə-čəələ-ni, ul-dəə-ji.
rain pass-CVB-3POSS go-IMP-2SG(/REFL?)
비가 그친 뒤에 가거라.

(370) a. biti ɔdɔn dulə-čəələ-ni ul-dəə-lu.
we.INCL rain pass-CVB-3POSS go-IMP-REFL.PL
우리 비 그친 뒤에 가자 (우리 비가 지나간 후에 가자)

b. ɔdɔn ɔd[č]-čaala-ni ul-geri.
rain stop-CVB-3POSS go-HORT
우리 비 그친 뒤에 가자 (비가 멈춘 후에 가자)

[2] -rki

-rki/ki는 조건을 나타내며, 단모음 뒤에서는 -rki로, 자음과 -bisi- 뒤에서는 -ki로 나타났으며, ɔɔ- 뒤에서는 -rki와 -ki가 모두 나타났다. 다음은 차례대로 단모음 뒤, 자음 뒤, bisi- 뒤, ɔɔ- 뒤에 나타난 -rki/ki의 예들이다.

(371) ɔɔn baga-d gənə-**rki** ai=jə?
what.kind.of place-DATL go-COND good=Q

어디로 사냥을 가면 좋습니까?

(372) satan baran ǰib-**ki** bəi-d əru.
suger a.lot eat-COND body-DATL bad
설탕은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

(373) a. čulə-či ɔɔ-**rki** amskan titə-ran.
leisure-PROP become-COND a.little learn-NPST-3
틈틈이 배웁니다. (짬이 나면/시간이 있게 되면 조금 배웁니다.)

b. čulə-či ɔɔ-**ki** ii ɔɔ-rən?
leisure-PROP become-COND what do-NPST.3
시간이 있을 때 무엇을 하나요? (시간이 있게 되면 무엇을 하나요?)

-rki/ki는 호이 방언에서는 -kki(또는 -ki)로 나타난다. 칼리나(2019b:175)에서는 기본형을 -ki로 기술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kki로 발음될 때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Tsumagari (2009:10)에서는 Conditional verb로 -kki를 제시하였다.[141] -rki는 동일 주어 제약이 없는데, Tsumagari (2009)에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기본적으로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으면 -rki 뒤에 -rki 절의 주어에 대응하는 인칭표지가 결합한다. 칼리나(2019b:176)에서는 주어가 특정한 대상인지에 따라서도 인칭표지의 결합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먼저 주어가 특정한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인칭표지가 결합하지 않는다.

(374) a. nəlki(~nəkki) oo-**kki** ilga(~igga) ilgaalaa(~iggaalaa)-ran.
spring become-COND flower bloom-3

141) 한편 朝克(2017)에서는 -kki를 가정(假定式)으로 보았으며 -kki-[인칭표지] 뒤에 oodoŋ(괜찮다), aja(좋다), əru(나쁘다) 등의 표현이 사용되어 '-하면 좋겠다/-하면 나쁘다' 등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기본적인 용례로 제시하였다.

봄이 오면 꽃이 핀다. (lit. 봄 되면 꽃 핀다.)

[호이] - 칼리나(2019b:175)

싱왕 방언에서 역시 주어가 특정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rki 뒤에 인칭표지가 나타나지 않았다.

(375) baran kulə-rki bəi-d əru.
a.lot lie.down-COND body-DATL bad
(너무) 많이 누워 있으면 몸에 안 좋다.

(376) udu xuetang[n]-n(<d) gənə-rki jəŋju(<*yingyu*) baran titə-ran.
big school-DATL go-COND English(英语) a.lot study-NPST.3
대학에 가려면 공부를 많이 한다(대학에 가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위와 달리 주어가 특정한 대상인 경우, 칼리나(2019b:176)에 따르면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다르면 -ki에 그 절의 주어와 일치하는 인칭표지가 결합한다. 또 이때 '-ki' 절의 주어는 문장의 가장 앞에서는 아래 (377)의 a에서처럼 주격 형태(bi)로도, 속격표지가 결합된 형태(mi-ni)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b와 같이 후행절의 주어인 aba가 문장의 맨 앞으로 오면서 '-ki'절의 주어의 위치가 맨 앞이 아니게 되면 속격표지와 결합된 'mi-ni'로 나타난다고 한다.

(377) a. **bi/mi-ni** urin-ci oo-**kki-wi** aba
I/I-GEN twenty-PROP become-COND-1SG.POSS father
min-dɯ səsəncə-i ga-m buu-m(i) gɯn-cəə-ø.
I-DATL bicycle-INACC buy-CVB give-1SG say-PST-3
내가 스무 살이 되면 아버지가 나에게 자전거를 사 주신다고 했다.
(lit. 나/나의 스무 살 되-면-나 아버지 나에게 자전거를 사 준다고 했다.

b. aba **mi-ni** urin-ci oo-**kki-wi**
father I-GEN twenty-PROP become-COND-1SG.POSS
min-dɯ səsəncə-i ga-m buu-m(i) gɯn-cəə-ø.
I-DATL bicycle-INACC buy-CVB give-1SG say-PST-3
아버지는 내가 스무 살이 되면 나에게 자전거를 사 주신다고 했다.
(lit. 아버지 나의 스무 살 되-면-나 나에게 자전거를 사 준다고
[호이] - 칼리나(2019b:175-6)

반면에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ki에 재귀인칭표지가 결합한다고 한다.

(378) Colsɯ arixi-(i) ima-kki-wi dattan
Chulsoo alcohol-INACC drink-COND-SG.REFL always
sotoo-cc(i) ooxin-bi ima-ran.
get.drunk-CVB till-SG.REFL drink-3
철수는 술(을) 마시면 항상 취할 때까지 마신다.
(lit. 철수 술을 마시-면-그 사람 항상 취하-ㄹ 때까지-그 사람 마신다.)
[호이] - 칼리나(2019b:176)

싱왕 방언에서는 원칙적으로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다를 경우에 소유표지가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호이 방언과 같았다. (아래의 379a, 381, 382) 하지만 (379b)와 같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주어가 같을 경우에는 호이 방언과 달리 재귀인칭표지가 나타나지 않았다(380). (381)와 (382)를 보면 싱왕 방언에서도 -rki 절의 주어가 문장 가장 앞에 나타날 때 수의적으로 속격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79) a. Mandi dɔɔ dɔɔlə-rki/dɔɔlə-rki-**ni** *Tuoya* *tjaowu*-l-lan.
Mandi song sing-COND-3POSS) *Tuoya* dance-VBLZ-NPST.3

b. Mandi dɔɔ dɔɔlə-rki utkai *Tuoya* utkai *tjaowu*-l-lan.
Mandi song sing-COND just *Tuoya* just dance-VBLZ-NPST.3
(만약) 만디가 노래를 부르면 투야는 춤을 춘다.

(380) Mandi (əmrə) dɔɔ dɔɔlə-rki dajen čaŋnə-m man-nan.
Mandi (once) song sing-COND surely sing-CVB finish-NPST.3
만디는 일단 노래를 시작하면 끝까지 부른다.

(381) sin-əŋ ulu-rki-**si** bii na ulu-mi.
you.SG-GEN go-COND-2SG.POSS I also go-NPST.1SG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다.

(382) tar ulu-rki-**ni** bii na ulu-mi.
he go-COND-3POSS I also go-NPST.1SG
그가 가면 나도 가겠다.

성백인 외(2010:149)에서는 사마지에 방언에서 조건의 -ki 뒤에 인칭표지가 수의적으로 결합한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제시된 예를 보면 사마지에 방언에서도 역시 기본적으로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다를 때 인칭표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142]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은 유일한 예인 (383)을 보면 싱왕 방언과 같이 재귀표지가 나타나지 않았다.

(383) si gii-d nən-ki uldii ga-m əm-xə.
you downtown-DATL go-CVB meat buy-CVB come-IMP
당신이 시내에 가면 고기를 사서 오너라.

142) 여기에 옮긴 두 예를 비롯하여 성백인 외(2010:150)에 제시된 예문들은 모두 주어가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중에서 (383)을 제외하고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모두 달랐는데, 모두 인칭표지가 나타난 예들이고 싱왕 방언과 같이 생략된 예는 확인할 수 없었다.

(384) si uli-ki-si bi uli-mi.
you go-CVB-2SG I go-PRES.1SG
당신이 가면 나도 간다.

[사마지에방언] - 성백인 외(2010:150)

정리하면 방언이나 환경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rki/ki/kki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하지 않으면서 그 주어가 특정한 대상이 아닐 경우에 원칙적으로 -rki 뒤에 선행절의 주어에 대응되는 인칭표지가 결합한다. 이는 호이, 사마지에, 싱왕 방언 모두에서 동일하지만 싱왕 방언의 경우에는 생략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칼리나(2019b)에 의하면 주어가 동일할 경우에는 호이 방언에서는 -ki 뒤에 재귀인칭표지가 결합하지만, 싱왕 방언에서는 재귀인칭표지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부정표지와 결합한 əski '-하지 않으면'도 나타났다.[143] əski는 əsə(əsi)-ki로 분석할 수 있으며, 호이 방언에서도 əsi와 결합한 əsi-kki로 나타난다.[144]

(385) Mandi ɔri ɔɔ-rki-ni əski čaŋnə-ra
Mandi evening bocome-COND-3POSS NEG.COND sing-INF
utkai *tiaowu*-l-lan.
just dance(<跳舞)-VBLZ-NPST.3
만디는 밤이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춘다. [싱왕]

---

143) 다만 싱왕 방언의 부정문에 나타나는 부정표지는 현재일 때 əsən, 과거일 때 ədəŋ(i)로 나타날 때가 많은데 이것들은 거의 부정부사처럼 사용되며 시제나 인칭에 따라 활용하는 호이 방언의 부정동사처럼 '동사 어간(ə)-시제-인칭표지'로 완벽하게 분석되지 않는다. 싱왕 방언 부정문의 구성에 대해서는 5.3에서 따로 다룬다. əsən의 과거형 ədəŋ에 대해서는 4.6.6.1의 -čəə 마지막 부분에서 논하였다.

144) 한편 <어한사전>에는 '-지 않으면'을 뜻하는 접속사로 əsixin/əsixiŋ이 등재되어 있는데, 예문이 없어 실제로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이것은 아마도 əsi-ki-n(NEG-COND-3)에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386) si ədd(ə) əsi-kki yɯɯ-r
you.SG early/morning NEG-COND go.out/get.up-PTCP.NPST
xicəəl-txi-wi əmməə-wɯ-ndi.
lesson-ABL-SG.REFL lose-PASS-2SG
너(는)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수업에 지각할 것이다.
(lit. 너 일찍 안 일어나면 수업에게서 버림받는다.)
[호이] - 칼리나(2019b:132)[145]

방법이나 수량을 나타내는 의문사와 함께 쓰여서 [의문사] V-rki [의문사] 구성으로 '아무리 -아도', '-면 -ㄹ수록' 등의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387) ər(i) inəg irtu ači-rki irtu bag ɔdənə-r nɔga(n).
this day how look-COND how weather rain-PTCP.NPST alike
아무래도(아무리 보아도) 비가 올 것 같다. [싱왕]

(388) bitəgə-i ooxi baran isi-ki ooxi aya.
book-INACC how.many many look-COND how.many good
책을 많이 볼수록 좋다. (lit. 책을 얼마나 많이 보면 얼마나 좋다.)
[호이] - 칼리나(2019b:175)

4.7. 후치사

후치사는 명사류 뒤에 놓여서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그 종류에 따라 앞에 오는 명사류에 결합하는 격표지가 결정되기도 한다. 솔론어에서의 후치사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나, 여기에서 다루

145) 인용한 예은 기본적으로 전사, 분석, 강조 표시 등을 포함하여 모두 원문 그대로 옮겼지만, 이 예는 원문의 밑줄과 굵은 글씨가 주제와 상관없는 곳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생략하였다.

는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과제로 남겨 둔다. 우선은 선행연구에서 후치사로 다루었던 것들 중에서 명사(+격표지) 등으로 분석되는 것을 제외하고 싱왕 방언에서 나타나는 예 몇 가지를 호이 방언형과 함께 제시한다.

[1] ǰaka '-까지'

(389) ǰuur ərin *kə*-digi[146] jalə(n) ərin *kə* ǰaka
two time hour(刻)-ABL three time hour(刻) till
bitəg-i tuure-čəə.
book-INACC read-PST
두 시부터 세 시까지 책을 읽었다. [싱왕]

(390) juur sag(a)-txi elan sag(a) jakka əmən sag(a)
two hour/clock-ABL three hour/clock edge/till one hour/clock
aasin-gari.
sleep-HORT
두 시부터 세 시까지 한 시간 자자.
(lit. 두 시부터 세 시까지 한 시간 자자.) [호이] - 칼리나(2019b:107)

[2] nɔgan -처럼, -같이, -인 것 같다.

nɔgan은 (391)에서처럼 '-처럼, -같이'를 의미한다. (392)처럼 형동사 뒤에 사용되어 '-인 것 같다'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모음 사이의 g가 탈락하기도 한다.

146) 탈격은 -diki인데 여기에서는 digi로 발음되었다.

(391) bii mətər[147] sin-ŋ[sinn] nɔgan ǰirga-mi/m.
I also you.SG-GEN alike happy-NPST.1SG
나는 너처럼 행복하다. [싱왕]

(392) bii amaskan ənunə-r[r/n] nɔgan.
I a.little get.sick-PTCP.NPST alike
나는 조금 아픈 것 같습니다. [싱왕]

호이 방언에서는 nəgən으로 나타난다.

(393) eri inig tiinüg **negeen** tannagan exüddi öntö.
this day yesterday alike such not not
'Today is not so hot as yesterday.'
[호이] - 朝克·津曲敏郎·風間伸次郎(1991:45)/Tsumagari (2009:15)

[3] ǰaarin '-를 위해, ~ 때문에'

다음은 싱왕 방언에서 '-를 위해, ~ 때문에'의 의미로 ǰaani가 사용된 예이다. (394)은 일반명사, (395)는 대명사 뒤에 ǰaani가 사용되었다.

(394) bii gurun-ŋ-mi[gurummi] **ǰaani** il-čii.
I country-GEN-REFL for rise-PST.1SG
나는 나라를 위해 일어섰다.[148] [싱왕]

147) 어휘 조사에서 '역시 또한'에 대해 mətər라고 답하였는데, na(호이 방언의 nan)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예문인 "我也是中国人。"에 대해서는 mətər와 na 둘 모두를 사용하여 bii na mətər gurun bəi. [I also also country person]라고 답하였다.

148) 원래의 질문은 我为祖国而战(나는 나라를 위해 싸웠다.)였으나, '싸우다'에 해당하는 战의 발음이 '서다'의 站과 같아서(zhàn) 자료제공인이 "나는 나라를 위해 일어섰다"로 이해하고 대답하였다.

(395) bii sin-ŋ[sinn][149] **ǰaani** ǰirga-misi-mi/m. (< -m bisi-mi)
I you.SG-GEN **for** happy-CVB be-NPST.1SG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싱왕]

호이 방언에서는 ǰaarin으로 나타난다. 칼리나(2019b:171)에 의하면 호이 방언에서 '-를 위해, ~때문에'의 의미로 사용되는 ǰaarin의 경우, 앞에 오는 명사류에는 속격표지가 결합하며, (396)과 같이 일반명사가 올 경우 속격 표지 뒤에 재귀인칭표지가 결합되지만 (397)과 같이 대명사가 올 경우에는 재귀인칭표지가 결합하지 않는다.

(396) bʉ ʉrəl-**ni-wəl** **jaarin** gee-d(u)
we.EXCL child-GEN-PL.REFL for city-DATL
nʉʉggii-səə-mʉn.
move-PST-1PL.EXCL
우리는 아이를 위해 시내로 이사했다.
(lit. 우리 아이-의-우리 위해 시내에 이사했다.

(397) aba-wi mi-**ni** **jaarin** inig dolbo-i aasin
father-1SG.POSS I-GEN for day night-INACC no/without
pəcci-ji-rən.
go.busily-PROG-3
나의 아버지는 나를 위해 낮밤 없이 바쁘게 뛰어다니신다./분주하시다.
(lit. 아버지-나 나의 위해 낮밤을 없이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다.)
[호이] - 칼리나(2019b:171)

위에서 본 싱왕 방언의 (394, 395) 역시 각각 ǰaani 앞에 명사와 대명사

149) 보통은 인칭대명사 어간과 소유격표지 -ŋ 사이에 모음 ə가 삽입되어 sin-əŋ과 같이 나타나지만, 후행 자음에 n/ŋ을 [n]으로 역행동화시키는 자음이 올 경우에(3.1.2의 (3) 참조)는 [sinn]과 같이 발음되기도 한다. ex. min-əŋ[minn~minɨn] dil-ji '나의 머리'

가 사용된 예들인데, (394)는 발음상으로는 속격표지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395)에서 [sinn]으로 발음되는 것은 속격의 sin-ŋ이 ǰaani 앞에서 역행동화를 일으킨 것이므로 속격표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또 (394)의 명사 뒤에는 재귀인칭 -mi가 결합했지만 (395)의 대명사 뒤에는 재귀인칭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칼리나(2019b:171)의 호이 방언 ǰaarin에 대한 기술과 일치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역시 (394)의 n/ŋ 말음 명사인 gurun의 어간과 재귀표지 -mi와의 사이에도 속격 표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하지만 싱왕 방언과 호이 방언에서 ǰaani/ǰaarin 앞에 격표지나 인칭표지가 나타나는 양상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칼리나(2019b:171)에 의하면 호이 방언에서는 ǰaarin 앞에 동사와 결합한 형동사 -r(-기 위해)이 사용된 경우에도 -r에 속격 표지와 재귀인칭표지가 결합하는데(398), 싱왕 방언에서는 (399)에 보이는 바와 같이 형동사 -r과 결합할 경우에는 그 뒤에 재귀인칭표지가 나타나지 않았다.

(398) bʉ ʉrəl-dʉ-wəl bitəgə-i
we.EXCL child-DATL-PL.REFL book-INACC
tati-gaa-**r-ni(-wal)** **jaarin** gee-d(u)
learn-CAUS-PTCP.NPST-GEN-PL.REFL for city-DATL
nʉʉggi-səə-mʉn.
move-PST-1PL.EXCL
우리는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 시내로 이사했다.
(lit. 우리 아이-에게-우리 공부를 가르치-는-의-우리 위해 시내에 이사했다.)
[호이] - 칼리나(2019b:172)

(399) tari guči-ji iči-r ǰaani ər ail-də əm-čəə.
he friend-REFL look-PTCP.NPST for this town-DTAL come-PST
그는 친구를 만나러 이 마을에 왔다. [싱왕]

4.8. 첨사

첨사는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고 단어나 구, 또는 문장 전체에 문법적이거나 화용론적인 뜻을 첨가해 주는 기능을 한다. 결합한 앞 단어나 구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기도 하고, 문말 첨사는 완성된 문장 뒤에 놓여 문장 전체의 어기를 나타내거나 의문문을 만든다. 솔론어에서는 첨사 뒤에 다른 첨사가 결합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앞 단어의 의미를 보조해 주는 첨사, 문말 첨사, 문말 첨사가 연이어 나타나는 예에 해당하는 각각의 대표적인 예들을 살펴보되, 단독으로 사용된 의문첨사는 5.2에서 다루겠다.

[1] kəd~kud

kəd~kud는 다음과 같이 əmun '하나', awʊ '누구', ɔɔn '어떤/무슨' 뒤에 나타났으며, '-(조차/마저)도' 또는 '어떤 -든지' 정도의 의미를 표현한다.

(400) əmun=**kud** nisikʊʊkʊl ər bait-u əsən saa-ra.
one=**PART** student this matter-ACC NEG know-INF
이것을 아는 학생이 하나**도** 없다. (한 학생**도** 이 일을 모른다.)

(401) awʊ=**kəd** ədə(ŋ) əmə-rə.
who=**yet** NEG.PST come-INF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402) ɔɔn[n]=**kəd** baita/bait-i[150] aačin.
what.kind.of=**PART** matter/matter-ACC none

150) 솔론어의 aačin은 부정대격을 취한다.

아무(무슨) 일**도** 없습니다.

(403) ɔɔn[n]=**kəd** bait-u bəlgɔ ɔimbɔ-rən.
what.kind.of=**PART** matter-ACC all settle-NPST.3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되소서. / 事事如愿。(무슨 일**이든지** 모두 해낸다.)

이것은 호이 방언의 xət(ə)에 해당하는 것이다. 싱왕 방언형 kəd의 어말 d가 호이 방언에서는 t로 나타난다. <간지:104>에서 체언(体词) 뒤에 사용된 xətə의 예로 제시한 다음 문장들을 살펴보면 싱왕 방언과 기능이 같음을 알 수 있다.

(404) axının ugəjə əmun **xətə** əʃin ʤaanʤıra.
哥哥 话 一 没 说
哥哥连一句话也没说。
(형은 말을 하나도 안 했다. → 형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405) buu ılanEE ʊxʊndʊ **xata** təəʃumun.
我们 仨 什么 忍耐
我们仨无论什么(困难)都能克服。
(우리 셋은 뭐**든지** 이겨낼 수 있다.)

[호이] - <간지:104>

호이 방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형동사 뒤에 사용된 예도 나타난다.

(406) iittü jinji-saa-**xat** asir aasin.
how talk-PST-**yet** merit no
Whatever (one) says, it is no use.

[호이] - 朝克·津曲敏郎·風間伸次郎(1991:63)/Tsumagari (2009:17)[151)]

[2] ba

ba는 문말 어기첨사이며, 아래의 예들에서는 한국어의 '-지'로 번역되었다.

(407) ɔɔn[n]=kəd bait-i aačin=**ba**?
what.kind.of=PART matter-INACC none=**PART**
별일 없으시**지**요? / 没有别的什么事儿吧？

(408) sii tiinu xuetang-d ədəŋ gən(-n)-si=**ba**?
you.SG yesterday school-DATL NEG.PST go-INF-2SG=PART
너는 어제 학교에 안 갔**지**? / 你昨天没去学校吧？

ba는 호이 방언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Tsumagari (2009:15)에서는 baa가 중국어 吧 *ba*에서 왔으며 확인(confirmation)을 나타낸다고 했고, <간지:107>에서는 추측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3] jimə

jimə는 문말 어기첨사이며, 의문대명사와 함께 사용되었을 때는 강조를 나타낸다.

(409) asi-ji iləə gən-čəə=jimə?
wife-1SG.POSS where go-PST=PART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아내가 어디로 갔을까?)

風間伸次郎(2010)에 의하면 jəmə는 몽골어에서 온 것이다. 風間伸次郎(2010:173)에서는 의문문과 감탄문에서 의문사와 함께 사용된 jəəm~jəməə

151) 朝克·津曲敏郎·風間伸次郎(1991)의 예문을 Tsumagari (2009)의 체계대로 전자, 분석 및 번역한 것을 인용하였다.

의 예들을 들어 보이면서 일본어 のだ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152] Tsumagari (2009:15)는 설명 의문문에 일부 강조 첨사(emphatic particles)가 사용된다고 하였다.

(410) eri si oxon yeeme?
this TOP what PART (TOP=topic particle)
'What is this?'
[호이] 朝克·津曲敏郎·風間伸次郎(1991:72)/Tsumagari (2009:15)

[4] jimə=gu

다음의 두 예에서 문말의 의문첨사 -jə 등이 기대되는 자리에 jimugu가 나타나는데, 이는 위에서 본 어기첨사 jimə와 의문첨사 gu가 합쳐진 것으로 생각된다.

(411) sin-əŋ taiti-si məŋgəl-diki əm-čəə=jimu=gu),
you.SG-GEN grandmother-2SG.POSS mongol-ABL come-PTCP.PST=PART=Q
lwaači-diki əm-čəə=imugu(imu=gu)?
Russia-ABL come-PTCP.PST-REFL-PART=Q?
너의 할머니는 몽골에서 오셨니, 러시아에서 오셨니?

(412) taiti, sii lwaači-diki əm-čəə-si=(ji)mu=gu,
grandmother you.SG Russia-ABL come-PST-2SG=PART=PART=Q)
məŋgəl-diki əm-čəə-si=(i)mugu(imu=gu)?
mongol-ABL come-PST-2SG=PART=Q
할머니, 할머니는(당신은) 러시아에서 오셨나요, 몽골에서 오셨나요?

(412)에서는 2인칭표지 -si 뒤에서 jimə의 첫 음절이 들리지 않았다. 그

152) 일본어의 のだ가 항상 '-것이다'로 번역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비슷한 뉘앙스로 약간의 강조된 어기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리고 gu[ɣu]의 g가 모음 사이에서 탈락하거나 어말 모음이 ə로 약화되어 실제로는 거의 imuu~imuə~imməə처럼 발음되기도 한다. jimu의 뒤에 결합한 gu는 호이 방언의 의문첨사 gu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간지:109>에 의하면 -guu는 동사 어간말 모음을 동화시킨다. 아래의 예에서는 1인칭단수 비과거 어미 -mi가 guu와 결합하며 buu-mi[mu]=guu, əsi-mi[mu]=guu가 되었다.

(413) bii buumu(<i)guu? əʃimu(<i)guu?
我 给 好呢 不
我给好呢? 还是不给好呢? [호이] - <간지:109>
(내가 줄까? 말까?)

싱왕 방언에서도 마찬가지로 gu가 앞의 모음을 동화시킨 것이다. 호이 방언에서도 의문사 gu 앞에 어기를 나타내는 jəmə를 함께 사용할 때가 있다고 한다. <간지:110>에서 어기를 강화하기 위해 문말 어기사 등을 연용하여 사용하는 예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제시한 바 있다.

(414) ʃii ʤaanʤındı jəmə guu, əʃindi jəmə guu?
你 说 不
你说呢，还是不说? [호이] - <간지:110>
(너 말을 할 거야, 말 거야?)

5. 통사론적 특징

Tsumagari (2009:12)에서 솔론어의 문장 구조에 대해 간단히 기술한 바로는 솔론어의 어순은 기본적으로 SOV순이며,[1] 서술어는 보통 문말에 위치하지만 단독으로도 온전한 문장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봐 온 예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싱왕 방언의 기본 통사 구조는 호이 방언과 동일하므로, 다음에서는 싱왕 방언에서 다른 방언과 달리 나타나는 특징들을 위주로 살펴보겠다. 먼저 보조동사 구문에 있어서 싱왕 방언에 주로 어떠한 보조 동사 구문들이 나타나며 다른 방언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의문문과 부정문에 대해 다룬다. 특히 싱왕 방언 자료에서는 주로 호이 방언을 대상으로 한 기존 문법서들에서 기술하고 있는 표준적인 문장 구성이나 현상과는 달리 나타나는 예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부정문 구성과 인칭 불일치 현상과 관련된 예들에 대해서 각각 고찰해 보겠다.

5.1. 보조동사 구문으로 표현되는 상과 양태

솔론어에서는 조동사를 사용하여 완료, 진행, 시도, 허락 등 여러 의미를 통사적 구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몽골어 등 다른 언어들과 비교하면 그 종류가 많은 편은 아니며, 거의 모두 2차적으로 발달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바로 다음에서 살펴 볼 '있다' 보조동사 구문이 표현하는 진행상의 경우 Baek (2017)에 따르면 I 그룹 퉁구스 언어[2] 중 러시아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어웡키어 등)에는 보조용언을 이용한 표현이

---

1) 물론 교착어이므로 어순은 비교적 자유롭게 바꾸어 말할 수 있다.

2) Ikegami (1974)을 바탕으로 風間伸次郎(1996) 등을 반영하여 보완한 계통적 분류를 따른 것이다.

존재하지 않고 접사(미완료의 *-jA)로 같은 의미를 나타내지만, 중국 지역에서 사용되는 오로챈어와 솔론어에서는 접사와 부동사 구문을 이용한 표현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솔론어와 오로챈어의 주변 언어인 허전어와 만주어에서는 해당 접사가 없고 부동사 구문으로만 표현한다고 한다.

風間伸次郎(2021:134)에서도 퉁구스 언어들이 본래 보조동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긴 세월 몽골어 및 다고르어와의 접촉을 해 온 솔론어와 시버어는 몽골어 계통의 언어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보조동사를 발달시켰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몽골어보다 다고르어의 보조동사 분포와 비슷한 현황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5.1.1. 상

5.1.1.1. -m bi- (진행 및 상태지속)

솔론어에서 bi/bisi-는 본동사일 때 '있다, -이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1) ǰuu-d[di]-si adi bəi bisi-n?
house-DATL-2SG how.many person be.NPST-3
집에 몇 식구가(사람) 있습니까?

(2) Mandi nɔɔrm səb bidəŋ.
Mandi before teacher be.PST
만디는 선생이었다.

bi-가 접속어미 -m와 함께 보조동사로 기능할 때에는 선행 동사의 진행상을 표현한다. 아래는 사마지에 방언의 예이다.

(3) bi　　əsi　　bitigi　　isi-m　　bi-ǰi-mi.
I　　now　　book　　see-CVB　　be-PROG-1SG
나는 지금 책을 읽고 있다.　　[사마지에] - 성백인 외(2010:152)

위의 예에서는 보조동사로 쓰인 bi-의 뒤에 진행을 나타내는 -ǰi-가 다시 결합한 -m bi-ǰi-로 형태로 나타났는데, 사마지에 방언의 과거 진행상과 미래 진행상에는 '-ǰi-'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m bi-만으로도 진행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4) bi　　uldi　　ǰi-m　　bi-su.
I　　meat　　eat-CVB　　be-PST
나는 고기를 먹고 있었다.　　[사마지에][3] - 권재일·김주원(2000:28)

(5) bi　　tima:sin　　ərə　　ərən-də　　uldi　　ǰi-m　　bi-ǰigu.
I　　tomorrow　　this　　time-DATL　　meat　　eat-CVB　　be-FUT
나는 내일 이 때 고기를 먹고 있을 것이다.
[사마지에] - 권재일·김주원(2000:29)

싱왕 방언에서도 이렇게 -m 뒤에 '있다'의 bi-를 사용하여 선행동사의 진행상을 나타내는 예들이 나타나는데, 싱왕 방언에서는 일반적으로 bi-의 뒤에 진행의 -ǰi-가 결합하지 않은 -m bisi- 형태로 나타났다. 위의 사마지에 방언의 (3)과 같은 문장은 싱왕 방언에서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6) bii　　əsi　　ǰəŋ(<zheng)　　bitəg-i　　ičі-m　　(bi)si-mi.　(ičі-msi-mi)
I　　now　　just(正)　　book-INACC　　look-CVB　　be-NPST.1SG

3) 원문의 전사를 그대로 옮겼으며, 문법 분석은 직접 하였다. 아래의 (5)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지금 책을 읽고 있다.

(7) sii əsi xasi bitəg-i iči-m (bi)si-ni=jə? (iči-msi-ni=jə)
you.SG now yet(还是) book-INACC look-CVB be-NPST.2SG=Q
너는 지금 책을 읽고 있느냐?

(8) tar əsi ǰəŋ bitəg-i iči-ǰi-rən.
he now just book-INACC look-PROG-NPST.3
그는 지금 책을 읽고 있다.

위에서 -m bisi-를 사용한 1, 2인칭 주어 문장의 예와 -ǰi-를 사용한 3인칭 주어 문장의 예를 비교해 보면, 싱왕 방언에서는 -m bisi- 자체가 의미적으로 -ǰi로 대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4] 다음의 예 역시 같은 것을 보여준다.

(9) a. sinu dawʊ *mafan*-lə-m (b~m)isi-n.
you.SG.ACC very bother(麻烦)-VBLZ-CVB be.NPST-3

b. sinu dawʊ *mafan*-l-ǰi-r(ən).
you.SG.ACC very bother-PROG-NPST.3
당신에게 많이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본 (6, 7)에서 -m으로 연결된 두 단어를 붙여서 매우 빠르게 발음하면서 bisi-의 발음이 약화되어 ičimsim 정도로 들리는데, 싱왕 방언의 자료에는 이런 식으로 발음되는 예가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났다. 즉, 아래의 예들과 같이 연결어미로 연결된 두 단어를 매우 빠르게 붙여

[4] 다만 4.6.2에서 언급했듯이, 싱왕 방언에서 접사 -ǰi-를 사용하여 진행상을 나타낸 문장은 대부분 3인칭의 경우에 국한되므로 -m bisi-보다 사용이 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 발음하면서 [-m bisi-m]에서 자음이(b/m) 하나 줄어든 발음이거나 [ǰimbisim>ǰimisim], 거기에서 모음도(i) 하나 더 줄어든 발음으로 발화된다[ičimbisim>ičimsim].

(10) bii əsi ǰəŋ ǰəət-i [ǰi-misi-m]. (< ǰi-m bisi-m)
I now just meal-INACC eat-CVB be-NPST.1SG
나는 지금 딱 밥을 먹고 있다.

bii əsi ǰəŋ bitg-i [iči-msi-m]. (< iči-m bisi-m)
I now just book-INACC look-CVB be-NPST.1SG
나는 지금 딱 책을 읽고 있다.

아래와 같이 bi-가 제대로 발음되는 문장도 발견되므로, 싱왕 방언에서 -m buu와 같은 다른 보조동사 구성도 축약된 발음으로 발음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같은 구성의 문장이며 축약하여 발음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5)]

(11) tadui (bii) agdə-m bisi-mi.
so (I) happy-CVB be-NPST.1SG
그래서 그렇게 기쁘시군요.

(12) əsi ǰəŋ bii nisikəəkən ɔləŋkɔ/kəudi/ ɔɔ-m bisi-m.
now just(正) I small pocket make-CVB be-1SG.NPST
작은 주머니를 만들고 있습니다.

---

5) mb가 붙어서 발음되면서 mb인지 mb>mm으로 동화된 발음인지 개별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예도 있으나, b가 조금 약하더라도 mb로 발음되는 예와 완전히 m으로 축약된 발음이 모두 존재하므로 원래의 -m bisi-에서 동화와 탈락 현상이 수의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은 확실하며 그 중간 단계의 발음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13) bii tiinu ga-čaa bitəgi-ji ǰəŋ(<zheng) tuurə-m bisi-mi./m
I yesterday buy-PST book-REFL just(正) read-CVB be-NPST.1SG
나는 어제 산 책을 읽고 있다. G233

이렇게 볼 경우 의미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bi의 자음 혹은 bi가 통째로 탈락한 것처럼 보여 이상하지만,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화자가 의미상 긴밀한 연결을 맺고 있는 이 부분을 하나의 연결체처럼 생각하여 발화하게 되면서, 보조동사로 쓰인 bi-의 자음이 b>m으로 동화되어, mb가 mm으로 변했을 것이다(m과 s 사이의 i는 수의적으로 탈락). [-m bisi-m → m misi-m/m msi-m] 그리고 장자음이 된 mm은 싱왕 방언에서 수의적으로 짧게 발음될 수 있다. [-misi-m/-msi-m] 위에서 살펴 본 싱왕 방언의 여러 음운특징과 현상들을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있다' 보조동사 구문이 -m bisi-에서 지금과 같은 -misi-~-msi- 형태로 문법화 한 과정을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다.

한편 호이 방언과 사마지에 방언 등에서는 bi-가 상태지속상도 나타내는데, 이때 접속어미는 -tən을 취하여 진행상과는 구분된다.

(14) a. si ʊnti titi-m bi-si-n.
you shoes put.on-CVB be-PRES-2SG
너는 신발을 신고 있다. (진행: 신는 중)
b. bi ʊnti titi-tən bi-si-n.
I shoes put.on-CVB be-PRES-1SG
나는 신발을 이미 신고 있다. (상태지속: 신고 있는 상태)
[사마지에] - 성백인 외(2010:155)

하지만 싱왕 방언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연결어미를 관찰하기 어려웠다.

(15) sii ǰeŋ(<*zheng*) aagʊn-mi tət-m (bi)si-ni. (tət-msi-ni)[6]
you.SG just(正) hat-REFL wear-CVB be-NPST.2SG
너는 모자를 쓰고 있다.

(16) bii Xingwang-də bi-misi-mi/-m. (< bi-m bisi-mi)
I Xingwang-DATL be-PROG'-NPST.1SG (< be-CVB be.1SG)
저는 지금 싱왕에 살고 있습니다.

한어 원어민 화자에 의하면 아래 (17)의 질문인 您从哪儿来는 문장 끝에 的가 있으면 확실히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뜻이지만, 없으면 '어디에서 왔느냐' 또는 '어디에서 출발할 것이냐'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둘라르 방언 자료에서 같은 질문에 ilə-k əm-čəə-si [where-ABL come-PST-2SG] '(당신은) 어디에서 왔느냐'로 대답했고, 싱왕 방언의 같은 从~来 문형의 질문인 (18) 역시 '몽골에서'를 '한국에서'로 고쳐 물었을 때에는(19) əm-čii '(나는) 왔다'로 대답했으므로 이 경우에도 이미 와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상태지속상의 의미로 ə-(m)misi-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

(17) sii ilə-k əm-misi-ni? (< ə(m)-m bisi-ni)
you.SG where-ABL (come-CVB be-NPST.2SG)
어디에서 오는 길입니까? (您从哪儿来？)

(18) bii məŋgəl-diki əm-m misi-m. (bisi-m)
I mongol-ABL come-CVB be-NPST.1SG
나는 몽골에서 왔다. (我从蒙古来)

---

6) '나는'으로 대답한 것은 tətə-msi-m(쓰고 있다)으로도, tət-čii(썼다)로도 답변했다.

(19) bii *Chaoxian*-diki əm-čii.
I Korea(朝鲜)-ABL come-PST.1SG
나는 한국에서 왔다 (我从朝鲜来)

아래는 지금 학교에 가고 있는 동작이 진행되는 중이냐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학교에 가고 있느냐는 습관상(habitual aspect)의 의미로 쓰인 문장이다.

(20) *xuetang*-də/n ulə-m bisi-ni=jə? (ulə-msi-ni=jə?)
school-DATL go-CVB be-NPST.2SG=Q
학교에 다니고 있니? (질문: 너는 학생이니?)

한편, bi까지 탈락한 것으로 보이는 예도 있었다. 다음 두 문장은 여러 번 말하면서 bisi-와 si-를 번갈아 말하였다. a는 총 6회 중 첫 2회, b는 4번 중 3번 si-로 말했는데, si-가 다른 접사일 가능성도 있지만 -čəə 뒤에 출현했고 bisi-와 계속 번갈아 말한 것으로 보아 우선은 bisi-에서 bi가 탈락한 형태로 보았다.

(21) a. bii ǰɔɔnə-mi, aba-ji əmgi-čəə
I think-1SG father-1SG.POSS come.back-PST
si-ki-ni/bisi-ki-ni ai bidəŋi./bidəŋ.
be-COND-3POSS good be.PST-1SG

b. bii ǰɔɔnə-r-də aba-ji əm-čəə
I think-PTCP.NPST-DATL father-1SG.POSS come-PST
si-ki-ni/bisi-ki-ni ai bidəŋi./bidəŋ.
be-COND-3POSS good be.PST
나는 "아버지께서 오시면 좋을텐데…"라고 생각했다.

5.1.1.2. -m man- (완결)

man-는 본동사로 ‘끝내다, 마치다’이지만, 싱왕 방언의 문법과 회화 조사 자료에 본동사로 사용된 예는 나타나지 않고 모두 보조동사 -m man- 구문에 사용된 예만 나타났다.[7]

(22) ər inig ər ull-u/uld-u bɔləgɔ ǰi-m man-nan.
this day this meat-ACC all eat-CVB finish-NPST.3
오늘 안에 이 고기를 다 먹어치운다.[8]

(23) sii jalin inig-ŋ dɔɔlə-ni
you.SG three day-GEN inside-3POSS
ər bitəg-u *yiding* ičі-m man-ni.
this book-ACC surely(一定) look-CVB finish-NPST.2SG
너는 사흘 안에 이 책을 다 읽는다.

(24) əmrə dɔɔ dɔɔl-čaa, čaŋne-m man-k.
once song sing-PST sing-CVB finish-IMP
기왕(한 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으면(시작했다), 끝까지 불러라.

싱왕 방언에서 ‘끝내다’의 뜻으로 쓰이는 단어와 그것을 이용한 보조동사 구문은 호이 방언과 차이가 있다. 호이 방언에서는 바로 다음의 5.1.2.1에서 다룰 ‘할 수 있다’의 ətə-가 ‘끝내다’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기를 마치다’의 의미로 일반적으로 -m ətə- 보조동사 구

---

7) 어휘 조사에서는 ‘마치다(終/結束)’와 ‘끝나다(完/结束)’에 대해 모두 man-čaa로 답했다. <어한사전>에는 타동사 manaraŋ, 자동사(소진되다, 소모되다)는 manɵraŋ으로 등재되어 있다.

8) 이 예문과 다음의 예문의 원래 질문은 “오늘 안에 이 고기를 다 먹어치워야 한다”, “너는 사흘 안에 이 책을 다 읽어야 한다”였으나, 자료제공인의 발화에는 ‘당위’나 ‘의무’에 해당하는 ‘-야 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다. 4.3 각주 (71) 참조.

문이 사용된다. 칼리나(2015:85)에서는 -m ətə-의 의미가 한국어의 '다 -했다, 다 -됐다, 다 끝냈다'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다음은 호이 방언의 -m ətə-의 예이다.

(25) ugii-m ətə-suu.
play-CVB finish-1SG.PST
다 놀았다.

(26) si ji-m ətə-səə-si gi?
you eat-CVB finish-PST-2SG Q
당신은 다 먹었느냐? (你吃好了吗?/你吃飽了吗?)

(27) bi əkki-wi titə-m ətə-suu.
I pants-SG.REFL wear-CONV finish-1SG.PAST
나는 내 바지를 다 입었다. [호이] -칼리나(2015:86)

칼리나(2015:86)에 의하면 호이 방언에서 -m mana-는 먹거나 사용해서 소진하거나 망가뜨린다는 의미에 가까운 '다 -하다, -어 버리다'의 의미로 사용된다.[9] 그리고 -m보다는 호이 방언에서 사용되는 계기관계의 부동사 -či/čči(원문에서 -cci로 표기)와 결합한 구문의 사용 빈도가 더 높다고 한다.[10] 다음은 칼리나(2019:87)에 제시된 -m mana-와 -či mana-의 예들인데, 모두 대상물이 소비되거나 망가져서 없어진 경우이며, 이러한 의미가 man-의 뜻풀이 disappear에 반영되어 있다.

---

9) '끝내다'의 3인칭 비과거형이 호이 방언에서는 mana-ran, 싱왕 방언에서는 man-nan으로 나타난다. 4.6.5.2 참조.

10) 칼리나(2019)는 -m mana-는 소비를 뜻하는 ǰittə-n '먹다'나 ima-ran '마시다' 등에 자연스럽게 어울려 쓰일 수 있으나((29), (32)에서 '돈을 다 쓰다', '바지가 해지다'의 예도 확인된다.) 다른 동사들은 -čči mana- 구문에만 쓰이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čči mana- 구문과 어울려 사용되는 동사들에 대해서는 칼리나(2019:87) 참조.

(28) satan-bi ji-m man-cuu.
candy-SG.REFL eat-CVB disappear-1SG.PST
내 사탕을 다 먹었다. / 다 먹어버렸다.

(29) si mugun-bi xərləə-m man-caa-si.
you money-SG.REFL use-CVB disappear-PST-2SG.
당신은 자신의 돈을 다 써 버렸다.

(30) aba xonin-bi uunii-cci man-caa.
father sheep-SG.REFL sell-CVB disappear-3SG.PST
아버지는 자신의 양을 다 팔아 버렸다./다 팔았다.

(31) Mandi təggən-bi əddə-cci man-caa.
Mandi car-SG.REFL break-CVB disappear-3SG.PST
만디는 차를 다 망가뜨렸다

(32) əkki-wi titə-m mana-ndi.
pants-SG.REFL wear-CVB disappear-2SG.
당신은 바지를 해질 때까지 입는다.

먼저 보았던 -m ətə- 구문과 비교하면, (26)의 ji-m ətə-는 '식사를 마치다(배가 차게 먹다)'를 의미하는 '다 먹다'이고, (28)의 ji-m man-은 '(사탕을) 모두 먹다'의 의미이다. 그리고 (27)의 titə-m ətə-는 (바지를) '다 입다(입는 동작을 완결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32)의 titə-m mana-는 '(바지를) 입어서 다 헤지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먼저 들었던 싱왕 방언의 예들을 다시 보면, (22)는 호이 방언에서 -m mana-가 사용된 예와 같이 고기를 모두 먹어서 소비한 경우이지만, (23)과 (24)는 책을 끝까지 읽거나 노래를 끝까지 부른다는 의미이므로 대상이 소진되었거나 망가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일을 완결한다는 의미

이므로 오히려 호이 방언의 (25) ugii-m ətə- '다 놀다'에 가까운 경우이다. 아래에 든 예 중 (34) uji-m man- '말을 매어 두다' 역시 더더욱 소진의 의미로 보기 어렵고, 말을 매는 동작이 끝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즉 싱왕 방언의 -m man- 구문은 호이 방언에서의 -m mana-가 사용되는 의미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호이 방언에서 -m ətə-가 담당하는 의미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를 가진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호이 방언에서는 man-과 선행 동사를 연결할 때 부동사 -m 말고도 -či가 사용되는데, 싱왕 방언에서는 계기 관계의 부동사로 호이 방언에서 쓰이는 -či 대신 -na(/nan)가 사용된다. 하지만 선행 동사와는 -m으로만 연결한다. 그리고 -man- 뒤에 다시 -na를 연결하여 -m man-nan/na '(다) 하고 나서' 구문으로도 사용한다.

(33) bii ǰəəti-i ǰi-m man-nan/na xuetang-də gən-čii.
I meal-INACC eat-CVB finish-CVB shcool-DAT go-PST.1SG
나는 밥을 다 먹고 학교에 갔다.

(34) mərin-mi uji-m man-na (jaaxʊn) alkʊ-m gən-nən.
horse-REFL tie-CVB finish-CVB (on.foot) walk-CVB go-NPST.3
말을 매어 두고 걸어서 갑시다!

(35) Mandi čaŋ(<*chang*)-nə-(m) man-nan *tiaowu*-l-čaa.
Mandu song(唱)-VBLZ-CVB finish-CVB dance-VBLZ-PST
만디는 노래를 부르고 나서 춤을 추었다.

사마지에 방언은 성백인 외(2010)에서 제시한 보조동사 구문에 -m man(a)-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ətə-는 성백인 외(2010:160)에서 능력 양태로 다룬 예만 나타나 '끝내다'에 해당하는 보조동사 구문을 확인할 수 없다. 다음은 둘라르 회화 자료에서 나타난 예이다.

(36) ǰəətti ɔɔ-m man-čaa.
meal do-CVB finish-PST
밥 다 했습니다 [둘라르B]

白尚燁(2018:62)에 의하면 '완결'을 나타내는 보조동사는 모든 퉁구스 제어에서 용례가 발견된다고 하며, 어웡키어의 예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37) nuŋartyn ətədə-rə-∅ taŋdja-mii.
they finish-N.FUT-3PL read-COND.CVB
「彼らは読み終わった」
그들은 다 마셨다. (마시기를 마쳤다)[11]
[어웡키어] - Boldyrev (1994:165)/白尚燁(2018:62)

싱왕 방언에서 -m ətə-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지, 자료에만 우연히 나타나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위에서 싱왕 방언의 -m man-의 용례를 살펴본 결과 알 수 있었듯이, -m ətə-가 나타나는 다른 방언들에 비해 싱왕 방언의 -m man-의 의미역이 확대되어 기존에 -m ətə-가 사용되던 표현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m ətə-의 사용이 줄어들어갔을 것이다.

5.1.2. 양태

다음의 여러 가지 보조 동사 구문으로 표현되는 의미 중 '할 수 있다'(가능)와 '되다(허락)'는 전형적인 양태의 예라고 할 수 있으나, '주다, 보

11) 한국어 번역은 필자가 직접 번역하여 추가하였다.

다, 얻다' 등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미뤄 두고 성백인 외(2010)에서 이것들을 솔론어 보조동사 구문에 의해 실현되는 양태로 기술한 것을 따라서 양태에서 다루기로 한다.

5.1.2.1. -m ətə- (가능)

ətə-는 본동사로 사용된 예는 나타나지 않았고, '할 수 있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동사 구문 -m ətə-로만 사용되었다.

(38) a. bii bitəg-i saa-čii.
I literacy-INACC know-2SG.PST /know-NPST.3
나는 책을 읽을 수 있다. (나는 글을 깨쳤다.)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의미'의 '我能读书'라고 설명을 덧붙인 경우)

b. bii bitəg-i tuurə-m ətə-mi./m.
I book-INACC read-CVB able-1SG
나는 책을 읽을 수 있다.
('我能读书'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고 다시 질문)

위 (427)의 a는 먼저 '글자를 안다는 의미'라고 부가설명을 하였고, 두 번째는 단순히 '나는 책을 읽을 수 있다'를 어떻게 말하느냐고 다시 질문한 것이다. a와 같이 부가설명을 했을 경우에는 '글을 깨치다'라는 의미가 두드러지도록 직역했지만, 일반적으로 b와 같이만 말해도 a의 '능력'의 의미를 뜻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싱왕 방언 자료에서 -m ətə 구문은 부정형으로 쓰인 예가 많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9) a. ərinig gənə-m əsə(n) ətə-rə.
today go-CVB NEG able-INF
오늘은 못 갑니다.

b. idaa gənə-m əsə(n) ətə-rə?
why go-CVB NEG able-INF
왜 못 갑니까?

(40) ǰi-m əsə(n) ətə-rə.
eat-CVB NEG able-INF
식욕이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5.1.1.2에서 언급했듯이 호이 방언에서는 -m ətə-가 '할 수 있다'와 '끝내다'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칼리나(2015:85)는 '할 수 있다'와 같은 능력을 나타낼 경우에는 비과거 시제만 선호되고 '끝내다'와 같은 동작의 종결을 나타낼 경우에는 과거 시제만 쓰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12)]

(41) si ər sorgol-du ii-m ətə-jigə-si.
you this school-DATL enter-CVB can-PRESUM[13)]-2SG
당신은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겠다.

[호이] - 칼리나(2015:82)

성백인 외(2010:160)에 의하면 사마지에 방언에서 역시 ətə-는 본동사로 사용되지 않고 주로 보조동사로만 기능한다.

---

12) 칼리나(2015:85)에서는 '끝내다'의 의미로 쓰이는 -m ətə-는 종결상, -m mana-는 결과상으로 다루고 있다.

13) 칼리나(2015)에 '할 수 있다'의 의미로 쓰인 ətə-의 용례는 따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ǰugu/ǰəgə의 예로 쓰인 문장을 참고로 제시한다. 칼리나(2015:81)는 -ǰugu/ǰəgə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보다 '추측, 능력, 계획' 등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보고 PRESM(presumptive)로 분석하였다.

(42) bi uli-m ətə-mi.
I go-CVB can-1SG
나는 갈 수 있다.

(43) bi bitigi əərə-m ətə-mi.
I book read-CVB can-1SG
나는 책을 읽을 수 있다.

(44) tar bəjə bitigi əərə-m əsi(n) ətə-rə.
(s)he book read-CVB NEG can-1SG
그 사람은 책을 읽을 수 없다. [사마지에] -성백인 외(2010:160)

5.1.1.2에서 '끝내다'의 의미로 쓰이는 ətə- 부동사 구문은 어웡키어에도 있음을 白尚燁(2018:62)의 예를 통해 보인 바 있다. 白尚燁(2018)에서는 여러 보조동사 용법이 퉁구스 언어들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리하였는데, 가능과 관련된 '가능 보조동사'로는 *alba- '할 수 없다', *mutə- '할 수 있다', *ulxi- '이해하다', *baka/bahana- '얻다/알다', *o- '되다' 등 다섯 가지를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어웡키어에는 솔론어와 같은 가능을 나타내는 보조동사 구문 대신 불가능을 나타내는 *alba- 구문이 사용된다고 한다. Bulatova & Grenoble (1992:39)의 예를 白尚燁(2018:65)에서 조금 수정한 것으로 재인용하여 보인다.

(45) bii tokii-wa taala-duu **alba-m** **alaat-ča-mii**.
I moose-ACC salt.lick-DAT be.unable-lSG wait-IPFV-COND.CVB
「私は（ムースが）塩をなめるところでムースを待てなかった」
나는 마록을 소금 핥는 곳에서 기다릴 수 없었다.
[어웡키] - Bulatova & Grenoble (1992:39)/白尚燁(2018:65)

白尚燁(2018)을 참고하면 이상에서 살펴 본 보조용언 구문 중에 bi- '있다', buu- '주다', ɔɔ- '되다', ači- '보다', bak(a)- '얻다', ətə- '할 수 있다' 등의 부동사 구문은 어웡키어를 포함한 러시아 지역의 그룹 I 퉁구스 언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유일하게 어웡키어와 솔론어에서 겹치는 것은 '끝내다'의 ətə- 부동사 구문인데, 이것은 싱왕 방언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m man- 구문으로 대체된 예들이 나타났다.

5.1.2.2. -m ɔɔ- (허락)

본동사의 ɔɔ-는 '되다'의 뜻을 가진다.

(46) bii čwaga-ŋ[m] bəi ɔɔ-čii.
I army-GEN person become-PST.1SG
나는 군인이 되었다.

ɔɔ는 -m과 함께 보조동사로 쓰일 경우에는 허락을 의미한다.

(47) a. ə-du damga im-m[14] ɔɔdɔn.
this-DATL tobacco smoke-CVB ok

b. ələ damga im-r ɔɔdɔn. / im-m ɔɔdɔn.
here tobacco smoke-PTCP.NPST ok smoke-CVB ok
여기서 담배를 피워도 됩니다.

[14] im-m의 어말 mm은 선행 모음 i와 후행 단어의 어두 모음 ɔɔ 사이에서 장자음 mm으로 발음되었다. 즉 같은 문장의 damga, (47b)의 im-r, (48-50)의 -m 등의 m과 비교했을 때 이들보다 약 2배가량 길게 발음되었다.

(48) ələ/ədu ǰəət-i ǰi-m /[ǰəətim] ɔɔdɔn.
here meal-INACC eat-CVB ok
여기서 밥을 먹어도 된다.

(49) əsi sii ul-m ɔɔdɔn.
now you.SG go-CVB ok
너는 이제 가도 된다.

(50) ələ aasə-m ɔɔdɔn.
here sleep-CVB ok
여기서 자도 됩니다.

위의 예들은 '해도 좋다'의 의미인데, 아래와 같이 '-면 좋겠다' 정도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51) sii jii im-m ɔɔdɔn?
you.SG what drink-CVB ok?
무엇을 마시겠습니까? (무엇을 마시면 좋겠습니까?)

5.1.2.3. -m buu- (시혜)

솔론어에서 본동사로 사용할 때 buu-는 '주다'의 의미를 갖는다.

(52) aba-ji min-du dawʊ ai ǰaka buu-čəə.
father-1SG.POSS I-DATL very good thing give-PST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매우 좋은 선물(물건)을 주셨다.

buu-는 접속어미 -m과 함께 쓰여서 선행 동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베풀어 준다는 양태를 실현하는 보조동사로 기능한다. 아래는 사마지에 방언

의 예이다.

(53) bi ənindi bitig ərə-m bu:-su.
나는 어머니에게 책을 읽어 주었다. [사마지에] -권재일·김주원(2000)

이와 똑같은 문장이 싱왕 방언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기본적으로는 사마지에 문장과 똑같이 접속어미와 -buu의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m buu-가 -muu로 바뀌어 나타났는데, 이는 접속어미의 -m에 의해 순행동화가 일어난 후 mm이 m으로 축약된 것으로 보인다.

(54) bii məəmə-d-i bitəg-i tuurə-m (m)uu-čii.
I mother-DATL-1SG.POSS book-INACC read-CVB give-PST.1SG
나는 어머니께 책을 읽어 드렸다.

아래에 두 개의 예를 더 들어 보인다. 아래의 (56)은 mm이 축약되지 않고 발음되었으며, (55)에서는 m~mm 두 가지로 발음되었다.

(55) bii səb-d-i ail-əŋ bait-ma-ni/ni
I techer-DATL-REFL town-GEN matter-ACC-3POSS
ulukčəə-(m)/-m m(<b)uu-čii. (ulukčəə-muu-čii/ ulukčəə-mmuu-čii)
speak-CVB give-PST.1SG
나는 선생님께 우리 마을에 관한 일을 이야기해 드렸다.

(56) məəmə-ji nisikʊkʊl-də utkai učilə-mmuu-čəə.
mother-REFL child-DATL just sing-CVB give-PST
어머니가 아이에게 (아이를 위해) 자장가를 불러 주셨다.

(57) bii ugən gana-muu-čii, amta-gari.
I snack bring-give-1SG.PST tast-HORT
내가 과자를 사 왔습니다. (사 주었습니다.) 먹어 보세요.

위의 예들에서 tuurə-muu-čii와 gana-muu-čii는 각각 tuurə-m muu-čii와 gana-m muu-čii가 줄어든 형태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m은 수의적으로 짧게 발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의 세 문장 중 첫 번째 문장은 처음에는 m 하나로 발화되었다가 또박또박 의식적으로 발화할 때는 장자음으로 발화했다.[15] 그러나 아무리 또박또박 발음을 한다 하더라도 muu-가 본동사 '주다'의 원래 형태인 'buu-'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으며, 항상 m으로만 나타났다. 본동사인 buu-는 단어 경계에서 이러한 동화를 겪지 않으며, 같은 보조용언 구성 중 '어떠한 행동의 결과로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얻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manda-m bak-čaa의 bak- 역시 m으로 동화되지 않는다. -m buu-는 음운 축약을 통해 연결어미와 보조동사로 어울려 나타나는 단계에서 접사에 가까운 방향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간 문법화 과정을 겪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한편, 호이 방언에서도 -해 주다'의 뜻을 가지는 -m buu 표현은 축약된 형태로도 나타나는데, Tsumagari (2009:10)에서 irda-mi büü-xe [comb-COOR give-IMP.2s]와 함께 축약된 형태로 Poppe (1931:123)의 irda-mbuux를 함께 인용하였다(ü=/u/, u=/ʊ/). <간지>의 ʃılbaaran 告诉, ʃılbambʊʊran 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축약된 형태의 예들은 '주다'라는 본동사에서 온 원래의 모음을 유지하지 않고 모음조화에 따라 -bʊʊ~buu로 교체되는 일종의 접미사처럼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16]

---

15) 반면 가장 마지막의 (57)은 또박또박 의식적으로 발음할 때에도 4음절로 끊어서 발음하면서 ga.na.muu.cii와 같이 단자음 m으로 발음했다.

16) 칼리나(2019b:3)에도 '주다'가 보조동사로 쓰일 때 앞에 오는 동사 어근의 모음에 따라 [buu/bʊʊ]가 달리 나타난다는 언급과 함께 예를 제시하였다.
a.. ga-m buu-saa-ø. (그가) 사 주었다.
b. əələə-m bʊʊ-səə-ø. (그가) 삶아 주었다/끓여 주었다
c. oo-m buu-soo-ø. (그가) 해 주었다

즉 -m buu-는 호이 방언과 싱왕 방언 모두에서 문법화를 겪었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5.1.2.4. -m ičі- (시도)

ičі-는 '보다'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이며, 솔론어에서도 본동사로 사용될 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과 함께 책을 읽거나 사람을 만난다는 의미의 '보다', 더 나아가서는 말이나 집안의 물건, 손님 등을 돌본다는 넓은 의미로도 사용된다. 다음은 ičі-가 본동사로 사용된 예이다.

(58) bii muu-d ǰagsə-i ičі-m bak-čii / ič-čii.[17)]
I water-DATL fish-INACC look-CVB get-PST.1SG / look-PST.1SG
나는 강에서 물고기를 보았다.

(59) biti jɔɔgilǰi bitəg-i ičі-gər.
we.INCL together book-INACC look-HORT
우리 같이 책을 보자(읽자).

(60) tari guči-ji ičі-r ǰaani ər ail-də əm-čəə.
he friend-REFL look-PTCP.NPST for this town-DTAL come-PST
그는 친구를 만나러 이 마을에 왔다.

(61) juu-ŋ-ji ǰaka-i ajxʊ(n) ičі-rən.
house-GEN-REFL thing-INACC well look-NPST.3
집안도 여기저기 살펴보아야겠지요.(살펴본다)

ičі-는 -m으로 선행동사와 연결했을 때에는 시도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

17) ič-čii는 'ič-čii'도 되는지 직접 물어서 가능하다는 대답을 얻은 것이다.

인다.

(62) irkin čimči-i tət-m iči-gər.
new clothes-INACC wear-CVB look-HORT
새 옷을 한번 입어 보세요.

(63) tətə-m iči-kə.
wear-CVB look-IMP
한번 써 보세요.

(64) sii walərin čimč-u tətə-m iči-kə.
you red clothes-ACC wear-CVB look-IMP
이 붉은 색 외투를 한번 입어보세요.

위의 예들은 모두 '시착하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들이기 때문에 입거나 쓴 모습을 '보다'(입어서 보다)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지만, iči- 는 호이 및 다른 방언에서도 역시 시도를 나타내는 보조용언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싱왕 방언에서도 역시 시도를 나타내는 보조 동사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사마지에 방언의 예와 둘라르어 음성 자료에서 확인한 예인데, 둘라르 방언의 예에서 한국어의 '봐 보다'와 같이 iči-가 중첩되어 사용된 예도 찾을 수 있다.

(65) irkin arxi ga-suu, si anta-m isi-xə.
new liquor buy-PST.1SG you taste-CVB see-IMP
새 술을 사 왔습니다. 당신이 맛 보세요. [사마지에] - 성백인 외(2010:159)

(66) gən-nə iči-m iči-gəri.
go-CVB look-CVB look-HORT [둘라르방언B]

가서 (보아) 봅시다.

風間伸次郎(2021:131)에서는 보조동사 분포 표에서 솔론어에는 ‘보다’ 보조동사가 없는 것으로 표시하였는데, 이 표현의 존재를 모른다기보다는 솔론어 고유의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18] ‘보다’ 보조동사 구문은 러시아 지역에서 사용되는 솔론어나 어원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백상엽(2016)과 白尚燁(2018)에서는 계통적으로 가까운 I 그룹에[19] 속하면서도 지역언어학적으로는 남퉁구스어에 속한 솔론어가 주변 언어(특히 몽골어)의 영향을 받아 더 다양한 보조동사를 사용하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5.1.2.5. -m bak-

싱왕 방언 자료에서 ‘얻다, 받다’는 어휘목록 조사에서도 문장 조사에서도 bak-čaa 등 과거형을 사용한 예만 나타났다. 다음은 본동사로 사용된 예이다.

(67) tar mun-duki əmun bitəg bak-čaa.
he we.EXCL-ABL one book get-PST
그는 우리에게서 책을 하나 받았다.

(68) aba-ji buu-čəə ǰak-ma-ni bii bak-čii.
father-1SG.POSS give-PST thing-ACC-3POSS I get-PST.1SG
나의 아버지가 준 선물(물건)을 내가 받았다.

---

18) 風間伸次郎(2010)에서 ‘보다’를 포함한 몇 솔론어의 가지 보조동사의 예를 소개하였지만 기본적으로 퉁구스 언어에는 이러한 보조동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솔론어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몽골어의 영향이라고 보았다.

19) Ikegami (1974)을 바탕으로 風間伸次郎(1996) 등을 반영하여 보완한 계통적 분류를 따른 것이다. 이와 별개로 백상엽(2016) 등의 지역언어학적 연구 논문에서 말하는 북퉁구스어, 동퉁구스어, 남퉁구스어 등은 분포 지역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69) aka-ji ɔktɔ-d ǰiga bak-čaa.
older.brother-1SG.POSS road-DATL money get-PST
나의 형이 길에서 돈을 주웠다(얻었다).

'얻다, 받다'가 보조동사로 사용될 경우의 의미에 대해서 호이 방언과 사마지에 방언의 기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먼저 두 가지 기술과 예를 살펴본 후 싱왕 방언의 예는 어디에 더 가까운지 살펴보겠다. 호이 방언의 경우 칼리나(2015:88)에서는 -m baxa-가 '어떤 기회를 얻다/받다' 혹은 '어떤 목적에 도달하거나 성취하다' 등의 성취감을 나타낼 때 사용되며, 결과상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는 중국어 V到에 해당하는 의미라고 한다.

(70) baran ərdəmə-i tati-m baxa-suu.
many knowledge-INACC learn-CVB get-1SG.PST
많은 지식을 배웠다. / 学到了很多知识。

(71) urillən-du xəəmə-i ji-m baxa-saa-si gi?
the.next.door-DATL meal-INACC eat-CVB get-PST-2SG Q
당신은 남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었느냐? / 你在人家吃到饭了吗?

(72) ɔɔsittɔ-i isi-m baxa-saa-mun.
star-INACC look-CVB get-PST-1PL.EXCL
우리는 별을 보았다. / 我们看到星星了。 [호이] - 칼리나(2015:89)

칼리나(2015)에서는 또한 다음의 동사들을 -m baxa- 구문과 어울려 쓰이는 동사로 제시하였다.

(73) jəələ-rən ‘빌리다’(j=/ǰ/), jittə-n ‘먹다’, ima-ran ‘마시다’, dɔɔldii-rən ‘듣다’, bɔdɔ-rən ‘생각하다’, isi-rən ‘보다’, tati-ran ‘배우다’

[호이] - 칼리나(2015:89)

한편 성백인 외(2010:157)에서는 사마지에 방언에서 사용된 -m bax-가 ‘행위자 자신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다’(수혜자=주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칼리나(2015)의 호이 방언 -m bax- 구문에 대한 설명도 선행 동사를 행한 이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다는 점에서 수혜자라고 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다는 데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성백인 외(2010)에서 기술한 사마지에 방언의 -m bax- 구문은 행동을 하는 이가 수혜를 ‘받을’ 그 자신을 위해 행동을 한다는 ‘행동 목적’에 조금 더 주목하고 있다.

(74) bi sambardtixi irkin bitigi-wu tati-m bax-suu.
I balckboard-ABL new letter-ACC study-CVB taki-PST.1SG
나는 (나를 위하여) 칠판에서 새 단어를 배웠다.

(75) bi moŋgol ug-wu ǰaan anji tati-m bax-suu.
I mongol language-ACC ten year study-CVB take-PST.1SG
나는 (나를 위하여) 몽골어를 10년 공부했다.

(76) bi bəjə-ni əmun utə-wu irgu-m bax-suu.
I man-GEN one child-ACC adopt-CVB take-PST.1SG
나는 (나를 위하여) 남의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사마지에] - 성백인 외(2010:157)

위의 사마지에 방언 예들은 문법 질문지에서 ‘수혜’의 양태를 알아보기 위해 고안된 질문들에 답한 것이다. 싱왕 방언 조사에 사용된 질문지

와 사소한 차이는 있지만[20] 중국어 질문의 기본적인 문형은 거의 같았을 것이다. 싱왕 방언에 사용된 질문지의 중국어 질문을 살펴보면 따로 '나를 위해'에 해당하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아래 싱왕 방언의 중국어 질문 참조), 사마지에 방언으로 번역한 세 문장에는 모두 -m bak- 구문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싱왕 방언에서는 같은 문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m -bak-를 사용하지 않은 표현으로 답하였다.

(77) bii irkin tərəgsə-i/tərəgsə ga-čii.
I new clothes-ACC/clothes buy-PST.1SG
나는 ~~(나를 위해)~~ 새 옷을 샀다. / 我买了新衣服。

(78) bii əŋku ugu tit-čii.
I ewenki language learn-PST.1SG
나는 ~~(나를 위해)~~ 어웡키어를 배웠다. / 我学习了鄂温克语。

(79) bii tar nisikʊʊkʊ-m taagdə-čii.
I that child-ACC adopt-PST.1SG
나는 ~~(나를 위해)~~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 我把他认作我的养子了。

[싱왕]

위 싱왕 방언 자료제공인의 어웡키어 답변에 (나를 위해)라는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은 중국어 질문에 반드시 나를 위한다는 점이 표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의적으로 특정 뉘앙스를 표현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어서 추가로 (77)과 (78)의 중국어 질문에 '나를 위해'에 해당하는 표현 为了自己/为我自己 등을 넣어서 아래와 같이 다시 질문했을 경우에는 -m bak- 대신 아예 '나에게/나

20) 사마지에 방언 조사에 사용한 초기 질문지의 (74)의 질문은 싱왕 방언 조사에 사용한 언어조사질문지 제4판 수정8쇄본에서는 (77)의 질문으로 대체된 듯하다.

를 위해'에 해당하는 표현을 직역하여 답하였다.

(80) bii məən-d-i əmun irkin čimči ga-čii.
I oneself-DATL-REFL one new clothes buy-PST.1SG
나는 나를 위해(나에게) 새 옷을 하나 샀다. / 我为了自己买了新衣服。

(81) bii məən-ŋ-mi ǰaani əŋku ugu tit-čii.
I oneself-GEN-REFL for Ewenki language learn-PST.1SG
나는 나를 위해서 어웡키어를 배웠다. / 我为我自己学习过鄂温克语。 [싱왕]

싱왕 방언 자료에서는 사마지에 방언의 예와 달리 본인이 수혜자가 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m bak- 표현이 나오지 않았으며, '나를 위해'라는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여 질문했을 때에는 직접적으로 '나를 위해'라는 문구를 넣는 표현 방법이 선택되었다.

싱왕 방언에서 -m bak- 구문이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82) bii əmun kakara ǰaʊ-m bak-čii.
I one chicken catch-CVB get-PST.1SG
내가 닭을 한 마리 잡았다.

(83) mərgən taʊl-u ǰaʊ-čaa. /ǰaʊ-m bak-čaa.
hunter rabbit-ACC catch-PST /catch-CVB get-PST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

(84) manda-m bakčaa.
hit-CVB get-PST
명중했습니다. (총을 쏘고 나서 한 말)

(85) ii manda-m bak-čaa? [k~x]
what shoot/hit-CVB get-PST
무엇을 (쏘아서) 잡아왔습니까? (사냥대가 돌아오자 한 말)

(86) manda-r ling-ma-n(i) dɔɔllə-/dɔɔldə-m bak-čii.
hit-PTCP.NPST bell(铃)-ACC-3POSS hear-CVB get-PST.1SG
(나는) 종소리를 들었다. (치는 종을 들었다)

(87) bii muu-d ǰagsə-i ičі-m bak-čii.
I water-DATL fish-INACC look-CVB get-PST.1SG
나는 강에서 물고기를 보았다.

위의 예들 역시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의미보다는 -m bak-에 선행하는 동사를 행하여 어떤 결과물 혹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총을 쏘아 명중시키거나 사냥물을 잡은 결과가 행위자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위자가 수혜자가 되는 상황이 많기는 하지만, (86)과 (87)과 같이 '보다, 듣다'와 같은 동사와 사용될 때를 보면 딱히 '나를 위해서' 보고 들었다기 보다는 역시 '보아 냈다, 들어 냈다'와 같이 어떤 행동의 결과를 얻어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5.2. 의문문 형성

솔론어의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의문 첨사 혹은 의문대명사를 통하여 실현된다. 기본적으로 판정의문문의 경우 문장 끝에 의문첨사를 붙여서 의문문으로 만든다. 싱왕 방언에서 의문첨사는 대부분 jə로 나타난다.

(88) tar səbə=jə?
he teacher=Q
그는 선생님이시니?

(89) sin-əŋ mɔrin-si/či bisi-n=jə?
you.SG-GEN horse-2SG.POSS be-3=Q
너의 말이 있느냐?

(90) sii damgə~a im-ni=jə?
you.SG tobacco smoke-2SG=Q
너는 담배를 피우냐?

다음과 같이 앞에 오는 동사 어간과 어미가 [+RTR]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jə가 나타난다.

(91) manda-m bak-čaa=jə?
hit-CVB get-PST=Q

또한 의문첨사는 의문대명사와는 함께 사용되지 않으며, 설명의문문의 경우 의문대명사만으로 의문문이 된다.

(92) sii ɔɔn ərin-də ələ əm-čəə-si?
you.SG what.kind.of time-DATL here come-PST-2SG
너는 언제 이곳에 왔니?

(93) sii awʊ-si?
you who-2SG.POSS?
너는 누구니?

(94) tar awʊ tari?[21]
he who PART
저 분은 누구니? (그가 누구니?)

(95) ər ail-də/adil-lə adi bɔigɔn bisi-n?
this town-DATL how.much household be.NPST-3
이 마을에는 집이 몇 채 있니?

(96) jəjə[jə:jə], sii ilə-k əm-čəə-si?
grandfather you where-ABL come-PST-2SG
할아버지는 어디서 오셨어요?

또 싱왕 방언 자료에는 의문첨사 jə 외에 다음과 같이 ku가 나타난 예도 있었으며, 의문문의 문말에 어기사와 의문 첨사 gu가 결합한 것으로 보이는 예도 나타났다(4.8 jimə=gu 참조).

(97) sii tiinu ǰiga aačin bidəŋ-si=ku/bidəŋi-si=ku?
you.SG yesterday money none be.PST-2SG=Q?
너는 어제 돈이 없었느냐?

호이 방언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문첨사 gii[22]가 사용된다.

---

21) 호이 방언에서도 '(저 사람이) 누구냐' 혹은 '(이것이) 무엇이냐'와 같은 의문문 말미에 taari가 나타나는데, 그 기능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잠정적으로 문말 어기첨사로 분석한다. <간지:109>에서는 어기를 강조하기 위해 어기사를 연이어 쓸 수 있다는 예로 다음 문장을 제시하였는데, təərĭ의 뜻에 대해서는 따로 주석을 달지 않았지만 같은 것이 의문사가 사용된 수사 의문문의 문말에 쓰인 예로 보인다.
innəgən nandaxanxɔtɔn jəmə təərĭ!
哪样的 美丽 城市
多么美的城市啊!(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가!) [호이] - <간지:109>

22) 자료에 따라 단모음 -gi(칼리나(2019b) 등)로 나타나기도 한다. guu도 마찬가지이다.

(98) eri üxür aya-gii?
this ox good-Q
Is this ox good?

(99) eri bitig sin-ii-gii?
this book you-GEN-Q
Is this book yours? [호이] - Tsumagari (2009:14)

호이 방언의 의문첨사에는 -guu/gʊʊ도 있다.[23)]

(100) bii buumu(<i)guu? əʃimu(<i)guu?
我 给 好呢 不
我给好呢? 还是不给好呢? [호이] - <간지:109>
(내가 줄까? 말까?)

<간지:109>에 의하면 -guu는 동사 어간말 모음을 동화시킨다. 위의 예에서는 1인칭단수 비과거 어미 -mi가 guu와 결합하며 buu-mi[mu]=guu, əsi-mi[mu]=guu가 되었다.

사마지에 방언의 경우, 성백인 외(2010:171)에 따르면 의문표지 -ji와 -wʊ/wu(-n 다음에는 -gu/gʊ)가 나타난다.

(101) si əsi bitigi isi-ndi-ji?
you now book see-PRES.2SG-Q
당신은 지금 책을 읽느냐?

---

23) <간지:109>에 의하면 명사류 뒤에는 gii가, 동사 뒤에는 guu가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Tsumagari (2009:14)에서는 의문 첨사로 -gii만 제시하였고, 칼리나(2019b) 등의 예문에도 일반적으로 -gi가 사용되므로 gii와 guu의 사용은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2) miti　　əsi　　bitig　　isi-tti-wu?
we.INCL　now　book　see-1PL-Q
우리가 지금 책을 읽을까?

(103) sini　ǰuu-d　　iinə-m　　ɔɔ-dɔn-gʊ?
your　house-DATL　enter-CVB　become-PRES-Q
당신의 집에 들어가도 되느냐?

여기 제시된 예만 가지고 호이 및 싱왕 방언을 참고하여 생각해 보면, 사마지에 방언의 -wu(-n 다음에 -gu)는 기본형이 -gu이며 isi-tti-wu는 모음 사이의 환경에서 g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5.3. 부정문 형성

싱왕 방언 자료에서는 일반적인 솔론어의 부정문 구성과 다른 독특한 부정문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솔론어에서 일반적으로 동사 부정문은 다음의 예들에서 보이듯이 부정을 받는 동사의 앞에 부정표지가 위치하며, 시제와 인칭표지는 여기에 결합한다. 아래에 Tsumagari (2009) 의 기술과 예문을 그대로 옮긴다.

(104) Negation is primarily expressed by the negative verb e- 'do not' with the participle form -ra of negated verb: - Tsumagari (2009:13)

(105) bii　emün　naan　e-si-m　　saa-ra.
I　one　yet　not-PRES-1SG　know-INF
'I don't understand anyting.'　　[호이] - Tsumagari (2009:13)

(106) tari beye e-see nini-re.
that man not-PST go-INF
'He didn't go.' [호이] - Tsumagari (2009:13)

이와 같은 일반적인 솔론어의 부정문 구성에서 ə-는 온전히 부정동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싱왕 방언에서도 다음과 같은 예가 나타난다.[24)]

(107) bii tiinu *xuetang*[n]-d[n] ədəm gənə-rə.
I yesterday school-DATL NEG.PST.1SG go-INF
나는 어제 학교에 가지 않았다. (a)

그런데 싱왕 방언 자료에서는 아래와 같이 -si 등의 인칭표지가 앞이 아니라 뒤에 위치한 부정을 받는 동사에 결합하는 유형의 부정문의 예도 빈번히 나타난다. 아래의 (108)은 바로 위의 (107)과 같은 의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 뜻을 두 가지 형식의 부정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25)]

(108) bii tiinu *xuetang*[n]-d[n] ədəŋ gən-r-i/gən-n-i
I yesterday school-DATL NEG.PST go-INF-1SG
나는 어제 학교에 가지 않았다. (b)

(109) sii tiinu *xuetang*[n]-d[n] ədəŋ gən-n(<r)-si=jə?
you.SG yesterday school-DATL NEG.PST go-INF-2SG=Q
너는 어제 학교에 가지 않았느냐?

---

24) 싱왕 방언에서 bisiŋ과 부정을 나타내는 əsən의 과거형은 각각 bidəŋ~bidəŋi와 ədəŋ~ədəŋi로 나타난다.

25) (a)는 원래 질문 항목이 "나는 어제 학교에 갈 수 없었다."였지만, 자료제공인은 (b)와 완전히 같은 뜻으로 답한 것으로 보인다.

(110) tar tiinu *xuetang*[n]-d[n] ədəŋ gən-nə.
he yesterday school-DATL NEG.PST go-INF
그는 어제 학교에 가지 않았다.

(111) ər inig bii *xuetang*-n/də əsən gən-n-i.
this day I school-DATL NEG go-INF-1SG
나는 오늘 학교에 가지 않는다.

(112) ər inig sii *xuetang*-n/də əsən gən-n-si=jə?
this day you.SG school-DATL NEG go-INF-2SG=Q
너는 오늘 학교에 가지 않느냐?

(113) tar ərinig *xuetang*-n əsən gən-nə.
he today school-DATL NEG go-INF
그는 오늘 학교에 가지 않는다.

위의 예들에서 2인칭표지 -si와 같은 자리에 1인칭 주어 문장들에서는 -ji가 나타났고, 3인칭 주어 문장들에는 겉으로 드러난 인칭표지가 보이지 않는다. 1인칭 과거 부정표지에 결합할 때에는 정동사 어미 -m(i)이 결합했던 것과 달리 -r(a) 뒤의 이 위치에는 형동사에 결합하는 -ji, -si, -ø가 나타나는 것이다.

능력을 나타내는 보조동사 ətə-의 부정문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아래의 두 예는 각각 인칭표지가 문말에 붙은 것과 부정표지에 붙은 것의 예이다.

(114) bii əsi *xuetang*-d-i gənə-m əsən ətə-r-i.
I now school-DATL-REFL go-CVB NEG able-INF-1SG
나는 지금 학교에 갈 수 없다.

(115) sii　　əsi　　*xuetang*-d-i　　gənə-m　　əǰəə-si　　ətə-rə.
you.SG　now　school-DATL-REFL　go-CVB　NEG.FUT-2SG　able-INF
너는 지금 학교에 갈 수 없다.

이렇게 -rə의 뒤에 인칭표지가 붙는 형식의 부정문은 부정표지에 인칭표지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만 -rə 뒤에 나타나고, 같은 위치에 주어에 따라 다른 인칭표지가 나타나는 분명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26] 한두 예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지를 통틀어 여러 번 나타났다. 또 주 자료제공인만이 아니라 다른 자료제공인에게 조사한 보조 자료 및 다른 방언 자료에서도 이와 같이 부정표지가 아니라 -rə의 뒤에 인칭표지가 붙는 예들이 나타나므로, 이는 확실히 주 자료제공인의 개인방언이 아니라 이 지역 방언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116) a. bii　　əsən　　im-re. (im-r(a)-i 또는 im-ra-i)[27]
I　　NEG　　smoke-INF-1SG　[싱왕]

b. əsən　imə-ru-wi.
NEG　smoke-INF-1SG　　[둘라르]
(담배를) 안 피웁니다.

(117) ɔɔn　　wədə-m　　əčə　　baxa-r-si?
what.kind.of　shoot-CVB　NEG　get-INF-2SG
어디를 겨누어서/쏘아서 못잡았느냐? [둘라르]

---

26)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부정문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조사 자료를 통틀어 보았을 때 인칭표지가 누락되거나 주어와 일치되지 않는 등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예외이다.

27) 6~7회 발음했는데, 중간에 한 번 imrə라고 발화했다가 바로 imre로 수정하였다. 둘라르 방언의 예와 똑같은 구성인 -r(a)와 1인칭의 -ji가 합쳐진 것이다.

(118) a.dakim　　əčə[28]　　imə-r-si=jə?
　　again　　NEG.PST　　drink-INF-2SG=Q
　　더 마시지 않습니까?　　[둘라르]

　　b. dakim　　əčə　　imə-r-wi.
　　again　　NEG.PST　　drink-INF-1SG
　　더 안 마십니다. / 不喝了。　　[둘라르]

위의 예들을 보면 둘라르 방언에서도 과거 부정표지가 əčə로 나타난다는 점만 다르고 싱왕 방언에서와 같은 위치에서 1인칭 및 2인칭표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부정 형식은 같은 지역에서 사용되는 몽골어 계통 언어인 니얼지 다고르어의 동사 부정문(미완료부정형)에서도 비슷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119) bii un　　uǰi-ən-məj
　　I　NEG　　look-IMPF-1SG
　　나는 안 본다.　　[니얼지 다고르] - 성백인 외(2010:113)[29]

나나이어의 전형적인 부정문은 부정 어미로 실현된다.

(120) ňoani　　əiniə　　ǰi-dəsi.
　　(s)he　　today　　come-NEG.PRS

---

28) '(이제) 더 마시지 않겠습니다'의 중국어 질문(不喝了。)에도 보통 과거를 나타내는 데에 쓰이는 了가 들어간다. 필자가 만난 난툰 지역의 어웡키인이 '나 간다(가겠다).'의 의미로 bii ul-čuu. [I go-PST.1SG]라고 과거표지를 사용하여 발화한 적이 있는데, 비슷한 용법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솔론어 표현 자체가 중국어 표현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다.

29) 이 다고르어의 자료제공인은 넌강의 지류인 너모르 출신 다고르인이다.

오늘 그(녀)는 오지 않는다.[30] [나나이어] - 風間伸次郎(2018a:251)

그런데 나나이어에서도 전형적인 형식의 부정형 외에 한 가지 더 부정형이 나타나는데, 부정을 받는 동사의 앞에 오는 부정 부사 əčiə를 사용하여 부정문을 만드는 것이 있다.[31] 해당 언어의 전형적인 부정문 구성과 달리 단순히 부정표지가 앞에 오고 인칭표지는 부정을 받는 동사 뒤에 붙는다는 점에서 싱왕 방언의 부정문과 비슷하다. 나이힌 나나이어의 예이다.

(121) uidə əcjə ji-də-ni.
nobody NEG come-PRS-3SG
Nobody has come. [나나이어] - Ko & Yurn (2011:42)

(122) mi turgun-dulə-i-wə swə əcjə də sjaraso.
I reason-PROL-1SG-OCM[32] you not either eat
Did you have to wait to eat because of me?
[나나이어] - Ko & Yurn (2011:36)

같은 나이힌 방언을 다룬 風間伸次郎(2018a)에서도 이러한 부정문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아마도 몽골어의 영향으로 나나이어에서 일반적으로 부정을 나타내는 요소가 동사어간의 뒤에 위치하게 되었을 것이며, 나나이어의 일부 부정문의 동사 어간 앞에 나타나는 분석할 수 없는 첨사(小詞) əčiə는 부정동사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 같은 요소라고 언급하였다. 아래는 風間伸次郎(2018a)에서 그대로 옮긴 예이다.

---

30) 원문의 일본어를 직접 한국어로 번역하여 옮겼다.
31) 이 경우 대부분 과거형의 문장에 고정되어 나타난다.
32) oblique case marker

(123) student-sal-dola ui=dəə əčiə uchastvova-la-xa-či.
student-PL-LOC who=CUM NEG.PART join-VBLZ-PTCP.PERF-3PL
全ての学生が参加しなかった／学生は全員参加しなかった.
모든 학생이 참가하지 않았다/학생은 전원 참가하지 않았다.
* LOC=locative, CUM=cumulative, PERF=perfective
[나나이어] - 風間伸次郎(2018a:252)

단순히 부정표지가 앞에 오고 인칭표지는 부정을 받는 동사 뒤에 붙는다는 위치만을 보았을 때는 위에서 본 솔론어의 예와 비슷한데, 나나이어 예에서의 부정표지는 과거일 때만 고정된 형태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싱왕 방언의 그것보다는 조금 더 부사적인 것에 가까워 보인다. 유원수(1991)에서는 만주퉁구스어와 몽골어 방언들을 포함한 여러 언어들의 부정소의 위치에 주목하면서 '동사 전 부정'을 하는것이 '동사 후 부정'을 하는 것보다 더 이른 시기의 부정법의 형태였으며 동사의 부정소가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문법 기능소화(Grammaticalization)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았다.

부정표지 동사>부정표지 조동사>부정표지 부사>부정표지 어미

김주원(2020)에서는 39개의 알타이 언어 조사 자료들에서 뽑은 부정형 문장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124) [1유형] 부정 동사 ə-si-인칭어미 + 어간-ra
어원어, 어웡키어, 네기달어, 솔론어, 우디허어, 오로챈어, 윌타어
[2유형] 어간-부정 접사-인칭어미
나나이어, 울치어
[3유형] 어간-ra, -ha + akū
만주어 구어, 시버어

이에 의하면 전형적인 솔론어의 부정문은 1유형이다. (əsi-m saa-ra./NEG-1SG know-ra (나는) 모른다.) 그리고 (120)에서 본 전형적인 나나이어 부정문은 2유형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본 싱왕 방언의 예들은 인칭 어미가 부정을 받는 동사 어간보다 뒤에 위치하므로 이 1유형의 전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사 어간과 인칭어미 사이에 부정 접사가 오는 2유형과도 다르다. 원래는 1유형에 속하는 솔론어와 2유형에 속하는 남부 퉁구스 언어인 나나이어에서 나타나는 예외적인 현상이 어떤 퉁구스 언어의 부정문 형식과도 맞지 않고, 전혀 다른 몽골어 계통의 다고르어와 공유하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것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부정표지가 부정 동사에서 부사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이나 그 흔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싱왕 방언에서 두 가지 유형의 부정문이 나타나는 것은 지역언어학이나 유형론적인 면에서도 부정문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sumagari (2009:14)는 금지를 나타내는 əǰi가 ə-의 불규칙 명령형이라고 언급하였다. 싱왕 방언의 금지를 나타내는 문장(125)는 기본적으로 호이 방언의 문장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25) naal-ǰi əǰi təmilə-r.
hand-INS NEG.IMP touch-INF
손 대지 마시오! (손으로 만지지 마시오) / 别用手摸。 [싱왕]

(126) e-ji soŋo-ro
not-IMP.2SG cry-PRES
'Don't cry' [호이] - Tsumagari (2009:14)

명사류의 부정에 사용되는 aačin '없다', untu[33] '아니다' 역시 적어도

33) 호이 방언의 경우 자료에 따라 /onto/(<간지>, Tsumagari (2009) 등), /untə/(칼리나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에 있어서는 호이 방언과 큰 차이가 없다.

(127) bait-i aačin.
matter-INACC none
괜찮습니다. (일 없습니다.) [싱왕]

(128) baita-ja/-la aasin.
matter-INAC/-ABES no (ABES: abessive)[34]
'No problems.' [호이] - Tsumagari (2009:14)

(129) tar uduu bəi untu.
he big person NEG
그는 어른이 아니다. [싱왕]

(130) eri min-ii morin öntö.
this me-GEN horse not
'This is not my horse.' [호이] - Tsumagari (2009:13)

싱왕 어웡키어 자료에서는 '아직 -하지 않았다'의 뜻을 가진 문장이 다음의 (415)과 같이 부사 xasi '아직'과 부정문 구성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416, 417)과 같이 형동사 뒤에 unugu~unugə를 사용하여 표현되기도 하였다. 또 (418)과 같이 명사 뒤에 놓여 '-가 아직이다/-가 아직 멀었다'의 뜻으로 사용된 예도 있었다.

(415) xasi(<*xaishi*) ədə(ŋ) əmgi-rə.
yet(还是) NEG.PST come.back-INF

(2019b) 등) 등 모음이 다르게 나타난다. 물론 표기 역시 각각의 표기체계에 따라 다르게 전사되어 있다. 사마지에 방언은 성백인 외(2010:169)에 untə로 전사되어 있다.

34) aasin이 untu와 같이 사용된 예 및 aasin 대신 사용된 -la에 대해서는 Tsumagari (2009:13) 참조.

아직 안 돌아 왔습니다.

(416) *hai* ǰiptə-r unugu.
yet(还) eat-NPST.PTCP not.yet
아직 안 먹었습니다.

(417) xasi(<*haishi*) ʊgča-r unugu.
yet(还是) share-PTCP.NPST not.yet
아직 (고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418) tərgən kai-lə-r ərin {xai} unugə.
train star(开)t-PTCP.NPST time {yet} not.yet
기차가 출발하려면 아직 멀었지요?
(차가 출발할 때는 아직이다/아직 멀었다.)

그런데 Tsumagari (2009:14)에 나타난 호이 방언 unugə의 예에서는 이것이 싱왕 방언의 예들과 달리 부정을 받는 동사 앞에 위치하고 있다.[35)]

(419) **ünege** eme-re.
not.yet come-PRES
(He) has not come yet. [호이] - <간지:90>/Tsumagari (2009:14)

5.4. 인칭 불일치 현상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솔론어에는 7개의 인칭 대명사가 있고 1인칭 복수 포함형/배제형을 구분하며, 솔론어의 서술어에는 원칙적으로 주어

35) Tsumagari (2009:14)에서는 이것을 부정 부사(negative adverb)로 보았다.

에 상응하는 인칭표지가 반드시 결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 자료에서는 인칭이 맞지 않는 경우가 나타났다.

싱왕 방언의 예를 보면 꼭 주어의 인칭과 똑같이 나타나는 경우만 있는 것만은 아니고, 다음과 같이 의미상 행동의 주체에 일치하는 인칭표지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131) a. bii guči-ǰi əmundə xuetang-də *xuexi*-lə-m (bi)si-m.
I friend-INS together school-DATL study-VBLZ-CVB be-NPST.1SG
나는 친구와 함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b. bii guči-ǰi əmundə xuetan-d bitəg-i tuurəə-čəə-mun.
I friend-INS together school-DATL book-INACC read-PST-1PL.EXCL
나는 친구와 함께 학교에서 책을 읽었다.

(132) bii nukun-ji ǰuur-ji əmundə ǰuu ɔɔ-čɔɔ[ɣəə]-mun.
I younger.brother-INS two-INS together house make-PST-1PL.EXCL
나는 동생과 둘이서 함께 집을 지었다.

위 (131)의 a는 문장의 주어인 1인칭 단수와 일치하는 1인칭 단수 비과거 어미가 나타났고, b에는 1인칭 복수 배제형 어미를 써서 대답했는데, 이 경우 문장의 표면상 주어는 1인칭 단수이지만 내용상 공부를 한 것은 나와 친구가 함께 한 행위이므로 1인칭 복수 어미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132)의 경우도 (131b)의 경우와 같다.

그런데 싱왕 방언 자료에는 주어와 인칭어미가 의미상으로 상응한다고 볼 수 없는 예들도 많이 나타났다. 기대되는 대답과 다른 인칭표지가 나타난 예들 중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문장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황상 다른 인칭으로 답했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의 인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주어가 생략된 문장에서 정황상 특정 인칭으로 대답해야 하는데 기대와 다른 인칭으로 답한 경우의 예를 들면 다음의 경우와 같다.

(133) a. iləə gən-ni?
where go-NPST.2SG
어디로 갑니까?

b. *Məhə*-d[36] gən-nən.
Məhə-DATL go-NPST.3
너허로 갑니다.

(134) a. dekəm[37] bakalda-gare.
next.time meet-HORT

b. dekəm bakaldi-ran.
next.time meet-NPST.3
안녕히 계세요/가세요! (또 만납시다)

(133)의 경우는 2인칭 단수에게 묻는 a와 그에 대한 답인 b를 발화한 것이므로 b는 1인칭 주어로 답해야 하는데 3인칭으로 응답했다. (134)도 마찬가지로 인사말이므로 a와 같이 청유형으로 대답하거나 bakaldi-daa-lʊ와 같이 1인칭 복수(포함)에 대한 미래명령형을 써서 대답하는 것이 보통인데, b는 3인칭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예들은 동사에 결합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칭표지가 정확하게 쓰이지 않았지만, 문장에 주어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문장 자체만을 보면 비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예만

36) 지명 '너허'로 질문한 것을 '머허'로 잘못 알아듣고 답하였다.
37) <어한사전>에 daxin으로 나타난다. 어말 자음이 다른데 호이 방언의 '약' əən도 싱왕 방언에서는 əəm으로 나타난다.

으로는 이 언어에서 인칭표지 체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있다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실제로 응답한 사람이 질문지에서 상정한 상황을 오해하거나 몰입하지 못한 결과로 화자를 객관화하여 일반적인 3인칭으로 대답한 것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38] 또 중국어의 吧가 명령형과 청유형에 모두 쓰이기 때문에 질문 의도를 다르게 해석하여 1인칭과 2인칭이 바뀌어 나타나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예들을 제외하고 문장에 드러난 주어가 문말의 인칭표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을 살펴보겠다. 주로 어떤 주어이든 어미는 3인칭으로 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135) bii əsi jəŋ juud-i bi-ji-rən.
I now just house-REFL be-PROG-NPST.3
나는 지금 집에 있다. (1인칭 단수 → 3인칭 [비과거])

(136) bii sɔktɔɔ-čii. / bii sɔktɔɔ-čɔɔ.
I get.drunk-PST.1SG / I get.drunk-PST
나는 취했습니다. (1인칭 단수 → 3인칭 [과거])

(137) buu sun-du jisigan buu-jəə-mun / buu-rən.
we.EXCL you.PL-DATL letter give-FUT-1PL.EXCL / give-NPST.3
우리는 너희에게 편지를 보낼 것이다. (1인칭 복수(배제) → 3인칭[비과거])

(138) buu ta-dɔki əmun bitəg bak-čaa-mɔn / bakčaa.
we.EXCL he-ABL one book get-PST-1PL.EXCL

38) 실제 상황에서의 자유발화가 아니라 질문지에 있는 문장을 읽고 모어로 번역해 달라고 하는 방식의 조사에서는 이와 같이 종종 질문 의도와 다른 답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질문자가 '나는 기쁘다'와 같은 문장을 읽으면 자료제공인은 그대로 '나는 기쁘다'를 자신의 언어로 번역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를 보고 '너는 기쁘다'로 대답을 한다거나, 단순히 문법 현상을 보기 위하여 만든 예문의 명제가 자신이 알고 있는 실제 사실에 위배되는 경우에 틀린 말이라며 대답하지 않거나 말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그에게서 책을 하나 받았다. (1인칭 복수(배제) → 3인칭 [과거])

(139) suu mun-dukiəmun bitəg bak-čaa./bak-čaa-su.
you.PL we.EXCL-ABL one book get-PST/get-PST-2PL
너희는 우리에게서 책 한 권을 받았다. (2인칭 복수 → 3인칭[과거])

위의 예들 중 첫 번째 (135)를 제외하고는 인칭표지가 일치하는 답과 일치하지 않는 답이 같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나의 질문에 대해 2회 이상 말하거나 비슷한 문형의 질문에 반복적으로 대답하면서 인칭표지가 일치하는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를 섞어서 대답하는 경우도 많았다.[39] 또 마지막 (139)는 먼저 bakčaa로 대답하였으나 bak-čaa-sʊ?라고 되물어서 유도하자 맞다고 하면서 다시 대답해 준 것인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이에 대해 질문하면 둘 다 괜찮다거나 차이가 없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인칭만이 아니라 시제 등 다른 문법 요소에 대해서도 막상 질문을 하면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 형태도 맞다고 대답하거나 일치하는 형태와 차이가 없이 똑같다, 모두 가능다고 이야기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직접 말할 때에는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 인칭과 시제 등을 자연스럽게 일치시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아도 몇몇 예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는 인칭 어미들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질문지 조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연발화의 경우보다 불일치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평소에 생각나는 대로 말할 때에는 의식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인칭 어미들을 구분해서 사용하다가도, 주어진 문장을 기억해서 번역하고 실제 상황이 아닌 상황을 상상하며 말을 해야 하다 보니 여러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3인칭

39) 이때 3인칭으로 말했다가 주어에 일치하는 인칭어미를 사용하여 다시 말한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136)에서 1인칭 어미로 1회 대답한 후 3인칭으로 고쳐서 여러 번 추가로 발화하였다.

어미로 말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런 경우 인칭 불일치 현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청유, 의문, 명령, 또는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을 질문했음에도 해당 어미나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직설법 3인칭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

(140) buu mərin ɔg-na gən-nən.
we.EXCL horse ride-CVB go-NPST.3
질문: 우리 말을 타고 갑시다. / 我们骑马去吧。

(141) a. ikt-ji swas[d]-daa-ran.
teeth-REFL brush-VBLZ-NPST.3
질문: 양치질하세요!

b. tullə tərəgsə-i bərii-kə./bərii-rən.
outside clothes-INACC take.off-IMP/take.off-NPST.3
질문: 겉옷을 벗으세요!

(142) sin-du ɔɔn im-r ǰaka-i/ǰaka buu-rən?
you.SG-DATL what.kind.of drink-PTCP.NPST thing-INACC give-NPST.3
질문: 당신에게 뭔가 마실 것을 드릴까요?

(143) ər inig ər ull-u/uld-u bələgə ǰi-m man-nan.
this day this meat-ACC all eat-CVB finish-NPST.3
질문: 오늘 안에 이 고기를 다 먹어치워야 한다.[40)]

이러한 인칭의 불일치 현상은 싱왕 방언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Li (2005:60-65)에서는 오로챈어의 인칭어미 체계가 60대 이상에서는 엄격히 지켜지지만, 젊은 세대에서 약화되어간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은 71

40) 4.3. 각주(71) 참조.

세 화자가 오로챈어 인칭대명사를 바꾸어 가며 7가지로 말한 것이라고 한다.

(144) a. biː dʒanda-m
I sing-NFUT.1SG
'I am singing.'

b. ʃiː dʒanda-ni
you.SG sing-NFUT.2SG
'you are singing'

c. nɔnin dʒanda-rə-n
he sing-NFUT.3SG
'He is singing.'

d. bu dʒanda-rə-w
we.EXCL sing-NFUT-1PL.EXCL
'We are singing'

e. miti dʒanda-rap
we.INCL sing-NFUT.1PL.INCL
'We are singing'

f. su dʒanda-ra-y
you.PL sing-NFUT-2PL
'You are singing.'

g. nɔntin dʒanda-ra
they sing-NFUT.3PL
'They are singing' [오로챈어] - Li (2005:65-66)

이와 대조적으로 1997년 조사[41] 당시 40대에서 50대 후반이었던 화자들은 간혹 1인칭 단수 혹은 복수 배제형 어미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을 빼고는 기본적으로 3인칭 단수로 대답했다. agreement marker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묻자 화자가 설명하기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있는 쪽을 선호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장황하다고 대답했다고 한다.[42] 다음은 44세 여성 화자가 말한 문장이다.

(145) a. biː dʒanda-rə-n
I sing-NFUT-3SG
'I am singing.'

b. ʃiː dʒanda-rə-n
you sing-NFUT-3SG
'you are singing'

c. nɔnin dʒanda-rə-n
he sing-NFUT-3SG
'He is singing.'

d. buː dʒanda-rə-n/dʒanda-rə-wun
we sing-NFUT-3SG/sing-NFUT-1PL
'We are singing'

---

41) Li (2005:57)에 의하면 Lindsay J. Whaley와 Fengxiang Li는 9년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42) Li(2005:62)는 이 대답이 가리키는 바는 화자가 모어의 문법체계를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 이러한 (새로운) 체계를 사용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e. biti dʒanda-rə-n
we.INCL sing-NFUT-3SG
'We are singing'

f. ʃuː dʒanda-rə-n
you.PL sing-NFUT-3SG
'You are singing.'

g. tari-l dʒanda-rə-n
they sing-NFUT-3SG
'They are singing' [오로첸어] - Li (2005:61-62)

오로첸어에서는 싱왕 방언에서보다 인칭어미 체계가 더 많이 단순화되었지만, 주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3인칭 단수 어미가 선택된다는 점에서는 싱왕 방언의 현상과 비슷하다.

李林静(2006:66, 72)에서는 허전어의 동사 인칭어미에서 복수형이 퇴화하고 있으며, 주어가 복수형일 때 격표지나 인칭표지가 탈락하는 일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6. 결론

이 논문은 중국 흑룡강성의 싱왕 어웡키족향(興旺鄂溫克族鄉)에서 사용되는 솔론어 싱왕 방언의 특징을 다른 방언들과의 비교 대조를 통하여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와 한국 알타이학회를 중심으로 한 현지 조사팀이 2009년에 조사한 싱왕 방언 자료를 직접 전사하여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사라져 가는 소수 언어를 보존한 자료이며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욱 자료가 드문 방언에 대해 양질의 기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귀한 자료이나, 조사 후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분석과 기술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논문에서 최초로 시도한 것이다. 비교대조를 위한 호이 방언, 사마지에 방언, 둘라르 방언 자료는 기존 출판된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는데,[1] 선행연구들마다 음운체계와 전사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주로 인용한 선행연구의 표기 대조표를 1.3장 말미에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각 방언이 사용되는 지역과 그 방언 화자들이 현재의 생활 지역에 흩어져 정주하게 된 역사적 배경, 언어 사용 상황 등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솔론어의 방언 중에서 호이 방언을 제외한 사마지에, 둘라르, 싱왕 방언의 사용지역은 모두 넌강(嫩江)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은 헤이룽강 이북 지역에서 러시아의 압박을 피하여 17세기 중반에 넌강 유역으로 이주해 오게 된 이들의 후손이다. 호이 어웡키인들과 사마지에 어웡키인들은 그 후 다시 지금의 거주 지역으로 이동하여 살게 되었다.

3장에서는 싱왕 방언의 음운체계와 특징적인 음운현상을 살펴보았다. 모음 o는 발생 빈도가 매우 낮으며, 싱왕 방언에서는 u로 변한 예들이

---

1) 이 논문에서 이용한 사마지에 방언과 둘라르 방언에 대한 선행연구 역시 위에서 언급한 현지조사팀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많이 보였다. ʊ는 일부 환경에서 wa로 변하거나 많은 경우 ɔ로 변했다. 이것들은 다고르어가 겪었거나 겪고 있는 합류 현상과도 유사한 것이다.

음운 현상에 있어서 자음과 관련된 것으로는 k>x, č>s, 어중 자음군의 자음 동화를 살펴보았는데, 대체로 싱왕 방언이 가장 고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모음에 있어서는 싱왕 방언이 변화를 겪은 것이 더 눈에 띄었다. 싱왕 방언은 제2음절의 모음이 약화되는 현상과 모음조화의 약화가 두드러지는데, 이것이 일부 이형태 목록의 간략화와 단일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다고르어의 독특한 현상인 ʊ의 꺾임(breaking of *u) 현상과 유사한 현상이 싱왕 방언과 둘라르 방언에서만 나타났다.

4장에서는 싱왕 방언의 형태론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속격표지 -ŋ나 방향 관련 격표지, 인칭어미 -rti 등 싱왕 방언의 일부 문법 요소의 형태나 체계는 다른 방언에 비해 어웡키어와 더 가까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격표지나 인칭표지 등의 출현 조건이나 제약이 흐려져 문법이 다소 단순화한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5장에서는 통사적으로 상과 양태를 표현하는 보조동사 구문과 문장 형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았으며, 특이 현상인 인칭 불일치 현상과 독특한 부정문 구성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솔론어의 보조동사 구문의 발달이나 싱왕 방언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부정문 구성 역시 언어 접촉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상의 관찰과 분석을 통해서 싱왕 방언이 다른 방언과 다른 독특한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방언임을 밝혔으며, 가능한 그러한 차이점이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밝히려고 노력했다. 그 중 일부는 어웡키어나 오로챈어에서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어 싱왕 방언의 문법 형태나 현상이 더 고형의 것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는 것임을 밝혔으며, 일부는 소수 언어들이 겪는 문법 쇠퇴의 과정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그 외에도 싱왕 방언의 특징 중에는 동계어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다른 계

통의 언어인 한어나 몽골어 등을 닮거나 직접적으로 차용한 요소들도 많이 나타났다. 특히 다고르어의 특징적인 현상과 유사한 여러 현상이 음운, 형태, 통사 전반에 걸쳐 눈에 띄었다. 2장에서 언급한 이주 과정 및 그 전후로 어웡키인, 다고르인, 오로챈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밀접하게 접촉해 왔으며, Li (2005:69)에 따르면 다고르인들이 청대에 소수민족 중에서 사회적으로 우세한 지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소수민족의 언어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한다. 싱왕 방언 역시 지역적으로 가까우며 사회언어학적으로 우세한 언어였던 다고르어와 오랜 기간 접촉하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음운변화나 문법의 단순화 등의 여러 현상이 일어나는 데에는 단순히 언어 접촉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고 언어 내부의 동인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했으므로 이후 연구의 과제로 남겨 둔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솔론어 싱왕 방언의 전사와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하면서 제대로 밝히지 못한 부분과 오류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많으므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목적에서 밝혔듯이 이번의 연구에서는 솔론어 싱왕 방언에 대한 언어학적인 기술을 처음 시도하기는 했지만 이 언어의 완전한 기술 문법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더 총체적인 기술을 목표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성연(2011),「퉁구스어와 몽골어의 모음조화 대조 연구」,『알타이학보』 21, 147-179, 한국알타이학회.

권재일(2001),「어웡키어의 문법범주와 그 실현 방법 －한국어와 대조를 중심으로－」, 『언어학』 28, 27-55, 한국언어학회.

권재일·김주원(2000),「퉁구스어의 음운구조와 문법구조 연구」.『알타이학보』 10, 1-56, 알타이학회.

김방한·김주원·정제문(1986),『몽골어와 퉁구스어』, 서울: 민음사.

김주원(1985),「퉁구스제어의 인칭어미, 김방한 선생 회갑기념논문집 편집위원회(편)」, 『역사언어학』, 277-303, 서울: 전예원.

김주원(1989),『만주퉁구스제어의 모음조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주원(1993),『모음조화의 연구』,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김주원(1996),「만주퉁구스제어의 전설모음의 발달에 대하여」,『알타이학보』 6, 25-35, 한국알타이학회.

김주원(1998),「몽골어와 한국어의 움라우트 대조 연구」,『알타이학보』 8, 121-142, 한국알타이학회.

김주원(1999),「설근후축(RTR)과 설근전진(ATR)」, 성백인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언어의 역사』, 311-341, 서울: 태학사.

김주원(2010),「내일이면 늦으리」,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SUN 소식(최종 접속일 2010.5.10), https://snu.ac.kr/snunow/snu_story?bm=v&bbsidx=75851&.

김주원(2020), 알타이형 언어 도큐멘테이션(Documentaion) 자료에 대한 역사언어학적 연구, (사) 한국언어학회 2020 겨울학술대회 발표자료.

김주원·고동호(2004),「어웡키어의 자음동화 현상 연구」.『언어학』 38,

67-88,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김주원·권재일·고동호·김윤신·전순환(2008), 『사라져 가는 알타이 언어를 찾아서』(2판), 파주: 태학사.
박상철(2017), 『만주어 문어 시제와 양상 연구 – <滿文老檔>의 용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진호(2011),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289-322, 국어학회.
백상엽(2016), 「지역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퉁구스어족의 부동사어미 *-mi와 *-rAki-」, 『민족문화연구』 73, 31-5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성백인·김주원·고동호·권재일(2010), 『중국의 다구르어와 어웡키어의 문법·어휘 연구』, 서울: 아카넷.
유원수(1991), 「몽골어 동사류의 부정」, 『동방학지』 73. 337-36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장경희(2018), 「관형사형 어미에 따른 한국어 추측 표현 {-을 것 같다}의 중국어 대응표현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9, 219-244, 한중인문학회.
칼리나(2015), 「어웡키어의 시제와 상」, 『언어유형론연구』 2, 77-103, 한국언어유형론학회.
칼리나(2019a), 「솔론 어웡키어의 명사 인칭법」, 『언어학』 83, 27-47,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칼리나(卡麗娜)(2019b), 『한국어와 어웡키어의 격과 인칭 대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칼리나(卡麗娜)(2021), 『한국어와 어웡키어의 격과 인칭』, 성남:신구문화사.
金周源(2021), 「韓国のアルタイ諸語研究の現状と展望. ―満洲ツングース諸語研究を中心に―」『北方言語研究』11, 1-15, 日本北方言語学会.
娜佳(2015), 「论杜拉尔鄂温克语格形态变化现象」, 『满语研究』61, 26-32,

涂吉昌·涂芊玫(編著)(1999),『鄂温克语汉语对照词汇』, 黑龙江省: 黑龙江省鄂温克族研究会, 黑龙江省民族研究所.

杜・道尔基(編著)(1998),『鄂汉词典』, 海拉尔: 内蒙古文化出版社.

恩和巴图(1983),『达汉小词典』,呼和浩特: 内蒙古人民出版社.

李林静(2006), 『ホジェン語の動詞構造』, 千葉大学社会文化科学研究科博士論文.

白尚燁(2016), 地域類型論的観点から見たツングース諸語の定動詞における3人称標示 : 数の対立を中心に,『北方言語研究』6, 53-71, 北海道大学文学研究科.

白尚燁(2018),「地域言語学的観点から見たツングース諸語の補助動詞」,『北方言語研究』8, 59-7, 新潟大学人文学部.

朝克(1995), 『鄂温克语研究』, 北京: 民族出版社.

朝克(2003), 『エウェンキ語形態音韻論および名詞形態論』, 東京外国語大学 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

朝克(2009),『鄂温克语参考文法』,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朝克(2017a), 『鄂温克语动词形态论』,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朝克(2017b), 『鄂温克语名词形态论』,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朝克(採録・著), 津曲敏郎(編)(1995), 『鄂温克語三方言対照基礎語彙集』(ツングース言語文化論集 6), 小樽: 小樽商科大学言語センター.

朝克·中嶋幹起(2005), 『エウェンキ語への招待』, 東京: 大学書林.

朝克·津曲敏郎(1997),『中国ツングース諸語対照基礎語彙集』(ツングース言語文化論集 11), 小樽商科大学言語センター.

朝克·津曲敏郎·風間伸次郎(1991), 『ソロン語基本例文集』, 札幌: 北海道大学文學部.

津曲敏郎(編)(1993), 『朝克著「エウンキ語基礎語彙集」索引』 (ツングース言語文化論集 3), 小樽商科大学言語センター.

風間伸次郎(1996), 「ヘジェン語の系統的位置について」, 『言語研究』 109,

117-139, 日本言語学会.
風間伸次郎(1997), 「ツングース諸語における基礎語彙A(名詞編)」. 『알타이학보』7, 11-62, 한국알타이학회.
風間伸次郎(1998), 「ツングース諸語における基礎語彙A(動詞・形容詞)」, 金子亨(編) 『「北方ユーラシア先住諸民族の言語文化の資料データベース作成とその類型論的研究」研究成果報告書第4分冊』, 45-82, 千葉: 千葉大学.
風間伸次郎(2005), 「ソロン語口語ユーパスとその分析」, 風間伸次郎・川口裕司(編) 『言語情報学研究報告 8 フィールド調査による口語資料の収集及びその分析』, 11-43, 府中：東京外国語大学.
風間伸次郎(2009), 「ツングース諸語の受身」, 『言語研究所論集』 14, 81-96, 東京外国語大学語学研究所.
風間伸次郎(2010), 「ソロン語におけるモンゴル語の影響ー言語接触の一事例としてー」, 寺村政男・福盛貴弘(編) 『言語の研究II ーユーラシア言語からの視座ー』 (言語教育フォーラム 24), 163-183, 東京：大東文化大学語学教育研究所.
風間伸次郎(2013), 「<補遺> ソロン語のアスペクト, ヴォイス, モダリティ」, 『語学研究所論集』 18, 409-425, 東京外国語大学語学研究所.
風間伸次郎(2014), 「<特集 : 他動性> ソロン語」, 『語学研究所論集』 19, 331-340, 東京外国語大学語学研究所.
風間伸次郎(2015), 「<特集：（連用修飾的）複文> ソロン語」, 『語学研究所論集』 20, 215-224, 東京外国語大学語学研究所.
風間伸次郎(2016), 「<特集 : 情報構造と名詞述語文> ソロン語」, 『語学研究所論集』 21, 249-257, 東京外国語大学語学研究所.
風間伸次郎(2018a), 「エウェン語・ソロン語・ナーナイ語 －ツングース諸語における否定と形容詞、連体修飾 -」, 『語学研究所論集』 23, 247-266, 東京外国語大学語学研究所.
風間伸次郎(2018b), 「ソロン語」, 李林静·山越康裕·児倉徳和 編著 『中国北

方危機言語のドキュメンテーション（ベジェン語／シベ語／ソロン語／ダグール語／シネヘン・ブリヤート語）』, 101-159, 東京: 三元社.
風間伸次郎(編訳)(2018c),『ソロンの文化と生活１(A)』(ツングース言語文化論集 64), 東京外国語大学.
風間伸次郎(2021),「アルタイ型言語における「補助動詞」の分布について」,『北方言語研究』11, 123-152, 日本北方言語学会.
風間伸次郎·トヤー(2011), 『ソロン語基礎語彙』 (ツングース言語文化論集 52), 府中:東京外国語大学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
胡增益(1986),『鄂伦春语简志』, 北京: 民族出版社.
胡增益(2001),『鄂伦春语研究』, 北京: 民族出版社.
胡增益·朝克(1986),『鄂温克语简志』, 北京: 民族出版社.
Baek, Sangyub (2017), Grammatical peculiarities of Oroqen Evenki from the perspective of genetic and areal linguistics. *Linguistic Typology of the North* 4, 13-32, ILCAA,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ulatova, N. & L. Grenoble (1999), *Evenki*. München: LINCOM Europa.
Bulatova, Nadezhda (2014), Phonetic correspondences in the languages of the Ewenki of Russia and China. 알타이학보 24, 23-38. 한국알타이학회.
Castrén, M. Alexander (1856), *M. Alexander Castrén's Grundzüge einer tungusischen sprachlehre, nebst kurzem wörterverzeichniss*, St. Petersburg, Buchdr. der Kaiserlichen akademie der wissenchaften.
Culuu, Ujiyediin(Chaolu Wu) (1996), *Daur*, München: Lincom Europa.
Grenoble, Lenore A. (2014), “Spatial semantics, case and relator nouns in Evenki”, *On Diversity and Complexity of Language Spoken in Europe and North and Central Asia*, 109-132, John Bnjamins Publishing Company.
Hale, Ken. et al. (1992), “Endangered Languages”, *Language* 68-1, 1-42,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Ikegami, Jiro (1974), “Versuch einer Klassifikation der tungusischen Sprachen”. Sprache, Geschichte und Kultur der Altaischen Völker, Protokollband der XII. *Tagung der Permanent international Altaische Conference 1969 in Berlin*, 271-272. Berlin Akademie Verlag.

Ivanovskij, Aleksej Osipovič (1894), *Mandjurica Ⅰ : Obrazcy solonskago i daxurskago jazykov* [만주학 Ⅰ: 솔론어와 다고르어의 文例], Sanktpeterburg. (Reprinted in 1982, Budapest:Akademiai Kiado)

Kałuzynski, S. (1971), Solonisches Wörterverzeichnis (nach F. V. Muromskis handschriftlichen Sprachaufzeichnungen). *Rocznik Orientalistyczny* 34-1:39-77, 34-2:15-56. Warszawa.

Kazama, Shinjiro (2003), *Basic Vocabulary (A) of Tungusic Languages* (ELPR Publications Series A2-037), Osaka: Faculty of Informatics, Osaka Gakuin University.

Kazama, Shinjiro (2008), Alienable Possesstion suffixes in Tunguisic languages, *Linguistic Typology of the North* 1, 125-140, ILCAA,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im Juwon (2011), *A grammar of Ewen*, SNU Press.

Ko, Dongho & Gyudong Yurn (2011), *A Description of Naikhin Nanai*, SNU Press.

Ko, Seongyeon (2012), *Tongue root harmony and vowel contrast in northeast asian languages* (Ph.D.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Li, Fengxiang (2005), “Contact, attrition, and structural shift: evidence from Oroqe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173, 55-74, De Gruyter Mouton.

Malchukov, Andrei L. (2995), *Ewen*, Languages of the World/Materials 12, München-Newcastle: Lincom Europa.

Menges, Karl H. (1943) “The function and origin of the Tungus tense in-ra and some related questions of Tungus grammar”, *Language* 19-3, 237-251, Linguisti Soiety of Ameria.

Nedjalkov, Igor V. (1997), *Evenki.* London, New York: Routledge.

Poppe, N. N. (1931), *Materialy po solonskomu jazyku*. Leningrad: AN SSSR.

Poppe, Nicholas. (1965), *Introduction to Altaic Linguistics*. Weisbaden: Otto Harrassowitz.

Ramstedt, G. J. (1976), “Onkor-solonisches Wörterverzeichnis. Bearbeitet und herausgegeben von Pentti Aalto I”, *Rocznik Orientalistyczny* 38, 31-41, Warszawa.

Ramstedt, G. J. (1977), “Onkor-solonisches Wörterverzeichnis. Bearbeitet und herausgegeben von Pentti Aalto II”, *Rocznik Orientalistyczny* 38, 55-84, Warszawa.

Svantesson, Jan-Olof et al. (2005), *The phonology of Mongolian*. Oxford University Press.

Tsumagari, Toshiro (2009), “A Sketch of Solon Grammar”, 『北方人文研究』 2, 1-21, 北海道大学.

Whaley, L., Grenoble, L. and Li, F. (1999), “Revisiting Tungusic classification from the bottom up: A comparison of Evenki and Oroqen,” Language 75(2).

Zhang, Xi. (1996), *Vowel Systems of the Manchu-Tungus Languages of Chin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Abstract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Xingwang Solon

LEE Hyoung Mee

Department of Linguis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dissertation is to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Xingwang Solon by comparing it with other dialects. Xingwang Solon is spoken in Xingwang Ewenki Autonomous Township in Heilongjiang province, China. Solon is called Ewenki or Ewenke (鄂温克) in China, but it is a different language from the Ewenki (Evenki) spoken in Russia. In China, Solon, Tungus, and Yakut, which has been traditionally considered to be three different languages, are treated as dialects of 'Ewenki'. To avoid confusion, the language will be called Solon in this dissertation, with Xingwang, Hui, Dular, and Samajie Solon being its dialects.

The historical backgrounds of the dialects of Solon is briefly introduced in Chapter 2, along with the situation of the Xingwang dialect community. Chapter 3 illustrates phonological characteristics of Xingwang Solon, such as /o/ changed to /u/ in some words and /ʊ/ to /ɔ/ in a majority of words with initial /ʊ/, except where /ʊ/ is changed to /wa/. Under the effect of the reduction of non-initial vowels, vowel harmony is less strict in Xingwang

dialect. Breaking of *ʊ is applied only in Xingwang and Dular dialects. This process, along with the changes of the vowels mentioned above, is similar to that of Dagur. In terms of consonants, unlike vowels, Xingwang dialect better preserves the older form, in that it did not, or at least not as much as other dialects, underwent the changes of /k/>/x/, /č/>/s/, and consonant assimilation.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Xingwang Solon are described in Chapter 4. The form and function of some grammatical morphemes and units, such as case markers, verbal endings and converbs, are not completely identical to those of other dialects and have more similarity with their cognates in Siberian Ewenki. In some cases,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allomorphs and loss of constraint were observed in Xingwang dialect.

Chapter 5 investigates auxiliary verb structures which express aspect and modality. Some issues with an unusual structure of negative sentences and subject-verb disagreement in person and number are also discussed in this chapt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ose auxiliary verbs and unusual negative sentences had been affected by language contact.

Xingwang Solon has many distinctive factors that makes it unique from other dialects of Solon. Among them are some older forms which share similarities with Ewenki (Siberian) or Orochen cognates. Some reflect grammatical attrition that minor languages tend to experience. Some factors have not originated from any of the Tungus languages but are the results of influences from genetically non-related languages, especially Dagur.

keywords : Solon, Ewenki, Heilongjiang, Xingwang, Nehe, dialect, grammar, phonology

***Student Number* : 2007-30725**